

제4판
개정
증보판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바로잡아야 할 것들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하여
HANS-JÖRG RONSDORF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남자들이 바로잡아야 할 것들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하여

Hans-Jörg Ronsdorf

독일어판페이퍼백은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13.80유로(배송료 별도)에 주문할 수 있습니다.

제4판, 개정 증보판, 2023년 7월 (독일어판)

독일어에서 번역, 2026년 -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Hans-Jörg Ronsdorf - 모든 권리 보유.

Albis 6½

87477 Sulzberg

조판: Hans-Jörg Ronsdorf, Papyrus Autor 사용

연락처 이메일: hj-ronsdorf@t-online.de

독일어판 ISBN 978-3-9820715-5-8

표지 디자인: 토비아스 슈트릭커(Tobias Stric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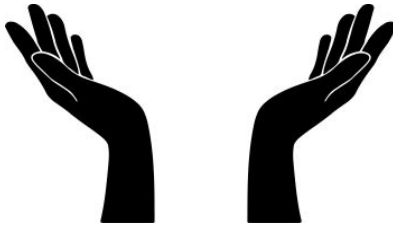
그림: 라우라크리스틴 론스도르프(Laura-Kristin Ronsdorf)

인쇄: www.wir-machen-druck.de

독일어판에서 달리 밝히지 않는 한 사용한 성경 번역본:

엘버펠트 성경(Elberfelder Übersetzung, 독일어 성경 번역본), Edition CSV
Hückeswagen

사랑하는 아내에게,
훌륭한 딸들에게,
존경하는 어머니에게,
할머니들에게,
누이에게,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과
벗들에게,
하와의 모든 딸들,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해 왔고
앞으로도 함께 섬길 이들에게.



차례

1 머리말	10
1.1 제2판 증보판 머리말	12
1.2 제4판 머리말	13
1.3 이 책을 쓰는 사람	14
2 창조와 타락	19
2.1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19
2.1.1 여섯째 날의 일	20
2.1.2 사람: 하나님의 형상 - Imago Dei	21
2.1.3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	22
2.1.4 사람과 하나님의 사명	22
2.1.5 아담과 하와의 창조	24
2.1.6 히브리어 핵심 낱말에 관한 짧은 여담	24
2.1.7 아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25
2.1.8 하와가 지음 받다	28
2.1.9 갈빗대에서	28
2.1.10 여자(Männin)	30
2.1.11 서로를 위한 선물	31
2.2 남자와 여자의 타락	33
2.2.1 하와의 대답	36
2.2.2 하와의 수고, 임신, 예측	37
2.2.3 너는 그를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40
2.3 평등에 대한 반론들	43
2.4 남자와 여자의 차이	46
2.5 창조 질서	49
2.5.1 에덴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51
2.6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 그 역사	52
2.6.1 고대	53
2.6.2 아리스토텔레스	54
2.6.3 소유물로서의 여성	55
2.6.4 가부장제	56
2.6.5 유대 사상 속의 그리스 영향	57
2.6.6 교부들	58
2.6.7 종교개혁	59
2.6.8 세속 여성 인권 운동	61
3 메시아 예수와 여성들	64

3.1 섬기는 여제자들	65
3.2 여자들도 배워야 한다	66
3.3 모두 평등하다	67
3.4 월경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67
3.5 쫓겨났다가 찾아진 여인	68
3.6 간음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69
3.7 허리를 펴고 온전히 서다	70
3.8 이중 잣대는 없다	71
3.9 염치없을 만큼 큰 은혜	71
3.10 십자가: 남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72
3.11 여사도 마리아	73
4 여성의 친구 바울	76
4.1 루디아	77
4.2 뵈뵈	78
4.3 브리스가	79
4.4 유니아	80
4.5 마리아,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버시	81
4.6 유오디아와 순두게	82
4.7 글로에	83
4.8 눔바	83
4.9 젓 먹이는 어머니 바울	85
5 결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87
5.1 고대의 집과 그 규칙	87
5.1.1 신약의 가정 규범	88
5.1.2 그리스도인 가정 규범의 영향	90
5.1.3 에베소서 5장의 가정 규범	90
5.1.4 피차 복종의 이유	92
5.1.5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 - 오늘	94
5.1.6 고대의 집 안에서의 여성	94
5.2 머리와 복종: 에베소서 5장	95
5.2.1 머리	96
5.2.2 고대의 가족	97
5.2.3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97
5.2.4 상황화	99
5.2.5 다시 한번: 머리	100
5.2.6 결론	102
5.3 복종하기	104
5.3.1 결론	109

6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112
6.1 고린도전서 11장 - 머리, 머리카락, 너울	114
6.1.1 본문 해석을 위한 지침과 참고 사항	115
6.1.2 본문의 적용 범위	116
6.1.3 머리가 있는 세 쌍	117
6.1.4 머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118
6.1.5 고린도의 머리 덮개	122
6.1.6 머리 위에 권세의 표를 두라?	125
6.1.7 오늘날의 의미	126
6.1.8 풀어 옮긴 번역	127
6.1.9 맺음과 요약	129
6.1.10 고린도전서 11장의 다른 읽기	130
인용의 예들	131
6.1.11 고린도전서 11:2-16의 다른 번역	132
6.1.12 결론	134
6.2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136
6.2.1 질문들	137
6.2.2 장 끝부분의 당혹스러움	139
6.2.3 인용으로 읽기	140
6.2.4 로마의 법?	143
6.2.5 결코 그럴 수 없다!	144
6.2.6 그 밖의 설명들	144
6.2.7 아마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146
6.2.8 최종 평가	152
6.3 여자는 가르쳐도 되는가?	155
6.3.1 본문 디모데전서 2:8-15	157
6.3.2 에베소의 역사적 상황	157
6.3.3 배경	159
6.3.4 각처에서 기도하기, 분노와 장식	159
6.3.5 조용히 복종함으로 배우기	161
6.3.6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162
6.3.7 가르치는 것은 주관하는 것인가?	162
6.3.8 “주관하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163
6.3.9 에베소의 아담과 하와	166
6.3.10 내가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	167
6.3.11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168
6.3.12 오늘의 디모데전서	169
6.3.13 결론	170
6.3.14 디모데서 본문의 풀어 옮긴 번역	170

6.4 보편적 계명과 시대에 매인 계명	172
6.4.1 성경주의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172
6.4.2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와 문자적 의미	175
7 여제사장, 여성 장로, 여성 집사	176
7.1 만인 제사장	176
7.2 장로와 여성 장로	177
7.3 그녀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178
7.4 여성 집사	180
7.5 여성 설교자	181
7.6 요약	183
8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갈라디아서 3:28	184
8.1 본문이 말하는 것	184
8.2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	186
8.3 본문이 그래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186
8.3.1 유대인과 헬라인	187
8.3.2 종과 자유인	187
8.3.3 노예 제도에 관한 정보	188
8.3.4 남자와 여자	189
8.3.5 지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189
8.3.6 남자나 여자나 없으니	190
8.4 요약과 결론	191
9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193
9.1 하나님은 남성인가?	194
9.2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96
9.3 여성적인 하나님 상	196
9.4 아버지와 아들	197
9.5 영원한 아들의 복종?	198
9.6 예수와 그의 열두 제자	200
9.7 결론	202
10 나의 죄 고백	203
11 결론과 전망	207
11.1 참고 사항과 조언	209
12 차이	212
12.1 은사 중심 모델	212
12.2 위계 모델	214
13 여러 독자의 맺음말	216

13.1 자유로운 시야가 가려졌다!	216
13.2 무엇이 가능했을까!	218
“여성 문제”와 “형제자매의 사랑”	219
13.3 변화	221
14 마지막 변론: 여성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222
14.1 몇 가지 (금지된) 섬김이 문제가 아니다	222
14.2 남자들이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	223
14.3 여성 문제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223
14.4 감수성	224
14.5 내가 말하려는 것이 아닌 것	225
14.6 갈라설 이유?	225
14.7 여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226
14.8 장차와 지금	227
15 참고 문헌	228
16 저자의 책들	232
17 추천 도서	233
한나마리아 슈말렌바흐(Hanna-Maria Schmalenbach)	234
Frausein zur Ehre Gottes	234

1 머리말

이 해묵은 논쟁거리에 대해 책이 또 하나 필요할까요? 이미 다 말하고 다 쓰지 않았습니까? 다시 다투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다투자는 것입니까? 믿음을 변호하려면 변증적인 주제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주제도 변증에 속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포스트모던 세속 사회 속에서 보편적 윤리 규범을 변호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보수적이고 성경주의적인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뒤의 것도 그러한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이 문제를 둘러싼 소모전과 싸움과 억지는 이 책이 없어도 계속됩니다. 그것은 지금도 교회를 갈라놓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에서 여자의 목소리를 들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서부터 갈라집니다. 다른 교회는 여성 집사나 여성 장로¹를 두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서 갈라집니다. 또는 여자가 지도하는 역할을 맡고 설교해도 되는가 하는 질문에서 갈라집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요새처럼 난공불락인 입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시대정신에 맞서서라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질문과 의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이 주제에 대한 저의 연구를 정리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문헌을 아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깨달음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가장 진보적인 입장까지 모든 입장을 정리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책은 결론을 열어 둔 연구가 **아닙니다** - 이것은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입장을 찾고 근거를 세우는 데 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예전에 배우고 주장했던 것과 다릅니다.

그것을 설명하는 데 책 한 권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복잡한 문제입니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형수들에게서 볼 수 있는 오심의 역사를 살펴보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엄청난 입증 작업과 정황 증거 수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유전자 검사 하나로 충분합니다. 아무리 수고가 많이 들더라도, 30년, 40년, 50년 만에 풀려난 그런 사형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이처럼 이 책에서 여러분은 단순한 생각들을 만나고, 때로는 조금 더 복잡한 생각들도 만날 것입니다. 성경이 늘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어부요 사도인 베드로조차 이 점을

1. 저는 대부분의 곳에서 뜻을 분명히 하려고 이 말의 여성형(독일어 Ältestinnen, 여성 장로)을 씁니다. 오늘날 일반적이며 성경 원어에서도 그러한 것은 총칭적 남성형(독일어 Älteste)입니다. 이것은 여성형을 함께 포함합니다(6.4.1 참조).

지적입니다. 그는 바울의 편지들에 대해 말하면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벧후 3:15-16).

이 책이 읽히면 반론과 반박과 분노가 오래지 않아 나올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며, 저 자신도 그 일부였습니다.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적어도 이 주제가 거론되기는 할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바로 지금도 미국의 복음주의 세계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감정 없이 썼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객관성을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그것은 독자가 판단하실 일입니다.

그리고 물론 충분히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점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저는 제가 이해하는 대로 성경의 큰 그림에 들어맞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저는 많은 여성과, 이 문제로 함께 괴로워하는 남성들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성 역할이라는 이 주제와 말하기, 가르치기, 지도하기에 대한 금지를 의문스럽고 무거운 짐으로 느낍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결코 가볍지 않은 문제로, 이 일에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세상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들에 수백만 시간의 연구와 기도와 토론을 쏟아붓는 것이 그분의 뜻일까요? 분열을 감수하고 하나 됨을 희생하는 것이 그분의 뜻일까요?

저는 이 질문들이 지극히 시급하다고 확신합니다. 이 책은 그것을 위한 저의 변론입니다. 만일 여자가 위계상 남자 아래에 있고 그 때문에 교회와 지역 교회에서 그들의 섬김이 제한된다면(공개되지 않은 다른 섬김이 수없이 많다는 온갖 단언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틀렸을 경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두 성 모두에게 그렇습니다. 율법적이고 노예 같고 두려워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은 지난 약 40년 동안의 제 연구와 수많은 대화와 인터넷 게시판에서의 토론을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길을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가능한 한 쉽게 설명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때로 너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부분을 건너뛰고 다음 장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신학자로서 쓰지 않습니다. 신학자나 스스로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어온 사람들과, 새로 믿음에 들어와 제가 가르침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남자에게나 여자에게나 도움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성경 말씀들은 새롭게 숙고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성경 본문을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 주제넘고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경계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다고 여기는 신학에서는 관습을 되묻고 성경 본문을 새롭게 읽는 것이 그 본질에 속한다”.²

이 책에서 여러분은 많은 인용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생각들을 저는 주로 영어권에서 발견했으며, 독일어권 독자들도 접할 수 있게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학은 무오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러기를 바란다 해도 말입니다. 이 책도 모든 책이 그렇듯 오류와 약점과 강점이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쓸 수 있었으리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과 교정과 조언과 맺음말로 함께해 주신 모든 자매와 형제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교정을 맡아 주신 코니 엔드뢰스(Conny Endrös, 알고이 지방 켐프텐 근교 라우벤)와 베르트 휘스켄(Bernd Hüsken, 슈벨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일은 저를 기쁘게 하고, 슈벨름에서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자랐고 좋은 영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Hans-Jörg Ronsdorf

알고이의 줄츠베르크(Sulzberg)에서, 2020년 11월

주의 율례를 나는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도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조언자니이다.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오니,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나이다.

시편 119:16; 24; 32 (Zürcher Bibel, 독일어 성경 번역본)

1.1 제2판 증보판 머리말

제2판을 내면서 저는 가볍게 다듬고 내용을 보충하기로 했습니다. 몇 가지 수정도 필요했지만, 그보다 보충과 문체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2. Wunderli, 53, “Ihm gegenüber”: Geschlechter-Gleichberechtigung in der Kirche und was die Bibel dazu (nicht) sagt, 2020

주로 이 주제의 세 핵심 본문을 다룬 장들을 손보고 보충했으며, 가능한 곳에서는 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머리, 머리카락, 너울을 다룬 장이 그렇습니다.

초판을 낸 뒤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살펴보았고, 직접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제 홈페이지 www.hans-joerg-ronsdorf.de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거의 매달 이 주제에 관한 새 책이 나옵니다. 그 책들은 대부분 신학적 수준이 높고 신약 본문을 깊이 다룹니다. 그 책들은 제가 이 책에서 말하려는 것을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이 주제를 밝혀 줍니다. 저는 남자와 여자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동등한 지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어느 때보다 확신합니다.

이 성경적 진리가 결혼과 가정과 교회에 치유를 가져오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책은 이제야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여전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 자체가 아니라 저의 해석입니다.

Hans-Jörg Ronsdorf,

줄츠베르크, 2021년 7월

제3판은 수요가 늘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 기회에 작은 수정과 보충을 더 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말하는 내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주제가 점점 더 많이 거론되고, 주 안의 자매들이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점점 더 깨닫고 있어서 기쁩니다.

Hans-Jörg Ronsdorf,

아우크스부르크, 2021년 11월

1.2 제4판 머리말

거의 2년이 흘렀습니다. 이 책의 주제는 여전히 해묵은 논쟁거리입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남침례교 총회(SBC)에 속한 교회들이 여자를 지도하는 역할에 세우거나 여성 목사를 두면 제명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으로 노예 제도를 정당화했던 남부 주들에서 말입니다.

이번 제4판에는 고린도전서 14장의 침묵 명령에 관한 중요한 보충이 들어 있습니다.

제 홈페이지 www.hans-joerg-ronsdorf.de 를 살펴보십시오. 그곳에 이 주제에 관한 새 글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Hans-Jörg Ronsdorf

1.3 이 책을 쓰는 사람

대개는 책의 내용이 저자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토록 민감한 주제이기에, 저는 독자에게 이 책을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 서술된 입장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지도 말입니다.

저는 서른여섯 살이 될 때까지 아내와 다섯 자녀와 함께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형제단 집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집회는 “옛 집회”(Alte Versammlung)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명칭”을 거부하기 때문에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이 집회, 곧 예배에서 여자들은 잠잠합니다. 그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거의 언제나 남자와 여자가 따로 앉습니다. 여자들은 예배에서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가립니다.

그 뒤 우리는 알고이 지방의 한 교회(운동)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1980년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곳의 몇몇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삶의 간증을 하거나, 찬송을 제안하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저는 제 과거 때문에 그것이 힘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명하기 때문입니다.

몇 년 뒤 저는 이 질문을 다시 마주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깨달았습니다. 여자들이 소리 내어 기도하고 간증하고 찬송을 제안할 수 있는 이 관행은 충분히 성경적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 장들에 나옵니다.

저는 그들의 참여를 점점 더 긍정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제 성경 연구가 이미 이 긍정적인 태도 때문에 그 방향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 확신이 정확히 왜 바뀌었는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설교하지 않았고, 여성 집사나 여성 장로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가까운 교회들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자매들이 아예 잠잠하기까지 합니다. 이는 독일의 자유 형제단 집회와 잘츠부르크 지방의 한 교회 흐름의 영향이나 그들과의 가까움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 주제와는 상관없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겪은 하나의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거리가, 여러 해 동안

속해 있던 것을 분석하며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7년 동안 장로였고,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 견해를 직접 지녔고 변호했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생기자 이 질문을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이런 외적 압박 없이,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그 거리가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의 변화 과정을 독자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쇠퇴나 배교나 세속화로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고방식과 동기 판단을 젊은 시절부터 거의 “예언적인”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하고 깊이 박혀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 자신도 그 적극적인 일부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교회적 상황이며 과거입니다. 성경은 교회 생활에 큰 자유를 줍니다. 모임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옳은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배의 형식은, 그리고 그 형식은 참으로 많은데, 자유롭습니다! 그 안에서 여성의 역할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제 개인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빠져 있습니다. 아니,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해야 더 맞겠습니다. 바로 제 아내 크리스티네(Christine)입니다. 아내와 삶을 함께하려고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장성한 자녀가 다섯 있습니다. 제 아내는 강한 인격을 지닌 사람입니다. 싸울 줄 아는 사자 같은 어머니입니다.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무엇보다 감사합니다. 주 안의 많은 형제도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내는 성별 문제에 관한 제 개인적 깨달음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오늘 서 있는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우리 둘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나라에서 자랐습니다. 남녀 평등을 정한 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만 말입니다. 저는 독일과 서구 문화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전쟁을 겪어 보지 않았습다. 기근도 겪어 보지 않았습다. 올해 우리는 우리 세대의 첫 팬데믹을 겪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침범할 수 없는 안전과 성장이라는 느낌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처럼 매우 긍정적이었던 삶의 경험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문화권을 보는 우리의 시각을 형성합니다. 저는 남녀 평등을 현대 민주주의가 이룬 복된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노예 제도의 폐지와 견줄 만합니다. 노예 제도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사회화가 (배타적) 형제운동의 사고방식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여자는 교회의 예배 참여에서 배제됩니다. 여자는 복종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입니다. 남자는 머리이며 결혼에서 지도권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의 삶의 현실에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도대체 맞을 수나 있는지 물을 수는 있습니다. 제 결혼은 어떠했습니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남녀 간의 서로 다른 지위나 권위를 실천하려는 부모와 조부모의 결혼, 오늘날 친구와 지인들의 결혼을 저는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결혼 초기에는 제가 많은 일을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혼자 결정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팀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언제나 가장 잘 해냈습니다. 존중과 사랑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눈높이를 맞추어 말하고 듣는 것, 그것이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누구에게나 강한 시기와 약한 시기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또 어차피 늘 그렇듯이 서로 보완합니다. 언제나 남자가 앞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일 수도 있습니다. 번갈아 가며, 보완하며, 서로 맞추며, 열린 마음으로, 바로잡을 줄 알며, 귀 기울이며, 함께 기도하며, 저는 이것을 삶의 현실로 경험합니다. 다른 것은 모두 퇴보일 것입니다. 저는 고대 근동의 방식으로, 아브라함이나 다윗 시대의 방식으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처럼도 아니고, 종교개혁 시대처럼도 아닙니다. 제 조부모처럼도 아닙니다. 이 점에서 저는 21세기에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사실을 봅니다. 남자와 여자의 문제에서 성경에 충실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우리와 거의 다르지 않게 삽니다. 그들의 결혼도 동등한 권리로 특징지어집니다. 일방성이 아니라 하나 됨 속의 둘로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예외를 빼면, 저는 바울과 베드로가 묘사하는 그대로의 그리스도인 결혼을 어디에서도 보지 못합니다(이 본문들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아내들은 남편과 눈높이를 맞추어 함께 걸어갑니다. 그들은 대개 한 팀입니다. 여자들이 남편을 존중하거나 좌지우지하려 한다는 일반적인 의심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죄는 어느 결혼에서나 작거나 큰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 지내면 그 불은 대개 꺼집니다.

이 책에서 제가 방금 말한 결혼관과 교회 안에서 여성의 다른 역할을 주장하고 그 근거를 대면,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놀라고, 경악할 것입니다. 자기 확신을

주장하는 데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특히 자기 교회나 친구들의 입장에 맞서 논증할 때 그렇습니다. 저는 옛 보수적 입장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비록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그 입장은 하나님의 영을 소멸하고 그분을 막습니다. 모든 독자가 이 책을 끝까지 읽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제 책의 내용에 대한 대화는 책을 다 읽은 뒤라면 기꺼이 나누겠습니다.

논증이 객관적이고 억측에서 자유롭다면 언제든 제게 편지를 보내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를 잘 압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에서는 흔히 열기가 오르고 감정적이 되며, 때로는 인신공격과 상처 주는 말이 오갑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삶이 부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환경과 그 시대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읽으라는 권면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그리고 연구하라는 권면도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집회”에서 전해 받은 좋은 성경적 기초에 감사합니다. 이 책은 제 과거에 대한 고발이나 청산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렇게 해석하려 한다면 말입니다. 아무튼 성경 연구는 이른 청소년기부터 제 취미가 되었고, 그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렇습니다. 그때 저는 제 본보기였던 분들처럼 존경받는 성경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몇 분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 동기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많이, 깊이 연구한다면, 어떤 깨달음이 나오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나 똑같은 것만 되풀이해서 나올까요?

때로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는 눈에 수건이 덮인 이스라엘과 같습니다(고후 3:15). 성령께서 함께 계시는데도 우리는 자주 늘 같은 것만 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거듭거듭 연구하는 사람은 그 영께서 갑자기 무언가 새로운 것을 보여 주신다 해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마 13:52).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함이 없지 않습니까? 신학자들과 성경학의 도움으로도,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 학교와 신학교의 도움으로도 말입니다. 교회와 결혼과 하나님 나라에서의 남자와 여자라는 이 주제 영역에서, 수백 년 동안 유일하게 옳다고 믿어 온 것과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주제는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며, 우리는 그런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충실한지를 가리는 시금석이 아닙니다.

저는 경험으로 압니다. 수십 년 동안 소중히 여겨 온 진리에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말입니다. 성경의 증거가 늘 생각해 왔거나 배워 온 것만큼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남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류가 많고, 무력하며, 그저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인지

보여 줍니다. 그분께 우리는 하소연할 수 있고, 우리의 무지와 질문과 의심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업적 맹목”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교회 환경에만 머물며 자기 세계를 유일하게 정당하거나 성경에 충실한 것으로 여기는 곳에서 어느새 생겨납니다.

저는 몇 년 동안 한 성경 헬라어 포럼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것을 논의하고 건설적으로 토론했습니다. 이 책의 주제도 토론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자료를 모았고, 지금 그것을 다시 읽었습니다. 몇 년의 거리를 두고 보니, 논증이 결론을 열어 둔 채 이루어진 적은 드물거나 아예 없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언어 능력이 아무리 높아도, 어떤 입장에 대한 사전 결정과 그 입장에 길들여진 정도가 찬성이나 반대 논증을 좌우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여자가 예배에서 무언가를 말해도 되는지, 오늘날 머리를 가려야 하는지가 문제였고,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성경으로 무엇이든 증명하거나 반박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주제에 대해 글을 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많고 다툼이 치열한 주제입니다. 지뢰밭입니다. 여기서는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시간을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시대정신에 맞춘다고 의심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세상이 싸워 얻으려는 해방주의적 입장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제 길은 성경이 제게 가르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가 가는 곳을 비추니,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말씀으로 증언하시는 것은 놀라움으로 가득하니, 그러므로 나는 온 마음으로 그것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105; 129 (Neue Genfer Übersetzung NGÜ, 독일어 성경 번역본)

2 창조와 타락

어떤 일을 잘 이해하려면 그 기원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주제를 다루는 거의 모든 기독교 서적이 원역사에서 시작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했을 때, 그분은 이 문제를 창조 이야기에 비추어 보셨습니다(마 19:3-9). 그분께는 처음에 어떠했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인류를 위해 무엇을 정해 두었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혼에 관해 하신 말씀은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자들은 버림받는 문제에서 남편의 자의에 거의 내맡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 관점을 일관되게 따르려고 합니다. 저는 낙원 동산에서 시간을 보내며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무슨 말이 오갔는지. 여자와 남자의 관계를 다룰 때에는 성경의 처음 세 장이 결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이 - 타락 이전이 - 이상적인 상태를 묘사한다면,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정하건대, 이것은 분량이 많지 않은 본문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독특하고 깊습니다. 그러나 짧습니다. 오늘날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기원에 관해 던진 질문들은 우리가 던지는 질문들과 다릅니다. 많은 것이 열린 채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추론이나 구속력 있는 결론은 조심해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쨌든 첫 인간 부부의 창조에 관한 비교적 짧은 서술에 결론을 지나치게 많이 지워서는 안 됩니다.

2.1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주제를 다룬 많은 책에서 거의 언제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역사를 해석하는 방식대로 신약의 관련 본문들도 모두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원역사를 보는 관점이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를 결정합니다. 해석의 틀에 따라 서로 대립하고 모순되는 입장들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위계의 차이 없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지위(영어권에서는 평등주의라고 부릅니다).

위계적 차이에 근거한 남자의 지도적 역할과 여자의 복종(상호보완주의).

두 입장 모두 동등한 가치와 다름을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게 이해합니다. 12장(「차이」)에서 두 입장을 도식으로 정리한 개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영어권에서 쓰는 이 용어들은 독일어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호보완적이라는 말은 상대를 보완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서열이 다를 때에도 성립합니다. 그런데 서로 보완한다는 것은 두 입장이 모두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만 한쪽은 위계의 차이를 두고, 다른 쪽은 위계의 차이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기록과 사건이 그토록 오래전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이야기들을 보는 눈은 시간을 초월해 있지 않으며 해석에서 자유로운 공간에 있지도 않습니다. 창조 기사는 하나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곧 고대 근동이라는 환경 속에서 기록됩니다. 이 본문은 21세기의 우리에게 쓰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21세기의 우리가 첫 수신자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들은 우리를 위하여 쓰였습니다. 이것은 잊어서는 안 되는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몇 차례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언급합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이해의 도구로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들에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를 해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창조 이야기는 먼저 스스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 본문들과 그의 해석을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먼저 저는 창세기 첫 두 장의 이야기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타락 이전입니다. 성 역할에 부정적이고 왜곡하는 문화의 영향이 있기 전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처음에 관해 말씀하실 때와 똑같이 말입니다.

2.1.1 여섯째 날의 일

창조 이야기의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사람이 지을 받습니다. 땅의 짐승들과 함께 땅이 그의 집이 됩니다. 땅의 짐승들이 지을 받은 뒤 여섯째 날에 대한 서술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26-31,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 위에 기는 것, 곧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이 본문과 이후의 모든 본문을 살펴볼 때 일반적인 해석이나 주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은 여자와 남자라는 둘의 관계, 곧 서로에 대한 관계와 그들의 창조주에 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이 책의 주제에 어떤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 왔을까요?

쓸 것도, 들 것도, 인용할 것도 많습니다. 이 책의 범위 안에서 저는 간략하게 쓰고 큰 그림을 그려 보려고 합니다.

2.1.2 사람: 하나님의 형상 – Imago Dei

사람, 히브리어로 **adam(흙에서 난 자)**은 다른 모든 피조물 위로 높여집니다.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일상적인 표현이 들어맞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때 특별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닮은 존재로서 사람은 말하자면 창조된 가시적 공간에서 그분의 대리자가 됩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스림이 그에게 맡겨집니다.³ 그는 그의 창조주를 대표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분을 닮은(같지는 않은) 존재로서 이렇게 “갓추어진” 사람은 짐승과 달리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창조주가 소통하고 교제하는 상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 사람은 “위엄 있게” 갓추어졌으며, 하나님께도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시므로, 그분의 많은 것이 땅에서는 사람 안에서 보이게 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왕과 통치자들이 정복한 지역에 자기 조각상을 세워 자기의 통치권을 과시했습니다. **몸소 그곳에 있지 않으면서도 세운 하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창조 이야기는 그것이 생겨난 문화적 환경 속에서 독특합니다. 모든 사람을, 여자와 남자를, 심지어 노예까지도 왕과 통치자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로써 존엄과 가치와 보호를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3.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을 사람에게 맡기시는 일을 진지하게 여기십니다. 이 권한 위임과 자유에서 사람에게 생겨날 수 있는 온갖 결과와 함께 말입니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 모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존중하시며, 끊임없이 바로잡으려고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인간관입니다. 이것은 사람됨과 함께 사는 삶을 이루는, 또는 이루어야 할 다른 모든 것이 세워지는 기초입니다.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을 지니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2.1.3 남자와 여자로서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의 역할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상관없이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니 이것은 의도된 것이며 다르게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창조의 사명을 이루려면 두 성이 다 필요합니다. 결국 어느 한쪽도 혼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의 차이에 대해 아무 언급도 하지 않으십니다. 능력, 가치, 중요성, 역할, 지위에서 아무런 차이 없이 둘이 한 호흡에 언급됩니다. 한 단어로 말합니다. 사람이라고. 이것도 당시로서는 독특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남자와 동등한 지위로 그 곁에 서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정상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두 성이 체질이나 기능이나 역할에서 다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기초가 놓이는 성경의 첫 페이지에서는 먼저 같음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자와 남자라는 주제에 대한 성경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성경 자체의 가장 중요한 방향 설정이요 전제이며 기본 가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른 모든 것은 이것에 비추어 설명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도 이것에 비추어 자신을 바로잡아야 할지 모릅니다. 바울도 이 빛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2.1.4 사람과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써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들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땅과 짐승들을 다스리는 일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입니다. 땅을, 온 지구를 사람으로 채우고 차지하며, 돌보는 마음으로 다스리고 아끼며 쓸모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낙원을 온 땅으로 넓히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주어졌을 때 자연이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문명의 사명입니다. 문화 명령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땅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발휘하여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농사, 경작, 목축을 삶의 환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의 발전은 한편으로는 땅과 그 자원이,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의 능력과 은사가 얼마나 다층적인지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심어 두신 잠재력입니다.

이 사명이 어떻게 수행되었는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타락 이전의 사명입니다.⁴ 이 사명은 타락 이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 서술된 그대로 오늘날까지 남자와 여자에게 유효합니다.

짐승의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번식은 남자와 여자가 함께해야만 이를 수 있습니다. 두 성은 함께 이 사실과 성(섹슈얼리티)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이 광범위하고 지극히 책임이 무거운 사명에서 남자와 여자는 같고, 대등하며, 하나님의 복에 의지하듯 서로에게 의지합니다. 어떤 위계도 없고, 이 삶의 과업에서 누가 결정권자인지 권위를 묻거나 정해 두는 일도 없습니다.

사람, 곧 남자와 여자는 낙원 동산이라는 환경 속에서 그들의 사명과 함께 마땅히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립니다.⁵ 한편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땅을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낙원 동산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 모두에게 이 역할이 똑같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중요한 측면은 에덴의 낙원과 성전의 상징 사이에 있는 여러 평행점에서 나옵니다.⁶

교회와 예배 모임에서의 남자와 여자를 생각할 때, 여기에 첫 번째 단서가 있습니다. 비록 간접적이지만, 그들이 그곳에서도 동등한 지위로 활동한다는 단서입니다. 여기서 이미 만인 제사장직이 암시됩니다.

4. (status integritatis – 타락 이전의 온전한 상태, 이와 대조되는 status corruptionis – 타락 이후의 부패한 상태)

5. Beale, Gregory K., 65쪽 이하, Der Tempel aller Zeiten, 2011

6. 창세기 2장의 낙원과 성전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동쪽 입구: 낙원 동산의 입구는 본래의 성전 건물과 세키나의 처소와 똑같이 동쪽을 향해 있었습니다(창세기 3:24; miqedem = 동쪽으로). 강: 에덴에서 발원하는 강은 에스겔의 설계도에 따른 성소의 성전 강에서 놀라운 짝을 찾습니다(에스겔 47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것을 에덴동산에서는 성전에서처럼 특별한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창세기 3:8-9; 레위기 26:11-12). 그룹들: 성전과 관련하여 그토록 중요한 그룹들(예를 들어 출애굽기 25:18; 26:1, 31; 열왕기상 6:23, 29)은 에덴동산에서 매우 중요한 파수꾼의 역할을 맡았습니다(창세기 3:24). 예배: 동산에서 아담이 한 일은 “경작하다”(‘avad)와 “지키다”(shamar)라는 낱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묘사됩니다(창세기 2:5, 15). 이 동사들은 성소와 관련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의 섬김을 묘사하는 전형적인 낱말입니다(‘avad: 민수기 4:24, 26, 30, 37, 41, 47; 8:11, 15, 19, 22, 25, 26; shamar: 민수기 3:7, 8, 10, 28, 32, 38; 18:3, 4, 5, 7). 로저 리비(Roger Liebi), Genesis 2: Die Schöpfung des Menschen 참조

2.1.5 아담과 하와의 창조

창세기 2장에서 이야기는 사람의 창조를 구체적으로 다룹니다. 1장에서 하나님 엘로힘의 옛새 동안의 일이라는 틀 안에서 일반적으로 보도된 것이 이제 표현이 풍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말하자면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꺼내어 깊이 다루는 것입니다. 1장에는 창조 기사가, 2장에는 낙원 기사가 있습니다. 에덴동산이 사건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제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창조주로서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오시며, 그를 위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4-9,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이것은 하늘과 땅이 창조될 때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들의 모든 초목이 아직 땅에 없었고 들의 모든 채소가 아직 나지 아니하였을 때였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

이 이야기는 아담이 땅의 흙으로 창조되었음을 전해 줍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자가 흙으로 지음 받습니다. 땅은 그의 집이며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새 창조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기이한 창조 과정에서 그가 땅에 가깝다는 것과 그가 덧없다는 것이 함께 드러납니다. 흙으로는 본래 집을 짓지 사람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이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을 얻어 아담은 살아 있는 영혼이 됩니다.

2.1.6 히브리어 핵심 낱말에 관한 짧은 여담

히브리어 성경 본문에서는 핵심 낱말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히브리어 본문을 귀로 들을 때에만 드러납니다!

그런 핵심 낱말의 사슬 가운데 하나가 아담(사람), 아다마(경작지), 담(피)이라는 낱말들입니다. 세 낱말 모두의 언어적 뿌리는 “붉은 것”입니다. 이 낱말들에서 사람이 땅과 여러 겹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아다마”는 땅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생겨난 흙에서 난 자입니다. “담”, 곧 피는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흘린 사람의 피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 창세기 4:10-11).

더 나아가: 세 겹의 땃줄이 우리를 어머니 땅에 묶고 있다. 우리는 땅에서 취해졌고, 땅으로 돌아가며, 땅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먹고산다. … 아담과 아다마는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으며,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것을 풀 수 없다. 성경에서 “아담”은 첫 사람의 고유한 이름으로 나온다. 그러나 “아담”은 언제나 (또한) “사람”이라는 종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것은 아담의 모든 후손을 함께 가리킬 수도 있고, 각 사람을 한 개인으로 가리킬 수도 있다. 두 경우 모두 땅에 매여 있음을 집약하는 “흙에서 난 자”라는 말은 우리 인간 존재의 연약함과 죽을 운명을 가리킨다. 성경의 예언서 히브리어에서 두 발로 걷는 모든 존재를 통틀어 부르는 이름은 “인자”(본래: 아담의 아들)이며, 예수께서도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신다.⁷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창세기 2: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1장에서 이미 서술된 사명이 여기서 더 구체적이 됩니다. 땅을 일구고 먹을거리와 곡식을 기르는 일, 곧 농사가 여기서 다른 것들과 함께 시야에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그리고 똑같이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마련하신 곳을 지키는 일도 그렇습니다. 지키는 일은 창조의 사명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서술된 이 상황에도 이미 막고 물리쳐야 할 부정적인 경향과 세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뱀이 그 한 예입니다.

여기서는 아담이 초점입니다. 하와가 지음 받기 전입니다.

2.1.7 아담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창세기 2:18-20]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그에게 맞는 돕는 이를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들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를 지으시고,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사람에게로 이끌어 가셨다. 사람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사람이 모든 가축과 하늘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에게 맞는 돕는 이를 찾지 못하였다.

1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한 일처럼 언급됩니다. 남자와 여자는 각자 홀로, 그러나 또한 함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둘이 되었는지 그 특별한 과정이 언급됩니다. 이

7. P. Lapidé, War Eva an allem schuld? 1998, 71쪽 이하에 따름

모든 일이 여섯째 날에 일어났다고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여섯째 날을 24시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보는 생각에서는 벗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본질적인 것을 분명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일은 그분 자신을 위한 실험이 아니라 아담을 위한 교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교훈입니다. 많은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은 사람과 짐승이 모두 살아 있는 존재로서 가깝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짐승에 대한 사람의 두드러진 지위도 보여 줍니다. **여기서는 실제로 위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여섯째 창조의 날에는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면, 이제는 무언가가 좋지 않습니다. 아담은 사회적 존재였고, 그런 존재로서 혼자였습니다.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느끼기 전에 그것을 아셨습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에서 이미 그것이 드러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짐승들에게서 이미 수컷과 암컷이 있다는 것을 보았고, 자기에게는 여성인 상대가 없다는 것을 보았을까요?

아담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검치호랑이와 개미와 벌 등에게 이름을 지어 준 뒤에도, 짝을 찾는 일은 성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짐승도 이 상대, 이 빠진 퍼즐 조각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창조의 사명을 이루도록 그를 위한 도움을 찾으셨습니다. 그는 혼자서는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 “구인 공고”는 아담에게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 동맹자. 마주 선 상대, 보완하는 이. 그의 존재의 모든 측면에 맞는 짝: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겉으로나 속으로나. 요약하면, 이것이 “그에게 맞는 돕는 이”라는 말이 뜻하는 바입니다.**

아담은 몸이 없는 머리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한 흠에서 난 자로 묘사됩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아랫사람도 조수도 아니라, 그의 곁에 선 똑같이 강한 인격입니다. 함께 행동할 수 있게 해 주는 도움입니다.**

남자는 흔히 모든 것을 혼자 해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도움을 구하지 않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멀리 보십니다. 남자가 삶을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분은 아십니다.

“그에게 맞는 돕는 이”라는 표현에 대해 저는 아시리아학자이자 셈어 교수인 R. 데이비드 프리드먼(R. David Freedman)⁸의 말을 인용합니다. “나는 이 두 낱말[곧 ezer kenegdo, 또는 ‘돕는 자’]의 통상적인 번역이 거의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에도 틀렸다고 믿는다. 그것은 이 낱말들이 전하려는 바가 아니다. 이 낱말들은 오히려 대략 ‘**사람과**

8. R. David Freedman, “Woman, a Power Equal to a Man: Translation of Woman as a ‘Fit Helpmate’ for Man Is Questioned,” *Biblical Archaeology Review* 9, 1 (1983): 56.

동등한 힘 또는 능력'을 뜻하도록 번역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있지 않도록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시기로 결론을 내리셨을 때, 그분은 '사람과 동등한 힘 또는 능력'을 지으시기로 하셨다. 그 힘이 사람의 힘에 상응하는 누군가를 말이다. 여자는 단지 남자를 돕는 자가 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의 동반자가 되어야 했다.”

“이어서 프리드먼은 그다음 낱말 *kenegdo*에 주의를 돌린다. 이 낱말은 흔히 ‘알맞은’ 또는 ‘적합한’으로 번역된다. 이 낱말은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므로, 번역에 도움이 될 다른 성경의 비교 사례가 없다. 그러나 후대의 미쉬나 히브리어에서 이 낱말의 어근은 ‘같은’을 뜻한다.

프리드먼은 이렇게 결론짓는다(그리고 우리는 다음 절을 미리 가져온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의도는 그녀가 - 짐승들과 달리 - ‘그와 동등한 힘(또는 강함)이 되는 것’이다. 나는 ‘ezer *kenegdo*’라는 표현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문헌학적으로 변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고 믿는다. 전통적인 번역은 문맥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ezer*(도움)의 후대 뉘앙스에 근거하고 있다”.

이런 언어학적 통찰이 없어도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는 여자가 동등한 지위의 상대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 특징은 본질의 같음, 다름, 그리고 보완입니다. 위계, 권위, 따름, 복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아담을 섬기도록 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함께 섬기도록 지음 받았습니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위계의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도움이 위계의 차이를 만든다고 결론짓는 것은 치명적인 잘못입니다. 그래서 여자에 대해 얼마나 부정적이고 거의 비극적인 그림이 그려지며, 얼마나 광범위한 결과가 뒤따르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아담이 자기의 창조 사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그들의 공동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1:28).

남편이 아내를 돕는다고 해서 - 그런 일도 있다고들 하지요 - 위계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은 위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일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창세기 2:18, 20의 생각은 여자가 남자의 강함이나 힘의 원천이며, 친구이자 동맹자로서 그를 섬긴다는 것이다. 복종은 본문의 의도에 들어 있지 않다.”⁹

2.1.8 하와가 지음 받다

[창세기 2:21-22]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그가 잠들었다. 그분이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그 자리를 살로 대신 채우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 이야기는 신비롭고, 우리로서는 거의 상상할 수 없는 과정을 전해 줍니다. 몇 마디 말로 여기 묘사된 일을 정확히 볼 수 있었던 것은 천사들뿐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구경꾼들은 우리라도 그랬을 것처럼 놀랐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생겨납니다. 마치 그녀가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흙으로 지음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온전히 상응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만일 하와가 먼저 지음 받았다면, 그녀에게도 돕는 이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창조의 뜻으로 보면 남성도 여성도 혼자 있도록 지음 받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도 지나치게 많은 것을 읽어 넣을 수는 없습니다. 유전 물질이나 골수나 염색체를 생각해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깊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과정이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담에게 상응하는 이, 그를 돕는 이를 만들어 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고대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낱말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것만으로 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다음 설명이 그 한 예를 보여 줍니다.

“우리가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고 하와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읽으면, 우리는 자동으로 아담이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에 들어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고대 근동 사람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깊은 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낱말은 구약 전체에서 환상의 체험을 가리키는 데 쓰인다. 이스라엘 독자라면 그렇게 읽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아담에게 이 깊은 잠이 외과 수술이 아니라 환상이었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 그는 무언가를 보고, 그다음에 하와를 점점 더 많이 본다.”¹⁰

2.1.9 갈빗대에서

솔직히 이 묘사는 제게 낯설게 느껴집니다. 거의 신화처럼 들립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당시의 사고 세계에서는 우리보다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입니다. 이 과정을 자연과학이나

10. John Walton, Interview by Kevin P. Emmert/ March 19, 2015

의학, 생물학, 해부학의 안경으로 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매우 깊고 근본적이어서, 거기서 더 많은 것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은 같은 실체로 되어 있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각자 따로 떨어진 개별 창조물이 아니라, 같은 창조의 따로 된 표현입니다.

번역자들이 왜 여기에 “갈빗대”라는 낱말을 넣었는지 이상한 일입니다. 구약 어디에서도 이 낱말은 그렇게 번역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¹¹ 이 낱말은 대개 건축의 부재로 번역됩니다. 판자, 결재, 벽판, 문짝, 그리고 옆면입니다. 언제나 짓는 일과 관련됩니다. 이 낱말들에 공통된 것은 “옆면”입니다.

하와는 옆구리(zela)에서 지어집니다. 아담은 말하자면 진흙으로 빚어졌고, 이제 하와는 옆면(또는 옆면의 부재)으로 지어집니다. 이것은 해부학의 문제가 아니라 그림 언어의 문제입니다.

남자에게는 갈빗대가 24개 있어서 하나쯤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면은 두 개뿐입니다(솔로몬 성전의 두 문짝을 보십시오. 같은 낱말입니다. 열왕기상 6:34). 몸의 왼쪽 절반과 오른쪽 절반입니다. 여기서 1:27의 “남자와 여자”라는 낱말 짝이 이어집니다. 여자는 뼈 하나로 된 것이 아니라 남자의 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옆에서 취해졌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삶을 걸어가고, 각자 상대에게서 자기의 ‘더 나은 반쪽’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¹²

핀하스 라피데(Pinchas Lapide)는 이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낱말은 드물게만 갈빗대를 뜻할 수 있고, 대개는 옆구리나 옆면으로 번역된다. … 그러니 ‘갈빗대’라는 이 오역이 기독교 세계에서 여자를 업신여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¹³

낱말을 바꾸면 이 구절은 이렇게 읽힙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 손을 대시고(또는: 아담의 몸 한쪽 절반을 취하시고) 그 자리를 다시 채우셨다. 그리고 그 옆면의 부재를 취하여 그것으로 여자를 지으셨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에게 끌리는 두 사람이 됩니다. 마치 갈라놓은 것을 되돌리듯 한 몸이 되는 두 사람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비밀, 곧 남자와 여자의 신실함과 사랑의 언약의 비밀입니다.

11. Bielefeldt, 43, Die Sache mit der Rippe, Die himmlische Idee von den Geschlechtern, Asslar, 2007

12. Bielefeldt, 45

13. Lapide, 161, Lapide, Pinchas, Ist die Bibel richtig übersetzt? Gütersloh, 2004

여자가 남자의 절반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어쩌면 생식의 열매 맺음에서 실현될 일을 암시하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생식 세포의 분열입니다. 세포는 둘로 나뉘고, 각각이 온전한 세포가 됩니다. 여자는 남자 없이 있지 않고, 남자도 여자 없이 있지 않습니다.

그 낱말을 어떻게 번역하는지가 중요할까요? 물론입니다. 갈빗대라는 말은 여자들에게 자신이 무슨 부속물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무언가를 불러일으킵니다. 만일 우리 남성들이 “갈빗대”로 지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느꼈을까요?

2.1.10 여자(Männin)

사람이 말하였다. 이는 이제야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를 여자(ischah, 독일어 Männin)라 부르리라. 남자(isch)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이다.

아담은 환호하며 감격합니다. 우리는 시적인 말을 듣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순간입니까. 그의 앞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의 선물처럼. 그는 곧바로 봅니다. 그녀는 짐승의 세계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세계를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것은 전혀 다른 무엇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없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그와 같지만 여성입니다. 남자에게서 난 “여자”(Männin)입니다. 아담은 말합니다. 드디어 나와 같은 누군가가 있구나!

아담은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차렸기에 그녀가 자기에게서 나왔다는 것까지 아는 것일까요? 그녀는 그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둘은 곧바로 가까워집니다. 동산에는 그 둘뿐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사람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여자(Männin)인 하와는 앞으로 남자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남자는 그녀와 함께 있기 위해 모든 것을 떠날 것입니다. 이로써 다시 한번 여자의 존엄이 특별히 언급됩니다. 갈망의 대상은 그녀입니다. 그 반대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그보다 더한 하나 됨과 같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남자는 부모 없이 살 수 있고 새 가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자립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자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남편과 달리 그녀는 친절과 계속 이어져 있으며, 그로써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그녀는 남자처럼 친절을 떠나지 않습니다. 친절의 안전 속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대가족이라는 공간 안에서 그녀는 폭력적이거나 사기꾼일지도 모르는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친절 가까이 또는 친절에서 살면서 여자는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새롭고 대체로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하나의 단위를 이룹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생육하라는 사명의 성취를 가리킵니다. 곧 하나 됨과 잉태, 또는 번성의 표현이자 절정인 성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 됨은 또한 결혼 생활 전체를 묘사합니다. 여기서 직접 말하지는 않는 혼인 언약은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평생 함께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해야 합니다.

아내가 여럿이었다면 처음에 생육과 그에 따른 인구 증가가 더 빨랐을 것입니다. 사람들과 사회들이 일부다처제를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서(예를 들어 족장들, 다윗 등) 그것을 참으셔야 했더라도 말입니다.

2.1.11 서로를 위한 선물

두 사람이 서로 마주 서 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습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 처음으로 만납니다. 서로 다르면서도 서로 꼭 맞는 두 몸이 서로에게, 서로를 위하여 선물로 주어집니다. 다른 성별과 그에 속한 성(섹슈얼리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의 계획을 보여 주십니다. 그렇게 성은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채워 주는 데 쓰이며, 성의 차이에 대한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아담이 혼자였을 때, 그는 이 감사를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을 한 인격으로 온전히 인식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직 다른 “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되려면 관계와 마주 선 상대가 필요합니다. 남자에게 여자는 자기 자신의 사람됨과 서로를 풍요롭게 한다는 의식을 깨닫게 해 주는 도움입니다. 하와만 선물인 것이 아니라, 그녀는 아담이 자기 자신을 그녀를 위한 선물로 깨닫게 해 줍니다. 서로 함께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그들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통해 서로를 위한 선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춥니다.

하와에게서 그저 복종하는 돕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본 아담의 기쁨과 감사는 그녀의 인격의 존엄을 드러냅니다. 하와도 그녀대로 아담에게서 그 존엄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와는 자유롭고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격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그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뜻입니다. 여성성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남자가 (자기의 생명과 존재 외에) 받은 첫 선물입니다.

복종을 요구하는 권위는 선물을 부인합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그 선물에 대한 권한을 얻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할 권한을 받았을까요? 그녀를 위해 사랑으로 자기 몸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 성적인 것을 넘어서. 그는 그녀를 받아들일 권한을 받았습니다 - 누이처럼. 그것은 지시하거나 그녀를 다스릴 권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타락이 가져온 나쁜 결과로 비로소 생겨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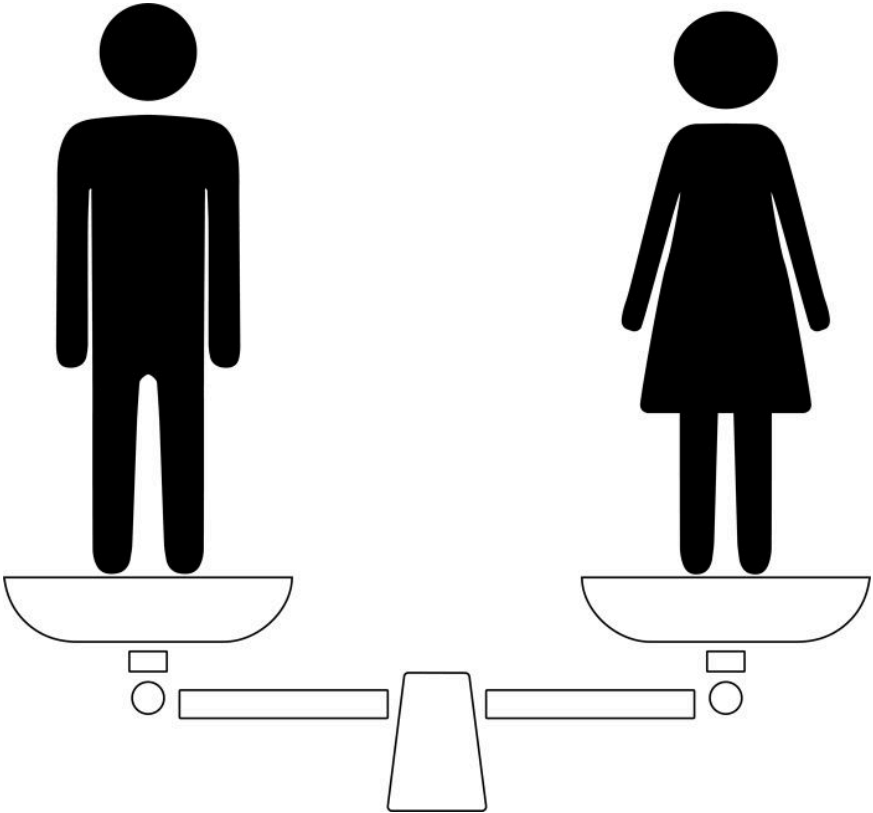
하와를 보았을 때 아담이 한 첫 말은 아가 4:9의 신랑에게서 메아리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길 한 번으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먼저 지음 받은 남자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자신을 희생하고, 먼저 섬기며, 먼저 그녀에게 힘을 실어 주도록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녀 위에 권력을 휘두르도록 권한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이 감사의 태도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완전하게 표현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교회와 지역 교회와 모임에서 모든 사람에게, 믿지 않는 방문자들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보이고 느껴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서막은 인류의 근원적인 꿈을 약속한다. 남녀의 평등과 거리낌 없는 성.”

아르놀트 앙게네펀트(Arnold Angenendt)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가르침은 진리로소이다.

시편 119:142 (Zürcher Bibel, 독일어 성경 번역본)

2.2 남자와 여자의 타락

처음 세 장의 원역사를 하나하나 살펴볼 때, 저는 모형론적 해석이나 예표의 기능을 깊이 다루는 일을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그 문자 그대로의 존재로 드러나는 사람됨입니다. 여기서는 아직 바울의 본문들을 해석에 끌어들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는”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문맥**, 문맥, 문맥입니다.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문을 그 **직접적인 문맥**과 환경과 역사적 상황 속에서, 가능한 한

밝혀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날에는 많은 도구와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이후의 해석 단계가 올바른 길에 들어섭니다.

창세기 3장은 하와와 그다음 아담이 비극적으로 속임을 당하고 불순종한 일을 묘사합니다. 그것은 여러 차원의 깨어짐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치, 죄책, 원수 됨, 고통스러운 수고, 죽음, 그리고 에덴동산에서의 추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련된 모두에게, 곧 뱀과 남자와 여자에게 말씀하시며 그들이 한 일의 결과를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들에게 닥쳐올 모든 일에 대비하게 하십니다.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16입니다. “너는 네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처럼 성경의 기사를 간략하게 살펴봅시다[창세기 3:1-7,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였다.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이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다.**

이에 그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하와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창세기 2:16-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말씀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하는 뱀은 속임수를 쓰면서 일부러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그녀가 더 약했을까요? 아니면 둘 가운데 더 쉽게 유혹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상황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여자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녀가 그 계명을 어찌면 간접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아는 것은 아담에게서 들은 것뿐이었습니다.** 작은 세부 사항

하나가,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보다 더 많이 그녀에게 말했음을 보여 주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녀가 아담이 말해 준 것에 무언가를 덧붙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조심하는 뜻에서였을 것입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하와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한 생명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2:9).

어떤 사람들은 하와의 말에서 벌써 악함이나 불순종의 첫 징후를 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록한 하와의 말은, 우리가 죄를 부정함의 그림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전해 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졌고 정결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에는 이것을 160번 넘게 서술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하와의 말은 죄에 빠져 부정해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보여 줍니다.

유혹자인 뱀의 속임수는 성공합니다. 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의심을 퍼뜨립니다. 하와는 이것을 믿고, 금지된 열매는 탐나는 열매가 됩니다. 하와가 손을 뻗은 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숨기시는 것처럼 보였던 통찰과 지식을 얻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치명적인 결정입니다. 작은 걸음이 큰 결과를 낳습니다.

하와와 아담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그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담도 뱀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지도적 역할을 버렸을까요? 이 모든 것은 추측입니다. 하와는 자기가 이미 맛본 열매를 그에게 줍니다. 아담은 금지된 열매를 받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분의 계명을 의도적으로 어깁니다.**

이 사건에서 좋은 것을 끌어낼 수는 없지만, 이 상황도 두 사람이 똑같이 강하면서 동시에 똑같이 잘못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하와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녀는 그 나무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은 그 나무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 없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 즉시 그들은 자기들이 벗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앓입니다. 뱀이 약속한 그대로입니다.

[창세기 3:8-19,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디 있느냐?

낙원 동산에서 날마다 날이 서늘할 때, 이른 저녁에 하나님을 직접 보이는 모습으로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특권입니까. 성소에서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두려움과 깨어난 양심이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합니다.

그들은 좋은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매우 중요했던 것을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그(아담)가 말하였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누가 너에게 내가 벗었다고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하였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벌거벗었다는 의식은 범죄와 함께 옵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를 따라옵니다. 벌거벗음은 드러난 부끄러움이 되고 수치가 됩니다. 죄책의 표지가 됩니다. 순결함은 지나간 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십니다. 아담은 자기 죄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책임자, 자기 죄를 떠넘길 수 있는 희생양을 찾습니다. 비참하게도, 그는 자기 아내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얼마나 비겁한 일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는 대신 그는 아내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께도 (함께) 책임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그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아담과만 다 해결하지 않으시고 여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각 사람이 개별적으로, 동등한 지위로 말씀을 듣고 판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의로 심판하시며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으실 것처럼 말입니다.

2.2.1 하와의 대답

하와는 거짓말쟁이이며 살인자인 자에게 유혹을 받아 속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녀는 가장 큰 죄가 있는 자를 가리켰습니다. 바로 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말하였다. 뱀이 나를 속이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과 거리를 두고 뱀을 고발합니다. 하와가 눈사태를 일으킨 그 큰 범죄는 유혹을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먹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녀의 태도는 아담의 태도보다 낫습니다. 그녀의 범죄의 정도는 그의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3:13에서처럼 여자에게 물으셨다.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녀는 핑계 없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그녀는 비난 없이 하나님께 대답했다. 그녀는 남자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속지 않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물으시는 것을 들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녀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았다. 그녀는 새로 얻은 지혜로 악을 알아보고 말했다.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대답으로 그녀는 악한 뱀이 자기를 속인 근원임을 폭로했다. 그리고 속임을 당하는 동안 자기가 저지른 악을 고백했다. ‘내가 먹었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방금 저지른 것보다 더 많은 악을 저질렀는가? 아니다. 그녀는 자기와 함께 있던 남자를 탓했는가? 아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탓했는가? 아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그녀에 대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그녀가 흔히 묘사되는 방식과 다르다. 그리고 그녀에 대한 이 잘못된 묘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¹⁴

2.2.2 하와의 수고, 임신, 예속

하와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형벌의 말씀은 엘버펠트 성경(Elberfelder,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이렇습니다.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가 네 임신의 수고를 크게 더하리니, 너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 원함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Zürcher Bibel과 Einheitsübersetzung(둘 다 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수고와 임신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습니다. 두 가지 일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셨다. 내가 네게 많은 수고를 주고 또 네 임신을 많게 하리니, 너는 고통 가운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브루스 플레밍(Bruce Fleming)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깁니다.

내가 반드시 (1) 들에서 하는 네 고된 일과 (2) 네 잉태를 많게 하리라.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그들이 이제 죽을 존재가 되고 타락한 지금 그녀와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힘들게 자식을 낳을 것이다

네 [사랑하는] 원함은 네 남편에게 [있다]

그러나 그는 [반역하여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너를 다스릴 것이다.

14. Fleming, Bruce; Fleming, Joy; Hagemeyer, Joanne. The Book of Eden, Genesis 2-3: God Didn't Curse Eve (or Adam) or Limit Woman in Any Way. Kindle판, 56쪽

16절 첫 부분의 이 구분이 중요할까요? 이로써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전혀 다른 어조를 띠게 되고, 더 중요하게는 다른 내용을 갖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하와에게 어떤 저주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먼저 그녀에게는 농사와 관련하여 많은 수고와 힘든 일이 있으리라는 것이 예고됩니다. 여기에는 가축을 기르는 일과 생계를 유지하는 다른 손일도 속합니다. 수고라는 낱말은 이런 형태로 세 번만 나오며, 언제나 들에서 하는 고된 일을 뜻합니다. 아담이 듣는 것도 그렇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나중에 라멕이 그의 아들 노아에 대해 그렇게 말합니다(창세기 5:29).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손으로 수고하며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아담은 금지를 다 알면서도 그저 하와에게서 열매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저주는 아담에게 내리지 않습니다. 그 저주는 그를 비켜 가서 땅에 내립니다. 이것이 에덴의 은혜입니다. 그 결과는 먹을 것을 얻는 일의 수고입니다. 에덴에서와 달리 삶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와가 같은 땅에서 살고 부부로서 함께 삶을 꾸려 가기에, 그녀도 아담과 같은 수고를 겪습니다. 그 원인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입니다. 그의 행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첫 문장의 둘째 부분에 좋은 소식, 곧 복음이 나옵니다. 임신(복수)이 많아질 것입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창조의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범죄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후손이 있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후손 가운데 하나가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마귀에게 하신 것이며, 마귀에게는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 다음 뱀은 하나님께서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있으리라는 것을 확실히 하시고 보증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와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아담에게도, 그리고 동산에서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와에게 하신 말씀은 긍정적이고 희망에 찬 의미를 지닙니다.

자식을 낳는 일은 아담에게 농사가 그렇듯 하와에게 수고로울 것입니다. 타락 이후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와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녀는 아직 아이를 낳은 적이 없었습니다. 뱀과 아담은 저주와 형벌의 말씀을 듣습니다. 좋은 이전과 나쁜 이후가 있습니다. 하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에서 그녀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몸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번역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든 바꾸시고 출산을 나쁜 것으로 만드신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세계 여러 곳에는 의학적 수단이 있지만, 그런 수단을 쓸 수 없다면 출산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들 곁에 서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돕는 분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딤후 2:15).

예수께서는 한 비유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하와와 말씀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6:21]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또는: 괴로움을 겪으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또는: 아픔)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16-19절에서 기록자는 인간 존재의 고통, 특히 삶의 창조적인 측면인 번식과 먹을거리 생산의 고통을 정면으로 다룬다. 예전의 근심 없음에 이제 수고가 섞인다. 좋은 것(후손, 먹을거리)이 나쁜 것(수고)과 함께 온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셨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범죄가 관련된 세 당사자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선언하십니다. 뱀은 땅으로, 흙으로 낮아집니다. 뱀에게는 여자를 공격한 일이 파멸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뱀은 자기 목숨을 앗아 갈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여자와 뱀 사이에 영원한 원수 됨이 있을 것입니다. 흥미롭습니다. **아담과 뱀 사이가 아닙니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후손, 곧 씨를 가질 것입니다. 이 후손 가운데 하나가 뱀의 머리를 짓밟아 그것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발꿈치를 아프게 물리는 대가를 치르고서입니다.**

이 몇 마디 말씀은 큰 무게와 넓은 범위를 지닙니다. 뱀은 파충류 이상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 곧 마귀입니다.

저는 하와와, 그녀와 함께 여자들이 이 우주적 갈등에서 맡게 될 역할이 놀랍습니다. 세계사와 구원사를 돌아보면 이 갈등은 실제로 그런 갈등으로 드러납니다. 마귀는 “구원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는 여자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는 그녀를 모욕하고, 그녀의 활동을

약하게 하고,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이 우주적 갈등에서 여자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요! 그녀 없이는 한 후손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방금 유혹을 받아 죄를 지었지만, 창조주께서 그녀를 구원의 통로로 세우십니다. 아담이 아닙니다. 그녀는 큰 약속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타락을 다루는 이 장에서도 여자는 복종하는 역할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거의 그 반대입니다. 마치 장차 타락을 되돌리는 일에 그녀가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범죄의 둘째 결과로 그녀와 남자의 관계가 묘사됩니다. 독자라면 누구나 이것이 그들의 관계가 심각하게 흔들리는 것을 묘사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복이 아니라 저주와 같습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죄에 책임이 있는 아담도 자기 행위의 쓰라린 결과를 들어야 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셨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하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책임에서 놓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는 그것을 어겼습니다. 간접적으로 그의 아내를 통해하였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명을 받았고,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 결과는 어둡습니다. 수고와 고생,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한 생존 투쟁이 아담과 아담의 모든 아들의 삶의 운명이 될 것입니다. 하와는 “원복음 또는 최초의 복음”을 듣고 거기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아담에게는 결국 자기가 취해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일만 남습니다. 비극적인 판결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전망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승리, 곧 여자의 후손은 언젠가 남자도 흙에서 끌어내어 생명으로 이끌 것입니다.

2.2.3 너는 그를 원하고,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 형벌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이며, (안타깝게도) 오늘날까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이것은 우리 연구의 핵심에 속합니다. Gute Nachricht(독일어 성경 번역본)는 여기를 이렇게 옮깁니다. 너는 네 남편에게 끌리겠지만,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엘버펠트 성경에서 원함(verlangen)으로 옮긴 낱말은 자기 남편에게 단호하고 흔들림 없이 헌신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스리다라는 낱말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그것이 좋은 다스림인지 나쁜 다스림인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 묘사가 창세기 1장과 2장이 보여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깨어짐이, 비대칭이 있습니다. 불평등과 불균형이 우세해질 긴장의 장입니다. 한편으로, 남자를 향하도록 지음 받은 여자는 실망을 겪습니다. 그녀는 자기의 약함과 상처받기 쉬움 속에서 남자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약함이라고 한 것은 그녀가 육체적으로 더 약한 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녀의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더 약하고 불리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벧전 3:7).

그러나 그녀는 남자에게서 자기의 원함에 맞는 응답을 얻지 못합니다. 그녀에게 돌아오는 것은 공감도, 서로 끌리는 마음도 아닙니다(2:24 참조). “한 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행위와 잉태에서는 그렇겠지만, 함께하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의 하나 됨이 위태롭습니다. 다스림이 남자의 응답입니다. 함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측과 억압과 차별이 남녀 관계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이것은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연장이며, 여기서는 남자의 죄입니다. 아내나 여자 일반을 다스리는 것은 그들의 관계의 일부가 아니었으며, 결코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남자들에게 여자를 다스리라고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니며, 그분이 두 사람을 창조하신 방식도 아닙니다. 하와의 창조와 그들의 첫 만남은 참으로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덴의 동쪽”에는 다른 바람이 불니다. 그곳에서 남성은 신사로 나타나는 일이 드물고, 폭군과 마초로 나타나는 일이 더 잦습니다.¹⁵ 그런 남자에게조차 많은 여자가 여전히 끌립니다.

다른 해석은 이 말씀을 여자가 남자를 다스리려고 애쓸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¹⁶ 그러나 남자는, 물론 예외도 있지만, 이에 맞서 자기 뜻을 관철하고 자기의 권력과 우위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읽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마치 여자가 본성적으로 왕관을 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새끼손가락을 내주면 손 전체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남편을 조종하고 좌지우지하려는 여자들 말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 전체를 이런 일반적인 의심 아래 두거나 연좌제로 묶는 것은 오히려 남성의 타락한 생각과 태도에서 나옵니다. 남성은 그대로 단지 의심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권위를 내세운다는 판결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외는 있다고 덧붙여야 합니다. 두 가지 행동 방식은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온갖 형태로

15. 하나님의 이 형벌의 말씀이 짐승의 세계 일부에도 해당되는지 묻게 됩니다.

16. 4:7과 같은 문장 구조를 보십시오. 또한 아가 7:10도 보십시오. 이 낱말은 이 두 곳에만 더 나옵니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동반자 관계가 있다는 것이 결코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결혼 밖에서도 그렇습니다.

여자의 원함은 지배하려는 욕구가 아닙니다. 아이를 갖기 위한 성적 욕구도 아닙니다. 그것이 거기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 더 깊이 보면 그것은 창조 때 심어진 대로 남자에게 끌리는 마음, 보호를 구하는 마음, 함께함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악하고 대개 가진 것 없는 쪽이라는 그녀의 역할 속에서 그녀의 운명이 됩니다. “기본 생각은 여자를 의존하게 만드는 여자의 욕구가 모성 본능을 채우려는 그녀의 필요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 사회학자들이 더 적은 관심 또는 최소 관심의 원리라고 부른 것을 떠올려 보자. 두 동반자가 참여하는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더 크게 의존하는 쪽이 더 상처받기 쉽고, 관계에 대한 결속의 관심이 더 적은 쪽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¹⁷

창세기 1-2장에 대한 프리드먼(R. David Freedman)의 상호주의적¹⁸ 관점을 받아들이면, 창세기 3:16의 읽기는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전혀 다른 규모의 비극이다. 서로 지지하고 힘이 되어 주는 관계, 평등과 나눔의 관계, 동등한 자들 사이의 인정과 상대를 가장 가까운 동반자로 인정하는 관계였던 본래의 관계가, 끔찍하게 무질서하고 정서적으로 불평등하며 권력에 기초한 사랑 없는 관계가 되었다. 여자는 자기 남편을 원할 것이지만, 그는 그녀를 지배할 것이다. 이것은 충격적인 붕괴이며 전복이다.”

앤드루 매킨토시(Andrew Macintosh)는 하와의 죄의 결과가 “창조 때의 남녀의 철저한 상호 보완성(평등과 보완)이라는 이 배경 앞에서 정의된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여자 가 삶의 기본 성취를 찾을 수 있는 그곳에, 이제 고통과 예측의 짐이 들어선다.”

매슈 린치(Matthew Lynch)는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녀의 출산이 이제 고통으로 얼룩진 ‘좋은 것’(3:16a)이듯이, 그녀의 ‘헌신’도 이제 지배로 얼룩진 좋은 것이다 (3:16b).”¹⁹

이 구절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혼란과 장애와 비극의 표지입니다. 여자는 깨어지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에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나님보다 남자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친절과 연민 대신, 그녀를 지배하려는 그의 깨어지고 무질서한 욕구를 만납니다. 역사 속에서 끔찍할 만큼 규칙적으로 되풀이되는 비극입니다.

타락의 책임은 아담이 져야 합니다. 하와는 피해자였습니다(물론 그래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담은 가해자였습니다. 그는 “손을 높이 들고”, 곧 고의로 죄를 지었습니다. 눈을 뜨고,

17. Walton, 228, Genesi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Zondervan, Grand Rapids, 2001

18. 상호주의적이라는 말은 평등과 하나 됨 속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뜻입니다.

19. Lynch, Contrary Women Genesis 3:16b on the ESV

하나님의 계명을 다 알면서 그는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와가 모든 산 자의 어머니인데도, 하와가 아니라 그가 타락한 인류의 머리가 됩니다(롬 5장; 고전 15장).

저주받은 땅이 아담의 삶을 결정하고, 그를 지배하며, 그의 삶을 고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도 그대로 자기 아내와 여성 전체를 대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전체에 걸쳐 여자는 여러 모양으로 완전한 의존과 예측의 상황에 놓입니다. 사회 전체가 그렇게 형성됩니다. 이것은 예외가 아니라 규칙입니다. 대다수의 문화에서 이것이 정상이었고, 오늘날까지도 흔히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이제 죄인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죄인인 남자는 자기 아내를 다스릴 것이며, 죄인인 여자는 이 관계에서 손해 보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자기 길을 찾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다 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남편을 조종하여, 대개는 허락되지 않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라도 행사하려 할 것입니다.

“이 남녀의 싸움은 이후 모든 민족의 문화의 모든 차원에서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그 원인이 된 악을 뿌리째 붙잡을 때에만 치유될 수 있다.”²⁰

2.3 평등에 대한 반론들

제가 창조 이야기에서 발견하는 입장에 맞서, 같은 몇몇 본문을 정반대로 읽는 방식이 있습니다. 남성의 머리 됨과 우위를 믿는 사람들은 창조 이야기를 아담이 하와의 머리이며²¹ 그녀가 위계상 남자의 지도 아래에 있다는 증거로 읽습니다.

아담은 이름이면서 동시에 인류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경우 하와도 “아담”, 곧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여자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 남성의 지도권 “남새”를 풍긴다는 주장입니다.²² 저는 거기서 남자와 여자가 땅에 매여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고 봅니다. 아다마(땅)에서 아담이 취해졌고, 그다음 아담에게서 하와가 취해졌습니다. 그녀도 아담처럼 언젠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일부러 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지도적 역할을 알아보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중심으로 삼으신다.

20. Schmalenbach, 87, Frausein zur Ehre Gottes: ... im Kontext verschiedener Kulturen, 2007

21. 다른 저자들과 함께 저는 특히 알렉산더 스트라우치(Alexander Strauch)가 내세우는 논거들을 듭니다. Strauch, Alexander, 2001, Die Revolution der Geschlechter, Bielefeld

22. Ortlund, 119

아담과 함께 “인류”라는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중심입니다.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말입니다. 삶의 다른 절반입니다. 이 결핍을 분명히 보여주는 과정(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 주는 일)은 동시에 그 결핍을 채우는 여자의 가치를 보여 줍니다. 사람은 - 남자와 여자로서 - 함께 창조의 중심입니다. 창세기 1:26-27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 그러므로 그는 위계 질서에서 하와 위에 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많이 흘렀을까요, 조금 흘렀을까요? 오늘날과 달리 고대에는 오래된 것이나 나이 많은 것이 언제나 더 무게가 있고 더 우선했다 하더라도, 이런 추론은 그러한 확정을 내리기에 알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이 순서가 남자의 지도적 역할의 근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의적인 추론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순서를 서열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자세히 다루겠지만,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아담이 먼저 지음 받았다고 강조할 때, 그것은 성경 보충 수업이 아니라 위계 질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다른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장자권은 이런 시간 순서의 원리에 따라 작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에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견해나 올바른 견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 이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이나 마음의 태도를 비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순서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온 것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둘째 것이 사람의 창조라는 문학적 이야기의 클라이맥스, 곧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기사에서는 사람(남자와 여자)이 창조의 절정입니다. 둘째 기사에서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절정입니다. 저는 이것을 예로 드는 것이지, 그 위에 제 주장을 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관점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관점이 하나뿐이라거나 우리의 관점만 있다고 생각할 때 잘못된 결론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계명은 하와가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께 받았다. 이것은 그가 본래의 머리/지도자임을 보여 준다.

창조 이야기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을 때 하와는 아직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이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만 말씀하셨다면, 그때에야 정당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지음 받았으므로 그에게 의존한다.

가부장적 생활 형태에서는 이런 의존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결코 이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든 인물이 그 안에서 살았고 성경이 그것을 묘사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오늘날 여자는 남자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각자 또는 혼자 살아가고 생계를 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립적으로 보아 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좋은 일입니다.

아담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이것은 그가 그녀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는 표지다.

이름을 지어 주는 것은 권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얕과 평가와 통찰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흔히 한 사람의 본질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름 짓는 일을 권위와 연결하는 사람은 이 일이 타락 이전이 아니라 타락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Gehilfin)이 되도록 남자에게서 지음 받았다.

기록자가 “도움”이라는 말을 쓰는 방식을 보면, 그가 생각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아니라 똑같이 강하고 동등한 지위를 지닌 인격입니다.

남자들은 여자의 돕는 역할을 기꺼이 환영합니다. 자기들만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의 생각이 아닙니다. 도움은 결코 권위나 서열의 차이를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게다가 남자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계가 생겨나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하와는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그 반대가 아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와는 아담의 소유나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똑같이 강한 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혼인 언약을 말할 때, 남자가 여자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의 방향 또는 움직임입니다. 원한다면 거기서 그녀가 더 강한 쪽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끌리니까요.

하와가 먼저 죄를 짓는다. 이것은 여자가 유혹과 속임에 더 약한 연약한 성이라는 표지다.

이 결론이 맞는다 하더라도 – 저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 여자에게 유혹을 받아 죄에 빠진 수많은 남자를 생각하면, 이것은 아무런 위계의 근거도 되지 않습니다.

유혹자가 그녀가 더 약한 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담은 죄를 짓기 위해 유혹을 받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아담은 지도권을 행사하고 머리가 되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극이 일어났다.

이 일과 이 원죄를 막는 데 위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은 날마다 수천 번씩 일어납니다. 죄는 분명한 “아니요”로 막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으니 하와에게 반대했어야 했습니다. 이 일은 위계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근거 짓지 않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그것은 책임 있고 결정할 권리가 있는 사람의 자유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아담이 머리였고 지도적 역할을 맡았는데 거기서 실패했다면, 왜 하와도 책임을 지게 됩니까? 그렇다면 아담만 책임을 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똑같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똑같이 해명해야 합니다. 아담의 죄는 하와의 죄보다 훨씬 큼니다. 그녀는 간계로 유혹을 받았고, 곧바로 그것을 깨달았으며, 정당하게 뱀에게 주된 책임을 돌렸습니다. 아담은 망설임 없이 “손을 높이 들고” 죄를 지었고, 그다음 하와에게, 결국은 그 여자를 그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까지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대로 논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와가 여기서, 비록 죄로 이끌었지만, 지도적 역할을 했다면, 이것은 결혼에서 남자와 똑같이 여자도 이끌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않습니까? “부부 팀”에서는 누구나 때로 약하고 때로 강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상황에 따라 서로 돕고 피차 복종하는 가운데 지도를 맡을 것입니다.

어쩌면 논거가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느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남자와 여자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성경의 기원 본문은 동등한 지위의 동반자 관계를 위한 가장 강력한 논거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거나 뚜렷한 아담의 지도권을 가리키는 단서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동반자들의 함께함을 가리킵니다. 그런데도 창조 본문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른 입장들이 나옵니다. 여기, 처음에서, 성별 문제에 어떻게 답하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지, 그리고 이 주제에 관한 신약의 말씀들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결정됩니다.

2.4 남자와 여자의 차이

제가 여자와 남자의 평등과 동등한 지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제가 차이를 간과한다는 반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모든 “획일화”나 역할을 똑같이 만드는 것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남자가 그로써 다스리고 이끄는 머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은 중요합니다.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상상된 창조 질서(남자는 여자의 머리다)와 “그가 다스릴 것이다”라고 말하는 타락의 결과가 편향되게 뒤섞이게 됩니다.

분명히 차이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와는 짝이 될 수 없고, 알맞은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한쪽, 곧 절반 전체가 “떼어 내어”졌다면, 그에게는 무언가가 빠져 있으며, 그는 그것을 여자에게서 다시 찾거나 돌려받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전체를 이룹니다.

그래도 성경은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관한 교과서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그 차이를 지적하는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간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역사에서, 문화와 사회의 발전에서 생겨난 차이이며, 하나님의 창조 의지를 순수하고 완전하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창조 기사는 한쪽이 다른 쪽을 다스린다는 단서도, 성별에 따른 과업 분담에 대한 단서도 주지 않는다. 인간의 문화에서 나중에 볼 수 있는, 활동 영역과 과업 분야를 공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가는 남자의 영역과 번식이라는 여자의 사적 영역으로 날카롭게 나누는 것은 창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그것은 생물학적 조건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창조 의지로서 성경의 말씀에서 이끌어 내어 요구할 수는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남자와 여자에게 생물학적 조건의 테두리 안에서 책임을 나누는 데 큰 여지를 남겨 두신다.”²³

저는 연구에서 - 아주 분명한 차이들 외에도 - 어느 정도 밝혀진 몇 가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요점만 들어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복잡하며, 저는 몇몇 예외를 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낸 것을 전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경 자체는 이 점에서 전문 서적이 아닙니다.

남자는 체격과 키가 더 강하고 더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는 남녀를 나눕니다.

남자는 대체로 공간적이고 추상적인 사고에 재능이 있습니다. 여자는 의사소통 능력이 더 큼니다.

대화하고 싶은 욕구는 평균적으로 여자에게서 더 큼니다. 여자는 더 사람 중심적이고, 남자는 더 일 중심적입니다.

성적인 체험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본성상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큰 생물학적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과거의 문화적, 사회적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은사 중심의 역할 분담을 지지합니다. 남녀 평등이 헌법의 일부인 곳에서는, 성별과 상관없이 가장 뛰어난 능력이 모두의 유익을 위해 발휘되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에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이런 가능성이 제한 없이 열려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거기서 많은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사회 변화와 함께 여자와 남자의 역할도 여러모로 달라졌습니다. 그 속에서 이른바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사회 상황에 맞추어 가는 것은 세속화가 아니라 삶을 꾸려 가는 일의 일부입니다. 성경이 어떤 역할 이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이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남자로 사는 것과 여자로 사는 것은 선의의 삶의 조언으로서 여러 책의 주제가 됩니다. 성경 자체는 거의 모든 지시를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줍니다.

오늘날 남편이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아내가 필요한 수입을 버는 경우, 이런 역할 분담은 점점 더 자주 삶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최선인지는 성경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5 창조 질서

이 말은 자주 쓰입니다. 전형적인 독일어 낱말입니다(Schöpfungsordnung). 우리 독일 사람들은 질서를 사랑합니다. 무엇이 유효하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장점이 있고 유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다루는 신약 본문들의 근거를 대려 할 때 자주 쓰입니다.

선한 창조는 창세기 첫 두 장에 묘사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의 본보기이자 표현입니다. 타락 이전입니다!

성경은 창조 질서라는 낱말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신학적 “보조 개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 장들에서 어떤 질서를 끌어내려 하며, 심지어 모든 시대에 구속력 있는 기초로 삼으려 합니까? 낙원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으니 채식주의일까요? 아이를 갖지 못하고 생육할 수 없는 부부들은 어떻습니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일인 가구는 어떻습니까? 두 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벌거벗고 다녀야 할까요?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에는 그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창조 질서**라는 무게 있는 낱말은, 조금이라도 쓸모가 있다면, 구별하여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실제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해 묘사한 것은 모든 시대에 그대로 유효해야 합니다. 그곳과 다르거나 그보다 나쁜 것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으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동등한 존엄을 지니며, 동등한 사명을 받았고, 동등한 지위를 지니며,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1장과 2장에는 어떤 위계도 없습니다. 다름 속의 하나 됨입니다. 같은 수준에서의 보완입니다. 일방적이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묘사된 도움은 아래에 놓인 쪽이 아닙니다.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 온전한 상대입니다. 함께, 눈높이를 맞추어, 그들은 강한 팀입니다. 서로 다른 능력과 은사를 받은 그들은 서로 돕습니다. 이때 성의 차이는 전체의 본질적이고 없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다름은 필요한 것이지만 복종이나 권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의 차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며, 그래서 광범위한 창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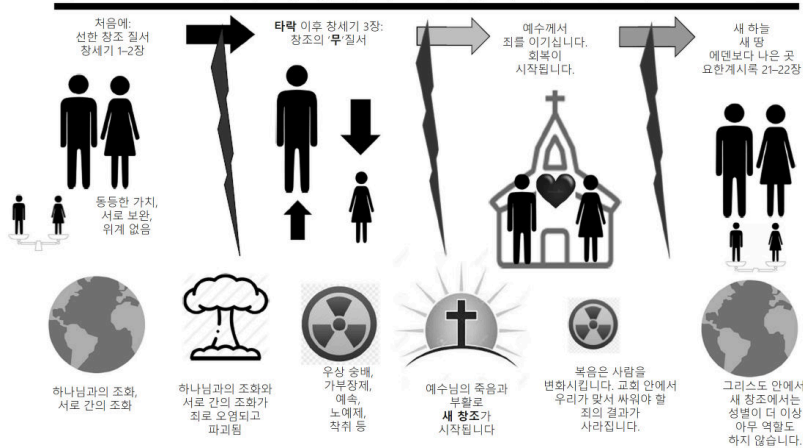
타락 이전의 남자와 여자의 이 그림이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보편적이며 시대를 초월합니다. 모든 것은 이것으로 재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에 걸쳐 남아 있는 영원한 규범입니다.

우리는 이 규범 - 또는 원한다면 이 질서 - 이 죄로 말미암아 균형을 잃고, 공격을 받으며, 몇몇 예외를 빼면 파괴되는 것을 봅니다. 수천 년이 지나서야 이 규범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며(갈 3:28), 모든 시대에 걸쳐 남아 다시는 공격받지 않게 됩니다.

창조 질서라는 낱말은 흔히 여자의 복종과, 공적인 자리에서(남자들 앞에서) 말하고 가르치고 남자들을 지도하는 것에 대한 금지를 가리킬 때 쓰입니다. 질서를 고집할 때 나오는 굳어진 반사 작용입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에는 창조의 질서를 거의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고 그것으로 성 역할이 정해진다면, 그것은 창조의 ‘무’질서입니다. 남자는 더 강한 체격을 바탕으로 권위를 빼앗아 차지했습니다.

보편적인 창조 질서는 기독교 윤리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위계 차이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가지는 존엄 외에도, 하나님 안에 뿌리내린 본질적인 것들이 속합니다. **의와 사랑과 진리**입니다. 이것들은 사람들이 서로 잘 어울려 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위한 성경의 창조 질서



Hans-Jörg Schwesig 10.0.2021

2.5.1 에덴동산에서 새 예루살렘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새 창조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벧후 3:13). 새롭고 더 나은 에덴이 그들을 기다립니다. 지금의 창조를 어떤 방식으로든 이어 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제 새것은 도시로 묘사되며, 그 안에서 에덴의 요소들을 다시 발견합니다. 그러나 타락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새롭고 영원한 도시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새 창조에서 남자와 여자는 형제자매처럼, 오누이처럼 거리낌 없이 서로를 대할 것입니다. 사랑과 존중 안에서. 위계 없이. 그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사명이 끝납니다. 더 이상 성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은 그때 지나간 일이 됩니다. 지금 큰 역할을 하는 것이 그곳에서는 아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빚어 주신 개별적인 인격으로 언제나 남아 있겠지만, 성, 곧 남성과 여성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잃었습니다(갈 3:28). 그때 “성”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세상에서는 적은 수의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두 성을 함께 지니고 태어납니다. 그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새 세상은 구원입니다(우리

모두에게 그렇듯이).

새 창조는 이미 지금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으므로,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이미 지금 그것으로 특징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별은 더 이상 아무 역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직 첫 창조 속에서 길을 가고 있으므로 매우 다양한 문화적 도전을 만납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곳에서는 성별을 여전히 고려하는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새 창조에는 위계나 복종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새 창조의 삶을 삽시다!

2.6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 - 그 역사

이 장에서 저는 창세기 3:16의 형벌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비극적인 질문을 따라가 봅니다. 저는 제한적으로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취는 억압과 착취와 차별과 불이익의 한 우주를 담고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바다입니다.**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자든 남자든 아이든 권력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 위험한 곳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자의 처지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많은 증거를 갖게 된 것은 많은 역사가와 고고학자와 신학자의 연구 덕분입니다. 인터넷은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어서 여러 시대의 인용문 모음이 나옵니다. 영향력 있고 잘 알려진 남자들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 주는 인용문들입니다. 짧은 지면으로는 이 주제를 결코 제대로 다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교회로 끌려 들어와 기독교화되고 길러진 짐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여성을 경멸하는 기본 태도가 위대한 그리스 사상가들을 통해 유대교 안에 어떻게 자리 잡았는지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시 교회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더 나아가 교부들은 이 문제에서 성경의 관점보다 그리스의 유산을 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들의 영향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손에 잡힐 듯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것을 드러내고 반박하는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오직 하나의 구호만 유효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께로 돌아가자!

2.6.1 고대

고대²⁴의 여자들은 아름다움을 구현했고, 남자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체력도 더 약했습니다. 부유한 여자들은 긴 비단옷을 입고 공들여 꾸민 머리 모양을 했습니다.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곁에 두면 사업과 정치에서 충분히 유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서 여자들은 제한된 권리만 가졌거나 아무 권리도 없었습니다. 간음을 하면 여자들은 고발당하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추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공직은 남자들만 차지했습니다. 여자의 역할은 분명히 정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자들에게 되도록 아들을 낳기를 기대했습니다. 부자들은 살림을 돌보는 노예들도 두었습니다. 여자 노예들은 아무 권리가 없었고 많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의 어떤 여자들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했고 결정에 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의 매력은 남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흔히 좋은 수단이었습니다.

“고대에 ‘자유인 남자’ 또는 ‘시민’(남자)은 인간의 완전한 모델로 여겨졌으며, ‘자유인 여자’ 또는 ‘여성 시민’(여자)과도 분명히 구별되었다. 여자는 그녀에게 부여된 신체적 체질과 열등함 때문에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 열등함은 타고난 것이며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여겨졌고, 이것으로 여자의 법적 무능력과 남성 후견인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사회에서의 역할에 맞게 여자는 수동적인 존재로 여겨졌고, 이것은 (이성애적이며 삽입하는) 성관계에도 미쳤다. 여자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살림에서 주도권을 쥐거나, 공적인 자리에 너무 많이 드러나거나, 성관계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가문 전체의 명예로운 지위를 위협했다. 반면 남자는 집과 집안의 아이들(여자들, 아이들, 여자 노예들)을 다스리지 못하거나, 자기 욕구(먹고 마시는 것, 정욕, 성, 잠)를 다스리지 못하거나, 공적인 자리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적거나, 성관계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면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험이 있었다.”²⁵

아테네의 여자들은 로마 공화정 시대와 비슷하게 남자 아래에 있었으며 그를 따라야 했습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미성년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을 이끌고 지도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소녀와 여자는 후견인과 그의 번덕에 내맡겨져 있었습니다.

24. 고대란 대략 기원전 600년부터 기원후 400년까지의 그리스와 로마 문화를 가리킵니다.

25. Voß, Heinz-Jürgen, Das differenzierte Geschlechterverständnis der Antike, Gender, 2/2009

2.6.2 아리스토텔레스

기원전 384-322년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이자 박사가 가운데 한 사람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의 열등함을 보편타당한 사실로 만들었습니다. 여자의 가치에 관한 문제에서는 그의 모든 학식도 소용이 없었고, 그는 그 점에서 자기 시대의 아이로 남았습니다. “**암컷은 불구가 된 수컷이다**”라는 말은 그의 세계관에서 나온 중대한 결과를 낳은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신이 생명을 낳는다고 본 뒤로, 여자들은 “정신적인” 남성의 씨를 위해 자기 몸/자궁을 부화실로 내주는 “정신 없는” 조수에 지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의 생물학적 조건이 열등하다고 전제하고 그로써 여자가 사회적으로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정당화한 다음, 혹시 일어날 실패의 책임까지 그녀에게 돌립니다. 생명이 생길 때 여성의 몫이 우세하면 그것이 “... 기형적인 형체가 태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형태에서 여자들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정치에서 배제되었고, 경제적으로나 다른 모든 일에서 집의 주인인 남편에게 의존했습니다. 곧 평생 남자의 후견 아래 있는 미성년자였습니다. 남자들은 대체로 훨씬 어린 여자와 결혼했으며, 이것은 그들의 지배를 더욱 강하게 했습니다. “아내들의 본질적인 과업은 남자 상속자를 낳고 남편의 살림을 꾸리는 것이었다.”

딸들은 태어난 뒤 아버지의 결정으로 버려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살아남은 소녀들에게는 혼전 순결과 나중에는 결혼 생활의 정절이 요구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여자들은 삶의 대부분을 집 안에서 보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세계관에서 위계는 “본성으로 주어진 것”이며, 마찬가지로 어떤 이들은 다스리며 모든 권리를 갖고 다른 이들은 다스림을 받으며 아무 권리도 갖지 않는 것이 사물의 본성에 속합니다. 그의 세계관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다스리도록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다스림을 받도록 태어납니다. 그에게는 남성적인 것이 여성적인 것보다 더 가치가 있으며, 그래서 여성적인 것은 남성적인 것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완전하듯이, 인류 안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완전하다. 그리고 그의 완전함의 원인은 열이 더 많은 데 있다. 열은 자연의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방식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생각에 지속적인 철학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는 성차별의 관행을 체계화했고, 남녀의 불평등을 믿는 학문적인

지배 체제를 제공했습니다. 수백 년 뒤, 그들 자신이 그리스 문화와 교육의 산물이었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의 글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여성성에 대한 이중의 고발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고전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하다는 확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남자에게 명령을 받아야 하며, 남자의 즐거움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스토아 철학자들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 주의를 흐뜨리는 것이며 유혹이라는 확신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여자를 피해야 하며, 그래야 남자를 우월하게 만드는 자질을 자유롭게 익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견해는 여자와 결혼에 관한 바울 서신의 전통적 해석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복종과, 종교개혁 시대까지 흔히 이상으로 여겨진 독신입니다.

아테네의 여성 경멸을 불멸의 것으로 만든 사람은 소크라테스(기원전 470-399년)였습니다. 그는 여자를 자주 더 약한 성이라고 부르면서, 여자로 사는 것은 신의 형벌이라고 논증합니다. 여자는 남자와 짐승 사이의 중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비극 작가 에우리피데스(기원전 480-407년)에 따르면, 남자 한 사람의 생명이 여자 천 명과 맞먹습니다.

훨씬 더 많고, 심지어 더 모욕적인 인용문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여자에 대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해 줄 뿐입니다.

2.6.3 소유물로서의 여성

여자들은 자기 결정권을 대부분 빼앗겼고, 때로는 거의 일종의 재산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아들들은 아버지 재산의 상속자이자 가장으로서 딸들보다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딸들은 귀중한 자원으로 신부값을 받고 다른 남자들에게 팔려 갈 수 있었습니다.

고대의 문헌이 증언하듯이, 여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남자들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들은 자기의 유리한 위치를 이용해 여자들을 성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여자들은 공적이고 정치적인 영역에 참여하지 못했고, 대개 살림과 출산과 양육의 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원칙적으로 한 남자(남편, 아버지, 또는 오빠나 남동생)의 후견과 완전한 경제적 의존 아래 있었습니다.

결혼 안에서 결정적인 권력은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의 후견인이었고, 재산과 가족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최종적이며 대개 유일한 결정권을 가졌습니다.

아내들의 역할은 거의 전적으로 살림과 자녀 돌봄에 그쳤습니다.

그들이 자녀를 낳는 일에는 특별한 관심이 쏟아졌고, 결혼 밖에서의 정절은 사회적으로 특별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첩, 여자 노예)에게는 자기들이 일하는 땅의 주인인 자유인 남자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 주는 일이 기대되었습니다.

2.6.4 가부장제

큰 종교들과 힌두교는 그 규칙과 규정으로 세계 곳곳에서 가부장제가 생겨나는 데 관여했습니다.

언어적으로 이 말은 헬라어 *patér*(“아버지”)와 *arché*(“기원”과 “다스림”)에서 왔습니다. 가부장제는 남성 지배(Androkratie)²⁶라고도 부르며, 전통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그리스법과 로마법에서 비롯된 하나의 체제를 가리킵니다. 이 체제에서는 가족과 집안의 남성 가장이 그에게 의존하는 여성과 남성 가족 구성원들에 대해 법적, 경제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같은 사회 계층 안에서는 남자들이 딸이나 누이나 아내로서 자기에게 속한 여자들 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가부장제를 단순히 남성 지배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높은 계층의 여자들은 그들 아래에 있는 여자와 남자들에 대해 권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가부장제는 족장들에게서 이미 볼 수 있듯이 집안을 지배해 온 사회적 삶의 형태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발전했고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상이 아니라 에덴 저편의 문화사의 일부입니다. 모든 장점과 단점을 함께 지닌 채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부장제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반영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본보기에 상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 구조에 대한 그런 생각은 그대로 지지받지 못합니다. 그 구조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서 잘 작동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가족 구조는 타락한 세상의 일부이며 그 역사의 한 발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보기나 지시에서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생존을 보장하는 모델로서 자리 잡았고, 지구의 많은 곳에서 여전히 생존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구조물로서 그것은 성경의 빛 안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26. 헬라어에서 옮긴 Androkratie라는 말은 남자의 다스림을 뜻합니다. 이 말은 더 널리 쓰이는 지배 형태인 가부장제의 동의어로 드물게 쓰입니다.

2.6.5 유대 사상 속의 그리스 영향

제가 앞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인용한 것은 이런 사고가 유대교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이르면,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이 구약에 반영된 존중으로 여자들을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세 가지 요인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녀 관계를 왜곡하게 했다.

1. 죄스러운 행동. 죄는 이해와 관계를 왜곡한다.
2. 성경 본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
3. 헬레니즘(그리스) 사상의 영향.

기원전 3세기에 헬레니즘 사상이 유대 사상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이 침투는 기원전 175년에 통치를 시작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통치 동안 가속화되었다. 안티오코스는 그 뒤 유대에 침입하여 그곳을 강제로 헬레니즘화하려 했다. 그 결과 유대 사상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았다. 이것이 여자에 대한 유대인의 시각을 물들였다.”²⁷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 율법에서 여자의 위치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공식으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 ‘여자, (이방인) 노예, 그리고 아이(미성년자)’. 이방인 노예나 미성년 아이와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는 그녀의 주인인 남자가 위에 있다. 이것은 예배 참여도 제한한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녀가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에 덧붙여, 여자에 관해 경멸적인 견해가 넘치도록 표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결코 없지 않았던 높은 존중의 견해들을 이런 견해들이 압도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아들이 태어나면 기쁨이 넘쳤던 반면, 딸이 태어나면 흔히 무관심으로, 심지어 슬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전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시대의 유대교도 여자를 매우 낮게 보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동방에서 흔히 그렇듯이, 여자는 무엇보다 출산 능력 때문에 존중받지만 되도록 바깥 세상과 격리되어 있다. 그리고 아버지나 남편의 권력 아래 예속되어 있으며, 종교적인 관점에서 남자에 비해 열등한(아래에 놓인) 존재다.”²⁸

27. WKG-Studienpapier, 2003년 9월

28. Jeremias, Joachim, 359-375쪽, Jerusalem zur Zeit Jesu, 1963

2.6.6 교부들

여기서도 초기 기독교에서 그리스 철학의 흔적을 알아볼 수 있게 해 주는 몇몇 인용문만 들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는 자기 본성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수치심이 일어나야 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기원후 150-215년, 『교육자』 (Der Erzieher)

“영향력 있는 예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기원후 354-430년)가 있다. 그는 ‘기독교적’ 여성상의 발전에 특별한 방식으로 이바지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영향을 받은 그는 여자가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했다. ‘여자는 그녀의 남편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이다. 곧 두 사람이 함께 하나의 온전한 형상이다. 그러나 오직 그녀에게만 해당하는 과업인 돕는 배필의 기능에서 그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그러나 남자로 말하자면, 그는 혼자만 따로 놓고 보아도 여자와 하나로 결합된 것처럼 똑같이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다.’”²⁹

5세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발전시킨 불평등과 위계적 분리의 그림을 확인하는 데 바울이 이용되었습니다. 복음의 처음 자유는 다시 물러나야 했습니다. 교회 구조가 점점 굳어지면서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동등한 지위는 점점 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증거는 교회 직분에서 여자들이 줄어들고 배제된 것입니다.

“585년 프랑스 마콩에서 열린 63명의 주교와 그 대리인들의 모임에서 ‘여자는 인간인가?’라는 질문에 32명이 찬성하고 31명이 반대했다. 여자들은 한 표 차이로 인간이라고 선언된 것이다!”³⁰

중세를 대표하는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확인합니다(Prima Pars, Quaestio 92).³¹

“a) 여자를 만들어 낸 일은 창조의 첫 업적들 가운데 언급되지 말았어야 했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I. 아리스토텔레스는 여자를 남자보다 불완전한 인간 형체라고 부른다. 그런데 그 자체로 불완전하고 결함 있는 것은 사물의 첫 설립을 묘사하는 데에서 언급되어서는 안 되었다.

29. Schmalenbach, 196

30. Smith/Kern, Frauen und Männer im Dienst für Gott, Gießen, 2000, 114쪽

31. 더 폭넓은 조사를 위해 www.unifr.ch/bkv/ 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교부 문헌 도서관 (Bibliothek der Kirchenväter)을 추천합니다.

II. 예속과 낮아짐은 죄에서 온다. 여자에게 ‘너는 남편의 권세 아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 그레고리우스는 이렇게 쓴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점에서 우리는 모두 동등하다.’ 그런데 여자는 본성상 존엄으로나 힘으로나 남자보다 약하다.

III. 죄의 기회는 피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나중에 남자에게 죄의 기회가 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녀를 만들어 내셔서 안 되었다. 다른 한편에는 성경의 권위가 있다(창세기 2:18).

b) 나는 이렇게 답한다. 여자가 ‘남자를 돕는 자’가 되는 것은 필요했다. 그것도 다른 어떤 일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그런 일이라면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남자가 남자를 더 잘 도왔을 것이다. 그것은 생식의 일을 위해서였다. 이것은 생식의 여러 단계를 살펴볼 때 가장 잘 알 수 있다. ... 오직 개별적이고 특수한 인간 본성을 고려할 때에만 여자는 결혼 있고 더 약한 무엇이다.”

그는 다른 곳에서 여자는 성적 욕구에 이끌리지만 남자는 이성에 이끌린다고 썼습니다. 또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여자는 자연의 실수이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열등하고, 일종의 불구가 되고 빗나가고 실패한 남자라는 것입니다.

한 줄기 흐름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바울을 거쳐(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를 지나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관점을 오늘날 많은 사람(특히 종교개혁 전통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창조 질서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철학에 오염된 인간관이며, 가장 위대한 사상가와 신학자들도 거기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 탄식할 일입니다.

2.6.7 종교개혁

종교개혁은 중세 가톨릭교회와의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은 여자에게 새로운 자유와 새로운 존중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결혼과 가정에서 여자의 가치를 높인 루터의 공로는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자에 대한 사회의 평균적이고 지배적인 태도가 어느 정도 철저한 경멸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루터에게 여자의 복종은 본성으로 주어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Katharina von Bora)를 존중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강한 상대였으며, 언제 자기의 마르틴을 제지하거나 아예 멈춰 세워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자 일반에 대한 그의 말들은 아마 16세기의 거칠고 외설적이고 상스러운 언어를 반영할 것입니다. “... 여자들의 다스림은 세상의 처음부터 좋은 것을 이룬 적이 한 번도 없다. 흔히 말하듯이,

여자들의 다스림은 끝이 좋은 경우가 드물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모든 피조물의 주인으로 세우셨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직 좋고 옳았으며, 모든 것이 가장 잘 다스려졌다. 그러나 여자가 와서 자기도 손을 대고 영리해지려 하자, 모든 것이 무너지고 황폐한 무질서가 되었다. … 여자가 말을 잘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칭찬할 일이 아니다. 더듬거리고 말을 잘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에게 더 어울린다. 그것이 그들을 훨씬 더 잘 꾸며 준다.” 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서는 규율과 명예를 요구한다. 남자들이 말할 때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 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잡초는 빨리 자란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빨리 자란다.” 그는 한 설교에서 출애굽기 22:18을 인용하면서, 그 말을 문자 그대로, 아주 진지하게 의미했습니다. “너는 무당(마녀)을 살려 두지 말라.” 이 문제에서 초기 루터와 후기 루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평가하거나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문제는 거듭거듭, 바로 우리 시대에도 밝혀야 합니다.

제 관심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조차 어떻게 이 큰 오류에 빠졌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견디시고 참으셨는지 논지시 보여 드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분은 자주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복을 주시고 일하시면서도, 결코 원하지 않으셨던 자녀들의 견해와 관행과 행동 방식을 견디셔야 합니다.

수도원이 해체된 뒤 여자의 섬김과 자리는 집안 영역에 제한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은 여자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자 아내로서 그녀의 존엄은 높아졌지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그녀의 지위는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아르놀트 앙게네톨트(Arnold Angenendt)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성은 모든 시대와 문화의 수많은 문서에서 업신여김의,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었다.” 이것은 기독교에도 똑같이 해당되며, 오늘날까지 그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사람이고 싶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기껏해야 더 나은 처지에 있을 뿐이다.”³² 그리스도인은 오늘날에도 모두를 위한 더 정의로운 세상을 앞장서서 이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한 여성에게 반박할 수 없습니다. “교회사에는 여성 경멸이 너무 많아서 여자로서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그럼에도 앙게네톨트에 따르면 기독교는 처음 몇 세기 동안 하나님의 본래 창조 질서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여자들이 기독교에 끌렸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처음 세 세기 동안 그들은 교회에서 다수를 이루었다. 그 이유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른 어디에서 여자가 남자와 이렇게 평등했겠는가?” 복음의 이 빛은 안타깝게도 다시 어두워지게 됩니다.

32. Schmidt, 118, Endlich gleich, Holzgerlingen, 2019

18세기와 19세기에는 큰 각성 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안에서 지도하고 말씀을 선포한 것은 흔히 여자들이었습니다.³³ 엄격하게 조직되지 않고, 구조가 없으며, 하나님의 영이 거세게 불던 그런 각성의 시기에, 그 영께서는 은사들이 거침없이 일하게 하실 자유가 있으셨습니다. 성별의 차이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은 좋은 전제 조건입니다.**

2.6.8 세속 여성 인권 운동

페미니즘이라는 말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경멸을 받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이 알아야 합니다. 용감한 여자와 남자들이, 바로 그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할 것을 이루어 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날 그들 자신과 무엇보다 그들의 아내들이 이 운동들이 이룬 것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페미니즘을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공로 없이) 혜택을 누리는 노동조합의 성과에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미 어떤 형태로든 그 혜택을 누리고 있고 그 성과를 내려놓고 싶지 않다면, 현대 문화의 그런 운동들이 그 자체로 나쁘다거나 성경에 대한 공격이라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페미니즘은 세속 여성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첫 번째 물결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정치 참여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싸운 여성 인권 운동이었다. 무엇보다 선거권과 공직에 나아갈 권리, 교육받을 권리, 특히 여자아이의 교육을 위해 싸웠고, 자유로운 직업 선택과 직업 활동에 나아갈 권리를 위해 싸웠다. 1896년에 처음으로 여자들이 대학 청강생으로 받아들여졌고, 정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바덴에서 1900년부터 처음 허용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훨씬 늦었다. 1918년에 여성 참정권이 도입되었고, 1949년에 기본법에 남녀 평등이 명시되었으며, 1954년에 공무원 사회에서 기존 여성의 고용 금지가 폐지되었고, 1957년에 남편의 최종 결정권이, 1958년에 마침내 이른바 ‘여교사 독신 제도’가 폐지되었다. 이 제도는 여교사들에게 독신으로 지낼 것을, 결혼하면 직업을 그만둘 것을 의무로 지웠다.

1970년대의 두 번째 여성 운동의 물결은 스스로를 여성 해방 운동으로 이해했다. 법적으로는 적어도 문서상 대부분 평등해졌지만, 여자들은 여전히 차별받고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교육 기회 때문이었다. 당시에는 여전히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인문계 고등학교에 더 많이 다녔고,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많이 대학에서 공부했다. 노동 시장에서 더 나쁜 기회 때문이었다. 실업률이 높은 시기에 여자들은 ‘맞벌이’라는 비난을 받거나 아예 채용되지 않았으며, 임신으로 일을 쉴 수 있다는 이유로

33. Krüger, Hartmut, Frauen im Pietismus, Marburg, 2005

있었다. 같은 일에 대한 더 낮은 임금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과 직장과 가족 돌봄이라는 이중, 삼중의 부담 때문이었다. 여성을 공정하게 대하는 언어가 주목을 받았고, 여성 담당관이 선출되었으며, 여성 지원 계획이 작성되었다.”³⁴

이 모든 것은 여기서 들 수 있었던 것의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이 몇 줄이 에덴 저편에서 여자들이 걸어온 험한 길을 분명히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사고가 교회의 사고에 얼마나 강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벼운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light)가 바울의 말로 정당화된다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옛 뱀을 우두머리로 둔 어두운 세력들만이 여자들이 걸어가는 이 돌투성이 길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와의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태도도 마침내 드러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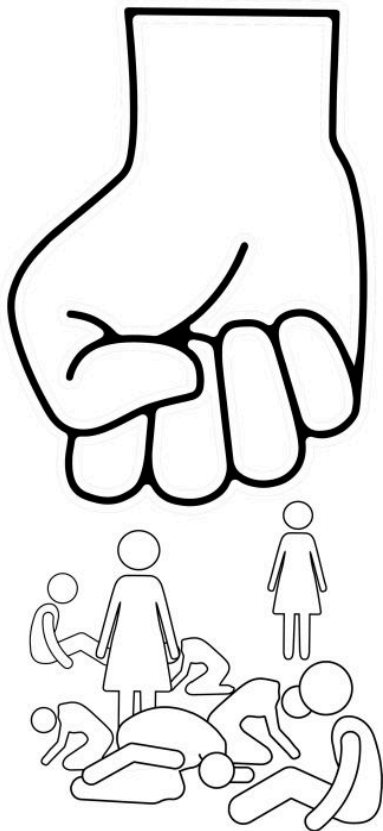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지나간 역사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오래전 일이고 오늘날에는 어디거나 완전히 다르다고 말입니다. 큰 착각입니다. 월드비전은 (10년 전에) 기독교 유산이 없는 나라들에 대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4억 5천만 명의 여성이 어린 시절의 영양 결핍 때문에 신체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많은 사회에서 여자아이들과 그 어머니들은 남자들과 남자아이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야 먹습니다. 여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재산의 1퍼센트만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 사는 13억 명 가운데 70%가 여자입니다. 여자아이가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할 가능성은 남자아이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주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2백만 명의 여자아이가 성적 쾌감을 없애기 위해 할례로 몸이 훼손됩니다. 이 시술에서 살아남으면, 그들은 자라서 고통스러운 성관계와 불임 가능성과 출산 때 죽을 더 높은 확률에 맞닥뜨립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세대에서 실제로 1억 명의 여자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성별 때문에 가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여자아이들 가운데 수백만 명이 인도와 중국에서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머니들이 여자아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으레 낙태를 합니다. 또는 고대처럼 죽도록 버려집니다. 의료 혜택도 그들에게서 박탈됩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이 숨은 곳에서 흘러졌을까요? 여호와 엘로힘께서 하와의 딸들에게 일어나는 일을 보실 때 하늘도 읊니다. 누가 그들을 도우려 올까요? 누가 그들을 위해 나설까요? 이런 현실 앞에서 누구의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겠습니까?

위계는 가부장제의 기원이며, 가부장제는 성과 권력 남용의 기원이다.

베스 앨리슨 바(Beth Allison Barr)



3 메시아 예수와 여성들

우리가 쓰는 연대(서기)는 유례없는 기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십니다. 영원하신 분, 창조주께서 친히 오십니다. 그분은 여느 사람처럼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여, 나사렛과 그 주변에서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과 건축 일꾼으로서의 직업 생활을 겪으십니다. 나중에 공적인 활동이 시작되었을 때, 그분의 거처는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1세기 유대교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자들에게도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분은 그때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신 바로 그분입니다. 아담의 아들, 곧 인자이신 여호와 엘로힘께서 여자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해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자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혼하지 않으셨지만, 어머니와 누이들을 겪어 보셨습니다. 그분은 남자들이 자기 아내와 여자 일반을 어떻게 대하는지 날마다 느끼고 보십니다. 그분 자신은 어쩌면 만아들로서 가족을 책임지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의 아버지 요셉이 더 이상 살아 있지 않아 그 역할을 떠맡으셔야 했다면 말입니다. 그분의 누이들은 그분을 어떻게 겪었을까요?

그분은 무대 뒤를 보십니다. 늦어도 공적인 사역에서 그분은 담을 허물고 당시 유대 세계를 뒤집어 놓으십니다. 누군가 우리의 본보기라면, 하나님을 계시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모순의 끝이십니다.

이 장에서는 교리나 교의학이나 입장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야기들. 만남들. 태도들. 발견들.

여기서 다루는 예수님과 여자들의 만남은 모두 이미 여러 번 다루어진 것들입니다.³⁵ 그리고 그 만남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거의 핵심적입니다. 이 본문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여자들의 삶에서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에덴에서 여자가 지녔던 지위로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짓누르고 침해하는 남자의 부정적인 다스림도 그 모든 형태와 함께 멸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그들은 예수께서 태어나셨을 때,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로시 L. 세이어즈

35. 지면과 시간 관계로 저는 지도적 역할을 맡거나 예언한 구약의 용감한 여자들을 살펴보는 일을 생략합니다.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독보적이고 담대하며 자립적이고 영적이며 용감한 여자이지만, 여기서는 더 다루지 않습니다.

(Dorothy L. Sayers)의 이 강렬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용문을 읽어 보십시오.

“여자들이 구유에 맨 처음 오고 십자가에 맨 나중까지 남아 있었던 것은 어쩌면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들은 이런 남자를 본 적이 없었다 - 이런 분은 다시는 없었다. 잔소리 없이 꾸짖고 생색내지 않고 칭찬한 선지자요 교사, 그들의 질문과 논증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분, 여자답게 굴라고 결코 다그치지 않고 여자라는 이유로 결코 비웃지 않은 분,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전혀 거리낌 없이 대한 분이였다.”

예수께서는 이중 잣대 없이, 배제 없이, 생색 없이, 마지못해 참아 주는 것도 없이 여자들을 만나십니다. 오히려 관심과 이해로, 아니 친절과 사랑으로 만나십니다.

기록된 일들은 그리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들에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록되지 않은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시작되면, 어쩌면 언젠가 그 일들을 돌아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들을 이미 백 번은 읽거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저는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그 특징들, 문화적인 특징들도 간략히 짚어 보겠습니다. 본문을 모두 옮겨 놓겠으니 성경을 따로 펼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몇 가지 생각만 나누겠습니다. 이 거룩한 순간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십시오!

3.1 섬기는 여제자들

[누가복음 8:1-3]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당시의 다른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랍비들에게는 여자 제자가 없었고, 여자를 제자로 두려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랍비에게서 배우는 것은 남자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할 때면 언제나 열둘을 생각합니다. 누가는 이름을 덜 수 있는 여자들과 이름 없는 많은 여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열두 남자보다 더 많은 제자가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누가는 70명을 말했습니다(눅 10:1, 17). 그러나 어쩌면 거기에는 이미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쨌든 누가가 묘사하는 제자의 무리는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섞인 무리로 보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 랍비를 통해 구원을 경험했고, 그때부터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스승을, 그리고 아마도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모든 사람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만들고 빨래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 어쩌면 그것도 했겠지만, 그들은 자기 소유로 섬겼습니다. 그들, 또는 적어도 그들 가운데 몇몇은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의 사역에 **재정을 댔습니다**.

이것은 유례없이 금기를 깨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제자의 무리에 받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남자들보다 더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여자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 얼마나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그들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남자 제자들과 비교하여 어떤 특별한 점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3.2 여자들도 배워야 한다

[누가복음 10:38-42,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도 예수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많은 섬기는 일로 매우 분주하였다. 그가 나아가 말하였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 남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집에 머무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분은 환영받으셨습니다. 그분이 가르치시던 시간은 황홀경과 같았습니다. 생명의 말씀, 능력이 있는 말씀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그것이 많은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자매 사이에 다툼이 생긴 것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원망하듯 말을 건넌 것으로 보이는 예수께서는 마리아에게, 그리고 그로써 모든 여자에게 제자가 되고 배우는 사람이 되는 특권을 주십니다.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 사이의 차이 없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는 모든 차이가 평평해집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여자들에게도 진리를 배우고 믿음에 굳게 뿌리내리는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대화와 질문에 참여합니다.

3.3 모두 평등하다

[마가복음 3:33-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께서 이제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서 가정적인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하나님 나라와 새 창조의 새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앞의 항목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과 그의 관계 안에서, 곧 제자도 안에서 성별은 없어지지 않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더구나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위계적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께서 위계에 대해 말씀하시거나 그것을 가르치신 적이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없이도 예수께서는 이미 그분의 행동으로 당시의 문화적이고 “경건한” 관습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형제와 자매라고 부르십니다!

3.4 월경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다

[마가복음 5:32-34]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쭙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고통에서 놓여 건강할지이다.**

월경 자체는 여자에게 복이 아니라 짐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그 처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자들은 월경하는 동안 제의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일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운명일까요?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출혈이 멈추지 않을 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늘 부정했습니다. 나병 환자와 비슷하게 그녀는 사회생활에 거의 참여할 수 없었고 종교 생활에는 전혀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 나아가 치유를 붙잡은 그녀의 용기는 복음서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병을 고통이라고 부르십니다. 그것을 끝내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그 여자를 삶으로 되돌려 보내십니다. 바로 그 뒤에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그분은 그곳으로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분은 감동적으로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로서, 그녀가 12년 동안

그리워했던 받아들여짐과 관심과 존중의 느낌을 그녀 안에 일깨웁니다. 딸이 아버지의 따뜻한 돌봄을 경험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길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분은 이 “부정한” 여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그분만 하신 일을 하십니다. 공개적으로 한 여자와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에게 삶과 존엄을 되돌려 주십니다. 남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여자들은 더욱!

3.5 쫓겨났다가 찾아진 여인

[요한복음 4:6-9]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으러 왔으므로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4:27-30]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젊은 시절에 저는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지 모릅니다. 대개는 아버지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만 찾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제 젊은 시절의 진리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집회에서 잠잠합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왜 이 깊고 중요한 진리들을 한 여자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러 번 이혼한 여자에게? 이제 막 메시아를 알게 된 여자에게?

그분은 자유로우셨습니다. 그분은 남자와 여자를 대등하게 창조하신 여호와 엘로힘이었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여자들을 만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습니다. 당시의 여성관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지요. 예수께서는 여러 번 버림받은 이 여자의 비극적인 삶의 이야기를 구원의 이야기로 만드시려고 이 고된 길을 가셨습니다.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상대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남자에게 몸을 맡겨야 했던 한 여자였습니다. 수가의 우물가에 있던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모든 남자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모습이었습니디. 그분은 메시아셨습니다.

그녀는 최초의 여선교사가 됩니다. 그녀가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고 두려움을 이겨 냈기에 그녀의 마을 전체가 믿음에 이릅니다. 참으로 숨이 멎을 듯한 이야기여서 제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직접 드러내신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그분은 하늘을 여십니다.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한 여자에게 예배의 본질을 가르치시는데, 어떻게 바울의 발언 금지를 그렇게 해석하여 모든 시대의 교회의 모든 여자에게로 넓힐 수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적인 특징인 예배에 대해 가르치시는데 말입니다!?

3.6 간음에는 두 사람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8:1-11,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예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아침 일찍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오거늘,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였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셨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사람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갔다. 그리고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다.

여러 성경이 여기에 “예수와 간음한 여자”라는 제목을 붙입니다. 그러나 간음한 남자는 어디 있었습니까? 교부들은 - 그리고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 여자가 성적인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의 여성관은 성적인 유혹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반면 예수께서는 그 책임을 남자에게 지우십니다(마 5:28). 남자는 여자를 볼 때 성적인 욕망을 살피고 억눌러야 합니다. 다시 말해, 네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유혹하는 쪽이 여자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여자보다

더 빨리 흥분하는 남자들은 여자를 빨리 넘어오게 하려고 무엇이든 합니다. 여기서는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의 상대 남자는 비겁하게 그녀를 버려두고 갔거나, 동료 남자들이 그를 감싸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몇 마디만 하셨지만, 그 말씀은 많은 것을 말해 주었다. 죄는 죄였다. 남자가 지었든 여자가 지었든 말이다.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아무도 숨거나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할 수 없을 것이다. 여자의 죄는 남자의 죄보다 더 나쁘지 않았다 - 그러나 더 낫지도 않았다. 대등함이 기준이라면 둘은 거의 던져지지 않는다.”³⁶

3.7 허리를 펴고 온전히 서다

[누가복음 13:10-17,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보라, 열여덟 해 동안이나 약하게 하는 영에 들린 한 여자가 있었다. 그는 꼬부라져서 조금도 몸을 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불러 이르셨다. 여자여, 네가 네 약함에서 놓였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니, 그가 곧 몸을 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 그러면 열여덟 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을 하시매 반대하는 자들은 다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였다.

회당은 남자들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한가운데로. 한 여자를. 그것도 보기에 끔찍한 모습의 여자를. 위대한 의사께서 그녀를 자기 앞으로 부르십니다. 남자들은 전통을 깨는 이 일을 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이었다는 사실만이 그들에게 예수님을 공격할 알파한 구실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단 한 번 나옵니다. 그렇게 꼬부라진 여자가 몸을 펴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가엾은 여자에게 마음을 쏟으시는 그분은 그녀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그녀는 평소에 남자들만 있는 곳에 섭니다. 곳곳하게.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그녀에게 건강만이 아니라 존엄을 되돌려 주십니다. 그분은 그녀를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평소에 남자들의 목소리만 들리는 곳에서 그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말하자면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순간입니까!

36. Hamilton, David

여자들이 뒤편에 거의 숨겨져 있고 남자들만 말하던 유대 회당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움직이는 방식의 본보기가 아닙니다.

3.8 이중 잣대는 없다

[마태복음 19:8-9 (5:31-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요,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유대인 남편들은 비교적 쉽게 아내를 내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언제나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내보내진, 아니 쫓겨난 여자는 거의 버림받은 처지가 되어 살아남기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처음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대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결혼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였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같은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때 유대인들 사이에서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여전히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이며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창조 이야기를 근거로 여자를 보호하시고, 남자들에게 간음의 경우 말고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아내를 그냥 내보내지 말라고 호소하십니다. 그분은 여자들을 위해 나서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시고, 이런 내보냄의 원인으로 보시는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십니다.

3.9 염치없을 만큼 큰 은혜

[마가복음 14:3-9,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식사 자리에 기대어 앉으셨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화를 내며 말하였다. 무슨 까닭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리고 그 여자를 책망하였다. 예수께서 이르셨다.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것은 믿기 어려운, 거의 민망한 상황입니다.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은 그녀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자들의 모임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녀가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모아 둔 한 해 품삤,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께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녀는 여겼습니다. 나사렛 사람의 머리에 이토록 값진 것이 부어진 적은 그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에게서 이런 향기가 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모든 사람 앞에서 높이시고, 어떤 남자에게도 주지 않으신 자리를 역사 속에서 그녀에게 주십니다. 그분은 그 일을 더할 나위 없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 그분의 사명이 결국 골고다에서 가장 낮은 곳이자 가장 높은 곳에 이르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용서받은 죄인 이상이다. 예수를 섬길 때 흘리는 그녀의 많은 기쁨의 눈물은, 섬김을 포기하고 예수를 부인한 뒤 통곡하는 베드로의 눈물과 대조를 이룬다(눅 22:62). 그녀의 그치지 않는 입맞춤은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과 대조를 이룬다(눅 22:47). 예수의 발치에 있는 그녀의 자리는 종의 자리이며, 예수 자신이 취하시는 자리다(눅 22:26-27). 옥합을 깨뜨려 그 값진 내용물을 붓는 그녀의 사랑의 행동은, 자기 몸이 깨어지고 자기의 귀한 피가 그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를 위해 쏟아지도록 내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본받는 것이다(눅 22:20). 그녀는 그리스도의 이콘(형상)이다!”³⁷

여자들에게 침묵을 명하고 설교를 금하는 모든 남자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고 설교할 때 이 여자를 얼마나 자주 언급했습니까?

3.10 십자가: 남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마태복음 27:55-56]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었다.

[마가복음 15:40-41]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37. Reid, Barbara E., 76쪽, Wisdom's Feast, 2016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누가복음 23:55-56]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마태복음 28:9-10] 그들이 제자들에게 알려러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쓴 남자 기록자들이 여기서 이 여자들에 대해 쓰는 방식이 주목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자들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잊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동료 제자인 것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자들도 유대교와 탈무드의 여성관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여성관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몇 해가 걸렸지만, 그들은 이 점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게다가 남자로서 그들에게는, 여자들이 십자가 처형을 적어도 멀리서 지켜보는 동안 자기들은 - 요한만 빼고 - 도망쳤다고 쓰는 것이 꽤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대하신 태도가 그들을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키워 주셨습니다. 그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읽는 것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이신 존중의 메아리입니다. 전통과 관습을 거슬러 그분은 그들을 여제자와 제자의 무리에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지 못하지만, 앞에서 든 사실들은 한 가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분은 남자 제자와 여자 제자를 똑같이 존중하셨습니다. 가장 안쪽 무리에 여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3.11 여사도 마리아

[요한복음 20:15-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재판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증인이 될 가치가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 지경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시대에 가장 중요한 소식을 여자들에게 말하시고 그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 제자들 자신에게도 -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십자가 처형 직후에 이보다 더 중요하고 더 큰 소식이 선포된 적은 없습니다.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워 숨어 있던 제자들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라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 사명 앞에서 여자가 설교해도 되느냐는 질문은 별로 지각이 없음을 드러냅니다.

이 단 한 번의 파송에서 저는 마리아를 여사도, 곧 부활하신 분께 사명을 받은 여자라고 부릅니다. 한 동산에서 하와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이 동산에는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주님이며 해방자이신 분을 그리워하며 찾는 한 여자만 있습니다. 살아 계신 분이 아니라 죽은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녀는 자기 존재를 그분께 걸었습니다. 그분은 그녀에게 전부였습니다. 이 신실함과 사랑을 주 예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인정하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분을 처음 만나고, 그분의 부활 소식을 그분의 제자들에게 선포하도록 그분에게 세움을 받은 사람으로 맨 먼저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요 20:11-18), 이미 고대 교회에서 사도와 동등한 이로 존경받았습니다. 3세기에 로마의 히폴리투스가 *apostola apostolorum*, 곧 사도들의 사도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세웠습니다. 이 칭호는 신학자 흐라바누스 마우루스와 심지어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어받았습니다. 토마스의 여성관은 제가 앞에서 이미 던지시 보여 드렸습니다.

“예수는 여성 운동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한 운동을 세웠다. 그러나 여자들이 그의 사상에 특히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 때로는 적대적인 가족 안에서 고립에 갇혀 있던 여자들은, 세상이 얼마나 불안하고 불공정하며 외로운지 알고 있었다.”³⁸

예수님에게서 저는 여자의 위계적 복종이나 교회의 공적 섬김 또는 지도하는 섬김에서 여자를 배제하는 것을 가리키는 어떤 단서도 찾지 못합니다. 그분이 여자들을 대하신 태도에서, 랍비들의 여성관이 창조주의 설계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메시아께서 하와의 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을 그 가장 깊은 본질에서 온전히 계시하신 분이십니다.

주는 언제나 선하사 내게 많은 선을 베푸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뜻을 깨달도록 나를 도우소서!

38. Boulding, Elsie, 358, A View of Woman through Time, 1976

시편 119:68 (Gute Nachricht, 독일어 성경 번역본)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며, 하늘처럼 굳게 서 있나이다.

시편 119:89 (Neue Genfer Übersetzung NGÜ, 독일어 성경 번역본)

4 여성의 친구 바울

예수님과 바울이 같은 것을 뜻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말을 저는 자주 들었고, 때로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두 분이 서로 모순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보려고 하면 이유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여자들에 관해서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존엄과 헌신과 신실함에 관해서도 말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의 여성상을 그의 편지로 예수님보다 더 많이 형성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를 오해하는 사람은 그를 예수님과 대립시킬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의 편지 몇몇 대목에서, 많은 사람에게 여성의 적으로 역사에 남게 된 빌미를 줍니다. 그러나 그 인식은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본문들을 어떤 다른게 이해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다루겠습니다.

그는 그리스 사상의 영향을 받아 여자를 그다지 존중하지 않던 바리새파 전통에서 왔지만,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³⁹ 이 책의 다른 곳에서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직후 아라비아에서 보낸 세 해는 바리새파적 형성이 남긴 이 모든 짐을 벗어 버리기 위한 혹독한 학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미 깨뜨리신 탈무드의 여성상은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종 바울의 일은 많은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과 그물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선교에 함께 엮여 있었고, 사슬의 고리처럼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였습니다. 제가 염려하기로는, 어떤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에서 여자들을 통해 얼마나 큰 일과 열매를 이루셨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모든 세기에, 특히 18세기와 19세기에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는 여자들이 공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해도 되는지 아닌지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창조의 주인들”이 남성 중심의 성경 해석을 고집하여, 여자들의 섬김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말하자면 무력하게 만들었을 때였습니다(눅 7:30).

이 장에서 저는 결혼하지 않은 바울이 그의 편지에서 여자들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몇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로 사는 것에 관한 원칙이나 교리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바울이 실제로 관계를 맺었던 실제 여자들을 다루려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섬김으로 이어져 있던 여자들의 수를 보면, 여자들이 복음 선포와 초기 교회들에 있던 섬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정상이었던 것으로

39. 스승 가말리엘이 그의 동료들보다 더 긍정적인 여성관을 가지고 가르쳤으며, 바울도 이것을 이어받았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보인다. 근본적으로 바울은 여자 동역자와 남자 동역자를 묘사하는 데 같은 언어를 쓴다”.⁴⁰

이와 관련하여 잘 알려진 것이 로마서 16장의 문안 명단입니다. 거기서 여자들은 이름만이 아니라 그들의 섬김을 나타내는 칭호와 함께 언급됩니다. 공적인 지도 직분에서 여자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들을 저와 다르게 읽습니다. 그것이 어떤 뜻일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십시오. 창조 기사에서 출발하여 이 책의 다른 장들에서 다루듯이, 교회의 공적인 섬김에서도 남녀가 평등하다는 저의 읽기는 가능할 뿐 아니라 몇몇 경우에는 분명합니다.

4.1 루디아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은 한 여성 그리스도인, 곧 로마의 식민 도시 빌립보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입니다. 그녀는 자기 집을 바울과 그의 일행과 유럽의 첫 그리스도인 교회에 내줍니다. 그녀는 바울의 가르침을 받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바울과 대화하는 상대였습니다. 그녀는 홀로 집의 주인입니다. 그녀는 바울과 그의 동행 실라에게 자기 집에 머물라고 강권합니다.

[사도행전 16:14-15]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행전 16:40,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또는: 루디아의 집에 모여 있던 형제자매들)을 만나 위로하고 떠나갔다.

“이것은 그녀의 집이 곧 가정 교회의 구심점이 되었음을 보여 준다. 교회들은 집에서 모였다. 그리고 루디아만이 아니라 다른 여자들도 교회에 자기 집을 내준 사람들로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지도적 역할도 들어 있다 - 집주인으로서 교회에서 맡은 지도적 역할이다. 그들은 해당 교회들을 지도했을 수도 있고, 예배를 주재했을 수도 있다.”⁴¹

40. Tucker, Liefeld, 436, Kuen, Alfred, Die Frau in der Gemeinde, 1998에서 재인용

41. Sabine Bieberstein, 아이히슈테트의 신약학자, Deutschlandfunk 인터뷰, 2013

4.2 뵤뵤

[로마서 16:1-2]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뵤뵤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헬라어: prostatis)가 되었음이라.

뵤뵤로 시작하는 문안 인사는 그녀가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로 가져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마 교회(또는 가정 교회들)에서 그 편지를 낭독하고, 질문이 있으면 그것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고린도의 항구 교외인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입니다. 그녀는 바울에게서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넘어서는 지극히 책임 있는 과업을 받습니다.

“이 로마서에서의 관찰이 여성 사역에 관한 토론의 끝이 아니며 끝일 수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가 다루어야 할 다른 본문들과 문맥들과 해석들이 있다. 그러나 나는 바울이 여자들이 교회에서 일종의 말하는 역할을 하는 것에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았던 것 같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가 정말 염려했다면, 뵤뵤를 로마로 보낸 것은 참으로 아주 이상한 일이었다. 나의 결론은 이렇다. 바울이 여성 집사 뵤뵤를 칭찬한 것, 그의 후원자(교회의 후견인)로서의 그녀의 지위, 그리고 편지를 전달하고 로마의 교회들에서 그를 대리한 그녀의 역할은 여자들이 교회의 가르치는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보여 주며, 바울은 분명히 그들을 격려했다.”⁴²

“뵤뵤는 그저 겐그레아 가정 교회의 중심 여성이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자기 집을 내주고, 주의 만찬, 곧 성찬을 후원했을 것이다. 뵤뵤가 이 교회의 변호인이거나 후견인으로서도 일했으므로 이 모든 일을 맡았다는 것 - 이 모든 것을 로마서 16장을 근거로 말할 수 있다.”⁴³

바울은 그녀를 Prostatis라고 부릅니다. 엘버펠트 성경(Elberfelder, 독일어 성경 번역본)은 이것을 ‘보호자’(Beistand)로 옮깁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이곳에만 단 한 번 나오는 이 낱말은 앞에 서다, 주재하다라는 뜻도 지닙니다. “헬레니즘 유대인이며 디아스포라에서 자란 바울이 도시의 첫째 사람, 주인, 변호자 또는 의장을 맡은 관리라는 prostates라는 헬라어 개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다. 이것은 로마의 그리스도인

42. Bird, 37

43. Heininger, Bernhard, Würzburg, 같은 책

지도자들이 뵈뵈를 맞이했을 때, 그녀가 자기가 온 곳에서 그리스도인 여성 지도자였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을 뜻할 것이다.”

로마서 12:8에 따르면 다스리는 일(앞에 서는 일)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은사이며, 그러므로 분명히 남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이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일은 장로의 과업에 속합니다(살전 5:12; 딤후 5:17; 3:4, 5, 12). 바울의 이 말씀들을 보면, 여자들이 여성 장로나 여성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모임에서 잠잠해야 하거나 공적으로 말하거나 지도해서는 안 된다면,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섬김과 그에 속한 말씀과 가르침의 수고(딤후 5:17)를 결코 부지런히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Prostat, 곧 앞에 서는 여성 지도자다. 그녀는 또한 Diakonos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그녀는 섬기는 여자인가, 교회 일을 돕는 여자인가,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주석가들은 오늘날까지 이를 두고 논쟁합니다. Einheitsübersetzung(독일어 성경 번역본)의 신약은 그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 이 낱말의 해석, 곧 영향사는 이렇게 흘러왔다. 바울 같은 남자가 자신을 diakonos라고 부르면, 그는 말씀의 일꾼, 곧 사도이며, 그저 말씀을 섬기는 올곧고 자유로운 남자다. 그러나 여자가 그렇게 불리면, 그녀는 교회 일을 돕는 여자, 곧 그저 거들 뿐인 여자가 된다.”⁴⁴ 뵈뵈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의 소식을 퍼뜨리는 일을 하는 큰 무리에 속합니다. 바울은 그녀를 자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그의 개인적인 존중과 두 사람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편지를 전달한 사람으로서 뵈뵈는 로마 교회가 되물을 때 첫 번째로 물어볼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울의 생각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이 본문의 첫 해석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에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서를 한 여자 뵈뵈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황 증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역할에 관한 한 그가 남녀 사이에 아무 차이도 두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4.3 브리스가

[로마서 16:3-5]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44. Sutter Rehmann, Luzia, Basel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아마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부부를 말할 때에는 언제나 남편을 먼저 불렀는데도, 신약은 아내 브리스가를 (여섯 번 가운데) 네 번이나 먼저 부릅니다. 왜일까요? 그녀가 섬김에서 앞장서고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녀가 남편보다 은사가 더 많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팀의 동반자로서 동등한 가치와 지위로 하나 되어 함께 일했습니다. 각자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알았습니다. 여자로서 브리스가는 전략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여자들은 대개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통해 복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브리스가가 앞장서서, 아볼로를 가르쳤습니다. 바울 자신에게 배우고, 함께 천막을 만들며 보낸 많은 시간 동안 묻고 답하며 훈련받은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한 여자 브리스가를 특별히 언급해야 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 뒤, 둘째 줄에 서 있었지만, 그래서 위계가 생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4.4 유니아

[로마서 16:7]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가운데 뛰어나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은 또 한 쌍의 선교사 부부를 높이 평가합니다. 신약의 가장 초기 해석자들인 교부들은 유니아를 깊은 존경으로 말합니다. 요한네스 크리스스토무스(기원후 344-407년)는 유니아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사도가 되는 것은 큰일이다. 그러나 사도들 가운데 뛰어나다는 것 - 그것이 얼마나 큰 칭찬인지 생각해 보라. 이 여자가 사도라는 칭호에 합당하다고 여겨졌다니, 그녀의 지혜는 얼마나 컸겠는가.”

그런데 몇몇 번역에서는 오늘날까지 **유니아** 대신 다른 이름을 읽습니다. **유니아스** - 남자입니다. 그러나 유니아스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13세기, 로마의 에기디우스에게서입니다. 그는 아우구스티노 은수자회 수도사이며 교회 박사 토마스 아퀴나스의 제자였습니다. 왜 **유니아**가 **유니아스**가 되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에서는 **여사도**가 있을 수 없거나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학계에서는 여성형인 유니아가 바울의 본래 표현임이 틀림없다는 견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난 세기 중반에 고대에는 남자 이름 유니아스가 거의 없다는 것, 곧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졌다. 반면 여자 이름 유니아는 자주 확인된다. 무엇이 유니아를 유니아스로 만들었는지는 아마 잘못된 직분 이해를 바탕으로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로마서 16:7에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 가운데 뛰어난 자들로 불리며,

유니아를 사도로 꼽는 것은 어려운 문제였고 지금도 어려운 문제다.”⁴⁵

여사도 유니아를 둘러싼 찬반 논증과 출판물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녀가 사도였다면, 열두 사도나 바울과 같은 뜻에서가 아니라 전략적이고 영향력 있는 선교사로서였을 것입니다. 그녀가 사도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녀가 받은 존중은 엄청났을 것입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치유하는 힘이 성별 문제에만까지 어떻게 퍼져 갔는지 보여 줍니다. 그러나 또한 남성이 지배하는 교회 세계가 이 문제를 얼마나 힘겨워하는지도 보여 줍니다.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아마 부부였을 텐데, 빌립보서 2:25의 에바브로디도나 고린도후서 8:23의 디도처럼 한 교회가 선교사처럼 파송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사도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대개 그들이 속한 교회에 의해 ‘교회들의 사도’나 ‘너희의 사도’로, 또는 뵈뵈처럼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여성 집사)’으로 불린다. 아니면 안드로니코와 유니아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었고, 그때 지금 팔레스타인 밖에서 수행하는 직무를 위임받았다는 뜻에서 사도였을 수도 있다(고전 15:6-7). 이것은 바울이 그들이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고 말한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원후 30-32년 무렵 팔레스타인에서 회심했을 것이다. 로마서에서 ‘사도’라는 낱말이 나오는 다른 곳들은 이방인에게 가라는 바울의 사명을 묘사한다(롬 1:1; 11:13). 엘던 엡(Eldon Epp)은 최근에 이렇게 확인했다. ‘기독교의 가장 초기 세대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불린 여사도가 있었다는 것은 여전히 사실이며,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 평신도와 성직자 - 은 이 사실을 마주해야 한다(그리고 결국 그렇게 할 것이다).’”⁴⁶

4.5 마리아, 드루배나와 드루보사, 버시

[로마서 16:6]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로마서 16:12]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수고와 섬김을 말할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바울은 자기의 섬김 전체, 자기가 한 모든 일을 수고로 요약합니다(예를 들어 고전 15:10; 16:10; 갈 4:11; 살전 3:5; 5:12). 선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입니다. 흔히 공적인 자리에서 이루어졌고 말씀을 섬기는 일이었던 섬김들입니다. 이 여자들의 섬김을 바울의 섬김과 다르게 이해할 무슨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들은 자기 환경에서, 자기 개인의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를 섬긴

45. Heininger, Bernhard, 같은 책

46. Bird, Michael, 같은 책

용감한 여자들이었습니다. 부엌이나 집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교회에서도 섬겼습니다. 교회 건물은 아직 없었습니다. 개인의 집이나 바깥 하늘 아래에서 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공장소나 작업장이나 여관에서 모였습니다. 또는 루디아의 경우처럼 강가에서, 세례를 줄 때에도 이런 여자들은 주 안의 형제들과 똑같이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것은 공적으로 보이고 들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겐그레아의 뵈뵈까지 포함하면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모두 10명의 여자를 언급합니다. 바울의 다른 편지들에 나오는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그가 언급하는 여자의 수는 18명으로 늘어납니다. 바울은 여자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 가운데 많은 이를 섬김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그는 그들을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자 동역자들도 목사나 장로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결코 권력이나 권위나 위신을 암시하는 말로 그의 동역자들을 가리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이 자기의 형제와 자매이며, 그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섬김과 동역에 대한 그의 이해였습니다.

4.6 유오디아와 순두게

[빌립보서 4:2-3]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복음에 함께 힘썼다는 것, 곧 복음 안에서 함께 싸웠다는 것은 그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다는 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공적인 자리에서 반대를 겪을 만큼 말입니다.

이 두 여자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동체에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것은 결가지 싸움이 아니라 교회의 심장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어떤 지도적 역할이나 이끄는 기능을 맡고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글레멘트와 다른 동역자들과 한 호흡에 부릅니다. 마치 두 개인 선수가 팀 정신을 버리지 말라고 권면을 받아야 했던 한 팀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바울이 빌립보서 첫머리에서 문안하고 부르는 감독들(episkopos)과 집사들(diakonos)에 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위계적으로 복종하는 일이 없으며 여자와 남자가 교회에서 동등한 지위로 함께 일한다고 확신한다면, 이 읽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7 글로에

[고린도전서 1: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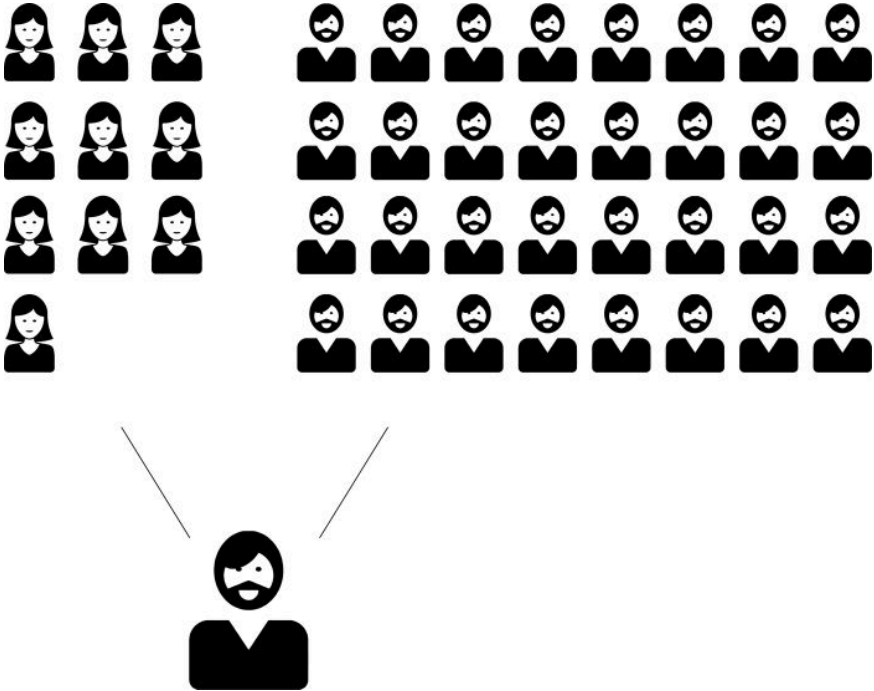
바울이 바로 고린도전서 첫머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글로에의 사람들에게서 고린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글로에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 공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가 지도자였고 바울에게 대표단을 보냈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쨌든 그녀는 바울과 잘 아는 사이였을 뿐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지녔기 때문에 바울이 그녀를 언급하는 여자였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의미는 재산이나 성별이나 좋은 인맥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한 섬김으로 얻는 것입니다.

4.8 눅바

[골로새서 4:15]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눅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가정 교회를 받아들이 수 있는 집의 여주인들이 지도하는 과업도 맡았다는 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큼니다. 어쨌든 한 여자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초대했다는 것 자체가 주목할 만합니다. 집의 여주인으로서 그녀는 과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했고 남편도 믿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아니라 그녀가 집주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더욱 눈에 띄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순서와 비슷합니다. 고대의 가정집에서는 흔히 아내가 살림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 아래에 있었지만, 그곳에서 큰 자율성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골로새서에도 이른바 가정 규범, 곧 가부장적 가족의 집안 규칙이 나온다는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골로새서 3: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런데도 초대하는 사람은 눅바입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39명을 자기의 동역자로 이름을 들어 언급합니다. 그 가운데 10명이 여자입니다. 그는 아무런 차이도 두지 않고 모두에 대해 똑같은 방식으로 말합니다. 형제운동(자유 형제단)에서 나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저명한 신학자 F. F. 브루스(F. F. Bruce)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지 않는 것 같다. 남자든 여자든 복음을 위한 섬김에 동역한 것으로 칭찬을 받으며, 신분이나 기능에서 어느 한쪽과 다른 쪽 사이에 숨은 차이가 있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어쩌면 언급할 여자가 더 있을지도 모르고, 그들의 이름과 칭호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울이 그의 시대에 위계의 담을 허문 혁명적인 여성의 친구였다는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상의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겪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많은 기회를 이용해 그분에 대해 될 수 있는 한 많이 알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리고 자기의 동역자 누가에게서 그는 예수님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자들을 대하시는 그분의 태도도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그의 여행 팀에는 남자 동역자들만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문본들이 보여 주듯이 그는 여자들을 둘째 줄로 밀어낼 어떤 차별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결정적인 것은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은사가 있고, 얼마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였습니다. 그에게 성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9 젖 먹이는 어머니 바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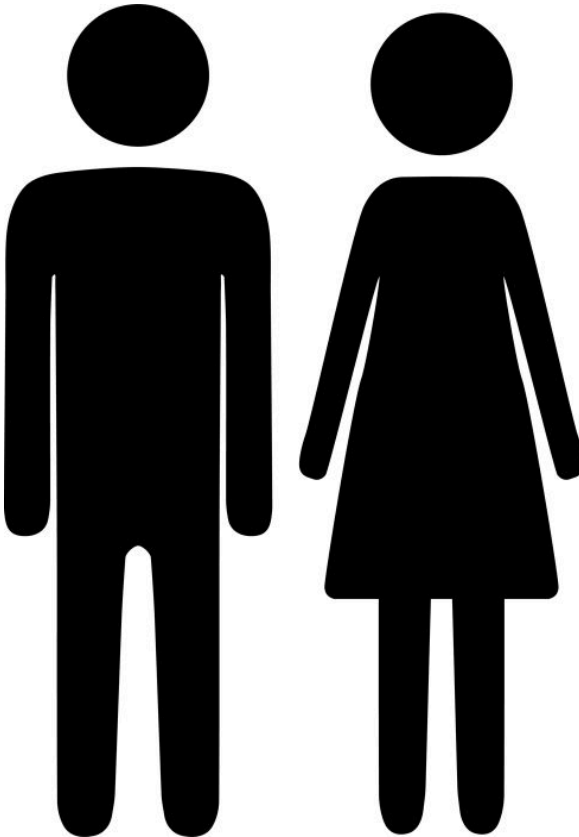
바울은 흐름을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말입니다. 사회의 위계 질서를 부지런히 지키고 변호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로마의 남성성 이상은 바울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메아리도 얻지 못합니다. 약한 자들을 약한 채로 두고 자기의 권력 위치를 굳히려는 이 가부장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행동은 교회에 큰 위험입니다. 이 행동은 고린도의 거의 모든 긴장과 분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권력 문제가 여전히 한몫을 하며, 흔히 내용보다 더 위에 놓입니다. 여기서는 여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 지도하는 형제들이나 장로들의 아내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자신을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다고 말입니다(고전 4:16; 11:1; 빌 3:17; 살전 1:6). 그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남자, 그리스도를 위한 어리석은 자,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 자녀들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아버지, 그리고 독신 남자입니다(고전 1-7장). 그런 남자는 당시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아래에 놓인 지위를 차지했을 것이며, 그 결과 남자들에게 마련된 제도와 지위에서 배제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관점에서 가부장제의 제도들은 이 시대의 억압적 구조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방식을 대표하지 않는다. ... 남자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하며, 지배적인 연설가가 되어서는 안 되고, 로마 법정에서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분쟁을 조정하도록 지위가 낮은 남자들을 세우고, 자기 몸을 아내의 권 아래 두며, 약한 자들의 식습관에 자신을 맞추어야 한다. 이런 실천의 의미는, 로마의 고린도에 만연했던 경쟁과 권력과 지위를 향한 몸부림을 만들어 내는 행동을 끝냄으로써, 고린도 사람들을 갈라놓으려 위협하던 당파심을 막는 데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닮은 특별한 남성 정체성을 만들어 낸다. 그는 그것이 로마의 도시 환경에서 규범이었던 지위와 권력의 게임을 무너뜨리리라는 것을 안다. 바울의 목표는 믿는 공동체의 하나 됨이다. 이 하나 됨을 이루기 위해 바울은 공동체의 어떤 구성원들을 다른 구성원들 위에 두는 위계 질서에 직접 의문을 제기한다. 그런 체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성원들에게, 지위가 낮은 구성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정체성을 일부러 구현하라고 요구함으로써 말이다. 권력과 남성성이 어디서나 결합되어 있었기에, 바울은 고린도의 남자들이 추구하던 이런 종류의

남성성을 다루어야 했다.”⁴⁷

고대 사회에서 남자의 역할에 관한 질문에 대해, 잘 알려진 영국 작가 톰 홀랜드(Tom Holland)는 이렇게 관찰합니다. “(고대 세계의) 성적 경제는 자유인 로마 남자들이 원하는 누구와도, 원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에 기초한다.” 이어서 그는 권력을 가진 남자들의 일반적인 행동에 관해 이렇게 말합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이것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말할 수 없이 잔혹한 세상이다”. 홀랜드가 보기에 바울의 편지와 사상은 바로 이런 세상 속으로 큰 힘을 가지고 들어와, 특히 지배적인 남성 세계를 뒤흔듭니다.



47. Being Subordinate Men: Paul’s Rhetoric of Gender and Power in 1 Corinthians, Brian J. Robinson, Lanham, 2019, 214

5 결혼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저는 창조 이야기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위계적으로 복종하는 일은 없다는 결론을 끌어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지적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 수천 년 뒤의 일이라 하더라도 - 이제 결혼 안에서 실천해야 할 위계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시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1세기의 결혼과 가정생활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제가 역사 속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 이미 묘사하고 인용한 많은 것이 여기서 다시 생생하게 떠오를 것입니다.

5.1 고대의 집과 그 규칙

오이코스(Oikos, 헬라어: οἶκος)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서 삶의 중심을 이루는 가정 공동체이자 경제 공동체였습니다. 오이코스에는 가족과 함께 일꾼들과 노예들, 토지와 건물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살림살이가 포함되었습니다. 로마의 빌라(villa)와 비슷합니다. 가장은 주인, 곧 **퀴리오스**(Kyrios)였으며, 그는 가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흔히 오이코스에 사는 장성한 아들들과 그 아내들까지 다스렸습니다.

집은 삶의 공간이었고, 우리가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의 고대적 형태였습니다. 자녀가 하나나 둘인 핵가족이 아니라, 부모나 시부모나 장인 장모와 결혼하지 않은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집의 크기는 물론 재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대다수 사람은 가난했고 생존의 경계에서, 또는 그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흠집에서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사회적 가족 구조는 역시 고대의 집의 구조였습니다.

고대의 집은 고대 사회의 등뼈였습니다. 집을 다스리고 이끄는 일은 집의 주인, 곧 **paterfamilias**(가부장)의 몫이었습니다. 고대 저자들이 사회의 씨눈이며 작은 도시라고 부른 집(domus)은 동시에 초기 그리스도인 교회들을 가리키는 가장 중요한 은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집주인으로서 다스리시는 집이나 집안 공동체라고 부를 때가 그렇습니다(디모데전후서와 디도서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집은 고대 가족의 전형이며, 실제의 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집, 곧 교회의 그림입니다. 이런 집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은 자주 집을 말합니다. 집이 무엇인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 시대의 안경이 아니라 바울 시대의 문화적 환경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 집을 다스리는 여자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과부였습니다. 그들은 가정 교회의 여주인이 되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지도하는 기능도 맡았습니다.

고대의 집은 집의 제단이 있는 거룩한 곳이었으며, 그 제단에서 날마다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집 안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평안하려면 신들과의 관계를 돌보아야(cultus) 했고, 그것이 신들과의 평화를 보장해야 했습니다. 집은 여자의 공간이었으며, 여자가 사제로서 이런 제의 행위를 했습니다. 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역사적 사실이 이 주제에 왜 중요할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지시를 이런 고대의 관계 구조 속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조를 세부까지 다 알지 못하며 오늘날 그 안에서 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집, 곧 (대)가족은 신약에서 주어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좋다고도 나쁘다고도 평가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된 “문화의 산물”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 많은 장점과 단점을 지닌 채 발전해 왔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안으로 들어옵니다.

5.1.1 신약의 가정 규범

“신약의 가정 규범(Haustafel)이란 고대 그리스도인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분, 기능 또는 역할의 규정을 가리킨다. 마르틴 루터가 만든 이 용어(1529년 소고리문답의 둘째 부록)는 루터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범’이라는 형태로 에베소서 5:21-6:9와 골로새서 3:18-4:1의 소제목으로 쓰인다. 이 용어는 집 안의, 때로는 교회(‘하나님의 집’으로서, 딤편 3:15) 안의 사람들의 무리에 관련되지만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는 관련되지 않는 윤리적 성격의 신약 본문들에 쓰인다.”⁴⁸

남편과 아내가 결혼 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또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다루는 대목들은 이른바 가정 규범 또는 가정 법전에 속합니다. 결혼에 관한 신약의 가르침은, 이제 그 구성원의 일부나 전부가 그리스도인이 된 마당에 집안 전체가 서로에 대한 새로운 위치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약과 초기 기독교 문헌에는 그 예가 많습니다.

에베소서 5:21-6:9; 골로새서 3:18-19; 디모데전서 2:8-15 (남자-여자)

48. WiBiLex, Das wissenschaftliche Bibellexikon im Internet

디모데전서 6:1-2 (종-상전)

디도서 2:1-10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젊은 남자, 종)

베드로전서 2:18-3:7 (종, 아내, 남편)

이것들은 디다케를 비롯한 후대의 기독교 문헌에서 다른 방향으로 더 발전합니다. 디다케 4:9-11 (아버지, 자녀, 상전, 종); 바나바 서신 19:5-7 (아버지, 자녀, 종, 상전); 클레멘스1서 1:3 (지도자, 젊은이, 여자), 21:6-9 (지도자, 연장자/어른, 젊은이, 아내, 자녀);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카르포스에게 보낸 편지 4:1-6:2와 폴리카르포스가 빌립보인들에게 보낸 편지 4:2-6:1 (아내, 과부, 집사, 젊은 남자, 처녀, 장로).

사회 집단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교훈은 기독교 밖의 문헌에도 나옵니다. 아마 가장 분명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며, 그다음으로 아레이오스 디디모스(Arius Didymus)와 거리의 철학자들(위-카론다스[Ps.-Charondas], 위-잘레우코스[Ps.-Zaleukos])에게서도 나옵니다.

“맥나이트(McKnight)는 이 가정 규칙들이 독자에 따라 다르게 말한다고 지적한다. 어떤 이들에게 그것들은 가부장적 구조를 모호함 없이 지지한다. 그것들은 아버지이자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라는 위계적 견해를 확인하며, 그래서 그가 자기 보호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뜻한다는 것이다. 다른 이들에게 그것들은 다른 것을 보여 준다. ‘어떤 이들은 이 대목들에서 가부장주의의 확립을 발견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바로 그 구조가 왕좌에서 끌어내려지는 것, 또는 적어도 끌어내려질 기회를 얻는 것을 본다. 그러니 성경에서 자주 그렇듯이, 이 가정 규범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읽을 때 기록자들의 옛 관점에 대해 무언가를,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들려주는 것 같다! … 가정 규범의 해석에는 우리 자신의 사회적 관념이 함께 따라 들어온다는 데 우리는 모두 동의해야 한다.’”⁴⁹

당시 그리스도인 아내에게 자기에게 복종이 기대된다는 말을 듣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남편들에게 주는 지시가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곧 가정 교회 전체 앞에서 낭독되었을 때, 그것이 집안 전체에 상당한 파문을 일으켰으리라고 상상합니다. 이제 아내와 그 주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이 그에게서도, 곧 가부장(paterfamilias)에게서도 기대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기독교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49. Peppiatt, Lucy, 87-88쪽,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Fresh Perspectives on Disputed Texts, 2020, IVP Academic, Downers Grove, Illinois

5.1.2 그리스도인 가정 규범의 영향

“스캇 맥나이트(Scot McKnight)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범에 구체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행동 방식을 사회적 안전과 변증과 전도의 발판으로 장려하도록 짜여 있었다’(벤전 2:13-3:7, 특히 2:12, 14; 3:2).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으로 살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벤전 2:16). 그리스도인들은 체제를 뒤엎는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심을 받았고, 그래서 시험대에 올랐다. 그리고 그리스-로마의 도덕 철학에서 집안은 “문명의 기본 단위”로 이해되었으므로, 의심스러운 종교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감시되었다.

이 편지들의 가정 규범에는 당시의 서열 이해에서 돌아서고 그것을 뒤집는 전복의 요소가 있다. 아랫사람들이 편지에서 직접 불린다. 이것은 두드러지게 기독교적인 혁신이며, 고대의 환경에서는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신약의 가정 규범은 아내와 종과 자녀를 그들의 남편과 상전과 아버지와 나란히 직접 부른다. 이것은 기록자가 그들의 행위 능력과 존엄을 함께 인정한다는 표시다.

허타도(Hurtado)는 이렇게 쓴다. “이 옛 환경에서 자기 처지를 달리 바꿀 수 없던 사람들에게, 이처럼 소박한 존엄의 인정이라도 무엇을 뜻했는지 우리는 성급하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현대 독자에게 분명하지 않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범이 아랫사람의 무리를 ‘그들에게 주어진 권면에 응답할 능력과 책임이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본다는 점이다. 집안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렸고, 편지는 모인 교회 앞에서 낭독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윗사람들에게 주는 지시를 들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가정 규범이 왜 전복적이었는지를 푸는 열쇠다. 그것들은 남자, 여자, 종, 자녀에게 주어졌던 통상적인 서열과 그들에게 걸었던 기대를 뒤집는 것을 그 안에 담고 있다.”⁵⁰

5.1.3 에베소서 5장의 가정 규범

고대의 집안 질서, 곧 가정 규범이라는 제목 아래 저는 잘 알려진 두 성경 해석자를 인용합니다. 그들은 이 옛 구조들에 대한 복음의 뒤집어엎는 힘, 혁명적인 힘을 잘 짚어 냅니다.

50. Peppiatt, Lucy, 87-88쪽,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Fresh Perspectives on Disputed Texts, 2020, IVP Academic, Downers Grove, Illinois

마이클 버드(Michael Bird)는 잘 알려진 NICNT 시리즈에서 새로 나온 에베소서 주석에 대해 린 코히크(Lynn Cohick)과 인터뷰하면서, 여러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⁵¹ 오늘 우리는 가정 규범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따르려고 애써야 할까요, 아니면 이방 사회 윤리를 기독교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미화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순종해야 한다 - 물론이다! 문제는 바울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이다. 여기서 ‘문자 그대로’라는 개념이 끼어든다. 우리는 노예 제도에 관한 규정을 담은 성경에 문자 그대로 순종할 수 없다. 노예 제도는 금지되었기 때문이다(물론 나는 여성 인신매매처럼 노예 제도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안다). 우리는 바울이 사회에 노예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없이 인정한다. 그는 오히려 교회가 종이거나 종을 가진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필요에 대해 말한다. 우리는 그가 인간관계와 성품/덕에 관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고, 그것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해야 한다. 노예 제도에 관한 대목에서 나는, 하나님은 아무도 편애하지 않으신다는 바울의 말이 지배와 학대의 관계의 핵심을 찌른다는 것을 읽어 낸다. 노예 제도는 지배와 폭력과 위협 위에 세워졌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동등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시기 때문이다.

이방 사회 윤리는 위계적이었다. 사회적으로 우월한 자, 부유한 자, 지배하는 자를 위한 지배 규정이 있었고, 가난한 자에게는 사회적 지위/존중이 부족했다. 여자 노예 주인은 자기의 남자 노예에 대한 권위를 가졌다. 이 경우 소유가 성별을 능가한다. 로마 세계의 여러 층으로 된 복잡한 사회적 위계 때문에 누구나 다른 누군가에게 복종해야 했고, 그것을 올바르게 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관건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복종’을 부정적인 낱말로 보지만,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다. 바울이 모든 믿는 이들에게 ‘피차 복종하라’(엡 5:21)고 부탁할 때, 그는 그들이 서로를 함께 믿는 사람으로 존중하기를 원한다. 사회가 그 믿는 사람에게 우연히 부여한 사회적 가치 때문이 아니라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 하신 것처럼 자기를 희생하며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비유대 세계에서는 혁명적이었다. 바울은 결혼에 상호성과 함께함과 서로 주고받음을 들어온다.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아내도 남편을 자기 몸처럼 본다는 것이 함축되어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1-4에서 이것을 쓴다. 그는 남편이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지지 않고 아내가 가진다고 확인한다. 우리가 일단 어떤 종류의 서로를 향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이 결혼을 특징지어야 하는지 깨닫고,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당시 문화의 일부로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복종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문자적으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주께 하듯’(5:22)이라고 되어 있는 그 논란 많은 구절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다. 주의 깊은 독자는 내가 동사를 빠뜨렸다는 것을 알아차릴

51. www.patheos.com/blogs/euangelion/2020/07/lynn-cohick-on-ephesians/#disqus_thread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동사를 빠뜨린 것은 바울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든 믿는 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요구하는 앞 절에서 동사를 가져온다.”

5.1.4 피차 복종의 이유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주석가인 크레이그 키너(Craig Keener)는 에베소서 5장의 가정 규범에 대해 처음에 조금 반어적으로 이렇게 씁니다⁵². “때때로 바울은 평판이 나쁘다. 노예들의 이야기에는, 예수는 사랑했지만 바울은 미워한 옛 노예들의 감정이 가득하다. 노예 주인들이 에베소서 6:5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를 늘 인용했기 때문이다. 노예 주인들이 인용하지 않은 것은 그 대목의 나머지였다. 거기에는 이렇게 이어진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6:9). 다시 말해, 종들이 상전에게 순종해야 한다면 상전들도 종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1세기에 누군가 이 점에서 바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실제로 한 말이 그의 시대에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가장 급진적인 견해 가운데 하나를 표현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그는 그 제도를 폭력으로 뒤엎자고 말하지 않았다. 그의 시대의 실패한 노예 봉기들조차 그것을 시도한 적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는 윤리를 말했다.

초기의 몇몇 스토아 철학자는 사람들의 평등을 옹호했지만, 스토아학파는 그 입장에서 물러났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두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스토아학파에 동의했다. 그는 종과 종을 가진 사람이 하늘에 같은 주인을 두고 있다고 확언했다(엡 6:9). 그러나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는 그의 지시는 이론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바울의 말실수나 그의 대필자의 붓 실수도 아니다. 바울은 가정 규범의 대목 전체를 상호 복종이라는 틀로 감싼다. 가정 규범이 무엇이나고 묻는가?

그리스 사상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 경영에 관한 저작에서 가족의 역할을 다루는 큰 단락을 두었다. 거기서 그는 남자 가장에게 그의 아내와 자녀와 노예를 다스리라고 지시했다. 뒤의 사상가들도 같은 틀을, 흔히 같은 순서로 이어받았다. 로마는 소수 종교 집단들이 이런 전통적 가치를 허문다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런 집단들은 흔히 로마의 가치에 대한 자기들의 믿음을 확인하려고 애썼다.

52. www.cbeinternational.org/resource/article/mutuality-blog-magazine/case-mutual-submission-ephesians-5. www.cbeinternational.org 홈페이지는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에 관한 좋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홈페이지의 표어는 이렇습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이끌고, 동등한 자로서 섬긴다.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순서로 일련의 가정 규범을 제시한다. 남자 가장과 아내, 자녀, 노예의 관계다. 바울이 소수 종교 집단의 일원처럼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 어쨌든 그는 로마의 감옥에서 편지를 쓰며, 아마 로마에 있을 것이다(엡 3:1; 4:1; 6:20).

그러나 바울은 표준 공식을 바꾼다. 노예를 둔 남성들에게만 말하는 대신, 그는 교회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한 여자와 자녀와 노예에게도 말한다. (바울의 도시 교회들에서 노예들은 집안 노예였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노예들보다 자유가 더 많았고 해방될 기회도 더 자주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노예였다.)

더 나아가 그는 남자 가장에게 **다스리라고 결코 지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5:25). 그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며(6:4), 종들을 하나님의 동료 종처럼 대해야 한다(6:9).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의 지시 목록 전체(5:21-6:9)를 상호 복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감싼다는 점이다.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다(5:21). 종들에게까지 말이다(6:9). 이것은 복종을 새로운 맥락에 놓는다. 우리 모두에게 서로 섬기라고 초대하신 우리 주님의 본과 가르침이라는 맥락이다(막 10:42-45; 요 13:14-17, 34-35도 참조; 갈 5:13-14).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주인들이 에베소서 6:5를 인용했던 것과 비슷하게, 에베소서 5:22(‘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를 문맥에서 떼어 내어 즐겨 인용한다.

그러나 헬라어에서 5:22에는 동사가 없다. 그저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라고만 되어 있다. 물론 이것은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헬라어 문법은 우리가 앞 절에서 동사를 가져온다고 전제하며, 그 동사는 ‘복종하다’이다. 그러나 동사를 5:21에서 가져오므로, 그것은 5:21에서와 다른 것을 뜻할 수 없다. **아내의 복종은 상호 복종의 한 예일 뿐이다. 남편이 자기 목숨을 아내를 위해 희생하는 것처럼 말이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러나 복종은 분명히 아내에게만 해당된다!’ 아, 그러나 사랑하라는 계명은 분명히 남편에게만 주어진다(5:25). 그런데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하며(5:2), 모든 그리스도인이 피차 복종해야 한다(5:21)는 것을 이해한다. 바울이 모든 상황을 다 다루려 하지는 않지만, 그는 우리에게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일반 원칙을 준다. 서로의 유익을 살피고,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다른 사람을 우리 자신보다 더 사랑하라는 것이다.”

5.1.5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한 지침 - 오늘

그러므로 이른바 가정 규범은 모든 삶의 상황을 다 담아내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지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틀을 어떻게 주는지 생각하면서 이 가정 규범들을 숙고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에게 그것들은 그들 자신의 삶의 상황과 닮은 점이 없어서 그저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 서구에서 흔히 그렇듯이 어떤 사람이 혼자 살거나, 홀로 자녀를 키우거나, 친구들의 공동체와 함께 산다면, 가정 규범은 그들의 공동생활에 아무것도 보태 주지 못할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노예를 두지 않으리라고 전제한다. 그러니 노예는 없을 것이고, 어쩌면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없을 것이다. 수백 년 동안 수도원 공동체에서 그래 왔듯이, 집안에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집안 질서가 아니라 수많은 ‘서로’의 행동 방식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신약에는 이런 구절이 59개 있다. 그 구절들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부름을 받으며, 서로 용서하고, 격려하고, 화평하게 살고, 서로 참아 주고, 서로 복종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가진 모든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 미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물고 먹지 말라는 부름을 받는다. 결혼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부모도 이 ‘서로’ 구절들에 매여 있으며,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으로 형성되어야 한다.”⁵³

5.1.6 고대의 집 안에서의 여성

고대의 집의 삶의 현실을 손에 잡히게 하려면, 여자들, 특히 여자 노예들에 대한 다음 묘사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가정 교회에서 여자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공동체 생활의 모든 차원에서 여자들의 지도적 역할과 참여와 동참의 증거와 함께, 여자들의 무력함과 고통의 증거도 발견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다. 초기 그리스도인 여자들은 이 시대에 여자들이 맞닥뜨린 끔찍한 운명과 상황 가운데 많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우리의 관심은 특히 이 체제에서 가장 무력한 여자들,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그 밖의 사람이든, 곧 여자 노예들의 곤경으로 향했다. 사회는 노예 제도 위에 세워졌으며 그것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집안은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노예 노동에 기초했다. 노예들이 그 주인들에게, 그리고 주인들이 내어 준 모든 사람에게 성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의 그리스도인 여자 노예들은 흔히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였을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도덕

53. Peppiatt, 88, 같은 책

규범에 따라 살라는 가르침을 받았지만, 흔히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순결과, 자기 자녀와 자녀의 아버지에 대한 신실함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교회 무리의 일원이었던 어떤 절망한 여자 노예들에게는, 특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소유였을 경우, 갇난아기를 버리는 일이 살아남기 위한 필연처럼 보였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는 믿는 집안에서는 삶이 달랐기를 바라지만, 그렇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오히려 집안 전체가 함께 새 믿음으로 개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거는 넉넉하다. 주로 그리스도인이 아닌 집안에도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 노예가 있었을 것이며, 그들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고달팠을 것이다”.⁵⁴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분의 제자인 모든 사람에게 강요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복종 또는 순복은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 줍니다. 종을 가진 사람이 종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할 때 - 그리고 그 반대일 때 -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피차 복종할 때 그 이유는 위계의 차이일 수 없습니다.** 위계의 차이는 (당시의) 세상에서 규범이며 지켜야 할 태도의 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위계 관계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복종의 특징은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계가 어차피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확인하며 마칩니다. 이 고대는 역사적으로 끝없이 멀게 느껴질 뿐 아니라, 우리는 서구에서, 독일에서 그토록 다르고, 더 자유롭고, 더 단순하고, 더 안전하며, 여러모로 복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 규범을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5.2 머리와 복종: 에베소서 5장

바울이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이탈리아로 갔을 때, 그는 오늘날 서구의 우리에게 익숙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문화들과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혼과 가정과 여자의 역할에 관한 바울의 설명을 당시 여자들의 처지와 그들이 받은 대우에 비추어 보려고 애써야 합니다.

남자의 머리 됨에 관한 고전적인 본문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며 아내는 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분명하고 오해의 여지 없이 말합니다.

54. Osiek, Carolyn, 2006, A Woman's Place: House Churches in Earliest Christianity, 127

[에베소서 5:22-33,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같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의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심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요 그의 살과 뼈임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두려워하라.

바울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이렇게 씁니다.

[골로새서 3:18-19]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5.2.1 머리

에베소서 5장에서 사람의 머리(헬라어: **kephale**)는 비유적, 은유적 의미에서 지휘하는 기관입니다. 이 단락에서도, 그리고 이 편지의 다른 곳에서도 머리는 위에 있음, 높음, 다스림을 나타냅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스리고 이끌고 결정하는 머리의 이 기능이 단 한 마디도 언급되거나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자들에게 주는 구체적인 지시를 뽑아 보면, 어떤 기능이 머리 됨을 정의하고 어떤 기능이 그렇지 않은지 이해하게 됩니다.

1.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2. 그는 그리스도처럼 몸의 구주(구원자)이다.
3.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4.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의 몸같이 할지니라.

이 단락에서 대부분의 절은 남자들을 다루고, 세 절만 여자들을 다룹니다. 바울이 머리의 권위를 묘사하거나 요구하지 않는 데에는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저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더 다루겠습니다.

5.2.2 고대의 가족

이 5장과 6장 첫머리는 부부를 다룹니다. 그다음에는 아버지와 자녀, 종과 상전을 다룹니다. 이 사람들이 - 여기에 조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결혼하지 않은 형제자매와 고모나 이모와 삼촌을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집, 곧 대가족을 이룹니다(5.1장을 보십시오). 사회는 오늘날처럼 핵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 지붕 아래 집 전체가 살았습니다. 가부장제로서 말입니다. 아버지는, 어떤 경우든 남자였는데, 집 안에서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가족이라는 이 사회 구조는 바울의 계시가 아니라 그의 시대에는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새롭거나 더 나은 가족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행동 모델”을 제시합니다.

여기 묘사된 위계적 서열은 - 그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에 견주더라도 -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라 타락의 결과입니다. 가부장제는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는, 여자에게 내린 형벌의 말씀이 성취된 것의 일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남편과 아내에 견주는 것은 가르치기 위한 그림, 곧 유비입니다. 남자를 머리, 곧 그리스도에 견줄 때 남자에게 의무를 지우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말할 때 바로 위계를 맨 앞에 두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말하는 것은 하나 됨, 함께 나눔, 돌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어쩌면 이 유비에는 숨은 이중의 의미가 있으며, 그것은 오늘보다 기록 당시에 더 중요하거나 더 알맞았는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 이 그림은 당시의 역할 분담을 받아들이지만, 동시에 그것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5.2.3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는 위계적인 머리-몸 그림을 문자 그대로 오늘에 옮겨 놓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여기서 결혼과 가정생활의 규범을 묘사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가 집안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자녀와 종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비교해 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1-4]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나 그때와 지금 자녀들이 몇 살까지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가 하는 질문은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날보다 훨씬 큰 권위를 자녀에게 가졌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은 자립하도록 길러집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사랑을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종에 관해서도 상황은 감사하게도 완전히 달라졌지만, 이 본문에는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5-9,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아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아라.

누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시대를 초월하는 것으로 여겨 오늘날의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에 옮겨 놓으려 하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고대와 같은 노예 제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노예 제도의 불의에 맞서 싸우지 않고, 복음으로 새사람이 된 당사자들의 태도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근로 관계를 이 지시에만 맞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하나님의 다른 말씀을 오늘의 기준으로 함께 삼을 것입니다.

정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도 비슷한 것이 해당됩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 권세들에 대한 복종을 요구합니다. 이 정부 형태와 그 통치자들이 결코 이상적이지 않을 때에도 말입니다. 가부장제나 노예 제도나 고대에 아이들을 대하던 방식이 이상적이지 않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가정과 노동 같은 사회 구조 안에서 유효한 지시를 줄 때, 그는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그의 시대에 정상이었던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2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규범입니다.

이 본문들은 그 상황이 이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침묵합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들이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의 상황에 적용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 독자와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우리 시대로 옮겨 놓습니다.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남편들에게 주는 지시와 아내들의 행동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서도 상전과 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에 옮겨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지시를 실천하려는 사람은 고대의 상황을 되살려야 할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오늘날 결혼 이해도 고대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것이 오늘날에 일대일로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의 위험한 일입니다. 도대체 어느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어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두려워합니까? 여기서는 단순한 존경 이상의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어떤 낱말들을 약하게 하거나 귀엽게 만들어 어떻게든 21세기에 맞추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 실천하려 한다면, 쓰여 있는 그대로 온전히 다 해야 합니다. 어쩌면 가부장제가 강한 문화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고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이상에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여자가 전해 내려온 가족 전통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흔히 기본권을 누릴 수 없으며, 그들의 자녀는 가부장제에 내맡겨져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문자 그대로 또는 성경주의적으로 해석하면, 아내가 남편에게 위계적으로 복종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그림에도, 오늘날의 삶의 형편에 적용하는 데에도 맞지 않습니다.

5.2.4 상황화

이 낱말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 우리가 전혀 다른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살아 낼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작업을 가리킬 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 충실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자가 모든 일에서 복종하는 것을 말할 때, 바울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례도 예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자는 가정 폭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언제든 성관계에 응해야 할까요? 남자가 모든 것을 결정할까요?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범사에”가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것을 뜻할 수는 없다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고대에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자는 (그것이 세부적으로 무엇이든) 복음에 나쁜 증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자들에게 분명한 말을 합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말입니다. 아내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헌신, 자기 자신처럼 아내를 돌보고 보살피는 것입니다. 이것을 따랐다면 가부장제에서 “사랑의 가부장제”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의 실제에서 사랑은 복종의 끝입니다. 사랑은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고 서로 마음을 맞추는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의 뜻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내의 위계적 복종을 믿는 남자들도 결국 그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서로의 사랑과 존중은 복종이나 굴종보다 큼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 첫 큰 걸음을 내딛습니다. 노예 제도의 폐지가 아직 오랫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결혼도 아직 오랫동안 동등한 권리 가운데 영위되지 않았습니다.

상황화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성경은 오늘날 더 이상 없는 상황을 위한 지시를 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포스트)모던 시대에야 비로소 생긴 상황을 위한 지시는 주지 않으며 줄 수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양로원도,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도, 인터넷도, 고도로 발달하여 수명을 늘리는 의학 등도 없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을, 이웃 사랑의 계명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5.2.5 다시 한번: 머리

머리는 바울이 부부 공동체의 관계에 적용하는 은유, 곧 비유입니다. 머리라는 낱말은 원천, 기원, 또는 강어귀를 뜻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문자 그대로의 머리를 뜻합니다. 그러나 우위와 위에 있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머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합니다. 1:22에서 부활하시고 보좌에 오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모든 권세와 존재 위에 계신 머리입니다.

[에베소서 1:22-23] 하나님이 만물을 그의 발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머리로 교회에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위에 계신 머리로서 그리스도께서는 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이 머리에게 교회가 몸으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분이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 그분의 자리를 그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의 하나 됨 속에서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입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취해졌고, 아담이 그녀와 함께 한 몸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전해져서 함께 창조의 사명을 이루게 된 것과 같습니다.

4:15-16에서 몸은 머리를 향해 자라나고, 머리에게서 영적인 공급과 세움을 받습니다 (그에게서, 곧 머리에게서 나와; 골 2:19도 보십시오).

[에베소서 4:15-16]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은유는 머리가 몸을 공급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머리라는 그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서 위계적 복종을 강조하지 않으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러하시듯, 남자는 아내를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덧붙여 말하면, 물로 여자를 씻기는 일은 노예의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역할을 바꾸는 데 극단적으로 멀리 나아갑니다. 이제 머리는 물로 씻기는 일을 함으로써 심지어 노예와 같습니다(5:26).

1세기의 삶의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그들은 때로 열두 살에 결혼했습니다. 나이로 보아 남자는 자연히 더 강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런 문화적, 사회적 환경에서 복종이 기대되었다면, 그것은 여자들에게 대체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이가 크면 남자들은 저절로 머리, 말하자면 그들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는 가운데 함께 삶을 꾸려 가고 가정을 이룬다면, 아내의 일방적인 복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 번 부부들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에서 묘사하는 이 복종이 오늘날 또는 그들의 결혼에서 정확히 무엇을 뜻할 수 있는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남자가 마지막에 내리고 책임도 지는 중대한 결정들로 한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물어본 부부들은 결정, 특히 중대한 결정을 주님 앞에서 함께 내립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르고, 또 그 반대로 합니다. 이런 태도와 이런 방식은 머리와 몸의 그림을 해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를 내어 주고 희생하는 사랑이 복음의 새로운 기준입니다. 이것이 차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는 씨앗처럼 천천히, 그러나 막을 수 없이 그리스도인 결혼 안에 있는 가부장제의 콘크리트를 깨뜨려 나갈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입니다. 타락한 세상 속으로 하늘이 뚫고 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그의

지시에서 가부장제를 그대로 두며, 그것을 명시적으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대에는 권위로서의 머리라는 그림이 가정과 결혼의 상황에 들어맞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묘사된 창조의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머리로서, 남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끌고, 책임을 지고, 아내를 위해 나르고, 아내를 위해 곁에 있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을 아내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둘이 함께하는 것, 한 팀입니다. 머리가 되는 것은 위계 없이도 가능할 뿐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실제로 이루어 가는 구상이며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머리의 역할”, 머리가 되는 것, “머리 됨”은 사랑이며, 공급이며, 보호이며 – 앞장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강함이며, 수동성이 아니라 능동성으로, 그리고 똑같이 서로를 위한 희생으로 이끄는 함께함입니다.

굳어 있고 일방적인 머리와 몸의 그림은 어차피 모든 결혼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머리와 몸의 은유는 먼저 하나 됨을, 함께함을, 그리고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5.2.6 결론

바울은 한편으로 가부장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을 비판 없이 그려 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는 그것을 혁명적으로 바꿉니다. 가부장제 안의 사실상의 권위가 사랑의 계명으로 바뀌어, 옛길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바울이 말하는 대로 사랑한다면, 아내의 일방적인 복종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남자에게도 복종하고 아내를 존중하며 살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단락을 시작하면서, 또는 이것을 앞의 것과 이으면서 모두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피차 복종하라! 이것은 한 번도 들어 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머리의 역할을 다스리는 자나 지도나 권위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는 흔히 곧바로 위에 있음으로 설명되는 이 그림에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머리는 다스리지 않습니다. 머리는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며 사랑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모든 시대를 위한 이상적인 결혼관과 가족관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존 문화 속으로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가져옵니다. 복음은 새것을 만들어 내는 씨앗입니다. 타락의 결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해방하는 변화는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리거나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걸음씩 일어납니다. 가장

좋은 경우에는 한 걸음 한 걸음 새롭고 더 나은 무언가가 자라납니다. 동등한 권리로 사는 자유는 배워야 합니다. 수천 년 된 사회 구조는 십 년 만에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과 베드로에게서 여자들이 복종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시대에는 어차피 정상이었습니다. 남편은 주인이었습니다. 결정권자였습니다. 하나의 제도였습니다. 믿게 된 여자들이 당시 흔했던 이 태도를 버렸다면, 그것은 걸림돌이 되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비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막아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부를 민주적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노예 제도가 더 이상 없다는 것에도 감사합니다. 근로자 보호가 있다는 것에도.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는 것에도. 차별이 금지되고 아이들이 보호받는다라는 것에도. 이것들은 결국 복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와 바울이 2000년 전에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100년 전에 중국에서 의사이자 선교사로 일했고 성경 원어들에게도 능통했던 캐서린 부시넬(Katharine Bushnell)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내도 좋다. 최근까지 노예 계급의 존재는 필연으로, 노예 제도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어떤 사람들은 노예로 태어나고 다른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으로 태어난다고들 했으며, 세상은 이 두 계급 없이는 굴러갈 수 없다고들 했다. 이 오해는 터져 버렸고, 세상은 아주 정상적으로 굴러간다.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곧 더 이상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책이 이 책과 동시에 독일어로 나왔다는 것은 더욱 기쁜 일입니다(Reformatrischer Verlag H. C. Beese, Hamburg, 이 책의 끝부분을 보십시오).

요구되고 여자들이 따르는 복종은 그들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고 싶어 하는 책임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여자들은 복종의 교리 아래에서 체념하고 수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그들의 능력과 부르심은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강하고 “남자답게” 되라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용감하고 능동적으로 믿음으로 살라는 권면이 주어집니다(고전 16:13).

복종 교리의 고통스러운 부작용으로서 가정 폭력과 성폭력도 안타깝지만 적어도 언급해야 합니다. 이 교리는 머리로서 아내에게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여야 하는지 깨닫지 못한 남편들에게 폭력을 쓰는 구실이나 은폐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그리스도인 결혼에도, 하나님께 탄식할 일이지만, 가정 폭력과 성폭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에 관한 성경의 관점이 치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들을 흔히 말하지 못하는 그들의 고통에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5.3 복종하기

복종하라는 말은 거듭거듭 강조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따로 한 장에서 다시 다루려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주어진 지시는 분명하고 여러 번 되풀이됩니다. 여자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hypotasso*라는 말은 복종하다, 아래에 서다, 따르다, 순응하다, 순종하다라는 뜻을 지닙니다.⁵⁵ 바로 이 지시가 같은 말로 여러 번 나오기 때문에, 결론이 되풀이되더라도 저는 이것을 한 번 더 다룹니다. 여자의 질서는 결혼만의 주제가 아니라 예배 모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잠잠함과 복종은 분명히 서로 붙어 있습니다(고전 14:34). 가르치지 말라는 금지와 복종하는 가운데 배우라는 지시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딤후 2:11).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말하겠습니다.

단어 연구를 해 보면 이 말이 어떤 문맥에서 쓰이는지 드러날 것입니다. 태도를 요구하는 말로, 결과로, 또 강요된 상황으로도 쓰입니다.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때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 종노릇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기를 위해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하는 이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종과 남종은 자기 주인(남자 주인이든 여자 주인이든)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모든 사람이 자매와 형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쓰임새의 폭은 넓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기본 생각은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여기고 그 아래에 자신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복종은 그리스도인 여성과 남성에게 낯선 것이 아니라, 연습해 온 덕목이면서 동시에 늘 시험받는 덕목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성령의 열매 목록에 직접 들어 있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이 함께 사는 일은 복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겸손 없이,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합니다(빌 2:3).

55. Bergmeier, R., “ὑποτάσσω”, in H. Balz – G. Schneider (edd.),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2011, 976.

궁극적인 본은 예수이십니다. 동시에 저는 권위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권위가 없으면 사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 고용주, 교사, 부모는 그 직무나 역할에 따라 권위를 갖습니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도, 일반적으로 그리고 결혼 안에서도 해당될까요? 그리스도인 여성들에 대해서는 다음 말씀들이 놓여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34]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에베소서 5:22]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골로새서 3:18]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디도서 2:5]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가르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3: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얻게 하려 함이니

[베드로전서 3:5]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이런 식의 권면이 구약에는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예수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이것이 무언가 중요한 일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때 여자들이 그렇게 반항적이고 선동적이었거나 권력을 탐했을까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고대사 연구는 그것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고대의 여자들은 어차피 예측된 역할에 있었습니다. 어차피 당연했던 것, 그리스도인 여성들을 놀라게 하지도 않았고 그들에게 낯선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을 것을 이렇게 강조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복종이 무엇이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집안일에 대한 남편의 지시였을까요? 그 일에서는 여자들이 비교적 독자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남편이 공적인 영역에 있는 동안 집은 여자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5에 집안일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14에서 바울은 젊은 과부들이 집을 다스려야 한다고 쓰면서 “oikodespoteo”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바로 집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나 응해야 하는 성적인 복종을 뜻할까요? 오늘날 이 지시를 문자적으로, 곧 그 원래 의미대로 따라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결혼 안에서 이 복종은 무엇입니까? 이 관계 방식을 어떻게 묘사할 수 있으며, 21세기 서구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 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요구되는 그대로의 분명함으로, 약화하거나 조정하지 않고 말입니다.

버니 윌슨(Bunny Wilson)은 *Befreit durch Unterordnung*(복종을 통해 자유롭게 됨)⁵⁶이라는 이상한 제목의 책에서, 제목이 짐작하게 하듯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열렬히 변호합니다. 그녀에게는 분명히 잘못된 결정 앞에서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길이며, 그 잘못된 믿음과 기도로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러 사례를 들어 그것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보여 줍니다. 그녀 자신도 결혼 생활의 경험을 나누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에게 말씀하셨는지, 이 어렵고 논란 많은 태도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지 않은지 어떻게 보여 주셨는지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해와 경험이 서로 섞이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을 때 자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옵니다. 제 책 전체도 제 삶의 경험과 제 “여성관” 없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종립적이지도 않고 순수한 성경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 주제에 대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 결정적인 질문은 복종의 근거를 무엇으로 대느냐 하는 것입니다. 윌슨을 인용합니다. “가끔 아내와 제 의견이 다를 때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나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내가 당신에게 복종했으니까요. 성경은 에베소서 5:21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말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21을 이용해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한 여자가 저 하나만이 아니라니 안심이 됩니다. 처음 이 성경 구절을 남편에게 들이댔을 때가 기억납니다.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성경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아내분이 언급하신 성경 구절과 그다음 구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에베소서 5:21-22).

결혼 안의 복종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피차 복종과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실천함으로써 서로 복종합니다. **결혼 안에서 우리는 권위를 가진 사람인 남편에게 복종합니다.**

에베소서 5:21에서는 하나님이 유일한 권위이십니다. 에베소서 5:22에서는 아내가 남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에 대한 권위를 주시고, 그에게 책임도 물으십니다.”(77쪽)

그러나 “복종하다”를 이렇게 나누어 이해하는 것은 본문에서 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창조의 질서상 여자 위의 권위로 봅니다. 게다가 그녀에게는 하와에게 내린 형벌의 말씀, 네 원함은 네 남편에게 있을 것이나, 그는 너를 다스릴 것이다가 하나님이 원하신

56. Wilson, Bunny, 제3판, 2020 (“Befreit durch Unterordnung”), CLV, Bielefeld

역할 분담입니다. 여자는 본성상 다스리고 싶어 하지만 남편의 다스림 아래 굽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동산에서 죄를 막기 위해 다스리는 일을 소홀히 했고, 본성상 다스리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다스리라는 사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 대한 저의 첫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창조주의 설계 결함이 있어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똑같이 치명적인 질문입니다. 타락 이전에 이미 죄된 성향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창조 이야기에 대한 이런 이해는, 제가 이미 설명했듯이,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역할 이해의 방향을 정합니다. 아담을 머리로 지도자로 보는 사람은 형벌의 말씀조차 축복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어디에서나 이 역할 이해를 읽어 넣을 것입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려는 사람은 온갖 다른 유형의 사람들이 이론 결혼의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아내가 강하고 남편이 약하면, 복종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피차 복종을 살아 내자고, 결혼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죄된 성향을 솔직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맞서 싸우자고 호소합니다.

에덴에서 저는 서로 보완하는 한 쌍의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를 지니고, 위계의 높낮이가 없는 한 쌍입니다. 남자가 더 큰 권위를 지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 지시들은 오히려 위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위계의 높낮이가 타락의 결과라고 확신합니다. 거기에는 미화할 것이 없으며, 그것을 기독교화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신자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써 타락한 창조 문화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이것을 먼저, 그리고 무엇보다 믿는 남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아니라 남편들이 자기를 내어 주는 사랑으로 부름받는 것이고, 바로 다스리라는 부름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별개로, 다스림은 여기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창조의 사명에서도 그렇게 이해되어야 하듯이 말입니다. 사실 남편에게 다스리거나 이끌거나 앞장서라는 긍정적인 명령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대 문화에서는 메시아에 대한 새 믿음 때문에 여자들이 이제 자신의 자유와 동등함을 깨닫고 명예와 수치의 문화를 흔드는 행동을 하게 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여자들은 결혼과 집과 가정의 질서라는 일반 문화에 맞서는 대항문화를 만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 질서는 사회의 기초로서 신성했고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울과 비교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얻기 위해,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스스로 제한함으로써 사람들을 얻고 설득하는 일에 대가를 치렀습니다. 여자들의 복종이 문제가 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이자면, 베드로에게서도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곧 복종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을 얻는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는 남편이 주변에서 불명예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을 절대로 피해야 했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사람들은 모든 위계를 존중하면서 조화로운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공개적으로 반박하거나 그를 바로잡으면 이 명예의 원칙을 어기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여자들에게 복종하라는 지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위계적 차이로 근거를 대지 않습니다. 창조에는 그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인 복종입니다. 복종하라는 명령은 고대의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복음을 위한 동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은 어차피 복종을 불필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밖으로, 고대 사회를 향해서는 이 지시들과 그것을 따르는 일이 차별과 박해를 막는 보호막이었습니다. 그것은 가정을 파괴한다는 모든 의심을 처음부터 없애려는 태도였습니다.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 살지 않는 21세기의 우리에게 이 지시는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서구 세계의 사람들은 법과 질서의 체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결혼에는 사랑의 계명, 서로를 위한, 함께함, 그리고 주 안에서의 피차 복종이 적용됩니다. 비판은 사랑 안에서, 알맞은 때에 솔직하게 말하되,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남녀 동등권을 지지하는 제 논거에 대해 저는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신약에서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반대] 입장은 헬라어와 온갖 주석 등을 끌어와서 매우 복잡해 보입니다. 우위 입장이 단순하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옳은 입장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닙니까?”

대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장 단순한 해석이 옳을 때도 있지만, 아주 틀릴 때도 있습니다. 결국 신약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고 자주, 분명하게, 오해의 여지 없이 명령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일은 아주 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십시오. (롬 16:16)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전 16:20)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후 13:12)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살전 5:26)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벧전 5:14)

이것들은 모두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명령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설교하지도, 가르치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이 관습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거가

단순한데도 말입니다. 여기서 이해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입맞춤에(덧붙이자면 땀은 머리와 금 장신구를 금지하는 말썸이나 너울을 쓰라는 규정에도) 매달리지 않는 이유는, **그런 명령들이 오늘날 우리 문화에 어긋나며 오늘날에는 그 원래 목적에 이바지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자의 역할을 두고 씨름하는 것은, 우리 문화가 얼마 전까지도 여자들에게 남자와 같은 기회와 같은 인정을 주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나이 든 형제자매들은 이 문화에서 자랐고, (여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여자들의 불평등한 권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주의적 논거가 편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단순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⁵⁷

아무리 성경에 충실하다는 사람들이라도 성경이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예를 하나 더 들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묻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자주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계명이나 관습을 아예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고려하기라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5에서 부부가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합의하여 성관계를 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고집하는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언제, 몇 번이나 배우자와 이런 합의를 공개적으로 했습니까?

끝으로 예수의 직접적인 말씀을 들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 13:14-15)

서구 세계와 문화에서 이것은 성경을 진지하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스스로 상황화하여 실천하지 않는 관습입니다.

5.3.1 결론

마거릿 모우치코(Margaret Mowczko)는 이렇게 씁니다. 여러 해에 걸쳐 동사 hypotasso(“복종하다”)가 초기 기독교 문서와 비기독교 문서에서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는 데 시간을 들인 끝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적” 복종(곧 믿는 남편과 아내를 포함하여 함께 믿는 사람들 사이의 복종)은 “겸손하고 신실하며 사랑이 담긴 존중, 협력, 지지”입니다.

57. Guin, Jay, 157쪽, Buried Talents, In Search for a New Consensus, 2014, Alabama

겸손과 온유처럼 복종도 그리스도인의 평범한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상호적이어야 합니다.

캐서린 부시넬(Katharine Bushnell)은 100년 전에 획기적인 책 “God's Word to Women”(이 책 끝의 추천 도서를 보십시오)에서 이렇게 씁니다.

“이 말의 참된 의미는, 원칙이 걸려 있지 않은 경우에 자기 권리를 고집하는 대신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길을 내주는 그리스도인의 은사 또는 덕목을 묘사합니다. 솔로이스너(Schleusner)의 칠십인역 헬라어-라틴어 사전은 이 동사가 언제나 ‘노예적 예속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예수께서는 소년 시절 ‘부모에게 복종하여 받드셨지만’, 우리는 그분이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때 부모에게 묻지도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누가복음 2:49, 51).

두 사람이 서로 ‘복종’할 마음이 없다면 동업으로 사업을 오래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취향을 포기해야 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하며, 서로의 견해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 갈라설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쪽이 다른 쪽에게 명령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그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런 명령을 따르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노예적 굴종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노예처럼 굴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인격을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21에서 사도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는 성별에 상관없이 모든 신자에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베드로전서 5:5)고 말합니다. 이 구절들은 분명히 남자들에게도 ‘복종’을 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그것이 남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때 서로의 자의적인 지배 아래 들어가도 된다는 뜻일 수 없다고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그런데 사도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권면하는 세 구절에 이르면, ‘아내들’에게 주신 이 권면이 절대적인 순종을 뜻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이단자 취급을 받습니다. 제가 보여 드렸듯이 ‘복종’이라는 말은 남자와 남자의 관계에 관한 곳에서 순종으로 해석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16에서처럼 남자들이 한 여자에게 ‘복종’하는 것을 뜻할 수 있는 곳에서도 그렇습니다. 게다가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의 관계가 묘사될 때마다 용어 사용에 세심한 구별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종들에게는 대체로, 자녀들에게는 언제나 쓰이지만, 아내들에게는 언제나 ‘복종’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뜻이 같다면 왜 이렇게 공들여 서로 다른 말을 고르겠습니까? 아내들의 의무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5:22; 골로새서 3:18; 디도서 2:5를 보십시오. 자녀들의 의무는 에베소서 6:1; 골로새서 3:20입니다. 종들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6:5; 골로새서 3:22를 보십시오.

‘복종하다’라는 말이 구약에서 때로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살펴보면 매우 의미심장하고 배울 것이 많습니다. 시편 62:1은 이렇게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Schlachter, 독일어 성경 번역본). 같은 시편 5절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37:7에서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발견합니다. 앞의 구절들에 나오는 ‘바라다’와 마지막 구절의 ‘잠잠하다’는 헬라어 역본에서 모두 hypotassō, 곧 ‘복종하다’라는 한 단어로 옮겨졌습니다. 반면 히브리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에게 잠잠하라’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3:1-2와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서 여자들은 믿지 않는 남편을 ‘복종’으로 얻으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아내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그랬다면 이방인의 경우에는 그들이 아내들을 곧바로 우상 숭배로, 유대인의 경우에는 유대교로 되돌려 놓으려고 강요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그들의 ‘행실’로, ‘말없이’, 그들을 거짓 믿음에서 떠나 기독교 신앙으로 얻어야 합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하는 법입니다. ‘두려움으로’ - 이것은 일상에서 그토록 온유하고 조용하며 참을성 있는 이 여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에서 바위처럼 굳건하게 하는 그런 경외심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원칙을 지키면서도, 원칙이 위태롭지 않을 때에는 남편에게 기꺼이 양보하는 모습에 믿지 않는 남편들은 너무나 압도되어, 감히 아내들에게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라고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그렇게 그들 자신도 차츰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복종은 성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할조차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의 모든 형제자매를 위한 태도이자 행동이며, 피차 복종이 그 이상입니다. 피차 복종은 1세기와 2세기 초 교회에서 낯선 개념이 아니었으며, 오늘날 교회에서도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아르민 분덜리(Armin Wunderli)

성경에 쓰인 대로 산다면 우리에게 여성 해방 운동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릴 테니까요. 대니 실크(Danny Silk)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합니다. 조건 없는 동등권 말입니다.

베로니카 슈미트(Veronika Schmidt)

6 교회 안에서의 남자와 여자

세계 교회는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헌신과 기도와 순종의 문제 말고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잘못된 확신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별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과소평가합니다. 그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의 삶에서, 교회 전반에서, 그리고 교회가 바깥에 미치는 영향, 곧 선교적 증언의 힘에서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위계적 교리를 따른다면, 그것은 결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동으로 교회 안의 역할에도 해당됩니다. 예배 모임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 전체에서 그렇습니다. 교회인 하나님의 집에 우리는 언제나 있으니까요!

여자들이 소리 내어 참여하는 것부터 이끄는 일에 참여하는 것까지를 다루는 6장에서는 결혼과 교회라는 공간이 서로 겹칩니다. 만일 여기서 창조 질서가 문제라면, 이 공간 또는 영역들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두 영역 모두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 안에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 디모데전서 2장의 논란 많은 본문을 다룹니다. 곧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 잠잠한 것, 가르치는 것에 관한 본문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구체적인 계기는 교회 안의 여자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은 거듭 창조 질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이 영역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준비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본문들과 그 해석은 다른 어떤 본문보다도 교회 안의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결정합니다. 이 본문들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들은 어렵고,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헬라어 본문과 씨름하며 그 의미를 당시와 오늘을 위해 밝혀내려고 애쓰는 주석들을 읽어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가 흑백논리로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무엇을 뜻하지 않는지 안다고 생각함으로써 본문을 장악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것은 성경주의적이고, 일차원적이며, 심지어 교만한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가능한 설명들을 제시할 뿐이며, 그것도 하나 이상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제게 중요합니다. 제가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발견한 여자의 모습, 그리고 제가 본 예수께서 여자들을 대하신 모습에 어긋나는 해석을 저는 거부합니다. 이런 본문을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율법적인 의미로, 무언가 잘못할까 봐 두려움에 가득 차서 해석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복음에 맞지 않습니다. 바울은 결코 성경, 곧 히브리 성경, 구약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곳에서 분명하지는 않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세기의 직접적인 수신자들에게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과 문화적 환경 안에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길을 가고, 평생에 걸쳐 자기의 견해와 통찰과 의견과 확신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압니다. 우리는 때로 빗나가고, 스스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관점의 변화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들의 의미를 단번에 영원히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곧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이 본문들이 거의 수학적으로 해석되고, 마치 유일하게 타당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큰 확신을 가지고 그 의미가 전달되며, 교회 생활을 위한 분명한 규정으로 요구될 때면 저는 늘 조금 두려워집니다.

이어지는 장들에서 저는 여러 가지 설명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좋다는 태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히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비난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리 해석해서 자기 바람에 맞추려는 것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저게 성경에 충실하다는 것은 맑은 이성으로 말씀의 의미를 탐구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은 허용되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이 말씀 아래에 서는 것, 하나님의 믿을 만한 말씀을 앞에 두고 있다는 기본적인 신뢰를 갖는 것입니다. 자기 해석을 진리로 선포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따로 떼어 내지 않고 그 서신과 신약과 성경 전체의 문맥 안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순이 없다고 전제합니다. 모순이 있거나 그렇게 보인다면, 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또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6.1 고린도전서 11장 - 머리, 머리카락, 너울

이 (반) 장, 곧 고린도전서 11:1-16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를 근거 짓기 위해 인용되는 핵심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는 남자의 지도적 역할이 분명히 말해지고 있으며, 그것이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데서도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이고 성경에 충실한 진영에서 저는 이 본문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확한지 듣습니다. 이 본문은 말씀의 분명한 지시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지시를 당시의 문화에 매인 것으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한편 머리를 가리고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에 관한 이런저런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양심의 괴로움을 겪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글자 그대로 지키는, 또는 지킨다고 믿는 자매들과는 대조적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핵심은 늘 그렇듯 해석의 문제(해석학)입니다. 저는 40년이 넘도록 이 복잡한 본문을 이해하려고 애써 왔습니다. 이에 관해 많은 것을 읽었습니다. 수긍할 만한 설명부터 기가 막힐 만한 설명과 행동 양식까지 만났습니다.

이 단락을 자세히 주해하는 것은 여기서 불가능합니다. 이 장이 이 책에서 가장 긴 장인데도 그렇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서로 보완하기도 하고 서로 모순되기도 하는 해석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하나의 가능성일 뿐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독자에게 이 어려운 본문에서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것을 얻도록 도울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참된 해석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고 거기서 행동 규정과 겉모습에 관한 규칙을 끌어낼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됩니다.

다음 단계에서 저는 어떻게 진행할까요?

(1) 먼저 본문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을 열거합니다.

(2) 그다음 본문의 적용 범위를 밝혀 보려고 합니다.

- (3) 이어서 머리라는 개념의 의미를 자세히 다룹니다.
- (4) 고린도의 머리 덮개라는 주제에 더 많은 배경을 끌어와야 합니다.
- (5) 머리 위의 권세의 표는 핵심 구절이지만,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 (6) 본문을 짧게 설명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풀어 옮긴 번역을 제시합니다.
- (7) 21세기에 이 본문이 오늘날 지니는 의미를 밝혀야 합니다.

6.1.1 본문 해석을 위한 지침과 참고 사항

많은 사람이 바울의 이 본문을 처음 읽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접근을 열어 줄 수 있는 몇 가지 측면을 들겠습니다. 이것은 이 본문과 씨름한 결과이며, 많은 연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본문을 여자(들)의 위계적 복종이라는 안경을 쓰고 이해하는 익숙한 읽기로 빠지지 않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⁵⁸

본문은 무엇보다 모든 일이 남자나 여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야 한다는 데 무게를 둡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주의가 자기에게 쏠리지 않도록 행동하고 옷을 입음으로써 그렇게 합니다.

(몇몇) 남자들이 바울이 가르치게 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벗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관습과 풍습이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부끄러움과 불명예는 하나님과 관련된 신학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감정의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창조 이야기를 끌어오기는 하지만, 이것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계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유는, 제약을 감수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과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머리카락을 가리는 것이지(단순히 머리를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몸을 가리는 너울도 아닙니다.

58. 이 연구의 자세한 판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www.hans-joerg-ronsdorf.de

남자가 여자 위에 서는 위계적 창조 질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둘 다 기도하고 예언하며, 동등한 지위와 동등한 자격을 지니고, 둘 다 성별에 따른 외적인 행동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결국 기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여자와 남자에 대해 말합니다. 머리와 몸의 은유는 기혼자에게만 해당되지만 말입니다. 기도와 예언은 모두가 합니다. 기혼 여성도, 여종도, 과부도 합니다.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같은 겉모습은 복음이 결코 규정하지 않습니다. 옛 언약의 제의에서는 그것이 규정되어 있지만, 고린도 사람들이 주의 만찬에서 기념한 새 언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 환경 속에서 바울은 각자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찾습니다.

21세기 남자와 여자의 행동 규칙이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읽기 전에, 여기서 말한 전제들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을 읽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달리 보아 왔더라도, 다른 관점을 취하기 위해 그것을 일단 생각의 가능성으로 받아들이어 보십시오. 곧바로 확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6.1.2 본문의 적용 범위

이 본문은 어떤 장소나 환경에 해당될까요? 4절과 5절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예언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에 대해 씁니다. 이것이 모임, 곧 예배 모임에 해당될까요? 예배에서의 “여자의 잠잠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들이 보기에 이것을 예배 모임과 연결하는 대부분의 번역자와 해석자는(이미 이 단락의 소제목에서부터) 틀렸습니다. 이상한 것은 바로 그들이 머리 덮개에 관한 지시를 모임에서 지키라고 “권한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이 모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이 본문을 모임과 연결하지 않는 데에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1. 이어지는 본문, 곧 17절부터는 주제가 바뀌고 그때부터 분명히 교회의 모임에 관한 것이 됩니다. 모임을 가리키는 말이 17절부터 여러 번 나옵니다. 18절, 20절, 33절, 34절에 나오지만, 11:1-16 단락 앞이나 그 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2. 고린도전서 뒷부분 14:34-36에서는 여자들이 모임에서 잠잠해야 합니다. 이 단호한 침묵 명령(이에 대해서는 6.2장에서 자세히 다룹니다)이 11:5의 바울의 말을 온갖 다른 경우로, 그러나 모두 모임 바깥의 경우로 돌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두 논거 모두 보기만큼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만일 오늘날 요구된다면) 머리를 가리는 것은 모임에서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됩니까?
-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말은 모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침묵 명령은 바로 복종으로 근거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14:35)?
- 그렇다면 11장은 도대체 어떤 경우에 유효합니까? 모임 바깥에서 자매들에게 주어지는 많은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 서신 어디에서도 그런 것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에게 기도(한 가지 예외를 빼고)와 예언은 (14장에서) 오로지 모임 안에서 일어납니다.
- 11:17 앞에 모이는 일이 언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의 상(10장)의 원칙들이 떡을 떼기 위한 모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 매주 첫날의 연보는 모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고전 16:1-4).

다른 참석자들에게 보이는 표로서 머리를 가리거나 가리지 않는 것은, 그런 지시가 성립하려면 모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는 표는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람들, 곧 신자들이 모이는 것은 언제나 모임입니다.

6.1.3 머리가 있는 세 쌍

바울은 각각 하나의 머리를 가진 두 개씩의 짝 세 쌍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다음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지라. 저는 오랫동안 여기서 다음 순서로 된 보편적인 위계의 단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머리라는 개념을 곧바로 위에 있는 권위로 이해하면, 이런 위계의 순서 또는 서열이 생깁니다. 문제는 바울이 이것을 의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권위를 뜻할까요?

이 배열에서 여자는 맨 아래에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 여자는 그리스도와 아무 연결이 없습니다. 그녀의 남편(또는 일반적으로 남자)이 일종의 중재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어떤 독자라도 남자가 여자와 그리스도 사이에 설 수 없다는 데 동의할 것입니다. 단계의 순서도 본문의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의도된 것이 아니며, 이렇게는 쓸모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자기 위에 권위의 표를 두어야 한다면(10절), 자기 위에 역시 권위를 둔 남자에게서는 무엇으로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신다는 것을 그리스도께 있는 어떤 외적인 표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분은 어쩌면 나실인처럼 긴 머리를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각 쌍은 따로 섭니다. 여기에는 설명하거나 깨우치거나 바로잡는 비교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쌍들은 설명하기 위한 예로서 나란히 서 있습니다. 명령 계통으로서가 아닙니다. 이 순서는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로, 바울이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벗으라고 요구한 남자들에게 먼저 말한다는 것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식은 서열에서 벗어납니다. 위계적 질서는 이 장을 여는 열쇠가 아닙니다.

6.1.4 머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 질문은 때로 말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문가들 사이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비유적, 상징적 또는 은유적 의미의 머리(Haupt)라는 말은 우리 말(독일어)에서 쉽게 권위와 연결됩니다. 독일어 용법에서 Hauptmann(대위), Hauptzollamt(중앙 세관),

Hauptstraße(큰길) 같은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영향을 받아 직관적으로 이 말에서 권위, 주권, 지도, 위에 있음, 책임을 진 사람을 떠올립니다.

당시 머리의 의미는 무엇이였을까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권위를 뜻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문맥에서 그런 의미를 지닌 경우가 있었다 해도 그렇습니다. 만일 바울이 권위를 표현하려 했다면, 그것은 오히려 깨우치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에게 분명히 알려 주는 것은, 그들이 여자에 대한 자기 권위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 대한 자기의 복종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들과의 관계와 여자들을 대하는 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형태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관계는 권위의 문제보다는 하나 됨과 동등함으로 규정될 것입니다.

에크하르트 J. 슈나벨(Eckhard J. Schnabel)은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하려는 것은 여자의 질서와 남자의 ‘권위’를 근거 짓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 모든 남자, 모든 여자, 그리고 그리스도까지 – 이 ‘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 곧 우선적인 지위를 가진 한 인격에 속해 있으며 그 인격에게 충성을 빚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⁵⁹ 충성은 위계나 종속이 아니라 무엇보다 관계와 결속에 뿌리를 둔 신실함을 뜻합니다.

머리(헬라어: kephale)는 기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이 말이 권위나 지도자라는 의미를 (오로지) 지니지 않는 네 가지 이유를 들겠습니다.⁶⁰

구약의 헬라어 번역(칠십인역)에서 머리는 kephale로 옮겨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독일어에서처럼 (rosh)가 “머리”, “지도자” 또는 “통치자”를 뜻할 수 있습니다. rosh가 지도적인 인물을 뜻한 경우에 번역자들은 대부분 kephale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대개 “지도자” 또는 “통치자”라는 뜻의 헬라어 archôn을 썼습니다. 히브리어 단어는 시작이나 기원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서는 kephale가 고대 헬라어에서 보통 “지도자”를 뜻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Liddell-Scott-Jones Greek-English Lexicon에는 “지도자”에 가깝거나 뜻으로 보아 “권위”에 해당하는 kephale의 정의가 없습니다. R. 서빈(R. Cervin)은 크세노폰, 헤로도토스, 플라톤, 투키디데스, 소포클레스, 아이스킬로스, 폴리비오스, 디오도로스 시켈로스 등 개별 이교 고대 헬라 저자들의 작품 사전들에 kephale에 대해 대략이라도 “지도자”를 뜻하는 정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도자”라는 뜻의 “머리”는 주후 4세기까지 이교 헬라 문헌에서 사실상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 기독교 사전들은 이 말을 권위로 옮깁니다. 신약 사전들이 kephale의 정의로 “지도자”를 제시하기는 하지만, 이 말과 함께 언급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고전 11:3), 예수 그리스도(고전 11:3; 엡 1:22-23;

59. Schnabel, E. J., *Der erste Brief des Paulus an die Korinther*, Witten; Gießen 2018, 597.

60. 시드니(Sydney)의 마거릿 모우치코(Margaret Mowczko)가 정리했습니다.
www.margmowczko.com

4:15-16; 5:23; 골 1:18-19; 2:9-10; 2:18-19), 남자들(고전 11:3)과 남편들(엡 5:23) 뿐이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바울에게서만 그렇습니다. 그가 **kephale**를 지도자나 최고 책임자라는 뜻으로 썼다면, 왜 자기 서신의 다른 곳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거나 정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초대 교회의 헬라어를 쓰는 여러 교부들은 고린도전서 11:3의 **kephale**를 “기원”이나 “시작”이나 “근원”의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kephale**가 때때로 “지도자”나 “권위 있는 사람”을 뜻할 수 있던 시대에 글을 썼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이 교부들은 어차피 남자가 여자보다 더 큰 권위를 지니며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입장을 뒷받침하려고 고린도전서 11:3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1:3의 **kephale**를 “통치자”나 “권위”로 이해하면 왜곡된 기독교론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kephale**를 “시작”이나 “근원”의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로마 사회는 가부장적이었습니다. 헬라 저자들이 남자와 남편의 지배에 대해 쓴 작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그를 따른 기독교 저자들 말고는 어떤 저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나 남자와 여자 일반에 대해 쓸 때 “머리”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 문헌 바깥에서 고대 헬라어의 **kephale**는 남녀 관계의 문맥에서 결코 쓰이지 않습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11:3의 **kephale**를 “기원”이나 “시작”, 또는 어떤 이들의 말처럼 “근원”과 같은 의미로 읽자고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각 사람의 기원은 그리스도이시다.” 골 그리스도는 창조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8:6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있는” 분이라고 강조합니다.

“여자의 기원은 남자이다”(골 창세기 2:21-23). 여자[ishah]는 “남자[ish]에게서 취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기원은 하나님이시다”(골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시며 메시아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후대의 언어로 하면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나신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게서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1:2-16에는 창세기 2장의 창조 기사와 남자와 여자의 기원에 대한 암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11:8-9, 11-12). 그러므로 문맥상 고린도전서 11:3이 창조와 기원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이 그럴듯합니다.

우리는 머리라는 말의 의미 전체가 무엇인지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 뜻을 지닐까요, 아니면 각 “쌍”에 모든 것이 정확히 똑같이 적용될까요?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역할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위치와 어느 정도까지 같을까요? 그러므로 신중해야 하며, 이 3절이 이어지는 단락 전체의 중심 생각이나 제목이 될 수 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남자가 머리라는 것은, 굳이 이 개념을 권위로 이해하려 한다 해도, 권위 이상을 뜻합니다. 그것은 똑같이 기원과 근원을 뜻합니다. 저 자신은 이미 5.2장에서 보여 드렸듯이, 여기서 하나 됨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도 강조된다고 추론하겠습니다. 또한 몸을 위한 머리의 돌봄과 보호의 기능, 떠받치고 지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맞서는 유대적 영향도 있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기사에 비추어 - 그 반대가 아니라 - 바울은 여기서 잘못 해석된, 곧 유대적으로 해석된 창조 이야기를 바로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특별히, 그 이야기에서 여자의 복종을 근거 짓고 거기에 머리를 가리는 것과 긴 머리카락 같은 겉모습을 결부시켰습니다.

바울은 창조 기사의 의미에 따라 이것을 반박합니다. 여자는 남자(남편)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도 여자(아내)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 보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창조 기사를 이보다 더 잘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를 이보다 더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 둘 다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져 나왔습니다. 완벽한 보완이요 마주 선 짝으로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서로 다르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자주 서로 바꿀 수 있는 역할을 지니며, 그 역할은 성별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이 동등한 지위를 보충하는 것으로, 앞선 7:3-5에서 바울이 준 가르침도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남편에게 있으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에 대한 권한이 없고 아내에게 있나니, 서로 물리치지 말라.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이 말로 성에 관한 고대의 생각과 관념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남자가 원할 때마다 성적 만족을 구한다고 해서 여자가 일방적으로 남자의 시중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남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속합니다. 성생활에서 그들은 서로를 존중합니다. 성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하나님이 친히 채워지도록 심어 두신 성적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합의에 따른 행위이며, 두 배우자 모두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두 성의 대등함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내가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관계는 몸의 일이므로 몸이 강조되지만, 결국 몸은 인격 전체를 대표합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한 권한(권위, 지배)을 가진다는 점은 자주 간과됩니다. 여자는 남자를 다스리지 말고 복종해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혼 안에서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시대에 맞는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6.1.5 고린도의 머리 덮개

머리를 가리는 관습 및/또는 너울을 쓰는 관습을 조사하지 않으면, 바울의 이 본문은 오늘날에 1:1로 옮겨 놓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차원적인 흑백 해석학으로 말입니다. 그런 해석학은 결국, 제가 직접 겪었던, 편협한 율법주의를 정당화하는 것이 됩니다.

M. 아워백(M. Auerback)은 너울을 쓰는 것을 지지하는 논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상징, 곧 진술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문화 안에서만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전통적인 성서학에서는 대부분 고린도전서 11:3-16에서 너울을 쓰는 것이 ‘복종’을 뜻한다고 전제했다. **고대 동지중해 문화에서 너울이 여자들에게 지녔던 의미를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서 말이다.** 또한 여러 현대 문화에서 너울이 여전히 널리 쓰이는 것도 살피지 않았다.”⁶¹

브루스 윈터(Bruce Winter)는 로마 제국 시대에 “너울을 쓴 머리는 기혼 여성에게 기대되던 정숙함과 순결의 상징이었다고 확실히 전제할 수 있다”고 단언합니다.⁶²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문화에서 나온,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여성들의 이야기에 접근할 수 있다. 우리는 이슬람과 유대교에 경건한 근본주의 여성들의 강한 흐름이 있으며, 그들이 고린도전서 11:3-16에서 바울이 제시하는 근거와 아주 비슷하게 들리는 이유로 너울을 쓴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대착오에 빠질 위험이 있는 후대의 인류학적 유비에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는다. **너울 벗기를 거부하는 여자들의 역사와 너울을 쓰는 이유는 아시리아 문화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⁶³

61. Westfall, 26쪽. Westfall, Cynthia Long.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 Baker Publishing Group, 2015

62. 27쪽

63. 29쪽

“바울의 관심은 예언하고 기도하는 교회의 모든 여자에게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여종, 해방된 여자, 미혼 여성, 과부까지 포함해서 말이다. 로마의 마트로나(Matrona)⁶⁴의 복장 규정은 그녀의 신분뿐 아니라 ‘로마 사회에서 성적으로 성숙한 여자로서 그녀의 지위와 역할’을 드러냈다. 반면 너울을 쓰지 않은 머리는 성적으로 접근 가능함을 뜻했다. 그래서 여종이나 해방된 여자에게는 너울을 쓰는 것이 금지되었다.”⁶⁵

“너울에 관한 규정은 남자들의 특권이었다. 지침을 정할 필요를 가장 당연하게 느낀 사람들도 그들이었을 것이다. 로마의 관습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기도할 때 머리를 가렸다. 바울은 분명히 교회의 남자들에게 로마의 관습과 달리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고린도전서 11:4). 그래서 남자들은 아마도 수거위에게 좋은 것은 암거위에게도 좋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가리지 않은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의 겸손의 표였지만, 여자의 가리지 않은 머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자의 겸손의 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냈고, 그것은 유혹과 같을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이 합당한가에 관한 문화적 이상은 겉보기에 신학적인 우선순위를 위해 누군가가 포기할 수도 있었다.”⁶⁶

“보통은 바울이 고린도의 여자들을 바로잡았다고 의문 없이 전제한다. 그러나 고린도의 여자들이 머리 덮개나 너울을 벗기를 거부했다고 보면 이 단락은 더 잘 들어맞는다. 그런데 권위 있는 사람들, 곧 가정 교회의 남자들이나 어쩌면 자기 남편들까지 그들에게 너울을 벗으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것은 너울을 쓰는 문화에서 거듭 벌어지는 종류의 시나리오이다.”⁶⁷

“이것은 그런 여자들이 성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신호였을 뿐 아니라, 사회 질서와 계층 사이의 구별을 유지하기도 했다. ... 모든 여자가 너울을 쓰도록 한 바울의 지지는 교회 안의 사회적 관계를 평등하게 만들었다. 이 너울 쓰기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던 한, 그는 문화 속에서 그런 지위를 거부당한 교회의 여자들에게 존중과 명예와 성적 순결을 보장해 주었다.”⁶⁸ 너울은 위와 아래의 사회적 차이, 곧 근대에 이르기까지 1800년 동안 볼 수 있는 신분의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근동의 문화에서 상류층 여자는 헌신과 겸손을 드러내려고 머리를 가렸다. 그녀의 가린 머리는 또한 그녀 자신의 명예와 그녀 가족의 명예, 특히 그녀의 paterfamilias(고대

64. 마트로나(Matrona)는 로마 제국 사회에서 로마 시민과 결혼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그녀의 자리는 대개 집 안이었고, 가족과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가장, 곧 아버지나 남편의 보호와 후견 아래 있었습니다. Wikipedia

65. 29쪽

66. 31쪽

67. 32쪽

68. 33쪽

가정의 가장), 곧 그녀의 정체성의 근원의 명예를 직접 드러냈다. 바울은 창조 기사에 근거하여 너울을 쓰는 것에 대한 신학적 논증을 펴기 위해 이 상징의 복합적인 의미를 끌어온다.”⁶⁹

E. 슈나벨(E. Schnabel)은 이렇게 씁니다. “여자들이 (종교적인 맥락에서만이 아니라) 머리 덮개를 쓰는 것은 로마-헬레니즘 문화권에서 당연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었다. 로마의 조각상들, 무엇보다 황실 여성들의 초상과 묘비 부조는 기혼 여성을 머리 위로 끌어올린 스톨라(palla)나 vitta, 곧 양모로 된 머리띠 또는 머리 끈을 한 모습으로 나타내는데, 이것들은 정숙함과 순결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여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스톨라를 반드시 입어야 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톨라를 입는 것은 그들의 순결을 상징했다. 아우구스투스의 혼인법은 매춘부들이 정숙한 아내, 곧 마트로나의 스톨라를 입는 것을 금지했다.”⁷⁰

머리를 가리는 것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로마 여자들은 겹옷, 곧 팔라(Palla)를 뒤에서 머리 위로 손쉽게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러면 머리카락도 거의 가려졌습니다. 수많은 고대 그림에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너울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함을 상징했다는, 성서학에서 지배적인 전제를 반박한다. 너울을 쓰는 것은 사적인 상징이 아니라 법과 관습으로 규정된 공적인 관행이었으며, 남자와 여자 모두 그 관습을 따르도록 기대되었다. 한마디로 너울은 여자의 명예와 지위와 보호를 나타냈다.”⁷¹

“여자들이 너울을 벗기를 거부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그리고 지금도 그렇다). 너울은 명예와 보호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공공장소에서 너울을 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여자들이 모임에서는 너울을 쓰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말이다. 모든 여자에게 너울을 쓰라는 바울의 지시는 반문화적 또는 대항문화적이었으며, 여자들에게 호의적인 것이었다. 모든 여자가 너울을 쓰는 관행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의 사회적 관계를 고르게 맞추었다.”⁷²

이렇게 자세히 다룬 것은, 이런 외적인 표지들이 당시의 문화와 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와 복음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 안의 자유와 사회 규범에 대한 순응 사이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 순응을 뜻했습니다(여자들이 머리를 가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평등을 보여 주기 위해 모든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대항문화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또한

69. 37쪽

70. Schnabel, E. J., 602-603.

71. 42쪽

72. 44쪽

남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우상 숭배 제의에 순응하는 것을 뜻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부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오늘날에도 지켜야 합니다. 고대의 사회 규범을 받아들이는 것은 21세기의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겉모습은 혼란을 일으킬 것이며, 안타깝게도 실제로 그렇습니다.

6.1.6 머리 위에 권세의 표를 두라?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 위에 권세를 돌지니라.

많은 번역이 여기에 “권세 또는 권위의 표”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원문에는 권세, 권한 또는 권위라는 말만 있습니다. 이 첨가는 놀랍지 않습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바울의 이 본문은 여자 위에 남자를 두는 위계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거의 전부 남자인) 번역자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첨가는 하나의 해석입니다.

이 구절은 오히려 이렇게 옮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에 대한 권한을 가질지니라.

(슈나벨, 웨스트폴(Westfall), 부시넬(Bushnell), 키너(Keener), 쉬르마허(Schirmacher) 등이 그렇게 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너울을 쓰는 것은 여자의 권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것이 상징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명히 굴종이나 위계적 복종의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가 여성의 옷차림에 관한 일에서 자기 판단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미 고린도전서 6:2-3에서 말했듯이, 여자는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머리 덮개를 씌으로써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실함과 자신의 개인적인 사회적 지위를 받아들이며 자기 머리에 대한 통제권을 보여 준다. 교회 모임이라는 공적인 자리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드러냄으로써 보내는 성적인 신호는 피하게 된다. 남자와 여자의 상호 관계는 유지되며, 여자가 기도와 예언으로 하나님의 실재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진정성을 지닌다.”⁷³

“따라서 바울의 기원 신학에서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서로에게 의존한다. 고린도전서 11:3-16의 문맥에서 바울은 너울을 쓰고 싶어 하는 여자들의 바람을 지지한 데서 생길 수 있는 여자들의 부적절한 독립을 외교적으로 누그러뜨린다.”⁷⁴

73. Schnabel, E. J., 610-611

74. 73쪽

6.1.7 오늘날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한 말씀도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시대에 속하고 그 시대를 향해 말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머리를 가림으로써 주의를 자기에게 끌지 않고, 자기 머리카락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며, 남자들(어쩌면 몇몇 여자들도)의 주의를 흐트러뜨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고 찬양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임재가 모임의 중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배에서는 아무것도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되며, 누구도 주의나 영예를 자기에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외모로, 두드러지거나 치장한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에서 아무것도 빼앗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유효한 이 본문의 윤리적 원칙입니다. 연설자도, 설교자도, 삶의 간증이나 선교 보고를 하는 사람도, 가수도, 악기 연주자도, 어떤 사람도 당시에 마찬가지로 옷차림으로 주의를 자기에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 덮개의 관행에 관해 말하자면, 서구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머리 덮개로 신실한 아내라는 자기 지위를 알리는 일이 오래전부터 더 이상 흔하지 않다. 이슬람 국가들, 그리고 이슬람 지역의 교회들에서는 다르다!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머리 덮개 없이 교회에서 활동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자기가 사는 도시의 공공장소에서도 머리 덮개 없이 다니기 때문이다. 머리 덮개가 없다는 것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아내들은 ‘성경에 대한 순종’으로 오늘날에도 머리 덮개를 써야 한다고 요구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지시를 ‘순종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에게 문제는 머리 덮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중요하고 기본적인 전통적 관습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이다.

서유럽의 교회들에서 여자들이 머리 덮개를 쓴다면, 그것은 바울이 요구한, 아내의 순결과 연대를 상징하는 관습에 대한 순응이 아니라, 바로 순응하지 않는 행동이다. 서구에서는 부부간의 연대와 정숙함이 특정한 옷차림으로 상징되는 일이 거의 없다. 그것은 오히려 말로, 곧 결혼과 배우자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로 이루어진다.”⁷⁵ 그리고 물론 결혼반지로도 이루어집니다. 결혼반지는 그것을 낀 사람이 확고한 (결혼) 관계에 있으며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성적인 모험을 찾고 있지도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결혼반지가 그것을 막아 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표지입니다.

75. Schnabel, E. J., 624

그런데도 오늘날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규정하려는 사람(또는 여자들이 스스로에게 규정하는 경우)은, 우리가 부름받은 복음의 자유를 아직 붙잡지 못한 것입니다.

6.1.8 풀어 묶긴 번역

다음은 이 본문을 제 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 복잡한 본문을 저는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헬라어 본문의 번역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고 설명하는 대로, 글쓴이 바울의 관점에서 풀어 쓴 판입니다.

고린도 사람 여러분이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남자의 기원, 곧 머리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남자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로서 여러분은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모임에서 보입니다. 여러분을 먼저 말하는 것은, 여러분이 여자들에게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 덮개를 쓰지 말라고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여자는 그와 하나가 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머리, 그녀는 몸입니다. 남자는 그녀의 기원이며, 그녀도 그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모임에서 보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도 봅니다. 그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 그리고 사람으로서 그분을 낳으셨습니다. 그분과 같은 그분의 아들을 말입니다.

고린도에서 어떤 남자가 모임에서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소리 내어 기도하거나 예언하면서 머리를 가렸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써 남자는 겸손을 보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자들에게는 정반대입니다. 모임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면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여자들은 자기 머리에 부끄러움을 끼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 남편, 곧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에게 주의를 끌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자들이 남자들처럼 머리를 가릴 필요가 없다고 요구한다면, 그는 끝까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린도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은 여자는 머리를 민 여자처럼 여겨지고, 몸을 파는 여자나 성적인 만남을 찾는 여자와 같이 보입니다. 그녀가 너울을 쓰거나 머리를 가리지 않는다면, 논리적으로 머리카락도 자르거나 아예 밀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여러분이 그런 요구로 그것을 노리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사는 사회에서는 그것이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와서 공공장소에서 여자들이 머리를 가리는 통상적인 관습이 거부되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위험을 무릅쓰지 마십시오.

남자들은 모임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분의 영광의 광채이기 때문입니다.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밖에 남자의 영광의 광채이기도 합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그녀와 하나인 남편의 것입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의 영광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가 그녀에게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그에게서, 그의 옆구리에서 빚어졌기 때문입니다.

또 그녀가 남자의 영광인 것은 그가 그녀를 위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그녀가 그를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가 혼자였고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로서 그녀는 그에게 갖고 싶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므로 여자는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남자에게 그토록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자기 머리를 가릴지 말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것을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도, 교회 지도자들도 그녀에게 머리 덮개를 쓰지 말라고(또는 쓰라고) 규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자는 자기의 독자성과 결정의 자유 속에서도, 자기가 남자에게서 분리되거나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녀는 남자 없이 존재하지 않으며, 남자도 여자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었습니다. 머리와 몸의 하나 됨 속에서 그들은 함께, 한마음으로, 서로 의논하여, 평화롭게, 서로 복종하며, 서로 보완하며 행동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 없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첫 사람 부부의 창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처음에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나왔습니다. 그에게 속하도록, 다시 그와 한 몸이 되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뒤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옵니다.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없고, 여자가 없으면 남자도 없을 것입니다. 둘 다 동등한 존엄과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지위를 지니며, 서로 다름 속에서 완전한 보완을 이룹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이 나온 머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자가 공적으로, 그러나 너울도 쓰지 않고 머리도 가리지 않은 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동의하겠지만, 고린도와 로마 제국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자연법칙처럼 여겨지는 풍습과 관습이 있습니다. 남자가 풍습과 관습과 달리 긴 머리를 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도 여자들에게는 정반대입니다. 여자들의 긴 머리는 그들의 영광이요 자연스러운 장식이며, 사람들도 그렇게 느낍니다. 긴 머리는 남자의 영광이 되도록 그녀에게 장식하는 너울이나 겔옷처럼 주어졌습니다.

남자들에게 그토록 탐스럽게 보이는 이 장식을 그녀는 모임에서 가려야 합니다. 그곳은 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날 자리가 아닙니다. 남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음으로써 자기 겸손을 보여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예와 영광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왕의 왕을 알현하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고린도에서 누가 이것을 두고 논쟁하려 하고 머리를 가리는 이 관습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그는 그런 일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자들에게 머리 덮개를 쓰지 말라고 규정하려는 그런 일 말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머리 덮개에 관해 통상적으로 통하고 영예로우며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을 지키십시오.

6.1.9 맺음과 요약

이 단락의 언어와 바울의 결론은, 누군가 고린도의 가정 교회들에서 너울을 쓰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 했으나, 모든 여자 또는 몇몇 여자 또는 한 여자가 너울을 쓰고 싶어 했음을 시사합니다. 먼저 바울은 창조 기사를 짧게 요약하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그리고 남자를 위해 지음 받은 것이 여자가 남자의 영광인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남자는 그녀의 머리입니다. 그녀가 그에게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의 머리는 그의 영광을 반영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표현합니다. 창세기 기사에서 그녀는 그의 영광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동물과 달리 그녀는 특별히 그를 끌어당기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창 2:18-23).⁷⁶

바울의 본문들에는 성(젠더)의 신학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신학은 바울이 그리스-로마 문화의 개념과 상징, 그리고 헬라어의 관용 표현으로 창조 기사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실현됩니다. “머리”라는 은유를 아담에게 적용함으로써 바울은 하와가 여러 정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여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담의 형상이요, 또한 “남자의

76. 98쪽

영광”입니다. 바울이 여자를 “남자의 영광”으로 묘사하는 것은 복종이나 더 작은 영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영광, 곧 남성들에 대한 그녀의 아름다움의 힘을 가리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말하는(13절) 디모데전서 2:13-14의 바울의 짧은 서술에 남자의 우위를 투사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창조 기사에서 상호성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남자를 여자의 도움이 필요한, 유익을 받는 사람으로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그 문화가 이해할 만한 말로 묘사합니다. 여자는 남자에게서 빚어졌으므로, 창조 기사에서 남자는 헬라이어 용법에서 여자의 머리(그녀의 생명의 기원)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그 뒤로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오므로, 여자도 생명의 기원입니다. 창세기 3:20에서 “하와”라는 이름이 뜻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여자와 남자는 서로 독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창세기 1:27-28의 창조 기사에 나타난 여자의 권위에, 또는 헬라이어 관용 표현 “머리”를 사용하면서, 그 권위에 반대하거나 그것을 달리 해석하거나 상대화한다고 해석할 강제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둘 다 다스리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에 따르면 그 다스림은 해당 문화의 틀 안에서 함께함과 상호성의 의미로 행사됩니다.⁷⁷

6.1.10 고린도전서 11장의 다른 읽기

약 25년 전 저는 처음으로, 바울이 이 본문에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고린도 남성들의 생각을 소개하거나 인용하고 그것을 반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인용 이론 또는 인용 가설이라고 합니다. 독일어로 이것을 정리한 사람은 토마스 슈르마허(Thomas Schirrmacher)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회의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책의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Paulus im Kampf gegen den Schleier*(너울에 맞서 싸우는 바울).⁷⁸ 곧 머리를 가리자는 변론이 아니라, 이런 겉모습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180도 뒤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듯 “판도를 바꾸는 것”(Gamechanger)입니다. 이 가설은 이 본문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봅니다.

슈르마허와 상관없이 같은 가설을 주장하는 영어권 신학자들을 통해 저는 그의 해석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가설이 충분히 설득력 있다고 봅니다. 이 가설에 대해 제기된

77. 105쪽

78. *Paulus im Kampf gegen den Schleier*, Thomas Schirrmacher, Eine alternative Auslegung von 1. Korinther 11,2-16, 제5판 증보판, VTR, Nürnberg, 2002(초판 1993). 이 인용 읽기를 지지하는 한스게오르크 뵘슈(Hans-Georg Wüch, Theologisches Seminar Rheinland의 학업 책임자이자 구약 강사)의 머리말이 실려 있습니다.

다양한 비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습니다. 쉬르마허 자신도 자기 책 제5판에서 비판을 다룹니다. 이 해석이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어떤 해석이 증명되었겠습니까?

이 해석은 역사비평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비평이 아니라 생각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문을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사도들과 성경의 가르침 안에 본문을 자리매김하려는 것입니다.

인용의 예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고린도의 몇몇 남자들의 당혹스러운 요구를 길게 인용한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기 위해, 저는 고린도전서에서 비슷한 예들을 들겠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 고린도의 생각과 의견과 사건을 언급합니다. 1-4장은 파벌 형성에 관한 것인데, 한 파는 그가 없는 사이에 그를 자기들의 지도자로 내세웠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고 묻게 됩니다. 5-6장은 교회의 권징, 6-7장은 부부의 사랑, 8-10장은 우상의 제물, 12-14장은 성령의 은사, 15장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수많은 논쟁적인 주제, 잘못된 견해, 잘못된 결론을 다룹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반어적인 표현도 눈에 띄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들보다 더 많이 잘못된 생각을 거론하여 바로잡습니다. 그는 그 대부분을 아마도 자기의 첫 편지(5:9)에 대한 고린도 사람들의 답장 - 이 편지는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습니다 - 과 고린도에서 온 대표단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을 인용하거나 자유롭게 옮겨 놓고 그것에 대해 논평하거나 반박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인용의 한 예는 고린도전서 7:1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바울의 견해라고 설명했습니다. 적어도 세 가지 이유로 그것은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장은 분명히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에게 쓴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까이함’, 문자적으로는 만지는 것인데, 헬라어에서 이것은 성관계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또는 그들 가운데 몇몇이 믿었던 것처럼 성관계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남편과 아내의 결혼 안에서 서로의 의무로 여깁니다.

10:23에는 **모든 것이 가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사람들의 견해를 묘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견해입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인용도, 비록 훨씬 짧기는 하지만, 인용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맥이 그것을 분명히 해 줍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자유롭게 또는 편지에서 인용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6:12, 13; 7:1; 8:1, 4; 10:23; 15:12가 그렇습니다. 모든 인용이 언제나 인용으로 표시되는 것은 아니며, 문맥에서 그럴듯하게 이끌어 냅니다. 결국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것을 알아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인용 이론에 반대하는 두 가지 주요 논거는, 바울이 그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인용으로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과, 11장과 14장의 인용이 다른 인용들에 비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인용이 긴지 아닌지는 - 8-10장에서 우상의 제물에 관한 긴 논증을 보십시오 - 복잡성에 달려 있습니다. 오해의 위험 없이 더 짧게 옮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긴 인용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없다는 반론은 오류입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아닌데도 옮겨 놓은 것이 많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거짓인 마귀의 말까지 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것은 믿을 만하게 전달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앞선 생각들은 고린도전서 11장을 이런 방식으로 읽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6.1.11 고린도전서 11:2-16의 다른 번역

먼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쓰는 익숙한 번역으로 본문을 읽으십시오. 그다음 토마스 쉬르마허(Thomas Schirrmacher)가 제안하는 이 다른 번역을 읽고 한 문장씩 비교해 보십시오.

(2)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지키므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사라.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어쩌면 10절까지는 바울이 인용하거나 자유롭게 옮기는 유대주의자들의 잘못된 견해가 이어집니다.

(4)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남자가 머리에서 무엇을 늘어뜨리면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5)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거나 예언하는 모든 여자는 자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밌 여자와 똑같이 때문이라.

(6) 그러므로 여자가 이렇게 가리지 않으려면 머리카락도 잘라라.

그러나 여자가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머리를 미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니 가릴지니라.

(7)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므로 머리를 가리지 말아야 하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9)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바울은 이 요구들을 반박하고, 그것들에 분명히 반대하며, 말하자면 그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드러냅니다.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자기 머리에 대한 권한을 가질지니라.

(11) 결국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13)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니라!

(14)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15) 여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에게 영광이 된다고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니라! 머리카락은 너를 대신 주어졌음이라.

(16) 그러나 누가 논쟁하기를 좋아한다면, [그는 이것을 생각하라.] 우리에게는 그런 관습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들에도 [역시] 없느니라.

다른 방법으로, 10절을 들어 쓴 본문 쪽에 넣고 인용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10)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머리 위에 권세를 돌지니라.

루시 페피아트(Lucy Peppiatt)는 6절도 바울의 말로 봅니다. 그 구절에서 바울은 머리를 가리라는 요구를 끝까지 따라가 유대주의자들의 기괴한 모순을 지적한 다음, 다시 인용을 이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읽기는 본문의 여러 어려움을 풀어 줍니다. 이 읽기가 2000년 교회사에 비하면 기껏해야 200년 전이야 나왔거나 구상되었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틀렸습니까?

예를 들어 환난 전에 교회가 휴거된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됩니다. 그 가설도 더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성경을 연구한다면,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오랜 수수께끼를 풀어 줄 수 있는 새로운 깨달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6.1.12 결론

고린도전서 11:1-16을 이렇게 읽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읽기는 짐을 덜어 줍니다. 여기서 해방하는 깨달음들이 나옵니다. 오늘날 여자는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리거나 너울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원하는 대로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원하면 긴 머리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아마 한동안 긴 머리를 했을 것입니다(행 21:24). 본성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보여 주는 선생이 결코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본문에서는 남자를 여자 위에, 또는 여자를 남자 아래 두는 순위도 서열도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여자와 모든 남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기서 권위의 차이를 지닌 믿는 부부가 그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양심의 문제와 교회 지도자나 “지도하는 형제들”의 요구에 분명히 대답할 수 있으며, 책임의 짐이나 사람이 만든 율법의 짐을 자매들에게서 벗겨 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머리를 가리는 것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는 분명한 결론에 이르는 역사적 설명들이 있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여 드렸듯이, 인용 가설 없이도 거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대에, 또는 18세기나 심지어 19세기까지) 관습과 풍습에 따라, 예를 들어 머리를 가리지 않고 공적으로 말하는 여자들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문제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 무엇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방인을 얻기 위해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된다는(9:19-23) 의미에서의 순응이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예수께로 얻기 위해 자유를 포기함으로써 대가를 치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해당 사람들이 살고 뿌리박은 관습에 자발적으로(신학적이지 않게!) 순응하거나 그것을 유지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역할 이해에 바탕을 두었을 수도 있는 이런 풍습과 겉모습은 말하자면 감수되고

용인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복음의 자유 덕분에 변하고 사라져도 됩니다. 독일과 대부분의 서구 민주 국가에는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경건한 관습”, 복장 규칙, 겔모습은 세속 문화의 일부가 아니라, 오랜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와 자기들만의 환경 안에서 종교적인 근거로 이어지고 있는 기독교 문화의 일부입니다. 세속의 영향이나 강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만날 때 불필요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한 형제는, 예를 들어 전도 집회에서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겔모습과 행동으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겔모습에 관한 규칙을 지키지 않는 편이 낫다고 강조합니다.⁷⁹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복음에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피해야 합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동시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규정을 준다면, 이 얼마나 모순된 딜레마입니까.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어도 되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사람들의 생각이 갈립니다. 겔모습에서, 말하기, 옷차림, 앉는 자리에 관한 규칙에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이 예배에서 말하고 참여하는 것이 금지된다면, 그것은 큰 장애물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룹니다.

“우리가 바울의 말로 여겨 온 것(그러나 바울의 말이 아닌 것)을 잘못 사용하여 교회에서 여자들의 입을 막아 온 사실은 역사상 가장 큰 비극 가운데 하나로 여겨야 합니다.”

대니 실크(Danny Silk)

그렇습니다. 여러 세대 동안 여자의 존재 여부를 결정해 온 것은 실제로 두 개의 성경 본문입니다.

베로니카 슈미트(Veronika Schmidt)

79. Herbert Briem, Die Kopfbedeckung der Frau, 2018



6.2 말하지 말고 잠잠하라

자유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자들이 예배에서 잠잠한 교회는 아주 적은 비율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교회 세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날까지 저를 붙잡고 있으며, 자주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예배 모임에서 찬송하고 다 함께 “아멘” 하는 것 말고는 잠잠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생각일 수 있는지, 저는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남자로서 저는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습니다. 평생 예배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저는 전혀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저는 남자로서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중으로, 그리고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선포할 때 어떤 대답과 근거를 내놓느냐에 대해 함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 곧 교회의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을 잠잠하게 하려면 아주 좋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임에서 은사의 절반이 제게 유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영향을 받습니다. 복이 사라집니다.

만일 이런 이해가 오류라면, 만일 하나님이 그곳에서 여자들의 목소리도 남자들의 목소리와 똑같이 듣기 원하신다면, 그것은 진짜 문제이며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할 때 그 책임을 지는 일은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수십 년을 그런 모임에서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내면화했고, 옳다고 여겼고, 변호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젊었을 때, 이 전통을 모르는 한 자매가 어느 수련회에서 소리 내어 기도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은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질 것처럼 놀랐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자매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잠잠한 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이 불편한 말씀을 단순하고 겸손하게 따르는 대신 집요하고 창의적으로 그것을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이 침묵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끊임없고 단조로운 비난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이 잠잠하지 말아야 할 좋은 이유가, 그것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문은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34-36] 여자들은 모임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니, 오히려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그러나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모임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6.2.1 질문들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해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걸려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다르게 보더라도, 그냥 제 생각을 따라와 주시고 한번 견여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의 이 마지막 구절들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침묵 명령 근처에라도 생각이 미쳤겠습니까? 성경 전체 어디에 이런 지시가 있습니까? 이것은 “페미니즘적인 유도 질문”이 아닙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지시가 다른 어디에서도 단 한 번조차 언급되거나 암시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디모데전서 2:12의 가르치는 일과 가르치지 말라는 금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은 제 질문의 맥락에 속하지 않습니다(그 본문이 흔히 곧바로 논거로 등장하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문제는 여자들이 소리 내어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 체험 이야기, 노래, 예언의 말씀, 성경 봉독, 설교 말입니다.

서신의 바로 그 맥락 안에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앞장에서 이미 다룬 바울의 말, 곧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한다”는 말입니다(11:5). 저는 이미 지적했고 다시 말하지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14장에서 자세히 묘사되었던 모임의 특징입니다. 11장에서 요구하는 너울이나 머리 덮개는 남자들이 함께 있는 모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식사 기도나 여성 모임이나 어린이 모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 모임은 아마 그때 아직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여자들이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는 14장에서 여러 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질문을 품고 그 장 전체를 읽어 보십시오.

남자와 여자, 형제와 자매에게 해당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더욱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12절: 너희는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23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임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31절: 너희는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이라는 호칭은 모두를 뜻합니다. 형제와 자매 말입니다. 형제자매라고 옮기는 편이 오해의 여지가 없어 더 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많은 단락을 형제들(*adelphoi*)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말은 의심의 여지 없이 형제들 그리고 자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남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보통 남성 복수형에는 여자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오늘날 “총칭 남성형”이 그렇게 쓰입니다. 예를 들어 독일어에서 계좌 소유자(*Kontoinhaber*)는 남자와 여자를 다 가리킵니다. 친자매들을 가리키는 말로는 *adelphai*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옆길로 새지 않고, 모든 여제자와 제자를 함께 부르며 바로 이 말로 묶으신 예수의 말씀을 가리키겠습니다.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 23:8b). 게다가 이제 모든 여자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갈 3:26). 문맥이 의심의 여지 없이

남자들만 뜻하지 않는다면, 모든 자매가 포함됩니다. **형제 사랑**은 자매들도 포함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말씀들에 더해, 재능, 곧 성령의 은사(12장을 보십시오), 은혜의 선물은 모든 지체에게 나누어집니다. **성별에 따라서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어떤 본문에도, 남자냐 여자냐 하는 이 기준이 은사를 나누어 주거나 재능을 주는 데 의미가 있음을 암시하는 구별은 없습니다. 오순절에 선지자 요엘의 약속대로 성령은 모든 육체에, **아들들과 딸들에게** 똑같이 부어졌습니다(행 2:17).

6.2.2 장 끝부분의 당혹스러움

바울은 11:5에서 공적으로 기도하고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대해 말했고, 14장에서도 여기까지 여자들을 따로 언급하거나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혹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여자들은 잠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그것이 세 번 되풀이됩니다. 그렇다면 앞의 모든 것은 여자들과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쓰다가 잊어버렸다가 아래에 덧붙인 것일까요? 아니면 이것이 그의 가르침의 끝을 장식하는 절정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천재적이고 재능 있는 저자였습니다. 모든 단어가 제자리에 있었고 깊이 숙고된 것이었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들, 곧 여자들은 율법도 말하는 것과 같이 잠잠하고 복종해야 합니다(14:34). 잠잠하라는 것과 복종하라는 두 지시를 모두 담고 근거 짓는다는 율법이 언급될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의 말투입니까?**

모세의 토라에는 그런 율법이 없습니다. 복종에 관해서도, 잠잠함에 관해서도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어떻게 신약의 모임을 위한 이렇게 구체적인 지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장 21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인용하는지 봅니다. 누구나 이사야 28:11-12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인용으로 합니다. 여기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 전체나 구약 전체가, 구체적이거나 문자적이지는 않더라도, 이런 방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근거를 댈 수 없습니다. 여자들을 이렇게 광범위하게 제한하기에는 너무나 빈약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자기에게 내려진 판결이 그렇게 일반적이거나 빈약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바울이 여기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16의 형벌의 말씀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이지만, 만일 정말 그렇다면

침묵 명령은 타락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이 될 것입니다. 곧 그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함축하는 형벌입니다. 새 언약의 교회에서는(!) 이 형벌이 폐지될 수 있어야 하고, 아니 폐지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6.2.3 인용으로 읽기

여기서 우리는 어쩌면 인용을 다루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33-36은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 [그러한] 것과 같이.

이어서 유대주의자들이 관철하고 도입하려는 것이 나옵니다. 바울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인용하거나 스스로 정리하여 말합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너희에 의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니, 오히려 율법에 말하는 것과 같이 복종하라. 그러나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제 바울은 이에 분명하고 반어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남자들 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여자들이 잠잠해야 한다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는 자기 자신과 모순될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이런 모순을 알면서도 못 본 체하고, 그것을 여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해도 됩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을 용납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여자들에게 너울을 쓰게 하고, 여기서는 심지어 잠잠하도록 의무를 지우려 한 사람들은 아마도 유대인 남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토마스 쉬르마허(Thomas Schirrmacher)는 이렇게 씁니다. “로버트 W. 앨리슨(Robert W. Allison)은 고린도전서 14:34에서 율법을 근거로 드는 문제를 추가로 연구했다. 그는 구약의 율법에는 여자들에게 잠잠하라는 요구가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34의 결론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탈무드를 통해 알게 된 창세기 3:16에 대한 랍비들의 주해와 완전히 일치하며, 그 주해는 고린도전서 11:2-16에도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와 바울이 구약에서 얻은 가르침과는 모순된다.

조이스 하퍼(Joyce Harper)와 존 A. 앤더슨(John A. Anderson)은 율법을 근거로 드는 것이 탈무드에 나오는 여자의 완전한 발언 금지에 해당하며, 여기서 율법을 근거로 드는 것은 바울이 아니라, 유대 교사들이 자기들의 율법 해석을 부당하게 근거로 드는 것이라고 본다.⁸⁰ 그들은 탈무드의 말을 인용한다. ‘여자가 남자들 가운데서 자기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⁸¹

S. 올렌(S. Aalen)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표현이 랍비식 정형구⁸²로서, 랍비들이 그것으로 무엇을 허락하거나 금지했다는 점을 들어 같은 견해를 뒷받침하려 했다.”⁸³

이 말들이 유대적 사고에서 나왔다는 다른 단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말하기를, 여자는 모든 일에서 남자보다 못하다. 그러므로 여자는 그에 맞게 복종해야 한다. 그녀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끌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다. 권위는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셨기 때문이다.”(『아피온 반박』 2.201)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 율법에서 여자들의 위치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이 정형구로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다. ‘여자들, (이방인) 종들, 그리고 아이들(미성년자들)’. 이방인 종과 미성년 아이처럼 여자에게는 그녀 위에 그녀의 주인인 남자가 있다. 이것은 예배에 대한 그녀의 참여도 제한한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그녀는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시대의 유대교도 여자들에 대해 매우 낮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인상을 받는다. 동방에서 흔히 그렇듯, 여자는 무엇보다 다산 때문에 존중받지만, 가능한 한 바깥세상과 격리되고, 아버지나 남편의 권력에 예속되며, 종교적인 관점에서 남자에 비해 열등하다(아래에 있다).”⁸⁴

바울이 인용하는 말들에서 그 정신을 다시 찾아볼 수 있는 말을 몇 가지 더 들겠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성적으로 자극하기 때문에 금지된다. 탈무드 Berachot 24a

여자의 목소리는 더러운 벌거벗음이다. 탈무드 Berachot

80. Joyce Harper. Women and the Gospel. C. B. R. F. Occasional Paper 5. Christian Brethren Research Fellowship: Pinner (GB), 1974. 14-15쪽; John A. Anderson. Women's Warfare and Ministry: What Saith the Scriptures? David Waldie: Stonehaven (GB), 1933. 20-26쪽.

81. Joyce Harper. Women and the Gospel. 앞의 책, 14쪽 (Megilla, 탈무드의 한 책).

82. S. Aalen. “A Rabbinic Formula in I Cor 14,34”. 513-525쪽, 수록: F. L. Cross (편). Studia Evangelica II. Texte und Untersuchungen zur Geschichte der altchristlichen Literatur 87. Akademie-Verlag: (동)베를린, 1964.

83. 토마스 쉬르마허(Thomas Schirrmacher)의 인용, 110쪽

84. Jerusalem in the Time of Jesus (Jerusalem zur Zeit Jesu), Joachim Jeremias, 375쪽.

“여자는 토라를 배울 필요가 없다. 그녀는 증언할 자격이 없고, 그녀의 말은 별로 믿을 만하지 않으며, 그녀는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손님들을 시키한다.”(Strack-Billerbeck, Kommentar zum Neuen Testament aus Talmud und Midrasch. IV, 1226)

예수와 초대 교회 시대에 유대교와 동방에서 여자의 형편이 어떠했는지 더 많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이 여자를 존중한 것조차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른 원인들과 더불어, 여자의 본질에 관한 헬라 사상을 유대 사상에 들여온 헬레니즘화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이런 여성 적대적인 생각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생각들이 그에게 너무 터무니없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고린도에서 그리 영향력 있게 퍼져 있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잠깐만 다루지만, 만일을 위해 그래도 언급해야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거의 반어적으로 이 유대주의자들에게 맞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들이 예배의 형식을 정한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물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말이 남성형으로 남자들을 향하고 있으며, 원래 대상이 되어야 할 여자들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너희 남자들에게만 이르렀느냐?

오늘날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의무를 지우는 사람에게도 바울의 같은 말이 해당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사도의 지시를 그냥 거슬러도 됩니까?

초대 교회의 어떤 모임에서도 여자들은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모임은 회당의 연장이나 새로운 판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에서는 여자들이 (몇몇 예외를 빼고) 잠잠했고 따로 앉았습니다. 회당은 제한적으로만 모임의 본보기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대체로 남자 중심의 위계 질서가 통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28(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차이가 무의미해졌습니다)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결코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싸웁니다.

6.2.4 로마의 법?

역사가 베스 엘리슨 바(Beth Allison Barr)는 이것이 로마 사상을 옮겨 놓은 것이라는 추측을 집정관 카토(Cato)의 한 인용에서 이끌어 냅니다.⁸⁵ “고린도전서 14:34-35를 고린도의 관행을 보여 주는 인용으로 읽는다면(1983년 D. W. 오델스콧[D. W. Odell-Scott], 1987년 찰스 텔버트[Charles Talbert], 1991년 토마스 슈리마허[Thomas Schirmacher], 이미 100년 전에 캐서린 부시넬[Katharine Bushnell],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페피아트[Peppiatt]가 그렇게 주장했다), 바울의 의도는 분명해 보인다. 고린도 사람들이 하던 것(‘여자들은 잠잠하라’)을 구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의 관행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뭐라고!’)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나는 바울이 한 일이 바로 그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그것은 (역사적으로) 매우 이치에 맞는다. 고린도전서에는 이미 바울의 것이 아닌 인용이 여럿 들어 있으며, 34-35절의 문구는 로마의 자료들과 놀라울 만큼 가깝다. 마그 모우치코(Marg Mowczko)는 이렇게 지적한다. ‘14:34-35가 바울의 것이 아닌 인용이라는 견해는, 34-35절이 본문에 가져오는 갑작스러운 어조 변화와, 이어서 36절에서 일어나는 주제와 어조와 성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그럴듯하게 설명하는 몇 안 되는 견해 가운데 하나이다.’ 만일 바울이 정말로 기독교 세계관을 대립시키기 위해 로마의 세계관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그의 의미는 복음주의 여성들이 배워 온 것과 정반대이다. 바울은 로마 세계가 그랬듯이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는 대신, 실제로는 남자들에게 예수의 세계에서는 여자들이 말할 수 있다고 말하려 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바울의 요점을 (또다시) 놓친 것이 아닐까? 그의 꾸짖음을 마음에 새기고 여자들이 말하도록 허락하는 대신, 우리는 바울이 정죄한 바로 그 가부장적 관행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⁸⁶

85. “집에서는 우리의 자유가 여자들의 광기에 짓눌리고, 여기 광장에서는 짓밟히고 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결말을 두려워한다 ... 사실 나는 얼마 전 여자들 무리 한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얼굴이 붉어졌다 ... 나는 이렇게 말해야 했다.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공공장소를 돌아다니고, 길을 막고, 다른 여자들의 남편들과 이야기하다니요! 같은 것을 집에서 여러분 자신의 남편에게 부탁할 수는 없었습니까? 여러분은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보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 더 상냥합니까? 그런데 집에서도 여기서 어떤 법이 통과되거나 폐지되는지에 여러분이 관여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자들이 후견인 없이는 어떤 일도 - 사적인 일조차 - 처리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들은 여자들이 부모나 형제나 남편의 권위 아래 있기를 바랐다. 그런데 우리는 (신들이여 우리를 도우소서!) 지금 그들이 정권까지 넘보고 광장과 우리의 집회에 끼어들게 내버려 두고 있다. 그들이 호민관들을 설득해 폐지에 표를 던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거리와 교차로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 지금 그들이 이긴다면, 그들이 무엇인가 시도하지 않겠는가? 그들이 여러분과 대등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들은 이미 여러분의 뒷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86. Barr, Beth Allison. *The Making of Biblical Womanhood* (62쪽). Baker Publishing Group.

6.2.5 결코 그럴 수 없다!

36절의 한 가지 특이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남자들 또는 고린도 사람들]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에게만 이르렀느냐?”

잠잠함과 복종에 관한 말 다음에 오는 이 두 질문을 바울은 불변화사 ἥ로 시작합니다. 불변화사 “ἥ는 부정의 대답이 기대되는 수사 의문문을 이끄는 데 자주 쓰인다. 마태복음 7:9 ‘너희 중에 누가 … 사람이 있겠느냐?’; 12:5 ‘또 … 읽지 못하였느냐?’; 참조. 마태복음 20:15; 26:53; 누가복음 13:4; 로마서 3:29; 6:5; 7:1; 9:21; 11:2; 고린도전서 6:9, 16, 19; 9:8; 10:22; 고린도후서 11:7; 13:5; 야고보서 4:5; 이중 질문 고린도전서 14:36.”⁸⁷

“마찬가지로 부정적 성격의 수사 의문문에서도 … ;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7:16; 참조. 마가복음 4:21; 고린도전서 1:13; 야고보서 3:12. … 대체로 ἥ는 의문문에 자주 나온다 — α. 수사 의문문을 이끌거나 덧붙일 때(Just., D. 2,4 등; Ath. 8,3 등) …; 아니면 너는 …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26:53. …;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지요? 로마서 3:29. … 아니면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6:3; 7:1; 고린도전서 6:9, 16, 19; 참조. 10:22; 고린도후서 11:7.”⁸⁸

ἥ에 해당하는 우리말은 “뭐라고?”, “말도 안 된다!” 또는 “결코 그럴 수 없다!”일 것입니다. 결코 여자들이 예배 모임에서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바울의 강한 반박입니다.

6.2.6 그 밖의 설명들

인용으로 읽는 것을 거부한다 해도, 침묵 명령이 왜 일반적으로 유효해야 하는지는 설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울의 말이라면, 이미 언급한 모순들을 그럴듯하게 풀어야 할 것입니다.

여자들의 어떤 “말”을 뜻하는지 믿을 만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방해가 되는 수다입니까, 예언을 분별하는 것입니까, (끊임없이) 끼어들어 묻는 것입니까, 무질서하고 방해가 되는 말입니까? 가르치는 것입니까? 남편을 공개적으로 (무례하게) 바로잡는 것입니까? 어떤 주석을 연구하든, 고린도전서 11장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해석자 수만큼이나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87. PEPPERMÜLLER, R., “ἥ”, in H. BALZ - G. SCHNEIDER (edd.), *Exegetisches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Verlag W. Kohlhammer, Stuttgart 2011, 276.

88. BAUER, W., in K. ALAND - B. ALAND (edd.), *Griechisch-Deutsches Wörterbuch zu den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 und der frühchristlichen Literatur*, Walter de Gruyter, 제6판, Berlin; New York 1988, 693-694.

이 문제가 분명해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저는 한 번 이상 듣고 글로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이 대목에서 그런 (경건한) 태도를 거부합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미 수백만 번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갔지만, 분명히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들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불분명함도 그렇습니다.

언급할 만한 설명은 아르민 바움(Armin Baum)의 설명입니다. 그는 인용으로 읽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의 관점은 “문화에 민감한” 역사적 관점입니다. 고대의 여자들은 공적으로 발언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유대 신학자들은 여자가 남자의 자리에서 말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공적으로 말한 것은 남자들뿐이었습니다. 반면 여자들은 사적인 영역에서만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고대의 관습 때문에 바움은 여자들이 공적으로 말하거나 심지어 질문하는 것도 금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문화에 민감하게”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움의 근거는 신학적인 것(예를 들어 창조 질서)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을 배려한 것입니다.** 여자가 공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여자가 복음과 그리스도인들을 쓸데없이 나쁜 평판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약 200년 전까지만 해도(!) 여자들에 대한 이런 공적 발언 금지는 정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모두 알다시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아르민 바움은 적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다루면 모든 것이 미끄러져 무너지지 않는가? 이런 식이면 신약의 모든 지시를 ‘상황화로 없애 버릴’ 수 있지 않은가? 그렇지 않다. 상황화의 방법은 문화적으로 근거를 댄 지시들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신학적으로 근거를 댄 지시들에는 그 방법이 맞지 않는다.”

마이클 버드(Michael Bird)는 바움의 이 지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4:33b-35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바움이 공적 예배 동안 아내들이 남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상호 작용했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14:33a와 14:40이 모임의 질서와 단정함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라. 바움은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 자체를 전면 금지하지 않는다. 11:2-16과 다른 본문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말하는 여자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바움이 금하는 것은 특정한 방식의 말하기이지, 아내들이 말할 가능성 자체가 아니다.** 가장 그럴듯한 것은, 바움이 아내들이 예언이나 방언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에게 질문하려고 말하는 사람을 가로막거나, 자기 말이 들리게 하려고 다른 사람 위로 말하는 것 같은 일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여자들이 교회 앞에서 예언이나 성경 해석 문제로 남편에게 묻거나 반박했을 수도 있다. 여자들이 정말로 배우고 토론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방해가 되거나 논쟁적이 되는 대신 집이 그 일을 위한 알맞은 장소이다.”⁸⁹

89. Wunderli, 같은 책.

이 해석에서 바울의 말은 다음과 같이 풀어 옳긴 것처럼 읽힐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교회에서와 같이, 아내들은 교회에서 무례하거나 부도덕하게 여겨지는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으며, 창세기 2장이 말하는 대로 [아내들은 남편의 공적인 비판자가 아니라 남편에게 알맞은 보완자라는 것에 관하여] 복종해야 한다. 무엇을 배우고 싶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으라. 여자가 모임에서 [무례하게 또는 부도덕하게]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너희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면 너희만이 그 말씀이 이른 유일한 백성이냐 [복음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익을 제기하는 것을 매우 부도덕하게 여기는 많은 사람에게 이르렀다]?

바울의 이 구절이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신학사의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필리프 야코프 슈페너(Philipp Jacob Spener)는 이 구절들을 될 수 있는 대로 정확히 실천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임에서 여자들은 별도의 방에 앉아야 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함께 들을 수는 있었지만 대화에 참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보다 조금 뒤의 니콜라우스 루트비히 폰 친첸도르프(Nikolaus Ludwig von Zinzendorf) 백작의 헤른후트 형제단은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활동할 기회가 아주 많았습니다. 바울의 이 구절은 그 시대의 역사에 비추어 해석되었습니다.

6.2.7 아마도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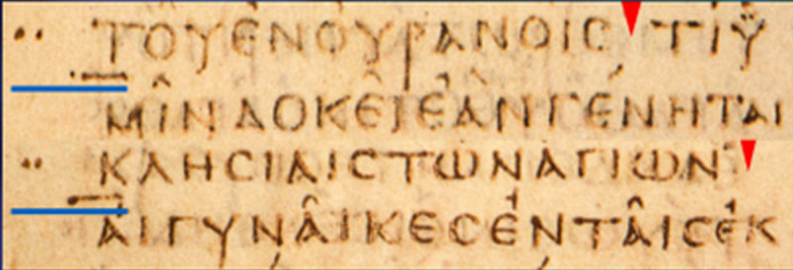
머리말에서 암시했듯이, 이 6.2.7 단락은 오래된 사본들과 관련된 (적어도 제게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보충되었습니다. 필립 바턴 페인(Philip Barton Payne)은 이 주제를 깊이 연구했으며, 다른 몇몇 본문 연구자들처럼 다음과 같은 특이점이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어떤 사본들에서는 34절과 35절이 우리 성경에 있는 자리에 있지만, 다른 사본들에서는 40절 뒤에 있습니다.

비교적 긴 본문이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다음과 같은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구절들은 나중에 삽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여백에 쓰여 있었고, 다음 필사자는 보통 그것들을 본문에 넣었습니다. 앞에서 빠뜨린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넣을지는 그가 결정했습니다.

이 가설은 4세기의 가장 방대하고 중요한 코덱스 가운데 하나인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에서 발견된 것으로 뒷받침됩니다. 거기에는 이 구절들이 실제로 삽입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사본(Codex Vaticanus, 4세기)
14:34-35를 흐름을 끊는 부분으로 표시합니다



두 점 + 가로줄은 흐름을 끊는 본문 단락을 표시합니다

빨간 삼각형은 원래 본문이 끊긴 바로 그 자리의 틈을 보여 줍니다.

그림 출처: 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

이에 대해 이 주제를 개척적으로 연구한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을 인용합니다. “사본에서 나오는 일곱 가지 이유와 이 구절들의 말 자체에서 나오는 아홉 가지 이유가, 이 구절들이 바울의 원래 편지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덧붙여졌다는 것을 저와 다른 많은 사람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지금은 세 가지만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이 구절들의 분명한 의미는 “모든 사람”이 가르치고 예언할 수 있다는 이 장의 말씀들과, 여자들이 예언한다는 11:5의 진술과 모순됩니다.

둘째, 바울 서신의 사본들에서 이만큼 긴 본문이 (서로 다른 사본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두 자리에,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도 없이 놓여 있는 경우는 달리 없습니다.

셋째, 가장 오래된 성경이 이 구절들을 나중에 덧붙인 진정하지 않은 부분으로 표시합니다.⁹⁰

첫째, 이 구절들은 이 장의 다른 많은 말씀과 모순됩니다.

90. 바티칸 사본 B(Codex Vaticanus B). 신약의 가장 믿을 만한 헬라어 사본으로 널리 여겨집니다.

모순을 피하려고 많은 사람은 바울이 방해가 되는 수다만을, 또는 1962년에 처음 제안되었듯이⁹¹ 예언을 분별하는 것만을 잠잠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이 단락에서 세 번이나 힘주어 되풀이되는 무조건적인 침묵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34절이 예언을 분별하는 것만 금한다면, 34절은 35절에서 금지된 말까지 허용하는 셈입니다. 결국 무언가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은 예언을 분별하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이며, 방해가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이런 해석들은 바울이 방금 쓴 것을 스스로 반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둘째, 모든 “서방” 헬라어 사본에서는 이 구절들이 40절 뒤에 나오지만, 다른 대부분의 사본에서는 33절 뒤에 나옵니다.

여기 6세기의 유명한 “서방” 사본 D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첫 번째 완전한 단락은 14장의 끝입니다. 그다음 단락이 34-35절입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15장이 시작됩니다.

34-35절이 놓인 서로 다른 두 자리는, 누군가 그것을 여백에 썼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음을 시사합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원래 본문을 결정하는 기본 원칙은 이것입니다. “다른 모든 본문이 생겨난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본문이 원래 본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바울 서신의 어떤 사본도 분명한 이유 없이 큰 본문 덩어리를 이만큼 멀리 옮기지 않으며, 초기의 어떤 독자도 이 본문의 위치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⁹² 그러나 필사자들이 여백의 본문을 본문 안으로 옮겨 적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4세기의 바티칸 사본에는 마태복음 본문의 여백에 오래된 본문이 있는 곳이 20군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3군데를 빼고는 모두 그 뒤의 거의 모든 사본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여자들이 공적인 모임에서 조용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⁹³ 그러므로 **주후 200년 이전** 어느 때에 한 독자가 이 구절들이 표현하는 “잘 알려진 또는 통상적인 지혜”를 여백에 덧붙였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91. W. Klein, “The Church and the Prophets”, ATR 44 (1962) 8.

92. Ulrich Schmid, “Conceptualizing ‘Scribal’ Performances: Reader’s Notes”, in The Textual History of the Greek New Testament: Changing Views in Contemporary Research, ed. Klaus Wachtel and Michael Holmes (Atlanta: SBL, 2011), 49-64, at 62, 50, 58: “Readers ... react[ed] to what they read by adding comments in the margin. ... 이런 메모 가운데 일부는 그렇게 ‘꾸며진’ [사본]을 베껴야 했던 필사자들이 본문 안으로 옮겨 적었을 수 있다. ... 적어도 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필사자들의 경향은 여백의 메모를 본문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던 것 같다.”

93. 예를 들어 플루타르코스, 아리스토파네스, 아리스토텔레스, 소포클레스, 데모크리토스, 아이리우스 아리스테이데스, 그리고 많은 랍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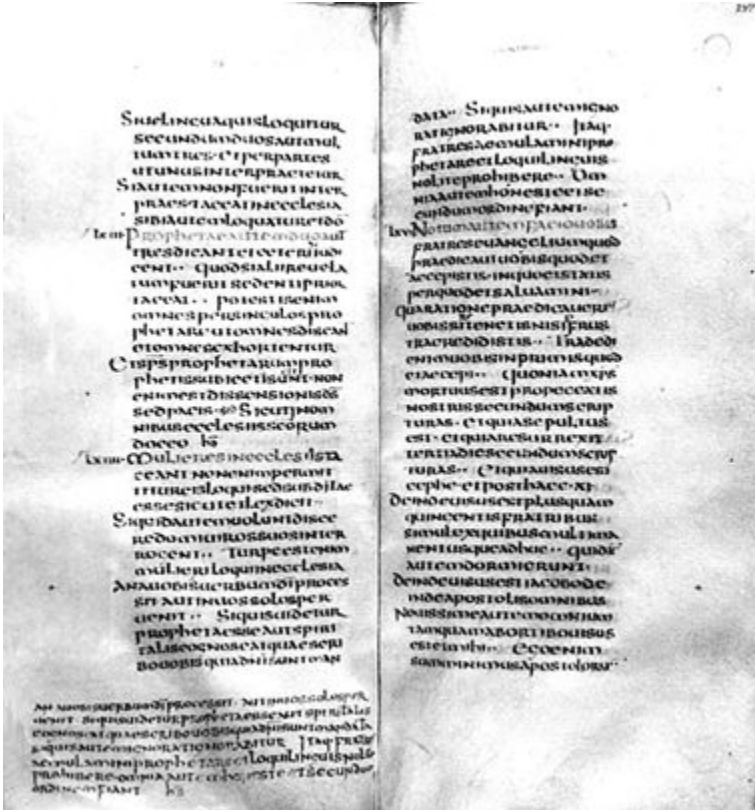
이 구절들이 놓인 두 자리에 대해, 알려진 필사자들의 관행에 들어맞는 유일한 설명은, 누군가 이 두 구절을 먼저 한 사본의 여백에 썼고 후대의 필사자들이 그것을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으로 보아도, 흔한 일 - 여백의 본문을 본문 안에 넣는 것 - 이, 다른 사례가 하나도 알려지지 않은 그토록 특이한 일 - 그렇게 많은 본문을 분명한 이유 없이 그렇게 멀리 옮기는 것 - 보다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⁹⁴

셋째, 정확성으로 널리 칭송받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성경, 바티칸 사본은 교회에서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이 구절들을 진정하지 않은, 잘못 끼여든 부분으로 표시합니다.

물론 34-35절이 남아 있는 모든 사본에 어딘가(곧 33절 뒤나 40절 뒤)에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른 시기의 삽입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티칸 사본만 그것을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빅토르 주교는 풀다 사본(Codex Fuldensis)의 아래쪽 여백에 이 구절들을 뺀 수정 본문을 쓰게 했습니다. 그리고 비서방 본문인 사본 88은 그것을 33절 뒤에서는 빼고, 40절 뒤에 33절 다음에 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는 기호와 함께 넣었습니다. 이 구절들이 빅토르의 고린도전서 본문 증거에 나오지 않으므로, “이 구절들이 고린도전서의 모든 본문 증거에 나온다”는 댄 월리스(Dan Wallace)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https://bible.org/article/textual-problem-1-corinthians-1434-35>). 본문 학자들은 한 사본 안의 서로 다른 본문에 서로 다른 사본 기호를 붙입니다. 14:34-35는 이렇게 별도의 사본 기호로 구별되는 모든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14:34-35 본문이 모든 사본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94. 이것을 “필사상의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사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백의 본문으로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다른 어떤 본문의 신뢰성도 훼손하지 않습니다.



폴다 사본(원본은 폴다에 있습니다)에는 아래쪽에 34절과 35절이 빠진 본문이 수정 또는 각주로 쓰여 있습니다. 6세기 중반의 필사자 앞에는 분명히 이 구절들이 없는 본문이 있었습니다.

폴다 사본에 관한 짧은 여담

폴다 사본(F)은 신약의 정경 23권과 디아테사론, 라오디게아서의 본문을 담은 불가타 사본입니다. 이것은 연대가 확인된 가장 오래된 신약 사본 가운데 하나이며, 중요한 학자인 카푸아의 빅토르 주교가 편집했다고 알려진 유일한 초기 신약 사본입니다. 이것은 불가타 본문의 두 번째로 중요한 증거이며, 디아테사론 전체 본문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오래된 증거입니다. 이 사본은 고린도전서 14:34-35 본문의 진정성에 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까지는 못 해도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사본은 541-546년에 빅토르 주교의 명령으로 카푸아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그가 직접 검토하고 수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에는 빅토르가 직접 쓴 546년 5월 2일이라는 날짜가 있습니다. 빅토르는 사본의 본문을 두 번째로 검토했고, 그래서 두 번째 날짜 - 547년 4월 12일 - 도 있습니다.

Codex Fuldensis - Wikipedia, die freie Enzyklopädie

잘못된 전제 위에서 윌리스는 “그것들이 전승의 가장 이른 단계에 본문 안으로 ... 원래 문서 안으로 슬그머니 들어왔어야 한다”고 반박합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은 에베소서 5:22에 동사 “복종하다”가 빠르게 들어간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⁹⁵ 그것은 34-35절이 2세기에 들어 한참 뒤에 덧붙여졌더라도 남아 있는 모든 사본에 들어 있다는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로마 가톨릭 학자 조지프 A. 피츠마이어(Joseph A. Fitzmyer)⁹⁶는 ‘오늘날 해석자들의 다수’가 이 본문[14:34-35]이 나중에 덧붙여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말합니다. 본문 학자 킴 헤인스아이젠(Kim Haines-Eitzen)은 ‘오늘날 거의 모든 학자’가 그렇다고 말합니다.⁹⁷ 아마도 가장 이름난 복음주의 본문 연구자인 고든 피(Gordon Fee)는 이 구절들이 바울의 편지에 있지 않았고, 한 사본의 여백에 덧붙여졌다가 후대의 필사자들이 33절 뒤나 40절 뒤에 넣었다고 주장합니다.⁹⁸ 제 책 *Men and Women One in Christ*, 226-227쪽은 고린도전서 14:34-35가 바울의 원래 편지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짓는 신다섯 개의 연구를 소개합니다. 227-53쪽에서는 **일곱 가지 외적 이유**를, 253-95. 사실상 모든 헬라어 판본이 보여 주듯이, 에베소서 5:22의 가장 이른 사본들에는 **복종하다**라는 동사가 없습니다. 히에라니무스의 주석에는 헬라어 사본들에서 22절에 21절의 동사 **복종하다**가 한 번도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UBS 본문은 “복종하다”가 나중에 덧붙여졌다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합니다. 22절 어딘가에 “복종하다”의 어떤 형태가 나오는 첫 사본인 시내 사본(Codex Sinaiticus)은 주후 360년경에 쓰였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남아 있는 모든 사본에 “복종하다”가 들어 있습니다. 후대의 어떤 사본도 “복종하다”를 지우지 않았으므로, 가장 이른 모든 사본에서 “복종하다”가 지워졌다는 것은 그럴듯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 따라서 아내의 복종은 그 동사를 “피차 복종하라”에 의존합니다. 상호 대명사는 서로의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읽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리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복종하다는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양보한다는 의미의 복종”을 뜻합니다(BDAG 1042). 골로새서 3:18은 아내가 “주 안에서 마땅한 모든 일에서”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경이 아내의 복종에 대해 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별 위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디도서 2:5], 곧 문화적 규범을 어기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입니다. 참조. “혹 남편들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설득되게 하려는 것이다 ...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내에게] 복종하여, 지혜롭게 서로 함께 살고, 그들을 더 연약한 여성의 [BDAG 208, *gynaikeios*, ‘여성의’] 귀한 그릇으로 알아보며,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마땅한 존중을 그들에게 돌리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베드로전서 3:1, 7].

96. Joseph A. Fitzmyer, *First Corinthians*, AB (New Haven: Yale, 2008), 530

97. Kim Haines-Eitzen, *The Gendered Palimpsest: Women, Writing, and Representation in Early Christian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62

98. Gordon D. Fee,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699-708

65쪽에서는 **아홉 가지 내적 이유**를 들어 이 본문이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았음을 보여 주며, 265-67쪽에서는 난외주(glossa)라는 견해에 대한 반론에 답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 생각에는 본문비평의 증거가 이것이 아마도 주후 197년 이전에 한 독자가 쓴 난외주라는 쪽을 강하게 지지합니다.”

6.2.8 최종 평가

이 주제를 매우 깊이 연구한 다른 저자를 그의 책 **Men and Women in Christ**에서 인용합니다.

“어떤 독자들은 34-35절을 삭제하는 것이 그저 너무 편리하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이해할 만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어려운 본문을 삭제하자는 제안에 극도로 회의적이어야 한다고 배우는데,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내적 증거만을 근거로 한 비진정성 논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구절들의 문제가, 그것들이 문맥과 맞지 않고, 구약의 내용에 관해 명백한 오류를 담고 있으며, 만족스러운 의미를 주는 해석의 해결책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국한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본문에 그대로 두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장래의 새로운 빛을 바랄 것입니다.

여기서는 외적인 증거도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 말들이 서로 다른 사본에서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가 보았듯이, 외적 증거의 이 특징에 대한 가장 그럴듯한 해결책은 34-35절이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본문 안으로 들어온 초기의 여백 주석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풀다 사본에 있는 빅토르 주교의 표시로 추가로 확인됩니다. 그 표시는 이 두 구절이 아예 없는 본문이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티칸 사본의 증거에 대한 페인의 견해가 옳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확인입니다.

외적 증거와 내적 증거를 합하면, 이 두 구절을 거부해야 한다는 논증은 분명합니다. 그것들을 삭제하는 것은 이념적인 술수가 아닙니다. 증거를 따르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이것은 다른 첨가들(예를 들어 마가복음의 끝, 요한복음 5:3-4, 사도행전 24:6-7)을 거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본문에 나타나 한동안 우리 성경에 들어 있다가, 입수 가능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아마도 진정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자 제거되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성경에는 대략 이런 각주가 있어야 합니다. 사본상의 단서들은 34절과 35절이 바울에게서 나오지 않은 후대의 첨가일 수 있으며 따라서 생략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더 나은 것은 34-35절을 기울임꼴로 쓰거나 각주로 옮기고, 사본들 사이의 불일치의 성격으로 보아 진정성이 의심스럽다는 설명을 붙이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시편 19:7). 저는 이것을 진정성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34-35에서 영혼이 별로 소성되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느껴 온 독자들이 있다면, 이제 그들은 이 구절들이 어쩌면 성경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장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쓸 때 이미 이 견해를 알고 있었지만, 이 본문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서, 이 두 구절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일까요? 모든 설명 시도가(인용 가설을 빼고) 이것이 절대적인 침묵 명령이라는 점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해석에서 설명 시도들은 이 요구의 분명함과 충돌합니다. 그런데 그 요구는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고방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여자들을 위해 나서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페미니즘과 세상에 순응한다는 비난을 퍼붓다니요.

원수, 대적자, 혼란을 일으키는 자가 성경에 무언가를 몰래 들여놓는 데 성공했고, 그것이 모든 세기에 걸쳐 교회의 여자들과 교회 전체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닐까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잘못된 전제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심각할까요? 여기서는 마침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사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 장을 마치면서 34절과 35절이 빠진 고린도 본문을 읽고, 그렇게 놓고 보면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의미가 잘 통하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너희는 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언할 수 있나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위로를 받게 하려 함이라. 선지자들의 영은 선지자들에게 제어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니시라. 성도의 모든 모임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영적인 사람으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나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대로 있으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으로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31-40,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예수의 교회의 모임에서 여자들에게 내려진 침묵 명령은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헬라어를 몰라도, 인용 가설 없이도 여기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많은 여자를 동역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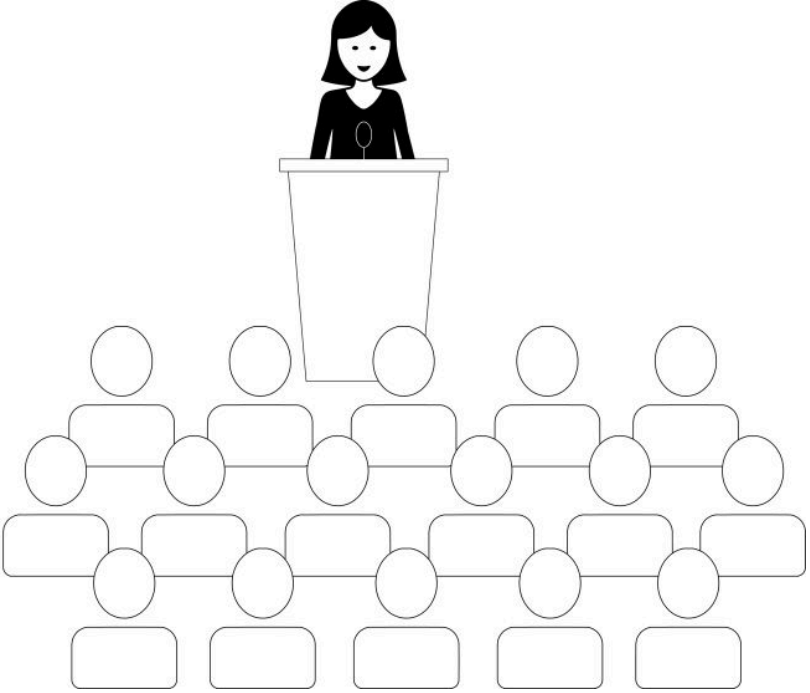
두었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의지했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함께 싸웠던 그 사도가, 바로 그 여자들의 입을 막았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끝으로 묻습니다. 자매들이 잠잠하는 데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이 입을 다무는 데? 여자들이 모임에서 남자들을 보완하지 못하는 데? 그것은 옛 뱀, 대적자요 파괴자, 거짓의 아비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입니다. 여자에 대한 그의 적의만이 이런 눈멀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남자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는 교회는 성령을 잠잠하게 할 것입니다. 캐서린 C. 부시넬 (Katharine C. Bushnell)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을 봅니다. 남자의 관여 없이 한 여자에게 잉태되신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의 발치에 앉았던 것처럼, 한 여자가 랍비의 발치에 앉아 배우는 것을 그분은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 여자가 자기에게 중요한 제사장적 섬김을 하도록 하였고, 그녀에게서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여자들은 십자가 곁에 마지막까지 있었고, 무덤에 맨 처음 왔습니다.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 가운데 다섯은 오직 여자들만 증언하고 전했으며(로마 군인들은 빼고),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사실들은 오직 여자들만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뒤 일부러 여자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고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교회에서 여자들이 완전히 평등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부터 변함없는 뜻을 단번에 영원히 분명히 하시려고, 그분이 이보다 더 무엇을 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크리스티안 베제(Christian Beese)



6.3 여자는 가르쳐도 되는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18장에서 이런 구절에 이릅니다. “그(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18:26). 하나님의 도, 그것은 구원의 역사와 그 중심이신 메시아입니다. 풀어 이룬다는 것은 “가르친다” 또는 “교훈한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 모임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권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전 14:26) 이것은 형제와 자매 모두에게 해당됩니다(헬라어에는 이런 의미로 자매를 가리키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형제와 자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해야 합니다(딤후 2:2). 이런 의미에서 나이 든 여자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딤후 2:3). 이 가르침의 장소와 틀은 정해져 있거나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남제자와 여제자가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 28:19-20)

오늘날 모든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도 여교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의 모든 학과에, 신학과에도 여교수들이 있습니다. 세속적인 내용이든 기독교적인 내용이든 가르치는 내용을 담은 여자들의 수많은 책을 남자들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덧붙이자면, 한 여자가 16년 동안 독일 연방 총리였습니다. 오늘날 온갖 지도적 위치에 많은 여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아직도 너무 적지만, 그것은 다른 주제입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그 이유는 너무나 평범합니다. 여자들은 남자들과 똑같이 지적 능력이 있습니다. 또는 남자들을 능가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똑같이 가르치고 교훈할 수 있으며, 남자들보다 나은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백 년 전에는 아직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여자들은 똑같이 재능 있고 지적이었지만, 남자 중심의 세상에서 대학 공부에서, 하물며 가르치는 일에서는 더욱 배제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주제를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 곧 복음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교회 세계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장의 시작에서도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을 읽고 나서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짧은 단락 하나, 곧 디모데전서 2:11-15를 빼놓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한 본문, **다른 어떤 본문도 아닌** 이 본문만이 그런 지시를 담고 있으며, 성경이 우리의 믿음과 삶의 규범이라면 그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예배에서 여자들의 잠잠함을 다룰 때도 저는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저는 이 짧은 단락이 유일한 근거로서 모임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절반을 입 다물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남자, 교회 지도자, 장로들이 여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것은 예배에 해당되지만 모임 바깥에도 해당됩니다. 가르친다 해도 여자들이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 허용됩니다. 적용의 폭은 넓습니다. 여기서 저는 제가 자란 환경의 한 형태를 언급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근거가 되는 유일한 성경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미리 말해 두자면, 많은 주석가와 원어 전문가들이 확인하듯이 이 본문은 원어로 복잡하며 결코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그리스도인 여자들에게, 그리고 그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이렇게 광범위한 결과와 제한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6.3.1 본문 디모데전서 2:8-15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각처에서 분노와 의심하는 생각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정숙하게 자기를 단장하되, 땅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 선한 행실로하기를 원하노라. 여자는 조용히,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우라. 그러나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음이라.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정숙함으로 거하면 그녀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전에, 몇 가지 일반적이고 역사적인 참고 사항이 도움이 됩니다.

6.3.2 에베소의 역사적 상황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는 그때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곳의 가정 교회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왜 우리가 아는 에베소서처럼 교회에 직접 편지를 쓰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에베소서는 더 일찍 쓰였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많은 지침과 경고를 줍니다. 그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 율법 교사들,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 미혹하는 영들, 귀신의 가르침, 금욕주의자들, 과부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말에 맞서는 사람들 등에 대해 씁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에서 교회에 심각한 위험이 되었던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룹니다. 여기에 위 본문의 문제가 더해졌습니다. 남자들은 다툼을 그치고 기도하도록 격려받아야 했고, 여자들은 절제하라는 권면을 받아야 했습니다.

에베소는 여러 종교와 제의, 마술과 주술의 용광로였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것을 전합니다. 그 중심에 있으면서 지역 경계를 훨씬 넘어 알려지고 숭배받은 것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곧 제우스의 딸이요 아폴론의 쌍둥이 누나인 (그리스의) 여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신을 큰 열정과 비용을 들여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위해 신전을 지었는데, 그것은 당시 가장 큰 건물로서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녀를 기리기 위해 축제와 행렬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에베소의 아르테미스가 새 생명을 창조할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빼앗을 힘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출산을 돕고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동정을 지키는 이들의 보호자였습니다.⁹⁹ 로마 사람들은 그녀를 디아나라고도 불렀습니다.

고대의 이 대도시에서 아르테미스 제의는 사적인 삶과 공적인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있었으며, 오늘날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그곳에서 3년 동안 일하며 로마의 아시아 속주 전체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그 교회들은 이 제의와 다른 제의들에도 맞닥뜨렸습니다. **믿게 된 사람들이 버튼 하나 누르듯 자기 과거를 떨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신화와 이야기들은, 그가 이름을 들어 말하지는 않지만, 아르테미스 제의와 그에 딸린 사고방식과 가르침에도 관련되었을 수 있습니다. 혼합주의, 곧 기독교 신앙을 우상 제의와 그 관행과 가르침에 결합하고 뒤섞는 일은 드물지 않았으며, 그 양상은 때로는 더, 때로는 덜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여신 아르테미스는 하와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에베소의 거짓 가르침을 영지주의와, 적어도 그 선구자들과 연결했습니다. 테르툴리아누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이런 방향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것들은 유대적인 관련 말고도 영지주의와 그 수많은 아이온(Äonen)과 그들의 계보나 발생과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초기의 “기독교적” 영지주의는 토라와 유대교의 여러 측면을 다양한 그리스와 로마의 제의와 뒤섞었고, 그 제의들 자체도 근동의 종교들에서 자양분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레나이우스는 영지주의자들이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도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다시 이야기했다고 씁니다.** 하와는 아담의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은 여성적이고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다른 창조 이야기의 변형들에서는 하와가 아담보다 앞서고 우위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제의는 여자들이 주도했습니다. 하와는 구원받게 하는 지식(그노시스)을 추구했기 때문에 특별한 지위를 지녔습니다. 바울은 “거짓되이 지식(그노시스)이라 일컫는 것”에 대한 경고로 편지를 마칩니다. 어떤 이들이 그것을 따르다가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6:20-21).

에베소에 관한 역사 연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알아본 바로도 이것은 복잡한 주제입니다. 그러나 이 재구성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여자들에게 전반적인 가르침 금지를 주장하는 많은 위계 지지자들이 믿게 하려는 것처럼 아르테미스 배경이

99.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십시오. Paulus an die Epheser,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Hans-Jörg Ronsdorf

디모데전서 2:8-15의 해석에 아무 차이도 만들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단락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6.3.3 배경

성경 번역본들에는 “예배에서의 올바른 태도” 같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침 금지는 예배에서만 유효하고 다른 경우에는 유효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바로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 있든 어디서 만나는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집 안의 부부의 상황도 다루는 것으로 보입니다. “디모데전서 2:1-8에는 맥락을 ‘공적 예배’로 좁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예배가 공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정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그러므로 이 장의 나머지가 예배 모임이나 공적인 틀에서의 행동에 대한 지침을 준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으며, 나머지 단락의 내용, 특히 아이의 출산에 대한 언급도 ‘공적 예배’라는 맥락에는 거의 맞지 않는다.”¹⁰⁰

“바울은 한 여자가 남자들의 무리를 가르치는 것이나 여자들이 남자들의 무리를 가르치는 것에 대해 말할 수 있었겠지만, 모임에서 한 여자가 ‘한 남자’를 가르친다고 말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오히려 단수를 쓴 것은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사적인 상호 작용을 가리킨다. 그리스-로마 문화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사적인 상호 작용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 단락에는 가정의 맥락을 가리키는 것이 많다.”

여기에 더해, 이것은 교회에 보낸 편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편지이며, 우리가 100% 재구성할 수 없는 지식을 바탕으로 깔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실은 고려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여기서, 윤리적인 교훈은 물론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만, 이것이 교회의 모임을 위한 지시는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6.3.4 각처에서 기도하기, 분노와 장식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각처에서 분노와 의심하는 생각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부끄러움을 알고 정숙하게 자기를 단장하되, 땀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100. Cynthia Westfall, Paul and Gender: Reclaiming the Apostle's Vision for Men and Women in Christ, 2015, 291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으로 - 선한 행실로 하기를 원하노라.

그 앞의 본문, 곧 1-7절은 이 말씀들이 올바르게 보이게 하는 배경입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로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는 중요하고 간접적이며 복된 영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꿈을 돕고 복돋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의 일부인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 불타고 있으며, 에베소 사람들이 기도함으로써 그들 안에 이 불을 (다시) 지피려 합니다! 남자들은 분노와 의심을 뒤로해야 합니다. 기도에서 멀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남자들(그리고 여자들)에게 말하며, 둘 다에게 복음을 가로막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기들의 오래되고 판에 박힌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이 넘치는 남자들은 겨루고 논쟁하고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은 꾸미고 겉모습에 큰 가치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그들의 삶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공적인 기도가 언급될 때, 바울이 원하는 것이 다음 가운데 무엇인지가 문제입니다.

1. 남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고(8절)
2. 여자들은 “이와 같이”(9절) 특정한 방식으로 옷을 입는 것,

아니면

1. 남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고
2. “이와 같이” 여자들도 기도하되, 옷차림과 관련된 특정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

전문가들에 따르면 두 해석과 번역 모두 문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라는 바울의 격려(2:1)는 남자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응답받게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더 큰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그저 교회 전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회가 있는 곳 어디서나, 각처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분노 없이, 여자들은 단정하고 예의 바르게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는 등호와 같으며 기도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 앞에서 또는 남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명령되어 있습니다.

여자들의 겉모습은 에베소의 특별한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제의의 환경에서 여자들, 특히 그럴 만한 형편이 되는 부유한 여자들은 화려하고 눈에 띄게 꾸몄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선한 행실로 눈에 띄어야 합니다. 이 우상 제의와 철저하게, 그것도 모든 면에서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물론 여자가 꾸며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이 우상 제의를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장신구와 머리 모양에 대한 금지를 엄격하고 문자적으로 우리 시대에 옮기는 일은, 여자들에게 가르침 금지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아마 실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리 내어 기도하는 남자들도 모두 손을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기대하며 받으려는 자세로 편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께 기대하며 중보하는 알아볼 수 있는 자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규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널리 퍼진 기도 자세인 손을 모으는 것도 잘못이 아니며, 우리에게도 기도로 받아들여집니다.

6.3.5 조용히 복종함으로 배우기

여자는 조용히,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배우라.

이것은 이 단락 전체에서 명령형으로 된 유일한 문장입니다. 교육을 받은 여자는 드물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자면 모든 여자를 배우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입니다. 대부분의 여자에게 교육은 접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원하지도 지원하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에서 바울의 말은 다른 울림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가르침 금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열쇠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단수로 되어 있으므로,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특정한 한 여자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때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이름을 씁니다. 때로는 이름을 대지 않기도 합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한 여자에 관한 것이라면, 그런 지시는 오늘날에도 그 여자처럼 행동하는 여자들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복종은 대개 창조 질서로 근거를 씁니다. 아래에서 보여 드리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문제는 반항과 반대되는 복종의 태도입니다. 받아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배우려는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옛 사고방식과 신화 같은 가르침을 벗어 버릴 때에만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가운데에서만 일어납니다. 문제는 잠잠함이 아니라 배우는 태도입니다. 그 태도에서는 질문이 허용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저항하거나 반박하거나 반대하려는 시도로서는 아닙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구체적인 문제였습니다. 마치 모든 여자가 일률적으로 그런 기질을 지니고 있어서 바울의 이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여자를 일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이 맥락에서 문제는 사도들의 가르침과 복음에 대한 복종이지, 한 남자에 대한 복종이 아닙니다.

6.3.6 가르치지 말고 남자를 주관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도, 남자를 주관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는 초점입니다. 한쪽은 여기서 여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가르침 금지를 보고, 다른 쪽은 에베소의 특별하고 문제 있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독일어나 현대어로 쓰인 그대로 단순히 받아들여 지켜야 할까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로서 디모데는 여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가르침 금지가 있었다면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해 함께 일한 뒤에 여기서 그것을 지적받았다면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에베소의 특별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어지는 하와와 아담에 관한 말은 가르침 금지의 근거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는 창조의 위계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은 그를 주관하는 것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여자가 아무리 겸손하게 가르치더라도, 어쩌면 머리 덮개를 쓰고 가르치더라도, 그것은 금지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뜻일까요?

6.3.7 가르치는 것은 주관하는 것인가?

제 기본적인 질문은 언제나 이것이었습니다. 왜 가르치는 것을 다스림이나 권위와 연결합니까? 신약 어디에서든 이런 연결을 아십니까? 가르치는 것이 동시에 다스리는 것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아십니까? 해로운 행동으로서든? 아니면 긍정적인 결합으로서든? 가르치는 것은 오히려 배우고 듣는 사람들 아래에 자신을 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섬김이 아닙니까?

가르침과 가르치는 것은 이 편지의 한 주제입니다. 가르침과 가르치다라는 말이 15번 나오는데, 다른 어떤 편지보다 두 배나 많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단순히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강하고 더 구속력 있는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방어요 변호이며, 교회를 치유하고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스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위를 행사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디모데전서 4:11에서 - 그러니까 같은 편지에서 -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는 표현을 쓴다. ‘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parangello*인데, 이 말은 디모데전서 5:7과 6:17에도 나온다. 그것은 ‘지시하다, 요구하다, 명령하다’를 뜻한다. 디모데전서 4:11에서 이 말은 ‘가르치다’와 함께 쓰인다. 이런 연결은 디모데전서 2:12에도 있지만, 거기서는 ‘주관하다’에 다른 말이 쓰인다. 그러므로 그 의미는 디모데전서 4:11과 반드시 같지는 않다.”¹⁰¹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권위”¹⁰²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고 반박할 수 없는 교리적 진술을 할 권위를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문제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뜻했을 수 있을까요? 가르침이 옳은지는 결코 가르치는 사람의 성별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가르치는 권위를 가집니까? 가르침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 곧 진리이지 성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행 18:24). 그에게 분명히 뛰어난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속력 있게 가르치는 것은 다스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이 쓰였을 것입니다.

6.3.8 “주관하다”는 무엇을 뜻하는가?

“주관하다”로 옮긴 말은 “권위를 행사하다”를 뜻하는 일반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이곳에 단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여자에게 대한 가르침 금지의 유일한 근거로 받아들이는 데 더욱 신중합니다.

101. Wunderli, 37

102. 교회의 교도권(*magisterium ecclesiae*)은 교회들에서 특정한 직분자와 교회 기관이 행사하는 가르치는 권위를 가리킵니다. 교회의 교도권은 교회사에서 감독직, 특히 군주적 감독제의 형성과 관련하여 발전했습니다. 이 발전의 결과는 서방 기독교에서의 교황의 수위권이었는데, 그것은 처음에는 *ius appellationis*(상소권)의 의미였다가, 나중에는 제1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무류성 교리로 첨예해졌습니다. 교회 가르침의 기초로는 성경과 전통이 여겨집니다. 이와 달리 마르틴 루터는 1523년에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나 교회는 모든 가르침을 판단하고 교사를 부르고 세우고 물러나게 할 권리와 권한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때 기준은 오직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가르침에 대한 판단은 지방 교회(영방 교회)의 차원으로 올라갔고, 성경 옆에 이차 규범으로 신앙고백서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Wikipedia)

“‘주관하다’로 옮긴 말(‘authentein’)은 신약에서 이곳에만 쓰인다.¹⁰³ 이에 해당하는 명사 ‘주관자’는 원래 ‘살인자’¹⁰⁴, 더 정확히는 ‘자살자’나 ‘가족 살해자’¹⁰⁵를 뜻한다. 나중에 일상 언어에서 이 말은 ‘주인’, ‘지배자’, ‘독재자’¹⁰⁶라는 의미를 얻었다.”¹⁰⁷

여기서 말하는 **주관하는** 방식은 긍정적이거나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긍정적으로 본다면, 남자들은 가르침으로써 다스려야 하지만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 됩니다. 남자가 여자 위에 권위를 지닌다는 이 교리에서 나오는 결론은 그럴 것입니다. 남자가 가르치면, 그는 여자와 모든 듣고 배우는 사람들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 인도자 또는 장로의 섬김은, 가르치는 일도 거기에 속하지만, 결코 “주관하는 것”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메릴린 스미스(Marilyn Smith)와 잉그리드 케른(Ingrid Kern)도 비슷하게 판단합니다. “디모데서의 이 단락에서 또 하나의 요점은 ‘권위를 행사하다’로 번역된 **authentein**이라는 말의 쓰임이다. **authentein**의 의미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바울이 여자들에게 이 말의 통상적인 의미에서 모든 권위 행사를 금지하려 했다면, 그는 십중팔구 그것을 위한 일반적인 말인 **exousia**를 썼을 것이다. 그 대신 바울은 신약의 다른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전혀 다른 말을 써서, 그가 여기서 전혀 다른 종류의 권위를 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헤롯의 아들 안티파스를 묘사하는 데 **authentein**을 쓰는데, 그는 두 형제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고발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authentein**은 사람들을 파멸시키려는 의도로 그들을 ‘지배하다’ 또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다’라는 뜻이다.”¹⁰⁸

103. 하팍스 레고메논(hapax legomenon)이기 때문에 이 말은 키텔의 신학 사전에서도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헬라어를 쓰는 많은 위대한 고전 저자들에게서 발견됩니다. 참조. N. J. Hommes. “Let Women be Silent in Church”. Calvin Theological Journal 4 (1969) 5-22, 여기서는 18쪽과 거기 제시된 문헌; 호메스의 글에 대한 좋은 요약은 New Testament Abstracts 13 (1969) 365에 있습니다.

104. C. D. Osburn. “Authenteo (1Timothy 2: 12)”. Restoration Quarterly 25 (1982) 1-12.

105. N. J. Hommes. “Let Women be Silent in Church”. 앞의 글, 18쪽.

106. 같은 글. Walter Lock. A Critical and Exegetical Commentary on The Pastoral Epistles (I & II Timothy and Titus). International Critical Commentary. T. & T. Clark: Edinburgh, 1936.

32쪽은 통속 헬라어에서 ‘authentein’의 의미로 ‘despotes’(= ‘전제 군주’)를, 영어 번역으로 “a self-actor”, “to lord it over” 등을 제시합니다. Sir Robert Falconer. “1 Timothy 2 14,15: Interpretative Notes”.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60 (1941) 375-379, 여기서는 375쪽도

비슷하게 “a master, an autocrat”로 옮깁니다. Joseph H. Thayer.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Baker Book House: Grand Rapids (MI), 1977. 84쪽(830번)은 ‘authenteo’의 의미로 “one who with his own hand kills either others or himself”, “one who does a thing himself, the author”, “one who acts on his own authority, autocratic”를 제시하며, ‘autokrator’, “an absolute master”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107. Schirrmacher, 122

108. Wunderli에서 재인용: Smith/Kern 2005, 98; Bauer 1988, 1240

이 맥락에서 문제는 서로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기서 함께 속하며, 부정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조건 짓고 더해집니다. 가르치는 것과 주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역사적, 종교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문제는 주관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환경에서 온 여자들에게서 나타났던 것처럼, 부정적이고 지배적인 방식, 나아가 선을 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다산과 생명을 주는 일이 중요했던 아르테미스 제의에서처럼, 성적인 영역에서 남자들을 지배하는 상황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낯설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써 보낸 환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여자가 (잘못)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성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이것은 남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한 번이라도 남편을 가르쳐도 되느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시 여자들은 공부와 배움에서 거의 배제되었기 때문에 교육에서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여자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의 제자였다면, 그녀는 자기보다 늦게 믿게 된 남편을 당연히 가르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어쩌면 영지주의를 본떠 제멋대로, 지배하는 방식으로 가르친 여자들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가르치기 위해 권위를 자기 것으로 주장했고, 말하자면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그들이 거짓 교리를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도 그들의 가르침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그런 행동과 거짓 가르침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남자들이 그렇게 한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문제가 된 것은 아주 특정한 한 여자나 한 무리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여자를 같은 수준에 놓을 이유는 없습니다! 두아디라에서 가르친 이세벨이라는 여자에 대한 언급(계 2:20)도 이 유형에 들어맞습니다. 거기서 문제는 그녀가 여자로서 가르쳤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맥락에서 주관하는 것은 영적인 “지도”나 “권위”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곧 교회의 지도하는 기능이나 목자의 기능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예수와 바울은 그것을 주관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스리는 방식은 섬기는 것입니다. 첫째가 아니라 끝째가 되는 것입니다(막 10:42-45). 그것은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설 때 가능한 태도입니다. 베드로는 목자들에게, 주관하는 것은 목자의 섬김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2-3

조용하다는 것은 잠잠해야 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태도, 곧 “평화 가운데 머무르다”, “평온 가운데 머무르다” 또는 “질서를 지키다”를 뜻합니다.¹⁰⁹ 배우고 서로 귀 기울이는 과정에서 이 태도는 해당 여자들에게 주어진 지침이며, **남자들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다면 남자들에게도 똑같이 그럴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의 발치에 조용히 주의 깊게 앉아 있는 것이, 모든 선생의 선생께 귀 기울이는 이상적인 배움의 자세입니다.

6.3.9 에베소의 아담과 하와

...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그다음에 하와가 지음을 받았음이라. 또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 말로 바울은 왜 여자가 공적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지 근거를 대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자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늘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머릿속에 몇 가지 의심을 품은 채로였습니다. 몇 시간 차이에 불과한 시간적 순서가(창조의 날을 24시간으로 믿는다면) 이런 무게를 지닐 수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는 잠깐 사이를 두고 빛어진 쌍둥이와 같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모든 여자에게 이런 가르침 금지를 정해야 할까요? 그리고 하와가 속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형벌일까요? 에덴 이후 어떤 여자도 그 때문에 가르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그녀에게 그런 은사가 있더라도 말입니까?

그런데 적어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칠십인역 밋/또는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약 정경이 있기 전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누구나 찾아 읽을 수 있는 것을 되풀이합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잘 알려지고 분명한 것을 언급할까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가 시험을 받았다는 것** 말입니다.

게다가 이 본문을 방금 말한 대로 이해한다면, 바울은 어떤 면에서 자기 자신과 모순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는 죄를 세상에 들여왔고, 그렇게 **처음으로** 자기 가족, 곧 죄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사람의 세계 공동체의 머리가 된 아담을 묘사합니다. 아담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과 구원은 우리를 자기 공동체 안으로 “입양하는” 새 머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바울이 하와를 책임 있는 머리로 만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109. 참조. ExWNT, 제2권, 311쪽

이미 말했듯이, 정반대를 주장하는 원시 영지주의적 창조 이야기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먼저 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르테미스 환경에서는 이 영향력 있는 제의 안에서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한 여자나 몇몇 여자가 지배적으로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서 반항하고 반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언급은 어쩌면 긍정적인 지적이기도 합니다. 하와의 약함이나 아담의 우월함이 아니라, 교육과 공부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의 필요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와는 어쩌면 충분히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속았습니다. 반면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써 의식적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발탄과 지뢰를 더 이상 널려 있게 두지 마시다. 이 본문을, 제 생각에 원래 의도된 대로,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아우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길로 읽으시다. 바울이 이것을 특정한 상황에 적용하는 데 마음을 썼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의 문화와 편견과 본능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깊이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내놓는 다양한 고정관념 가운데 어느 것에도 순응하지 않고, 예수의 복음의 치유하고 해방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메시지에 순응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¹¹⁰

6.3.10 내가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지도하고 가르치는 여자들에 대한 영구적이거나 보편적인 금지가 아닙니다(12절). 필립 페인(Philip Payne)과 다른 이들은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가 헬라어 본문의 가장 좋은 번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지금** 허락하지 않는다”가 더 나은 번역입니다. “나는 지금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에베소의 특정하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문제에 대한 현재의 구체적인 지시를 가리킵니다(여자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영구적이거나 보편적인 금지가 아닙니다). 여러 학자들은 바울이 능동 직설법 *epitrepo*를 부정어 *ouk*와 함께 쓴 것(“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 특정한 상황을 위한 구체적인 지시를 강하게 가리킨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 신약에서 *epitrepo*가 쓰인 경우의 압도적 다수에서, 그리고 헬라어 구약에서는 매번, 이 말은 “특정한 때나 짧거나 제한된 기간만”을 가리킵니다.¹¹¹ 그러므로 그 특정한 여자나 여자들의 무리가 가르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배웠다면, 이 가르침 금지는 논리적으로 풀릴 것입니다.

110. Wright, N. T., 27쪽, Paul for Everyone: The Pastoral Letters, London, 2003

111. Hill, Graham Joseph, 63-64쪽, Holding Up Half the Sky: A Biblical Case for Women Leading and Teaching in the Church

아무리 되풀이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첫 두 사람의 창조 질서에 근거한, 여자들에게 대한 보편적인 가르침 금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의 가르침이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세계 모든 교회에 주는 지시가 아니라, 에베소의 특별한 상황을 향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들에게 대한 가르침 금지가 아니라 태도에 관한 명령입니다. 이 여자들은 지배적으로 가르치지 말고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6.3.11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러나 그들이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정숙함으로 거하면 그녀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이상한 연관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출산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읽지만 이런 고대의 배경을 도무지 알 수 없다는 말을 저는 한 번 이상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이 그 모든 배경 지식 없이도 이해될 수 있도록 미리 대비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깨우침을 받은 이성을 받았습시다. 성령이 우리의 선생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연구 결과를 순식간에 화면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 본문들에 관한 연구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온갖 가능성에 대한 원어 연구도 있습니다. 모두 합하면 다시 전체를 살피기 어려울 만큼 너무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이런 질문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누구나 본문의 배경과 씨름해야 합니다. 자기가 찾을 수 있는 수단과 가능성을 가지고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본문을 다루는 법과 본문에 던지는 질문을 배우고 연습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시대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인 이해를 넘어 본문에 대해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의무에서 아무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함과 순종할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때문에, 저의 피상성, 새로운 발견에 대한 두려움, 안일함, 또는 본문에 대한 부족한 생각 때문에 가로막혀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에서 임신한 여자들은 출산할 때 여신 아르테미스에게 자신을 맡겼습니다. 그 여신에게는 출산이 잘되게 할 힘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와가 먼저 지음을 받았고 아담이 먼저 유혹을 받았다는 신화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흔히 생명을 위협하고 고통스러운 출산에서 유일한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돕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신화와

이야기와 두려운 기대를 마침내 떨쳐 버리고 배 밖으로 던져 버리며, 모든 일에서 유일한 신 구원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라고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구절에 대해 또 하나의 가능한 설명을 인용합니다. “또 하나의 겉보기 문제는 ‘해산함으로 얻는 구원’이다. 바울이 여자들은 아이를 낳으면 구원받는다 고 가르쳤다는 말인가?! 이런 가르침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그것은 그의 가르침 전체와 모순될 것이며, 그러므로 여기서 그런 뜻일 수는 없다. 오히려 바울은 여기서 창세기 3:15, 곧 여자의 후손이 구원을 가져온다는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여기서 훈계하는 거짓 여교사들은 구원이 여자들을 통해 직접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구원이 실제로 여자들을 통해 오기는 하지만, 사실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난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반면 영지주의자들은 몸을 지닌 것 - 그리고 그와 함께 해산하는 것도 - 을 원시적이고 낡은 것으로 여겼다).”¹¹²

6.3.12 오늘의 디모데전서

“오늘의 신자인 우리에게 질문은, 21세기의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로마의 남성성과 여성성의 이상에 어떻게 억지로 끼워 맞출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함의 태도를 지닌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저는 분노와 불화를 피하는 것은 보편적인 일이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거기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로서 우리가 이것을 선한 행실로 어떻게 보여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맥락에서 그것은 어떤 종류의 선한 행실이겠습니까?

그리고 2장 끝 15절의 ‘그들’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이 단락이 향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들을 가리킵니다. 2장 전체는 후메나오와 알렉산더의 신성 모독적인 행동(딤후 1:20)과 대조를 이룹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자비와 은혜로 받은 구원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가운데 자제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제 생각에 바울은 여자들이 남자와 너무 달라서 교회나 가정에서 특정한 역할에서 일반적으로 배제된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주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는 여자들이 성별 때문에 특정한 역할에 세워질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에 여자들은 정기적으로 집, 곧 가정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12절 계명의 기초가 아니라,

112. Michael Trenkel, 2017 (참고 문헌을 보십시오)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예로 쓰입니다. 고린도후서 11:3에서 바울은 뱀이 하와를 속인 것을 교회 전체를 위한 예로 사용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에서는 그것이 여자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제 남편이 그리스-로마 가정의 가장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우리는 21세기의 삶을 사는 21세기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에게 1세기의 남편처럼 권위를 행사하기를 기대한다면,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비판적으로 보게 만들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14가 경고하듯이, 우리는 대적하는 자에게 비방할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¹¹³

6.3.13 결론

에베소의 역사적 상황을 들여다보면 많은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열린 질문들이 남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도는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르침 금지나 설교 금지가 아니며, 지도 금지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특정한 신학, 곧 거짓 신학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리고 지배적이고 순종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또는 심지어 선을 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또는 가르치는 권위를 부당하게 주장하는 것에 대한 금지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하나님의 모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베소의 특정한 문제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분명히 남성들에게도 해당됩니다. 이 일에서 이번에는 남자들이 꾸짖음의 계기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보편 교회에서 여자들의 역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베소의 남용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지만 남자들이 길을 막아서 그것을 행할 수 없는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은사를 받은 수많은 여자들이 이 한 구절 때문에 남성들처럼 가르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책임은 남성들에게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잘못된 상태를 끝내야 합니다.

6.3.14 디모데서 본문의 풀어 묶긴 번역

다음은 이 단락을 설명하며 풀어 쓴 번역입니다. 이 본문을 짧게 해석해야 한다면 저는 이렇게 묶기겠습니다. 이것은 제 본문, 제 말이지 성경 본문이 아닙니다.

113. Kidson, Persuading Shipwrecked Men: The Rhetorical Strategies of 1 Timothy 1, 2020, Mohr Siebeck Tübingen

사랑하는 디모데여, 에베소에서 몇몇 남자와 몇몇 여자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남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이 만나는 곳 어디서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신화와 거짓 가르침을 두고 다투는 대신 말입니다. 분노와 다툼은 기도를 가로막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삶으로 이어집니다. 다툼과 폭력에서 깨끗한, 들어 올린, 펼친, 받으려는 손으로 그들은 함께 우리 구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물론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중요한 것은, 여자들, 특히 부유한 여자들이 어디에 나타나 사람들 눈에 띄든 수수하게 처신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의를 끌고, 게다가 다른 여자들을 능가하려는 그들의 장식은 공들이고 눈에 띄는 머리 모양이나 금과 진주 장식구나 값비싸고 유별난 옷이어서는 안 됩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여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내세우거나 그런 방식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가치 있고, 심지어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는 장식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선한 행실입니다.

여자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주의 깊게,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배워야 합니다. 자기 집에서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 여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저는 이 모든 거짓 신화와 가르침을 계속 퍼뜨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바른 교훈을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므로, 자기 남편이나 남자들 일반 위에 올라서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가르침은 권위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바른 교훈을 설명해 줄 때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녀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녀에게는 지식이 부족하며, 그녀가 집집마다 신화를 퍼뜨리면 이 무지가 큰 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가 이 상황에 알맞은 예입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고, 하와를 가르쳐야 할 사람은 그였습니다. 그는 속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하와는 속고 미혹되었습니다. 여자들이 기꺼이 배우지 않으면 하와처럼 속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의 몇몇 여자들이 자기 남편에게서 배우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 자기가 해산할 때 보호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았고 출산의 고통이 크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사람이 만든 에베소의 수호 여신 아르테미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한 몸인 부부로서 함께 말입니다. 여자들은 아이 낳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고, 남자들은 성적으로 자제하며 너무 잦은 임신이 아내에게 위험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6.4 보편적 계명과 시대에 매인 계명

이 짧은 본문을 다루었고 여기서도 질문들이 남아 있으니, 유효성의 원칙을 짚어 두고 싶습니다.

성경의 어떤 계명은 보편적이고 다른 계명은 맥락에 따라 제한되거나 문화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맥락을 보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행은 언제나 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보편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장르, 곧 역사, 이야기, 지시, 권면 등과 같은 다양한 문학 양식 또는 본문의 종류와 형태가 들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천과 윤리를 서로 다르게 이끌어 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도 문제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오늘날 새 언약의 교회에는 해당되지 않는 지시들을 받았습니다.

바울 서신에는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지시가 되풀이됩니까? 그것이 여러 다른 맥락에서 보입니까? 분명하고 공통된 언어가 있습니까? 달리 말하면, 바울이 드물고 특이한 개념이나 어휘를 쓰면, 상황이 특별하고 더 제한적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특별한 주제에서는 핵심 본문들(고전 11장; 14장; 딤후 2장)이 너무나 특수한 논증과 독특한 어휘를 지니고 있어서,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에서 여자들을 보편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을 거의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보편적인 명령은 성경의 전체 맥락에 들어맞으며 모순을 낳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은 결코 중립적인 진공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다가갈 때 우리의 전제, 경험, 형성 배경과 가치관을 벗어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끌어들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못한 성경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6.4.1 성경주의와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처음에 저는 “성경주의”라는 개념을 언급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부정적이고 건강하지 못한 태도로서 말입니다. 성경주의는 보편적 계명과 시대에 매인 계명의 구별을 소홀히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어떤 대목에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화하는 다른 사람들과 선을 그으며 자기만 성경에 충실하다고

주장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성경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입장을 얼마나 잘 근거 짓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자기 바람이나 세상의 시대정신에 맞추려 한다는 의도를 덮어씌웁니다.

성경주의는 교회 안에서 여자의 역할을 몇 안 되는 성경 본문으로 설명하고 제한하며, 성경이 분명히 보여 주는 큰 그림, 이미 구약에서도 보여 주는 큰 그림을 놓칩니다. 예배를 꾸미는 방식이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꾸리는 방식이든, 모든 전통과 방식에 대해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을 찾습니다. 물론 성경은 기준이요 규범입니다. 그러나 지시가 분명하지 않은 곳에서는 성경의 전체 그림을 따라야 하며, 개별 구절을 노예처럼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높이 올라가야 더 넓은 시야를 얻어 성경의 지형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을 볼 때도 세부에만 매달리지 않고 전체를 보려면 조금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때로는 열린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실용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주의는 성경을 기독교 신앙을 표현하는 데, 특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에 대해서도 유일한 원천으로 인정하는 성경 읽기와 성경 접근 방식입니다. 그 자체로는 좋은 태도입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이 소홀히 되거나 불확실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거부되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주의는 폭넓은 기독교 전통의 통찰을 간과하며, 자기의 문화적 상황과 위치를 신약이 생겨난 시대와 비교하여 평가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주의는 정당한 질문과 논증에 면역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단, 운동, 연합 또는 “부족”의 깨달음을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가장 높거나 가장 깊은 것으로 여기고 모든 세대에 물려줍니다. 성경주의는 자기 자신도 자기만의 형성 배경과 자기만의 선구자들과 집단의 압력을 지닌 하나의 해석 전통 안에 서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눈입니다.

종교개혁의 “Sola Scriptura”, 곧 “오직 성경”은 성경주의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들이나 그 후예들이 여러 “오직”(Solus)을 표현했을 때, 그들은 별거벗은 성경이나 성경 하나만을 뜻하지 않았습니 다. 그들은 전통, 경험, 자연과 나란히 있는 성경의 우위를 뜻했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성경의 명료성을 강조했을 때, 그들은 성경 전체가 똑같이 분명하다는 뜻이 아니라, 복음과 구원에 관해서는 성경이 분명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들이 성경의 완전한 충분성을 힘주어 말했을 때, 그것은 심장 절개 수술, 양극성 장애 치료, 거시 경제처럼 성경의 맥락을 넘어서는 일들을 다루기에 성경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들에 이바지하는 가치와 원칙과 진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런 일들을 전체적으로 다루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성경의 권위를 말했을 때, 그들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권위를 뜻했습니다. 신자들을 진리로 인도하고 깨우치시며, 교회를 위해 교사들을 길러 주시고

선물로 주시며, 교회의 신앙고백과 예전의 유산에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성령 말입니다.

21세기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앞선 이들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그들도 자기 앞선 이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에 충실함과 성경 이해는 결코 “진공 상태”에서, 결코 “중립적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교리를 세우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을 서술할 때 이 깨달음을 유념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좋은 출발점입니다.

경직된 성경주의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바로 그곳에서 경직된 교조주의와 율법적인 엄격함과 편협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은 복음과 은혜의 자유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예를 들어 은사(고전 12장)에 관해서는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들은 그 은사들이 오늘날에는 더 이상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성경 본문도 이 가설을 확인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추론이며, 흔히 순전히 경험에 근거한 신학입니다. 그들 자신이 이 은사들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사들이 전 세계에 널리 존재하고 활동하며, 예를 들어 많은 치유 기적이 입증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신학은 전제와 경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은 이 본문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첫 세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질문을 밝혀 줍니다. 21세기의 질문들은 성경의 뜻에 따라서만 밝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대답도 생겨나는 도전으로 남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어려움입니다.

라인 퍼트먼(Rhyné Putman)은 자기의 새 책 『교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나눌 때』 (When Doctrine Divides the People of God)¹¹⁴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Sola Scriptura(오직 성경)는 ‘nuda Scriptura’(벌거벗은 성경)나 ‘solo Scriptura’(성경 하나만)를 뜻하지 않습니다. … 성경과 전통, 이성, 경험 등 다른 원천들의 관계를 말할 때 우리는 suprema Scriptura(성경의 우위)라고 말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원천들보다 우위에 있지만, 이 원천들은 우리의 신학적, 영적 형성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영감되고 오류 없는 원천입니다. 성경만이 이 다른 원천들 위에 있는, 규범을 주는 규범입니다.”

114. Putman, Rhyné R., When Doctrine Divides the People of God: An Evangelical Approach to Theological Diversity, Crossway, 2020

6.4.2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와 문자적 의미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삶의 실천에 적용하는 일은 꽤 복잡합니다. 여기서 본문의 문자적 의미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같지 않습니다. 문자적 의미는 모든 성경 본문에서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논란이 되고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결과에 이를 것입니다.

문자적 의미를 찾을 때는 먼저 그것이 어떤 본문의 종류(장르)인지 확인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비유, 편지, 교훈 본문, 시, 묵시 문학, 법, 역사, 설교 등입니다. 이어서 그것이 쓰인 본문의 종류에 따라 말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탐구합니다. 비유에는 대개 하나의 중심 의도가 있지, 여러 의도가 동시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비유는 보통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언제나 문자적 의미로 설명하거나 해석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우리 삶에 문자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아주 잘,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많은 것은 문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와 시대에 매인 관습이 특히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의 총체는 진리이니, 주의 의로운 율법 전체는 영원히 유효하리이다.

시편 119:160 (Zürcher Bibel, 독일어 성경 번역본)

7 여제사장, 여성 장로, 여성 집사

낙원의 동산에서 순결한 아담과 하와는 다스리는 왕이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제사장입니다. 에덴의 낙원 동산은 우주적 성전의 지성소를 보여 주는 그림입니다. 새롭고 더 나은 에덴, 곧 새 땅은 온 세상을 덮는 지성소가 될 것입니다. 온 땅이 낙원의 동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그림인 새 예루살렘은 거대한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그것은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와 같은 모양입니다. 새 땅에는 여자와 남자, 왕과 여왕, 제사장과 여제사장이 살 것입니다. 그때 위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새 창조이기 때문에 위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계는 옛 창조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첫 열매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두보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는 그래도 언제나 위계가 있어야 합니까?

이제 저는 앞에서 얻은 모든 깨달음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이 되어야 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앞 장들의 모든 정보와 결론과 교훈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리는 이제 현실의 땅, 교회들의 일상 현실에 닿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모든 것에서 저는 하나의 정수를 끌어냅니다.

성별의 위계는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없습니다!

7.1 만인 제사장

종교개혁은 오랫동안 묻혀 있던 이 진리를 다시 빛 가운데로 꺼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실천에는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가톨릭교회조차도¹¹⁵ 신자들의 만인

115. 사제 서품에 관한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말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남자들을 선택하시어 열두 사도단을 구성하셨고, 사도들도 자기들의 임무를 이어 갈 협력자들을 선택할 때 그렇게 하였다. 사제들이 사제직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주교단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열두 사도단을 현존하게 한다.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하신 이 선택에 매여 있음을 안다. 그러므로 여자들을 서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오직 남자들만 그리스도를 대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입장도 오늘날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사제가 될 수 없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가톨릭 민간 신심에서 거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불리고 공경받는다는 것은 양면적이고 모순되어 보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가톨릭 여성들이 서품된 직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논거는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입니다. 변화는 교회 분열 없이는, 또는 공의회를 거쳐서만 가능합니다. 그 바탕에 영적인 동기가 있는지 세속적인 동기가 있는지는 제 주제가 아닙니다. 제 관심은 가톨릭교회가 아니라, 자기 문제를 돌보아야 하는 저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환경입니다.

제사장직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이 진리가 교회 생활에서 실제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가, 여자든 남자든, 제사장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예배에서 두 성이 같은 역할을 가져야 할 이유가 충분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인 제사장직은 한편으로 개인적으로 살아 냅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복입니다.

제사장직과 그에 딸린 제사 섬김의 본보기 전체는 구약에서 왔습니다. 거기서는 제사장이 공식적인 예배를 인도하고 집례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인 제사장직을 생각할 때, 그것만은 아니지만, 예배자로서 함께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신자들의 모임도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영적 제사를 드리는 모임 말입니다. 그곳에 성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있어도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 안에서 이런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두지 말아야 합니다.

7.2 장로와 여성 장로

장로직은 지도하는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를 돌보고 감독하고 보호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가르치는 과제를 지닌 목자의 섬김입니다. 앞장서고 본이 되는 일입니다. 여자들도 감독이나 장로의 섬김을 할 수 있을까요?

벤 위더링턴(Ben Witherington)은 핵심을 짚습니다. “때때로 디모데전서에서 장로는 한 아내에게 신실한 남편이어야 한다고 말하며, 이것이 남자만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신호라는 논거를 들는다. 그러나 이런 논거는 바울이 선교사로서 에베소에서든 그레데에서든 강하게 가부장적인 문화 환경 속으로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고 있다. 그의 원칙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복음의 누룩이 그 효과를 온전히 펼쳐 안에서부터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그 문화에 있는 기존의 남성 지도 구조에서 시작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디모데와 디도가 이 새로 개척된 교회들의 지도자로 처음 세우는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남자들뿐인 것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영원히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새 신자들은 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맡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사랑 어린 설득을 통해 납득해야 했을 것이다. 바울이 이미 그 방향으로 밀고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로마서 16장에서 그는 고린도 쪽 교회들의 여성 집사인 뵤뵤라는 여성 지도자를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목회 서신에서 장로와 집사를 논하는 대목에도 아마 여성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말했듯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평가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읽고, 바울이 복음을 그 상황에 적용할 때 어떤 종류의 변화를 일으키려 하는지 물어야 한다.”¹¹⁶

여자들을 이 직분에서 배제하는 것을 저는 바울의 이 말씀과 비교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29]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을 장로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교회에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실 이상입니다. 그 때문에 흔히 영똥한 남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역할을 맡게 됩니다(공식적으로 장로로 임명되었든, “형제 모임”의 참석자로서든). “제 생각에 성별에 대한 편견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은사 있는 여자들을 지도자 자리에서 배제했을 뿐 아니라, 지도자로서 그리 은사가 없는 많은 남성들에게 자격을 주었습니다.”¹¹⁷

어떤 여자들은, 좋은 동기에서든 덜 좋은 동기에서든, “뒤에서” 남편을 통해 지도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장로들의 아내들이 많은 회의에 함께 참석하고, 뒤에서 웅성거리던 온갖 이야기가 얼굴을 마주하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편이 더 나을 것입니다.

7.3 그녀는 선한 일을 사모한다

짐 라이허(Jim Reiher)는 디모데전서 2장과 3장의 한 사실관계에 주의를 환기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3:1을 무엇보다 장로와 집사에 관한 긴 논의를 담은 3장 나머지 부분의 논리적 시작으로 본다. 그러나 나는 이 구절이 실제로는 2장의 결론에 속하며, 3장의 도입이라기보다 오히려 그쪽에 더 가깝다고 주장하고 싶다. 이것은 교회 안의 여자들에게 중요하다. 그렇다면 1절이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장로/감독이 되라고 격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 구절이 2장을 마무리한다면, 바울이 두 성 모두가 믿음 안에서 훈련되고 성숙한 한 지도하는 역할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지한다는 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 그는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에게 당분간 몇 가지 제한을 두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최종 결론”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아주 일반적으로, 남자와 여자 모두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덧붙인다.

바울은 여자들이 제대로 교육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아주 분명히 한다(2:11). 흥미롭게도 이 구절에는 이 단락의 유일한 명령형, 곧 배우라가 들어 있다. 다시 말해 11절은 바울의 명령에 가장 가까운 것이다. 그는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한다. 그것은 그의 생각과 글의 절정이다. 사실 이것이 이 단락의 열쇠이다. 바울은 교회의 모든 지체가 믿음

116. Ben Witherington III, Why Arguments against Women in Ministry Aren't Biblical

117. Danny Silk

안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 남자들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모두를. 그들이 제대로 훈련되고 성숙하면,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리는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똑같이 열릴 것이다.

디모데전서 3:1이 이 여자들에게 한 말이라면 어떻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3장 1절에 이른다. 거기에 정확히 무엇이라고 쓰여 있는가? 거기에 쓰여 있지 않은 것 하나는 “남자들만 장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는 말이다. 그렇지 않다. 그것은 남자들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러나 여자들만을 가리킬 수도 있다. **아니면 아마도 남자와 여자 모두를 가리킬 것이다.** NIV(New International Version)는 여기서 더 나은 번역을 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한다. “미쁘다, 이 말이며. ‘누구든지 감독이 되기를 사모하면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제가 아는 모든 독일어 번역에서도 그렇습니다. 거기서 “누구든지”는 남자와 여자를 다 뜻할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는 “남자들”이나 “남자”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쓰이지 않는다. “그”를 뜻하는 독립된 단어도 쓰이지 않는다. 그 대신 헬라어 단어 **tis**가 쓰인다. 이 같은 단어는 남자와 여자에게 쓰인다. 마찬가지로 “그 또는 그녀가 사모한다”는 말은 “사모한다”라는 동사 어간에 “그, 그녀 또는 그것”을 나타내는 어미가 붙은 것이다. 이 동사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이 결정해야 한다.

디모데전서 3:1을 2:8-15의 결론으로 놓으면, 이 구절은 교회에서 여자들의 지도를 확증하는 강력한 단서가 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쓰인 단어들이 남자나 여자를 가리킬 수 있으므로, 3:1은 단순히 “어떤 여자가 감독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녀가 바랄 만한 좋은 일이다”를 뜻할 수 있다. 이것은 바울이 이런 말을 전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여자들이 가르침을 받아야, 곧 배워야 하며, 그들이 성숙하고 유능해질 때까지는 가르치거나 권위를 가질 수 없다고 내가 고집하기는 했지만 - 여자가 장로가 되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그녀에게 좋은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히 보는 디모데전서 2:8-3:14의 구분 대신에

교회 안의 여자와 남자(2:8-15). 남성 장로(3:1-7). 남성 집사(3:8-10). 여성 집사(또는 집사의 아내)(3:11). 다시 남성 집사(3:12-14).

우리는 이 편지의 생각의 흐름을 이렇게 이해해야 하지 않겠는가?

교회 안의 여자와 남자(2:8-3:1). 현재 상황: 현재의 지도자들에게 성별에 따른 방식으로 말함(3:2-7). 남성 집사(3:8-10). 여성 집사(3:11). 남성 집사(3:12-14).

7.4 여성 집사

집사(Diakon)라는 말에는 여성형이 없었습니다. 디아코니아 자매(Diakonisse)라는 말은 몇백 년 뒤에야 나타났으며, 교회의 직분이나 예배 안의 섬김과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장로직과 나란히 집사들도 교회에서 직분을 맡습니다. 그 직분의 특징은 집사라는 말이 뜻하는 것, 곧 섬기는 사람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 직분을 맡을 수 있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섬김에 자신을 드러 여성 집사로 인정받고 존중받고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을 로마서 16:1이 보여 줍니다. 뵈뵈는 여성 집사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녀의 집에서 모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섬기는 그녀의 헌신이 그녀를 여성 집사로 만들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11에서는 집사들의 아내들이 아니라 여성 집사들을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분명한 위계 지지자(상호보완주의자)인 존 맥아더(John MacArthur)조차 여성 집사를 지지합니다. “디모데전서 3:11에서 바울은 집사들 가운데 별도의 한 집단을 가리킨다. 여러 요인이 바울이 여기서 집사들의 아내가 아니라 여성 집사들이라는 별도의 집단을 말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첫째, ‘이와 같이’라는 말의 쓰임(참조. 2:9; 3:8; 디도서 2:3, 6)은 여기서 장로와 집사 외에 셋째 집단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둘째, 이 여자들을 집사들과 연결하는 소유 대명사도 정관사도 없다. 셋째, 바울이 장로들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왜 집사들의 아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는가? 넷째, 바울은 ‘여성 집사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헬라어에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16:1에서 뵈뵈가 집사라고 불리는 것은 *diakonos*의 여성형이 없기 때문이다. ... ‘여자들’(gunaikēios)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바울이 그들을 남성 집사들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끝으로 그들의 자격 요건은 남성 집사들의 자격 요건과 일치한다. 분명히 바울은 집사의 또 다른 범주를 도입했다. 나는 그들을 여성 집사라고 부르는 편을 택한다. 그렇게 하면 신약의 용어가 유지되기 때문이다.”¹¹⁸

118. MacArthur, J., *Different by design*, MacArthur Study Series, Victor Books, Wheaton, IL 1996, 153-154.

여기서 셋째 직분 집단이 도입된다는 것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이와 같이**”는 **그들을 남성 집사들과 같은 위치에 놓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 위에 권위를 지니는 위계의 차이가 있어서 남자와 여자가 이 집사 직분을 동등한 지위로 말할 수 없다고 할 때, 사람들이 말하자면 어떤 결론으로 내몰리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 줍니다.

집사의 섬김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집사가 지도하는 과제도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배제하지 않겠습니다. 지도와 관련된 집사의 섬김 문제에 대해 생각 하나를 더 소개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서 장로와 집사의 자격 요건을 서로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빌프리트 하우벡(Wilfrid Haubeck)은 두 목록이 비슷하다는 데서 장로와 집사가 함께 교회를 지도했다고 추론한다. 그것은 다시 뢰비(롬 16:1)가 교회 지도부의 일원이었음을 뜻할 수 있다.”¹¹⁹

고린도전서에서는 장로에 대해 전혀 말하지 않지만, 여자든 남자든 모든 지체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지도하는 은사에 대해서는 말합니다(12:28; 로마서 12:8의 다스리는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23에서는 덜 귀한 지체들에 대해 말합니다. “오히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들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하다고 여기는 지체들을 우리는 더 풍성히 귀하게 입히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풍성한 아름다움을 얻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여자들과 아이들과 종들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7.5 여성 설교자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의 예배는 대개 설교를 중심 요소로 삼습니다. 모든 것이 짜여 있습니다. 설교의 주제나 성경 본문이 미리 알려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1세기에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과 14장에서 묘사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26]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각 사람이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모두가 세움을 받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강단은 덜하고, 나눔과 교제는 더 많았습니다. 서로를 더 기다리고, 하나님의 영이 더 많이 역사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설교(케리그마), 또는 오늘날 우리가 설교로 이해하고 만들어 낸 것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119. Wunderli, 48

저는 폐쇄적인 형제단 집회 출신이기 때문에,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으며 설교는 더더욱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DNA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자유복음교회(FEG)에 속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한 여자가 설교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게 옳지 않은 일이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들었습니다. 제 거리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설교가 제가 우리 집회에서 들은 많은 설교보다 더 깊고 생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언하는 것”, 곧 하나님에게서 받아 말하는 것이 우리가 설교로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1:5에 따르면 그것이 여자들에게 해당되므로, 이 설교의 섬김도 교회 안에서 여자들의 일에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교회 안에서 자기 목소리로 삼기 원하십니다. **여자들의 목소리가 없으면 교회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준비해 두신 것이 빠집니다.**

얼마 전 유명한 신학자 N. T. 라이트(N. T. Wright)가 여성 설교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대에 여자들은 억압받았고 최근에는 페미니즘이 그들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흔한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라고 라이트는 주장합니다. 최근 **Das Neue Testament in seiner Welt**(그 세계 속의 신약)라는 제목의 책을 펴낸 이 신학자는, 교회와 사회에서 어느 정도 권위를 지닌 여자들이 고대에 혐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세계에는 독립적인 여자들이 많았고, 그것은 바울이 함께 일한 현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처음 만나신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야, 내게 정말 중요한 소식이 있다 - 베드로를 데려와 다오. 내가 그에게 말해야 그가 가서 다른 모든 사람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라고 라이트는 설명합니다. 그 대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야, 가서 내 형제들에게 - 두려워서 집에 숨어 있는 남자들에게 -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제 세상의 주이시라는 소식은 “모든 기독교 사역의 기초”라고 라이트는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소식을 남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전하게 하신 것은 “부활 자체만큼이나 큰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여자가 설교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라이트가 기대는 다른 예는 로마서 16장에 있습니다. 라이트는 로마서가 “아마도 지금까지 쓰인 편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편지”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 가장 중요한 편지를 고린도 근처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였던 뵈뵈에게 맡겼다는 사실은, 그 시대와 문화의 맥락을 생각하면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편지를 가져가는 사람은 그것을 낭독할 사람입니다.” 뵈뵈는 “아마도 독립적인

사업가”였고 사업차 로마로 여행했다고 라이트는 설명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편지에 대해 질문했을 때 뵈비가 바울의 뜻도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맨 처음 판은 고린도의 동쪽 항구에서 온 그리스도인 여성 사업가가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라이트는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 일을 위해 쉽게 남자를 고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 대신 바울은 의도적으로 뵈비를 택했습니다.

7.6 요약

저는 깨어난 양심으로 마칩니다. 성경 전체의 증거 앞에서 저는 어떻게 가부장적인 여성관을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난 두 세기의 세계 선교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통해 이루신 일들 앞에서 말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설교하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복음을 전한 여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여자들을 어떤 섬김에서든 멀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얼마나 무시하는 일입니까.

현재 중국에 있는 10만 개를 훨씬 넘는 가정 교회 가운데 70% 이상을 여자들이 이끌고 있다는 믿을 만한 정보가 있습니다. 예수를 이해한 사람, 바울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 철학의 여성 멸시도, 유대주의의 여성 차별도, 더욱이 교회의 여성 차별도 다시는 받아들이거나 제 책임 영역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에게 잠잠하라고, 가르치지도 지도하지도 말라고, 어떤 공적인 섬김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증거에 따르면 모든 공적이거나 공적이지 않은 직분, 섬김, 기능은 여자와 남자에게 차별 없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이 그들이 한 걸음씩 이 섬김 안으로 자라 가도록 돕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준 것처럼 말입니다!

8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갈라디아서 3:28

성 역할이 문제 될 때 이만큼 자주 인용되고 찬양받는 성경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복음주의) 페미니즘의 마그나 카르타로 환호받는다”고 합니다.¹²⁰ 다음은 그 단락 전체입니다. 다른 모든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 본문도 문맥 안에서, 곧 맥락 속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23-29, 독일어 Elberfelder 성경에서 번역]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여 있었고, 장차 나타날 믿음을 향하여 갇혀 있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의 교사가 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하였다. 그러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거기에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고, 남자와 여자도 없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einer)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상속자이다.

갈라디아의 배경과 문제는 무엇이였을까요?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힘 있게 경험했습니다. 그때 유대인 교사들, 곧 유대주의자들이 - 바울 자신도 한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 와서 복음에 덧붙일 것을 들여오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 민족들이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아브라함도 할례를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서 언약의 표로 받았으니까요). 할례를 통해 언약 안으로 들어가 상속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요구에 맞서 이토록 강한 말을 쓰는 서신은 달리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는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8.1 본문이 말하는 것

이제 인용한 단락은, 28절 한 구절만이 아니라,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반박의 절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관심과 그리스도 안에서

120. Strauch, 122

구원하시려는 억누를 수 없는 뜻이 느껴지는 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이 서신의 핵심 메시지에 속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무죄 선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제한된 기간 동안 그리스도를 찾고 그분을 맞아들이도록 돕는 교사였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남자도 여자도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여자들은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물러나 있었고, 상속자가 아니었으며,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나 맏아들의 후견 아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남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여자들을 아들의 신분으로 높입니다!** 문제는 남성이나 여성이나가 아니라, 우대받는 지위, 곧 아들 됨이라는 높은 특권입니다. 이 지위의 본보기는 시대에 매인 문화적, 사회적 가족 관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 됨은 하나님의 아들 자신의 아들 되심을 본보기로 합니다. 모두가 받아들여져 아들의 지위로 높여졌습니다. **오늘날의 언어 사용에서만** 우리는 정당하게 ‘딸의 지위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문화적 맥락에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딸로 불리는 것이 **이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딸”이라면 그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 “형제들” 아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여자들에게 남자와 같은 신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일관되게 “너희는 다 한 사람이다”(“하나”가 아닙니다!)라는 말로 끝맺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는 여자들도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조건에서 **여자들의 이런 “구원에 따른 성별 전환”은 여성 적대적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교회 안에서 그들의 역할에도 결과를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은 물세례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그들에게서, 28절에 언급된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제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차별 없이 말입니다. 그것은 예외 없이, 인종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해당됩니다. 바울은 누구도, 어떤 이유로든, 더욱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유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갈라놓는 다른 예들도 더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큰 구원은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고 그로써 상속자로 만듭니다. 영적인 방식으로 새 창조 안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혈연과 할례를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같습니다. 똑같이 아들 됨과 상속자로 높여졌습니다. 하늘에서 곧바로 내려온, 엄청나고 뒤집어엎는, 일찍이 들어 본 적 없는 메시지입니다. 언약에

들어가는 길로서의 할례조차 사라집니다. 할례라는 남성의 특권은 십자가에서 끝났고 영원히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언약에 속한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확증될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다시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세례가 모두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상징입니다.

8.2 본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 것

바울의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창세기 1:27을 따라 남성과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 세 쌍의 차이를 없애지 않습니다. 그 차이들은 세상에 계속 존재합니다. 국적은 남고, 종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자유인이 되지 않으며, 성별은 중성화되지 않습니다.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남습니다. 하나가 되고 같아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구원과 관련됩니다. 아버지와와 관계와 그리스도의 몸 안의 자리와 관련됩니다. 눈에 보이는 창조 세계와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또는 창조 질서와도 관련되지 않습니다. 상호보완주의, 곧 여자의 위계적 복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특히, 그리고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스트라우치(Strauch)와 존슨 2세(Johnson jun.)에게 “복음주의 페미니스트”¹²¹라고 불릴 저 역시, 바울의 이 말씀을 동등한 지위를 위한 제 논증의 주된 논거로 삼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그것은 바울의 주제가 아닙니다.

8.3 본문이 그래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

그러나 이 말씀으로 성별에 구체적으로 관련된 무언가가 말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같은 근거와 논증의 사슬 안에 있습니다. 28절에는 모두가 똑같이 구원에 참여한다는 비교의 열거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 용서만이 아니라, 타락한 창조 세계와 인류의 파멸과 파산과 깨어짐에서 이미 지금 건져 내는 구원입니다. 세 쌍 모두에서 암묵적으로 긴장, 갈라놓는 무엇이 암시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바울은 그것들을 끌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시대와 당시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배경으로, 창조주가 보시기에 마땅히 그래야 할 모습이 아닌 것이 거론됩니다. 이 쌍들의 긴장과 불평등 속으로

121. 미국에서는 아마 이 용어가 독일에서만 부정적인 울림을 지니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자의 복종을 주장하는 사람을 기독교 남성우월주의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페미니즘은 거대한 복합체, 온갖 극단을 지닌 다층적인 운동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좋은 일, 덜 좋은 일, 그리고 다른 모든 운동처럼 나쁜 일도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 운동에서 지배의 역전을 봅니다. 그것은 한 극단과 오류에서 다른 극단과 오류로 뒤집히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에 대한 성경 전체의 그림을 지지합니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았거나 그것을 간접적으로 지지한다는 끊임없는 혐의는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의 선한 영을 통해 치유하고 화목하게 하고 회복하는 힘으로 역사합니다.

이 측면이 당시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해도, 오늘날, 그리고 2000년의 교회사와 문화사를 돌아볼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며, 모든 세대와 모든 세기에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8.3.1 유대인과 헬라인

이 구별은 우상 숭배자인 이방 민족들과 한 분 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분리를 나타냅니다. 그것은 작고 당시에는 보잘것없는 한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줍니다. 그것은 그 백성을 구별합니다. 그들만이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이 분리는 지나간 일이 되었습니다. 구원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바울이 일부터 이 구별로 시작하는 것은, 유대주의자들이 믿는 이방 민족들에게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되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에 들어가라고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들도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롭고 영원한 세상에 이르기까지 자기 국적을 지닐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국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통해, 서로 다르고 흔히 적대하는 민족들 때문에 생기는 모든 부정적이고 죄된, 모든 파괴적인 부수 현상은 폐지됩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서 그것이 살아 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주신 것처럼 모두가 서로 받아 주어야 합니다.

8.3.2 종과 자유인

물건처럼 주인의 소유였던 종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였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이제 형제이며,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존엄을 지닙니다. 그러나 노예 제도는 타락한 인류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바탕 위에 선 인간의 존엄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강제와 폭력 아래 결코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작은 편지가 신약 정경에 들어 있는 것은 어쩌면, 여기서 한 종, 그것도 도망친 종인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형제요 동역자로 인정받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종이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대할지를 믿는 주인 빌레몬에게 맡깁니다. 짧게 말하면, 바울은 노예 제도와 직접 싸우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당시에 시작하기도 전에

진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노예 제도와와의 싸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 곧 복음을 통해 종은 이제 온전한 사람이며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복음은 모든 노예 제도에 대한 치명타입니다. 복음은, 안타깝게도 너무 늦기는 했지만, 노예 제도가 폐지된 이유입니다.

여기서도 복음이 자유를 가져온다는 것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의 노예 상태에서도(영적인 노예 상태에서만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새 창조에서는 더 이상 종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열매인 교회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안과 밖에 미치는 복음의 영향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그것들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교회 안에서 종과 종의 주인은 같습니다. 위계의 차이는 타락한 세상의 일부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위계 차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새 창조 안에서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8.3.3 노예 제도에 관한 정보

노예제 폐지론(abolitionism, 영어 **abolition**, 라틴어 **abolitio** “폐지”, “철폐”에서 온 말)은 노예 제도를 폐지하려는 운동을 가리킵니다. 기독교적 확신과 계몽주의적 확신 모두에서 힘을 얻어, 1761년 포르투갈에서 시작하여 1888년 브라질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서구 나라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1808년부터 영국은 노예 제도와와의 싸움에서 선구적 역할을 맡았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 1759-1833)는 영국의 의원이었으며 노예 제도와 노예 무역에 맞선 싸움의 지도자였습니다. 영국에서 중요했던 것은, 18세기와 19세기의 경건주의와 개신교 선교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해하는 것이 노예 제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자리 잡았다는 점입니다. 미국 남부 주들에서는 노예들이 계속 농장과 플랜테이션에서 착취당했습니다. 북부 주들이 나라 전체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1861년에 나라 안에서 전쟁(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북부 주들이 이겼고, 1865년 12월 수정 헌법 제13조로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노예 제도를 대규모로 상업화한 것은 유럽인들, 곧 기독교 유럽이었습니다. **예수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유럽에서 이것은 충격적입니다.** 그것을 폐지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렸고 그렇게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신매매가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여자들이 그 희생자입니다. 복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곳에서 그것에 맞서 일어서야 합니다.

8.3.4 남자와 여자

이제 세 가지 예 가운데 마지막, 이 주제와 가장 관련이 큰 예입니다. 여기에도 앞의 예들과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타락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더 강한 자, 지배자로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담으로부터 오늘날까지, 남자는 부당하게 여자에 대한 권위를 빼앗아 차별적으로 행사합니다.

복음은 이 관계에 어떻게 치유를 가져옵니까? 새 마음을 통해, 희생할 준비가 된 이타적인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피차 복종하고 신실하며 존중함으로써입니다. 남자들이 자기 아내가 마주 선 짝이며, 그녀 없이는 자기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복종을 고집하지 않고, 이타적인 사랑으로 자기 아내를 위해 나서고 싸우고 그녀를 보호하며 그녀와 삶을 나누는 남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들에게 기꺼이 복종하고 따르는 여자들을 통해서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결혼 관계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여, 남자와 여자가 몸과 마음과 영에서 서로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영혼의 구원에만, 하나님 가족의 하나 됨에만 연결하지 않고 더 나아가 생각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결혼이 왜 두 사람이 복음을 믿으면 다시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마음”만이 아니라 “새 마음”도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낡고 세상적이며 가부장적인 세계관이 십자가에서 끝나기 때문입니다. 노예 제도와 유대인의 독점적 지위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에도 바울은 이 타락한 가부장적 역할 이해와 직접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그래서 길게 보면 효과적으로 싸웠습니다. 남자와 여자에 대한 이런 관념이 기독교 안에서조차 끈질기게 유지되어 왔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수치입니다.

8.3.5 지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

카를하인츠 베버(Karl-Heinz Weber)는 새 창조에서야 비로소 “창조 질서”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믿는 사람이 땅에서 지니는 지상적 지위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일의 영역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창조 질서에 따라 자매들이 잠잠한 모임에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¹²²

122. Weber, 11-13

먼저, 왜 새 창조에서 “창조 질서”가 끝나야 하는지 묻게 됩니다. 바로 새 창조야말로 복되고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창조 질서를 지닐 것입니다. 곧 타락 이전의 질서입니다. 창조 질서와 그리스도 안의 구원 질서는 서로 모순될 수 없습니다. 구원 질서는 원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합니다. 거기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지위를 지닙니다. 복음은 치유하고 사회적으로 효력 있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물론 먼저 교회 안에서, 곧 먼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입니다. 그것은 광범위하고 긍정적이며 뒤집어엮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수천 년 된 죄의 구조를 풀어 버리고 문화와 민족 전체를 바꾸고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지상의 존재와 복음을 분리하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원론입니다. 그것은 사회 복음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멈출 수 없는 수직적 방향을 지닌 효력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수평적인 영향도 지닙니다. 복음은 구원에도 문화에도 관련됩니다. 물론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가 이 세상에서 온전한 효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놓아야 하고 그것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앤스티(Anstey)도 비슷하게 주장합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두 개념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갈 3:28)와 ‘모임에서’(고전 14:34)이다.” 하나는 하늘에서, 다른 하나는 땅에서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원히 그리고 모든 곳에서, 모임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구원이 의문스러워질 것이며, 그것은 그야말로 성경과 모순될 것입니다.

8.3.6 남자나 여자나 없으니

“사도가 구원에 따른 여자들의 남성화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그가 젠더 중립적인 교회론을 일관되게 지지한다는 데서 드러난다. 그 교회론은 사회적 신분, 민족적-종교적 출신, 성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원칙적으로 교회의 어떤 기능이든 맡을 수 있게 하는 교회의 실천으로 이어진다. 유일한 기준은 자격이며, 바울은 그것을 성령이 주시는 은사로 이해한다(고전 12장). … 흥미롭게도 젠더 범주에서는 더 이상 남자도 여자도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성’과 ‘여성’이라는 명칭으로 작업한다. 이것은 … 개인의 성별 귀속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교회 기능의 젠더 측면을 해체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이런 뜻이다. 예언하는 것은 남성적인 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니다. 교회를 지도하는 것은 남성적인 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남성적인 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니다. … 그리스도께 보냄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성적인 것도 여성적인 것도 아니다. 설교하는 것은 남성적인 것이 아니고 섬기는 것은 여성적인 것이 아니다 등등. 그래서 바울의 교회들에는 뱌뵌 같은 여성 집사(롬 16:1), 유니아 같은 여성 사도(롬 16:7) 등이 있다.

초대 교회의 비젠더(Non-Gender) 교회론이 ...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은 로마 교회가 보여 준다. 바울과 상관없이 생겨난 그 교회에서는 분명히 여성들의 무리가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바울은 마리아(롬 16:6), 드루배나, 드루보사, 버시(롬 16:12)를 언급한다.”¹²³

마틴(J. L. Martyn)은 자기 주석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종교적, 사회적, 성적 대립은 동등함으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하나 됨으로 대체된다. 그리스도 안에서(바울이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것 안에서, 고전 12:13, 27) 유대인이었던 사람들과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새로운 하나 됨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하나 됨은 그리스도 자신과 너무나 근본적으로 동일시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라는 말의 남성형을 쓴다.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다. 그들은 한 새 사람의 몸 안으로 받아들여진 한 인격이다.

다른 바울 서신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교두보인 교회 안에서조차 여전히 성적, 사회적 배제의 몇몇 표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도가 의식하고 있었음을 안다(예를 들어 고전 7장; 빌레몬서). 그러므로 그는 나중에 그리스도 안의 실제적인 하나 됨을 긍정하는 것과 옛 창조의 구별 표지들이 우려스럽게 계속되는 것 사이의 긴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했다.”¹²⁴

8.4 요약과 결론

마이클 버드(Michael Bird)의 말로 이 장을 요약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암시하려는 것이 아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목 위로만 보시고 그로써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구별을 지워 버리시는 것처럼 말이다. 거듭남은 우리가 언제나 단일한 성을 추구하고 교회에서 같은 화장실을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바울은 또한 이 가르침이 구원이나 영적인 일에만 해당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바울이 말하려는 것은, 새 창조가 과거에 사람들을 서로 갈라놓았던 구별들의 폐지를 뜻한다는 것이다.

123. Kügler, Joachim; Paulus und die prophetischen Frauen in Korinth, Zur Gender-Politik des Apostels (1Kor 11,2-16; Gal 3,26-28)

124. Martyn, J. L., Galatians: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33A, Anchor Yale Bible, New Haven; London 2008, 377.

여기서 그의 일차적인 대화 상대는 페미니스트나 위계 지지자들이 아니라, 자기 민족적 정체성의 특권을 지키려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 바울에게는 누구도 인종이나 계층이나 성별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더 가까이 있지 않다. 하나님은 두 가족이나 그 이상의 가족이 아니라 한 가족을 만들기를 원하셨고, 아브라함의 가족에는 모든 민족에서 온,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인 자녀들이 있다. 이것은 복음의 평등 원칙을 강조한다. 그 원칙에 따르면 아무도 자기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자랑할 수 없고, 그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더 낫거나 더 쓸모 있다고 여길 수도 없다. 갈라디아서 3:27-28의 일차적인 내용은 구원론(구원)에 집중하지만, 그것이 교회론(교회)과 성령론(성령)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여기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동등함만이 아니라, 세례의 끈으로 만들어지고 성령의 선물로 인 쳐진 교회 안의 하나 됨이다.”¹²⁵

여러 측면과 세부를 저울질해 본 끝에, 이 성경 말씀은 결혼과 교회에서 믿는 여자의 동등한 역할을 위한 강력한, 하나님의 논거입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은 이 구속의 진리에 비추어, 남자와 여자의 관계, 결혼과 교회에서 여자의 역할에 대해 말하는 다른 모든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면, 그렇습니다. 바울의 이 말씀은 마그나 카르타와 같습니다.

9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남성형으로 소개됩니다. 그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세상의 구원자는 남자입니다. 그분은 열두 남자를 자기를 따르는 사람으로 고르십니다. 여자는 없습니다. 성경의 모든 책은 남자들이 썼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남자들만 제사장이었습니다. 이것을 다 합하면 남자가 여자에 대해 더 높은 권위의 지위와 지도하는 기능을 지닌다는 것을 충분히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토록 많은 남성성은 우리에게 흔적 없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남성이신지 아닌지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상과 하나님 상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남자들에게는 여자들과 다르게 미칠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성경과 교회에서 남성 인물과 남성적 이미지와 언어를 이렇게 부각하는 것을 존 파이퍼(John Piper)는 기독교 신앙의 ‘남성적 느낌’이라고 묘사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를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겉보기에 분명한 이 메시지 속에 다른 메시지가 짜여 들어가 있는지 묻게 된다. 성경에서 남성 중심적¹²⁶이고 가부장적인 이야기들이 부각되는 것은 교회와 가정과 사회의 가부장적 구조를 분명히 지지하는 것인가? 아니면 본문들 속에, 성경이 이 가부장적 구조를 깨뜨리고 남자와 여자에게 관계의 다른 측면을 제시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끄는 다른 단서들이 있는가?”¹²⁷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삶과 십자가 죽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이요 완전하며 가장 깊은 계시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미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 이미 계시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그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이 1세기의 한 남자, 한 유대인, 결혼하지 않은 건축 일꾼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면, 저는 동시에 영원하신 분, 전적으로 다른 분이신 하나님이 예수에게서 볼 수 있었던 것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자신조차 우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앎은 부분적입니다. 맥팔랜드(McFarland)는

126. 남성 중심주의(Androzentrismus)란 남자를 중심과 기준과 규범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말합니다. 남성 중심주의는 남자나 “남성적인 것”에 대한 사회적 고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Wikipedia

127. Peppiatt,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Fresh Perspectives on Disputed Texts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으로 오신 로고스[말씀]가 육신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예수를 묘사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요 4:24).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본질적 특징이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용사, 왕으로 남성적인 방식으로 묘사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분은 때로 사람처럼 느끼고 행동하시기도 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신인동형론적¹²⁸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행동과 느낌을 사람에 빗댄 비교와 유비로 보여 줍니다. 이 이미지들은 하나님의 실재에 얼마나 가까울까요?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영이시며 시작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 한 남자가 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남자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몸을 지니지 않으셨으며, 그러므로 성별도 없으십니다.

9.1 하나님은 남성인가?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성별을 계시합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을 계시합니다. 그분은 인격이시며, 관계와 애정과 교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묘사되는 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경고하시고, 보호하시고, 힘을 주시고, 행동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하시며, 무엇보다 희생할 준비가 된 꺼지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깊은 감정을 지니고 계십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지만, 적어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도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여자와 남자로서 지닌 모든 능력을 지니고 계십니다. 사람의 이미지는 형언할 수 없는 분을 묘사하려고 애씁니다. 많은 것이 남성적인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을 부각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여성적 이미지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들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자도 아니시라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분은 성별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성적 이미지들은 에덴에서 육신이 된 것을 보여 줍니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자기의 존재와 성별 안에서 성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합니다.

하나님을 남성 문법으로 묘사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지만, 언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독일어나 다른 모든 언어에서 하나님을 남성도 여성도 아닌 것으로 묘사한다면, 중성 대명사 “그것”(es)만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비인격적이며 목적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128. 신인동형론(Anthropomorphismus, 헬라어 ἄνθρωπος anthrōpos ‘사람’과 μορφή morphē ‘형태, 모양’)은 동물, 신들, 자연의 힘 등에 사람의 특성을 부여하는 것(의인화)을 뜻합니다. 사람의 특성은 모양에서도, 행동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Wikipedia

성경 원어에도 같은 것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영을 가리키는 헬라어 *pneuma*는 중성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ruach*는 여성입니다. 독일어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에 대해 말할 때 “그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여성형 “Geistin”). 그러나 그것도 신적 위격들에 성별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눈에 뵈는 것이고, 아마 우리를 당황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남성 인칭 대명사에 익숙하고 다른 것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별에 관한 질문은 성경의 언어로도 현대의 언어로도 언어로써 밝힐 수 없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성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강조해야 하는 것은, 고대 근동과 고대 세계의 신들은 의도적으로 남성과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순환은 성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다산은 여신들의 이상이었습니다. 성은 제의들이 그 주위를 도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불리지 않습니다. 유대교 신앙에서도 기독교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은 영원한 우주적 리듬에 속하지 않습니다. 성은 창조된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을 ‘어머니’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엡 1:3)로 계시하신다. 또한 하나님은 마치 ‘남성성’과 ‘여성성’을 구현하시는 것처럼 아버지-어머니 복합체로 자신을 나타내지도 않으신다. ‘남성성’과 ‘여성성’이라는 개념은 성별의 성적 차이와 떼려야 뗄 수 없이 결합되어 있다. 성과 그 성별들은 이교적 우주론에서만 영원한 영적 원리이다.”¹²⁹

하나님이 성별이 없으시면서도 아버지로 묘사된다면, 이미지와 언어를 그냥 바꾸어 “어머니”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 오류 - 곧 하나님을 남성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 - 를 다른 오류로 바꾸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성 중립적으로” 번역한 *Bibel in gerechter Sprache*(정의로운 언어로 된 성경, 독일어 성경 번역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¹³⁰

하나님이 여성적 이미지보다 남성적 이미지로 훨씬 더 많이 묘사되기는 하지만, 거기서 성별에 대한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성적 이미지가 더 많고 남성적 언어가 쓰이는 것은, 성경이 기록된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였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129. R.K. McGregor Wright

130.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번역에는 언제나 해석도 담긴다는 사실이 여기서는 뒤집힌다. 해석이 번역으로 내세워지는 것이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성경 원리를 어기는 것이다. 정의는 성경의 중심 주제이다. 그러나 정의라는 관점에서 성경 본문을 비틀어, 분명히 열두 남자를 뜻하는 곳에 ‘여사도들과 사도들’이라고 써서 독자가 그 무리에 여자들도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을 받게 할 수는 없다.” 페터 하네(Peter Hahne)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터교 언론인으로서, 부활 신앙 때문이 아니라 근본주의적 페미니즘의 정신에서 나온 분파적인 특수 성경 때문에 회의적인 동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것은 영혼이 아픈 일이다.” Wikipedia, *Bibel in gerechter Sprache* 항목

있습니다. 성경도 역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오늘날을 위한 성경의 의미와 권위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9.2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십계명(출 20:4)의 이 계명은,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성별에 관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형상 금지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별을 배제합니다. 둘은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명한 자기 진술, “나는 나일 자로 있으리라”(출 3:14)에서도 성별, 곧 남성도 여성도 끌어낼 수 없습니다. 여성을 끌어내는 것은 페미니즘 신학의 몇몇 흐름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자주 부른다. 이것은 복수 명사(Pluraletantum)¹³¹ – 바로 남성적이지도 여성적이지도 않은 하나님의 다양한 속성들을 제대로 표현하려는 문법적 표현 방식이다. 언제 어디서나 고난과 고통의, 또 기쁨과 감사의 무한히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 상이 떠오르기 때문이다.”¹³²

9.3 여성적인 하나님 상

여기서 성경이 하나님의 여성적인 면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예를 들겠습니다.

자녀에게 젖을 먹이고 그들을 돌볼 책임을 진 어머니(민 11:12).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었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낳은 어머니(신 32:18).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거센 숨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는 그림인, 해산의 고통 중에 있는 여인(사 42:14). “내가 오랫동안 잠잠하고 조용히 참았으나, 이제 해산하는 여인처럼 깊이 숨을 몰아쉬며 혈떡이리라.”

이스라엘을 낳고 보호하는 어머니(사 46:3).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131. 복수 명사(Pluraletantum)는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입니다(예: 독일어 Ferien[휴가], Kosten[비용], Leute[사람들]).

132. Lapide, Pinchas, Ist die Bibel richtig übersetzt, Gütersloh, 2004, 202

너희여!”

젖 먹이는 아이를 잊지 않는 어머니(사 49:14-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자녀를 위로하는 어머니(사 66:13). “너희가 팔에 안기고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자기 아이들을 부르고, 가르치고, 붙들고, 고치고, 먹이는 어머니(호 11:1-4).

다른 어머니 이미지는 시편 131:2; 욥기 38:8, 29; 잠언 8:22-25; 베드로전서 2:2-3; 사도행전 17:28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여자들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활동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옷을 짓는 바느질하는 여인(느 9:21).

출산을 돕는 산파(시 22:9-10; 71:6; 사 66:9).

여종이 우러러보는 권위 있는 여주인(시 123:2).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 여인(눅 13:20-21).

성경은 암컷 새나 동물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 새처럼(시 17:8; 36:7; 57:1; 91:1, 4; 사 31:5; 신 32:11-12), 독수리처럼(신 32:11-12; 출 19:4; 욥 39:27-30), 암탉처럼(마 23:37; 눅 13:34; 참조. 룿 2:12), 그리고 어미 곰처럼(호 13:8)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하여 여성적인 것을 가리키는 가장 매혹적인 것 가운데 하나는, 잠언 1:20-33; 8:1-9:12에서 지혜를 여인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

9.4 아버지와 아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셋 안의 하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알려진 의미에서, 자기 아들의 아버지이시라는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안에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한 여자와 함께 아들을 낳은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영원하시며 시작이 없습니다. 이 언어는 신성의 첫째 위격과 둘째 위격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보여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 실재도 영원하신 아버지와 영원하신 아들을 남성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일은 드물거나 전혀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이 책의 틀 안에서 저는 이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곧 한계에 부딪히리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말입니다.

9.5 영원한 아들의 복종?

이 책에서 저는 여자의 위계적 복종이 언제나 타락의 결과이며, 원래의 타락하지 않은 창조에서는 의도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들에게 복종하라고 권할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의 상황이라는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자세히 서술했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미국의 보수적인 복음주의 안에서, 만일 성경 본문에 맞다면 위의 제 논증을 반박할 수도 있는 가르침이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것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서로 어떤 관계에 계시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몇 마디로 표현하면, 신성의 세 위격은 본질과 영광에서 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존재(존재론)에서 그분들은 같으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서로에 대한 관계와 창조에 대한 관계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께 복종하시고, 영은 아버지와 아들과 복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분의 자발적인 낮아지심 속에, 이미 영원 속에 있던 관계가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물으십니까? 아주 많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위계”가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에 따르면 타락하지 않은 창조에서 이미 분명한 동등한 가치를 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역할 분담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 분담에서 남자는 지도하고 다스리는 머리이고 여자는 그에게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창조에서부터 그렇게 지어졌다는 것이며, 거기서 결혼과 교회와 사회에 대한 잘 알려진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어권 기독교 사상과 문헌에서 이 생각을 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웨인 그루덤(Wayne Grudem)의 방대한 개혁주의 교의학과 함께 이 생각은 그 모든 결과와 함께 2013년부터 독일에도 들어왔습니다. “여기 결혼에서, 아버지가 삼위일체 안에서 아들에 대한 권위를 가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아내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 남편의 역할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나란히 있고, 아내의 역할은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나란히 있다. 게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신성과 중요성과 인격에서 같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남편과 아내도 그들의 인간됨과 중요성과 인격에서 같다.”¹³³

그래서 이 교의학에서는 말하자면 “영원한 무게”를 가지고, 곧 신성을 근거로 들어, 모든 여자가 장로직과 설교 사역 같은 지도하는 섬김에서 배제됩니다. 독일의 젊은 개혁주의 흐름들은 이 가르침을 위해 적극적으로, 거의 선교하듯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배제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적어도 1700년 동안 안타깝게도 교회사를 지배해 왔는데도, 이런 논거가 내세워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비교적 새로운 이 가르침은 여기서 논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생각할 거리 몇 가지만 제시할 뿐이며, 제 전체적인 고찰을 이 가르침에 기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과 2장이라는 제 출발점에 머무릅니다. 이 책에서 저는 그 빛 아래 신약의 관련 성경 본문들을 설명했습니다.

만일 아들의 이런 영원한 복종이 있다면, 곧 그분의 성육신 때부터만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해서 자동으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유비요 비교이지 필연은 아닐 것입니다. 아들이 사람으로서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제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의 가능한 영원한 복종도 시간 속의 복종도, 일반적으로는 결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와 역할을 묘사하는 본보기로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입니다. 예수의 낮아짐이라는 본보기는 물론 자주 강조되지만, 언제나 성별을 조금도 강조하지 않고 모든 제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강조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에 관한 신앙고백이나 가르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몇 세기가 걸렸고, 대개 거짓 가르침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탁월하게 형성하고 정식화하고 변호한 사람은 아타나시우스(4세기)였습니다. 오늘날까지 그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기독교 교리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에 관한 논쟁 속에서 이런 교리가 정식화되고 그로써 여자의 종속적 역할이 고정된다는 것이 제게는 이상해 보입니다. 여기서 “꼬리가 개를 흔든다”는 의심이 제게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성 역할의 문제를 위해 얼마나 무거운 신론이 동원되어야 합니까? 짚어 둘 것은,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창조될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133. GRUDEM, W., *Biblische Dogmatik: Eine Einführung in die Systematische Theologie*, XXIX, Theologisches Lehr- und Studienmaterial des Martin Bucer Seminars, VKW; arche-medien, Bonn; Hamburg 2013, 284–285.

아들이 오시고서야 비로소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에덴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 깨달음을 아직 담을 수 없었습니다.

신성에 대해 엄청나게 광범위한 진술을 감행하는 이런 확정을 저는 우려스럽게 봅니다. 그런 결론을 위한 단서들이 있다 해도, 이 가정에는 분명한 근거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 반대를 가리키는 단서들도 있습니다.

제4판에 덧붙이는 말: 이 가르침은 여러 방면의 거센 반대 때문에 그사이 철회되었습니다.



9.6 예수와 그의 열두 제자

예수는 메시아요 왕으로서, 인자로서 예언 속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남자로서 말입니다. 이 말씀들은 나사렛 사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은 가부장적인

가정에서처럼 그분을 새 창조의 머리로서 아담과 비교합니다.

알렉산더 스트라우치(Alexander Strauch)는 예수께서 남자여야 했다고 강조합니다. 그것에는 동의할 수 있겠지만, 것처럼 거기서 남성의 우위를 끌어내는 것은 그야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¹³⁴ **그분은 무엇보다 먼저 사람이 되셨습니다 - 말씀이 육신이 되셨지, 남자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설명과 이런 사고방식을 대표하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 철학이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떻게 스며드는 데 성공했는지를 보여 주는 한 예입니다. 그것도 경건의 외투를 걸치고 말입니다.

남성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때 문제는 남성을 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 그런 인상을 받는다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예수의 사역을 구원 역사적 기능과 구원의 기능으로 구별하겠습니다. 앞의 것은 그분이 남자일 것을 전제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데에는 성별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달리 말해, 날카롭게 표현하면, 여자도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열두 제자를 고르셨는데,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남자 중심의 문화에서 정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대표로서 그들은 남자여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남자 사도들을 택하신 것은 열두 유대인 사도를 택하신 것과 같은 이유에서였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만큼, 예수의 열두 사도는 예표적으로 이스라엘 열두 지파,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서 나온 열두 족장(야곱의 아들들)을 대표한다. Witt(위트)는 열두 남자 사도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예표적 연속성과 성취를 준다고 지적한다. **“열둘은 예표적 역할의 상징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종이나 여자나 이방인이 아니라 자유로운 유대인 남자여야 했다.”**”

열두 남자가 예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남자만 되어야 한다는 근거로 이것을 드는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거나 유대인 남자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이고 예언적이며 문화적인, 그러나 한 번뿐인 상황은 그분의 제자들이 남자, 곧 유대인이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든 민족으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교회를 위한 지침이나 규범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열둘이라는 수는 학생 열두 명의 학급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뒤에 남겨 두지 않는 메시아 운동의 포괄적인 성격도 가리킵니다. **바로 그 운동에 여자들도 속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열둘이 한 번도 남자들이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에서 모두가 배우는 사람, 모두가 제자였습니다. 예수 앞에서는 여자들에게 남자 자리를 벌 자리가 없었습니다.

134. Strauch, 42-44

남성 중심주의, 곧 성경의 대체로 남성적인 인식과 말투는 결코 여자들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자들이 뒤로 밀려나지 않습니다.

남자이신 예수께서는 여자들을 특별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여자들에게 그들의 존엄을 돌려주셨습니다. 리처드 보컴(Richard Bauckham)은 예수의 무덤에 간 여자들에게 대해 이렇게 씁니다. 여자들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로써 이 계시를 남자들에게 전하는 사람으로 우대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첫째로, 첫째를 끝까지 만드셔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 하시는 종말론적 신분 역전의 일부가 아닙니까?

9.7 결론

“우리의 결론은,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념이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적 성격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성경적 근거는 없다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이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처럼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분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시며, 둘의 결합도 아니시다. 성별을 지닌 신에 대한 관념은 다양한 이교적 관념에 고유한 것이지만, 성경적 기독교에는 없다.”¹³⁵

남자들과 여자들은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엘리야 같은 남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우리 남자들도 드보라, 라합, 룓이나 마리아 같은 여들과 똑같이 자신을 동일시합니까? 성경과 그 이야기들을 한번 의식적으로 여자들의 관점에서 읽어 봅시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의식적으로 읽고,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설교에서 전해 줍시다.

135. 같은 책.

10 나의 죄 고백

우리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저지른 잘못은 모두 합하면 큼니다. 대개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의식 속에서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논란이 되는 신학적 입장 하나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숨김없고 동시에 자신을 봐주지 않는 죄 고백으로 부름받았다고 느낍니다. 회개는 새 생명과 부흥의 기회입니다. 제 소망은, 주 안의 많은 형제들이 이 고백에 한 마음으로 함께하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의 자매들의 귀와 마음에 닿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이시여, 제가 여자를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낮은 지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요구하고 행동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주 선 쪽이 아니라, 저보다 한 계단 아래인 것처럼 말입니다.

주 예수님, 여자들은 잠잠해야 하고 공적인 자리에서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자들이 주님과 주님의 진리를 공적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생각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제 아내와 제 어머니와 제 친누이들과 주 안의 모든 여성 친구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모든 여성 동역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집회 시간에 함께 앉아 있던 모든 자매들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계적으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잘못된 태도를 용서해 주십시오!

중요한 논의와 문제들을 여러분 없이 의논하고 결정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습시다! 우리는 마치 우리 세계가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세계인 것처럼 우리만의 세계에서 살았습시다.

우리 남자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주,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한 채, 이기적이고 군림하며 차별하는 마초요 잘난 체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과 여러분의 부르심과 은사에 대해 눈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서는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비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남자답게 서서 앞장섰어야 했고 여러분이 마땅히 그것을 기대했던 곳에서, 우리는 여러분을 앞세우고 여러분에게 기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들었던 것, 여러분이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에게 그것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태도와 가르침에 대해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는지 묻지 않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자유로우십시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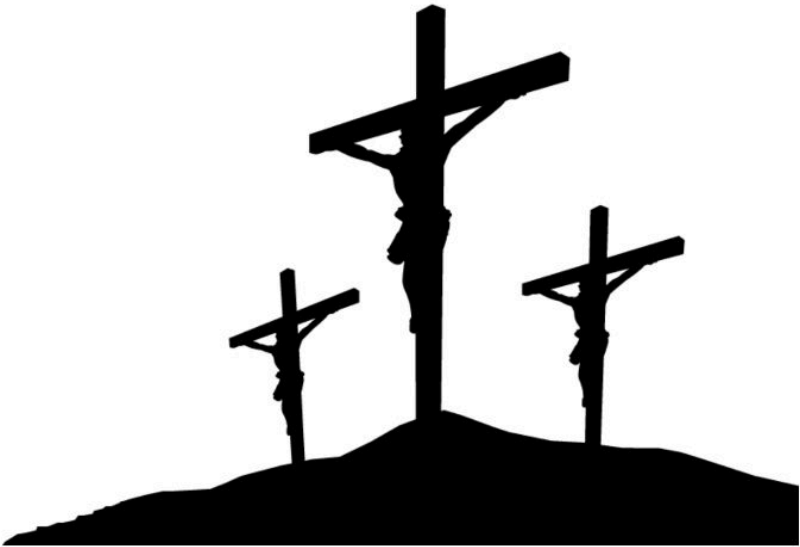
지금의 상태에 익숙해지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전통이 바뀌는 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지금 시작하려 하며 더 이상 미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지지하겠습니다 - 우리가 한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언제나 그렇게 해 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이 용서와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곳은 자기가 용서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인 자리입니다. 여호와 엘로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곳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서로 만나 서로에게 용서를 말해 주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양심을 비추시고,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개가 유일한 다음 걸음일 때, 십자가 앞의 그곳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기 위해, 자유와 치유를 위해 말입니다.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 여성 친화적인 사고방식으로 옮겨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세계와 그 작동 방식에 대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서로의 관계와 우리 우주와의 관계에 대해 이해한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새롭게 그려 보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지구 중심의 우주 이해에서 태양 중심의 우주 이해로 넘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변화이다.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처음 제안한 과학자들은 파문당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위협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지배받고 체계와 제도를 남자들이 조직하고 이끄는 것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는 가부장적 세계관에서 벗어나기는 매우 어렵다. 동등한 권리를 지닌 평등주의적 세계관은 여자와 남자를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보는 세계관이다. 그들은 권력을 나누고, 서로의 은사를 알아보고 복돋우고 풀어놓는다. 그리고 서로를 같은 존중과 같은 존엄으로 대한다.”¹³⁶

“복음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여자들을 후견 아래 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들을 마비시키는 가부장적 역할 이해가 불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말할 수 없는 손해를

136. Reid, Barbara E., 7쪽, Wisdom's Feast, 2016

끼쳤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것이 결코 비열한 동기에서, 권력 다툼의 정신에서, 하물며 의도적인 비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흔히 성경에 대한 비극적인 오해 때문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이제는 존엄을 해치는 전통에 용기 있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에서 돌아설 때이다. 그래야 여자들도 자기 발을 ‘넓은 곳’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구속을 마침내 감사함으로 경험할 수 있다.”¹³⁷

“속이 건강한 남자는 자기 곁의 여자를 사랑으로 그녀의 부르심 안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할 것입니다.” 베로니카 슈미트(Veronika Schmidt)

고칠 수 없는 병처럼, 오래되고 단단하고 깊이 뿌리박혀 사방으로 퍼진 잡초처럼, 그리스도인 남자들의 여성관은 처음부터 그들 주변 세계의 메아리였고, 안타깝게도 그들 마음의 메아리이기도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노골적으로, 온건하게, 심지어 다정하게 살아 내든, 오직 자유롭게 하는 성경적이고 그로써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137. Krüger, Hartmut, 183쪽, Frauen im Pietismus, Marburg, 2005

11 결론과 전망

제 경험에서,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서, 저는 “여성 문제”(거의 남자들만 이것을 그렇게 부릅니다)에 대한 태도에서 사고방식, 교회 환경, 출신 배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여자들이 잠잠하고, 그것도 확신에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에서는 이런 행동 방식이 없어지리라고 인간적으로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고의 틀이 여러 세대에 걸쳐 형성되어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요새입니다. 그런 집단에서 이런 습관과 전통을 바꾸는 것은 “세계의 법칙을 흔드는 일”처럼 보입니다.

물론 모든 것이 “성경에 충실함”과 순종으로 근거 지어집니다. 다만 실제로 성경에 충실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성경 해석에 충실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틀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자들이 집사나 장로가 될 수 없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모든 지도하는 역할이나 그 가운데 일부에서 배제된 곳 말입니다. 여자들이 설교하거나 가르칠 수 없는 곳도 그렇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평등과 동등한 권리에서 우리 사회(질서)와 입법이 보수적이고 성경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보다 더 성경적일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젠가 동등권에 관한 법과 한 성별에 대한 차별 금지가 모든 영역에서 - 보수적 성향을 지닌 복음주의 교회와 자유교회에서도 - 여자들을 위한 같은 권리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쩌면 여성 할당제를 요구한다면요? 그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우리의 가부장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세적인 관점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 고난을 받을 만한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감옥에 갈 만한 무엇입니까? 물론 국가는 교회 안의 일을 정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나서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와 여자의 역할과 관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아직도 이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이해는 성경이 아니라 문화와 사회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 깊은 연관을 깨닫겠습니까? 세상을 정죄하면서 동시에 세상의 행동 양식을 성경적인 것이라고 선언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자유와 원래의 창조 질서는 언제 오겠습니까? 그 질서 안에서는 성별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에서의 섬김과 사명과 부르심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은사, 자격, 성품과 신실함, 그리고 인격과 교육이 결정합니다. 그저 영적인 역량입니다. 섬기려는 마음과 겸손, 마음을 다한 헌신과 영적인 권위 말입니다. 그 권위는 지시되거나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자들의 역할을 영적이고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정하고 잘라 낸 모든 교회에 복의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저는 제 책임을 다했으며, 성경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서 나온 형식들과 거리를 둡니다. 그리스도인을 자신이, 제가 속한 남자들이 교회 안으로 “세례를 주어 들여오고” 경건한 것으로 만든 관점들입니다. 바로 이것을 뱀, 곧 유혹자가 해냈습니다. 여러 곳에서 여자들의 없어서는 안 될 기여를 억누르거나 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기능하는 것도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여자들을 대하신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와 새 출발을 주십니다. 이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만 회개를 통해서만 그렇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꿀 때에만 우리는 뱀의 독과 싸울 수 있습니다. 뱀은 그 독으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온 세상을 속여 왔습니다. 곧 남자가 여자에 대한 권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려난 생각의 전환은 한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쉰여섯 살에 이 글을 씁니다. 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년 전이었다면 저는 이 글을 아직 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도 고발하지 않습니다. 고발한다면 이 문제에서 40년을 잃어버린 저 자신을 고발할 뿐입니다. 바울은 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이킨 직후 아라비아에서 3년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여성관과 관련해서도 바리새적 사고의 짐과 잔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이 치유와 해방은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회복시키고 바로잡고 치유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의 건강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하는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라는 신화에서 해방된다면 말입니다. 교회들이 마침내 자기의 온전한 잠재력을 쓸 수 있다면 말입니다.

이 주제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반사적 반응과 적의 이미지를 이제 그만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아내와 딸, 우리의 어머니와 친누이와 영적인 자매들은 하늘의 생각입니다. 그들을

건드리고 그들에게 침묵을 선고하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큰 날에 여호와 옐로힘께서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드려야 할까요?

버티자는 구호는 그런 반사적 반응의 하나입니다. 말씀에 머물자! 그런데 사람들은 “말씀에 머무는 것”과 “자기의 말씀 이해에 머무는 것”을 혼동합니다. 우리 남자들은 행복하고, 옛 뱀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는 전망이 있는 가장 좋은 깨달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적이고 그래서 죄된 질서를 위해 싸우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해방되면 남자들도 해방됩니다.

주 하나님, 여호와 옐로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성경 본문의 문화적 배경을 무시한다고 해서 본문의 문자를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의 문자가 자기 시대의 문화적 확신을 투사하는 스크린이 된다.

많은 복음주의자에게 영원한 성경의 진리로 선포된 것은 사실 19세기와 20세기의 산물이다. 누구든 확인해 볼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확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고백을 관철하는 것을 연습해 왔다면, 논란이 되는 문제에서 서로 다른 입장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것조차 어떻게 배울 수 있겠는가?

토르스텐 디츠(Thorsten Dietz)

11.1 참고 사항과 조언

이 논쟁 앞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그 결론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들의 큰 문제 하나는 은혜의 본질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깊은 오해입니다. 율법주의와 전통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혼동하는 한, 변화에는 언제나 분열이 뒤따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의 오류를 분명히 지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 가르침을 자유주의적이라고 여기겠지만, 그것은 사실 바울이 한 일을 되풀이하는 것일 뿐입니다. 바울은 생애의 대부분 동안 모세의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유대주의 교사들을 바로잡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따라 구약의 신학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남자만 제사장이 되는 것, 형식과 겉모습을 지키고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 실수에 대한 두려움, 맹목적인 순종 등)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이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도 생각의 급진적인 변화가 편안해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새 안경 처방을 받으면, 새롭고 더 좋은 렌즈가 며칠 끼기 전까지는 오래되고 흐릿한 렌즈보다 오히려 더 나빠 보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실천은 새로운 교리 이해를 경우에 따라 몇 년 뒤에야 따라올 것입니다.

분열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니지만, 그 위험은 매우 큼니다. 교회들이 율법주의를 거부하고 십자가로 돌아서지 않으면 갈라짐과 분열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일한 다른 해결책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자기 자녀들까지 잃는 것입니다.

변화는 필요하고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자의 절반이 훨씬 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권리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권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권리”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일꾼이 필요하시기 때문입니다. 굶주린 사람들은 먹여야 하고, 아이들은 길러야 하며,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그토록 많은 지체에게 교회의 결정이나 지도에 참여할 권리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사탄의 군대 앞에서 스스로 무장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적군과 마주 서 있는데, 군대 규정을 어길까 두려워 뒤돌아서 자기의 가장 뛰어난 장교들 대다수의 무장을 해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사탄을 대적할지를 걱정하고, 자기의 지도자, 교사, 대변자, 관리자를 고르시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대부분의 바리새인의 마음은 바꾸지 못하셨지만, 세계의 역사를 새로 쓸 만큼 충분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릴 수 있을 뿐입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참된 변화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힘을 새로운 방식으로 쓰고, 다른 사고의 틀과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될 때 옵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사랑하고, 이끌고, 가르치기

함께하면 더 좋습니다!

같이하면 더 좋습니다!

더불어 하면 더 좋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넓은 곳에서 다니리이다.

시편 119:45

12 차이

저는 메릴린 B. 스미스(Marilyn B. Smith)가 쓰고 잉그리드 케른(Ingrid Kern)이 엮은 책 *Ohne Unterschied; Frauen und Männer im Dienst für Gott*(차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와 남자), 2005에서 두 가지 정리표와 도식을 스캔했습니다. 그것들은 상호 보완성에 대한 두 입장, 곧 한 번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위계 또는 일방적인 복종이 있는 입장, 한 번은 그것이 없는 입장이 어떻게 이해되고 근거 지어지는지 잘 보여 줍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위계 모델**과 **은사 중심 모델**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이 두 모델을 보여 드리는 것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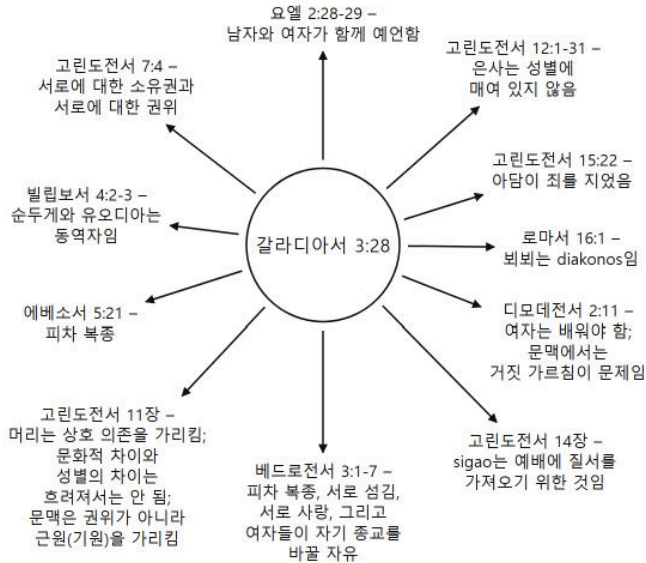
12.1 은사 중심 모델

구속에 대한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제합니다.

<i>‘ezer k^enägdo</i>	대등한 돕는 배필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서로에게 알맞은”을 뜻함
<i>kephale</i>	머리가 “근원”을 뜻함
<i>authent^ein</i>	드물게 쓰이며 지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됨
<i>sigao</i>	주의 깊게 듣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용히 있는 것을 뜻함
<i>hypotasso</i>	자발적으로 자리를 잡고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을 뜻하며, 피차 복종이라는 맥락에서 쓰임

핵심 본문으로 갈라디아서 3:28이 제시됩니다. 이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며, 영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우리의 새 정체성을 날마다 살아 내는 일은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삶의 영원한 실재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사 중심 모델을 뒷받침하는 신념들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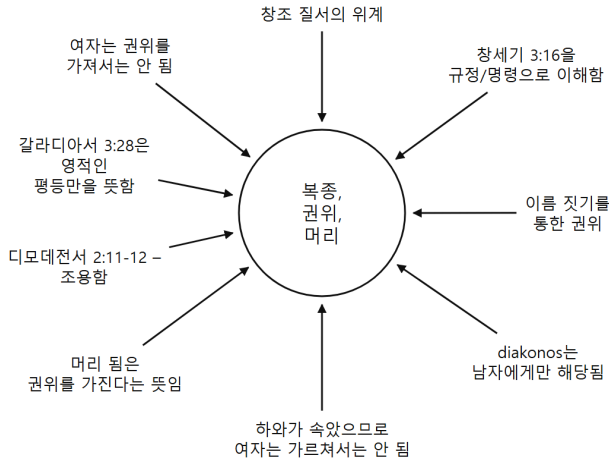


남자와 여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서 살고, 성별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누어 주신 은사를 바탕으로 그 공동체를 섬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본질은 피차 복종과 서로에 대한 책임에 있습니다. 모두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자신의 은사로 서로 세워 주는 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12.2 위계 모델

부록 B

위계 중심 모델을 뒷받침하는 신념들의 요약



여자는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것처럼 남자에게 복종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주의자들은 여자가 남자에 비해 열등하지 않지만, 영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면서도 다른 과제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이는 그들의 과제가 성별에 따라 정해진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성경적 근거는 "머리"가 권위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권위)이시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권위)이므로, 여자는 복종해야 하고 남자에 대해 권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를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설교해서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전통주의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전제합니다.

<i>'ezer k'nägdo</i>	대등한 돕는 배필이 "종속된"을 뜻함
<i>kephale</i>	머리가 "권위"를 뜻함
<i>authentein</i>	"권위"로 번역됨
<i>sigao</i>	"말해서는 안 된다"를 뜻함
<i>hupotasso</i>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뜻하며, 교회에서는 "남자들에 대한 여자들의 복종"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짐

핵심 본문으로 제시되는 것:

에베소서 5:22 (복종)

디모데전서 2:12 (나는 허락하지 않는다)

에베소서 5:23과 고린도전서 11:3 (머리)

(갈라디아서 3:28은 오로지 영적으로만 해석됩니다. 칭의 교리의 중요한 진술로 보지만, 삶의 실제에는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13 여러 독자의 맺음말

원고를 비판적으로 읽은 뒤 개인적인 글을 보태 준 몇몇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그 글들은 제게 빠진 것을 채워 주고, 제가 스치듯 지나간 것을 깊게 해 줍니다.

13.1 자유로운 시야가 가려졌다!

우리는 왜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쓰려 하고, 또 써야 할까요? 모든 것을 뒤엎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Hans-Jörg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위치와 역할을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요.”

이 질문이 우리 삶에서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교회의 틀에 매여 있었고, 거기서는 모든 것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조용히 흘러가는데 여자들의 종속적이거나 잠잠한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역효과를 낳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견해와 의견을 곧바로 내놓거나 관철하려 하는 반항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난날, 특히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거나” 아주 인간적이고 피상적인 대답만 들었던 방식들은 견디고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곁에 있는 Hans-Jörg는 무엇보다 성경을 탐구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 남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한다는 것은 큰 풍요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 질문이 있는 것은 언젠가 다시 새롭게 연구합니다.

굳어진 견해와 의견에 다시 의문을 던지고, 그것이 지금까지의 제 삶과 실제로는 맞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의 교회 모임에서 여자들은 소리 내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어릴 때 왜 그런지 한 번쯤 물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다는 대답이 그때는 충분했고 더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살아왔습니다. - 그 때문에 교회 생활의 내용에 대한 제 개인적인 참여는 수십 년 동안 매우 수동적이 되었습니다. 예배에 이바지하는 모든 일은 전부 남자들이 맡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도 저는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여자로서 저는 거기에 아무 책임이 없었습니다.

오늘 저는 주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스스로 묻습니다. 하늘과 땅을, 모든 남자와 여자를, 모든 동물을 지으신 그분은 우리 사람들이 그분의 형상이 되기를, 그분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그분 앞에서 동등하기를 바라십니다. 은사 테스트를 해 보면, 누구나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고 누구나 모든 일에 강점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 저를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힘 있게 지으신 창조주께, 예배 / 교회 모임에서 제가 드릴 말이 아무것도 없다면
-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여자의 삶과 역할을 정말로 뒤집어 바꾸어 놓으셨고 - 저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그분의 구원 사역의 큰 부분 - 여성인 부분 - 그분 창조의 절반이 예배에서 그것에 대해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저는 제 수동성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제가 자라며 몸에 밴 것을 이겨 내고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남자 여러분이 여자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누구에게 돕는 이가 될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에 관해 말하자면, 우리는 남편과 아내로서 기쁨칠이 잘된 기계처럼 함께 삽니다. 중요한 결정은 함께 내립니다. 제 은사와 과제에 관한 결정은 저 혼자 내리기도 합니다. Hans-Jörg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이야기하고 나눕니다. 사랑과 존중은 상호적이며, 한 줄을 함께 잡아당기고 한 방향을 향합니다. 우리는 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문화사를 읽으며 중세부터 온갖 시대를 거치는 동안 여자들에게 어떤 역할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지 확인할 때면, 저는 슬퍼지고 오늘날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게 됩니다. 여자들이 공적인 자리에도, 교육에도, 중요한 결정에도 아예 나타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때때로 변화와 바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의 영역과 형성 배경에서는 역할 분담의 방식이 아직도 아주 깊이 박혀 있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호수를 산책하다가 눈에 들어온 그림 하나가 떠오릅니다. 호숫가 길에는 군데군데 벤치가 있습니다. 잠시 쉬려고 앉으면 호수를 바라보는 경치가 덩불과 나무로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글을 쓰면서 이런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호수와 벤치는 여전히 있습니다 = 창조와 인간의 본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 다만 경치, 곧 창조주가 처음에 생각하셨던 것이 덩불과 나무 때문에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벤치가 그 자리에 놓인 좋은 이유였던 경치가 다시 트이게 하려면, 마구 자란 덩불과 나무를 치워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대해 우리가 자라게 내버려 둔 결가지들도 치워야 합니다.

크리스티네 론스도르프(Christine Ronsdorf), 알고이 지방 줄츠베르크

13.2 무엇이 가능했을까!

“‘여성 문제’에 관한 책이 또 하나 …” Hans-Jörg Ronsdorf가 보내 준 출간 전 원고를 받고 제가 보인 첫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훑어본 뒤 그 접근 방식에 너무 흥미가 생겨 읽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장 배경은 저자와 비슷합니다. 저는 ‘폐쇄 형제단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남자들만을 위한 ‘청년 형제 모임’이 있었고, 젊은 여자들은 ‘뜨개질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경건회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가르치지 않고, 신학적 질문에 대한 토론에 끼지 않으며, 교회에서 잠잠합니다. ‘아멘’이나 4부 찬양을 할 때만 빼고 말입니다. 당시 ‘폐쇄 형제단 교회’의 전국적인 지도자였던 한 형제가 제 고향 교회에서 한 설교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는 ‘여성 대회’라는 주제를 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자들이 대회에 가 있고 남자들이 집에서 유모차를 밀어야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아니 제가 훨씬 더 일찍 스스로에게 던졌어야 할 질문입니다. 깨달음에서였던 사회 전체의 압력 때문이었든, 지난 수십 년 동안 보수적인 (형제단) 교회들에서도 상황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청년 모임, 가정 모임, 그리고 여자들이 제 젊은 시절과 다르게 인식되고 대우받는 다른 기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그 길을 조금 더 가서, 여자들에게 그들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교회 일의 몇몇 틈새에서 섬길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형제단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 다비(Darby)와 그의 동료들은 모든 신자의 만인 제사장직이라는 원칙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논쟁을 마다하지 않던 다비는 국가 교회들의 성직주의와 선을 그으며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I believe the ‘Notion of a clergyman’ to be the sin against the Holy Ghost in this dispensation”. 대략 “성직자 계급을 세우는 것은 이 경륜 시대에 성령을 거스르는 죄이다”라는 뜻입니다. 형제운동의 신학적 중심에 있는 이 명제는 실천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성령의 인도와 자유라는 큰 유익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신학 공부를 하고 안수받은 자’라는 기준으로 교회 안의 섬김을 제한하던 것만 풀었을 뿐, “남성”이라는 기준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Hans-Jörg Ronsdorf가 그려 낸 것과 같은 ‘큰 그림’(big picture)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안에서 여자의 역할을 어떻게 바꾸는지 깨달았더라면, 무엇이 가능했을까요? 형제운동이 “우리는

다 형제”라는 것을,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단호히 주장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그런 발견과 그 실천을 통해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이 세상을 얼마나 정복하고 꿰뚫을 수 있었을까요? 세속적 페미니즘이 부분적으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그 일을 하던 시대보다 훨씬 앞서서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비의 문장을 일부러 도발적으로 새롭게, 다르게 쓰고 싶습니다. “여자들은 잠잠해야 하며 남자들처럼 가르치고 섬길 수 없다는 생각은 우리 시대에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바울은 “남자들”이 아니라 “사람들”(anthropoi)이라고 씁니다! 이것을 살아 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교인의 50%가 넘는 사람들의 풍성한 은사와 부르심이 깨어나고,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성장이 시작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기회에 아내와 함께 기꺼이, 자주 섬깁니다. 믿어 주십시오. 아내는 어떤 것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 가르칩니다. 그리고 같은 것을 제 교회 환경의 많은 여자들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제게 이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의 여자’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자들에게 마련하신 자리를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는 이것을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여자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조건을 정하는 것은, ‘공식적인’ 섬김이나 영적 직분을 맡을 여자들의 권리도, 그 직분에서 남자들과 동등한 권리도 아니다. 그것을 정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다 -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권한을 받은 그들의 인간적 능력에서 나오는 의무이다”(“How I Changed My Mind About Women in Leadership”에서). 이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을 기뻐하며,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이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고 기쁨으로 이렇게 말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형제다!”

롤프 슈티허(Rolf Stücher), 베스터발트 잘츠부르크

“여성 문제”와 “형제자매의 사랑”

“여성 문제”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에 너무나 많은 다툼과 깨어짐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논쟁거리 때문에 서로 머리를 깨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나 “물론 아니지요!”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이 슬픈 현실일까요?

우리는 이 맺음말에서, 이런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도 영적으로 사랑 가운데 건설적으로 함께 토론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자고 열렬히 호소하고 싶습니다. Hans-Jörg와 그의 아내 크리스티네(Christine), 그리고 함께 아는 친구들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여성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관점이 있었는데도, 우리는

이렇게 사랑스러운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데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여 대화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다음 성경 말씀이 실제로 살아 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여자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나눌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고 젊은 무리입니다 - 거의 모두가 20세에서 40세 사이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서로 아주 다른 가르침의 배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두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대개 나이 들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보다 자기 확신에서 더 극단적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그분께는 가능하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랑 어린 인도를 기대해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을 늘 다시 되새깁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과 그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고, 겸손하며, 자기만 옳다고 고집하지 말라!

이 주제와 건설적으로 씨름하려 한다면 - 우리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첫째, “여성 문제”가 “형제자매의 사랑”에 비해 어떤 비중을 지니는지 늘 다시 의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아주 실제로 사랑하라는 많은 권면보다 우리의 교리적 확신을 앞세운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있을 의견 나눔에서 이 사랑이, 형제자매의 양심을 무시하고 행동하지 않으며 더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으로 나타나도록 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본문들을 가능한 한 선입견 없이 살펴보고, 비판적인 질문에도 열려 있으며,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 살아온 해석 전통이 실제로 바로잡혀야 한다는 공동의 깨달음에 이를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열려 있고 이 주제와 서로에게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열매 맺는 나눔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우리의 우선순위 목록 맨 위에 늘 두고 싶습니다.

서로 아주 실제로 사랑하라는 공동의 사명을 살아 내는 것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읍시다!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께로 얻읍시다.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헬렌 & 마티아스 뉘저(Helen & Matthias Dünser), 알고이 미센

13.3 변화

우리는 2015년 12월부터 크리스티네와 Hans-Jörg Ronsdorf를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Kirche für Alle”(모두를 위한 교회)라는 선교적 비전을 우리와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한 팀과 함께 나란히 “Kirche für Alle e.V.”라는 단체를 세웠고, 그 뒤로 캠프텐의 공공장소에서 창의적이고 전도적인 행사를 많이 열었습니다. 함께 지도한 이 5년 동안 우리는 부부로서, 가족으로서 서로를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론스도르프 부부를 알게 되었을 때, Hans-Jörg는 이미 영적인 변화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셨고, 깊이 박힌 형성 배경과 확신을 뒤흔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변화 과정을 생생하게 함께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의 신학적 확신 때문에 우리와 함께 일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몇 해 동안 우리는 특히 성경에 대한 Hans-Jörg의 열정, 그의 배경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 신학의 근본 질문과 씨름하는 그의 정직함을 매우 귀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보다 하나님께 더 매여 있으며, 비판적인 주제 앞에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의 형성 배경, 그의 교회 이력, 그리고 바로 이 진정성 있는 태도가 “성경 속 여자의 역할”이라는 도전적인 주제와 씨름한 그의 작업을 이토록 특별하고 흥미롭고 읽을 만하게 만듭니다.

이 책은 신학의 미시적 관점에 얽매이지 않고, 알맞은 높이에서 역사적, 문화적, 성경적 연관을 보여 줍니다. 그 연관을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의 해석을 새로운 빛 아래 놓습니다.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Frauen, vergebt uns!)는 우리 자신의 형성 배경과 신학적 깨달음을 시험대에 올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 여자들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한 깊은 존중 속에서 이 책이 생겨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었고, 이 용기 있는 책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에 나눈 깊고 좋은 많은 대화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Hans-Jörg와 크리스티네.

토비와 다니엘라 슈트릭커(Tobi und Daniela Stricker), 알고이 캠프텐 근교 비겐스바흐

14 마지막 변론: 여성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¹³⁸

한 자매가 제게, 이 질문에서는 신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소녀들과 여자들, 그들의 존엄과 인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저는 이 주제 전체를 남성의 관점에서 봅니다. 그것은 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들을 위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위계적-종교적 구조(상호보완주의)가 많은 여자들 안에서 무언가를 상하게 하거나 무너뜨렸을까 봐 두렵습니다. 제 책에 대해 받은 몇 안 되는 반응들이 이런 평가를 확인해 줍니다. 드러나지 않은 수는 더 클 것입니다. 특히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에서 자라면서도, 자기 교회 환경에서는 고대의 성 역할 모델로 “가르침을 받는” 젊은 여자들과 소녀들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양면성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14.1 몇 가지 (금지된) 섬김이 문제가 아니다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여자들이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여자들은 이미 그것에 익숙해졌고, 그것이 언젠가 바뀔 수 있다는 기대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흔히 이런 구조와 규칙을 자신을 위한 성경의 진리로 여기며, 스스로 이 명제들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진리를 깨닫기 위한 건강한 씨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바로 이 깨달음이 초대 교회 이래로 아무 도전도 받지 않고 이어져 왔다고 생각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많은 주제에 해당됩니다. 때로는 주제를 처음부터 다시 하나하나 짚어 보아야 합니다.

제목의 질문은, 제가 제 책(제목: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과 글들로 이런 “페미니즘적인” 질문을 거듭거듭 제기하는 것에 대한 거의 짜증 섞인 반응입니다. 제 생각에 이 질문은 이렇게 말하려 하거나 문제를 가볍게 여기려 합니다. 자매들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가정에서 함께 일하고 자기 은사를 펼칠 과제와 기회가 그렇게나 많은데, 설교하거나 가르치거나 지도할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차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가 이미 정해 놓은 대로 누구나 자기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 그림을 보려고 하면, 문제는 여자에게 허락되지 않는다는 두세 가지 섬김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여성관 전체입니다. 이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질문 138. 이 장은 새로 덧붙였습니다.

뒤에는, 여자가 아담을 위한 (복종하는) 도움으로 지음 받았으며 위계적으로 그에게 딸리고, 그 아래에 있고, 그 뒤에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많은(모든 여자는 아니지만) 여자들이 겪는 문제의 뿌리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깊이 숨겨진 불안, 부당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와 똑같이 존중받지 못할 때 말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건하게 미화된 율법적 경계 안에서(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은 안 되는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때 말입니다. 여자의 역할에 대한 이런 관점은 주 안의 많은 자매들에게 괴로운 질문과 자기 의심을 남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고 주입받는 한, 그들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지 묻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완전하시다면, 왜 여자들은 그리스도인의 결혼 안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교회 안에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제한을 겪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언제나 선하며, 그분은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은 (적어도 신약에서는) 언제나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는 그럴듯함이 전혀 없습니다!

14.2 남자들이 느끼는 것과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것은 우리 남자들이 그런 식으로는 알지 못하는 감정입니다. 남자들이 더 약한 쪽인 경우는 드뭅니다. 이제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민감해져야 할 때입니다. 어떤 남자들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여자들의 이런 열등감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 주제에서 감정이 이토록 격해지는 진짜 이유는 어쩌면 성경에 충실함보다는, 자기의 지도적 역할, 자기가 머리라는 것이 의문시되는 데 대한 자존심 때문이 아닐까요? 어쩌면 무의식 속에서만 그럴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아내가 남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는 것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다르게 보고 살아왔다면, 이 깨달음은, 만일 찾아온다면, 지진과 같습니다. 잘못을 깨닫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공동생활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길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14.3 여성 문제에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저는 감정이 이토록 격하게 실린 주제를 알지 못합니다. 마치 생사가 걸린 문제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의 인격, 그분의 신성과 구속 사역 같은 주제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문맥을 살피고, 바로 성경의 크고 온전한 그림을 살피면, 바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전제합니다).

여성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우리는 이 주제 전체를 디모데전서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두(!) 구절을 통해 봅니까? 다른 중요한 교리 문제에서도 성경을 이렇게 두 구절로 좁혀서 읽고 판단한다면 어떤 기형적인 교리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자료 전체를 건강하고 그럴듯한 관계 속에 놓고 저울질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건강한 교리가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읽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분, 곧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놓칩니다(요 5:39).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성경은, 여자들을 자유로, 배움으로, 고백과 증언과 경배로 이끄신 분을 증언합니다.

여자들에 대한 성경의 전체 그림을 귀히 여기기 시작합시다. 잘못 이해된 바울의 두 마디로 그것을 해석하지 맙시다.

14.4 감수성

많은 여자들은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볼 때, 무언가 맞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이끌고 머리가 되어야 하는, 또는 그러기를 원하는 남자들이 실패하는 것을 볼 때 그들에게는 더 어려워집니다. 여자들과 달리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역할을 맡기셨다는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주 아내들이 뒷수습을 떠맡아야 합니까.

이것이 제 책에 대한 반응들에서 제가 받은 인상입니다. 이 책의 제목은 엄청나게 큰 공백을 채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공백입니다.

물론 저는 -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것을 알 수 있는 한에서 - 이런 종류의 위계가 사랑 안에서 살아 내지는 결혼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위계가 옳고 거룩하다는 증거입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어떻게든 돌아가니까 옳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성 문제”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상과 인간상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의 모든 방해와 일그러짐을 뿌리 뽑고 바로잡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과제를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잘못된 그림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이 박혀 있고, 많은 사람에게 게다가 하나님의 진리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은 시대정신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의 이 지역에서 21세기의 시대정신이 아니라, 지난 20세기와 19세기의 시대정신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아내들을 사랑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이 잘못되고 흔히 차별적인 역할에서 사랑으로 이끌어 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들에게 마땅한 자리를 그들에게 내어 주고 열어 줄 것입니다.

여성 문제는 사실 깊은 의미에서 남성 문제입니다. 우리 남자들이 스스로를 문제 삼아야 합니다! 신약을 위계적으로, 때로는 가부장적으로 읽은 책임이 도대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자들은 성경 해석의 주권을 차지했고, 그것이 자기들만의 전문 분야라고 믿습니다. 이 얼마나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일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성별에 따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행동 때문에 여자들의 수많은 은사가 잊히고, 억눌리고, 꺼지고, 간과되고, 약해졌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를 지도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은 남자들입니다 - 여자들은 거기서 발언권이 없으며, 있다 해도 남편을 통해 비공식적으로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들은 자기들의 지도자 모임에서 아내의 의견을 따른다는 것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14.5 내가 말하려는 것이 아닌 것

이것은 교회의 현대화(공간과 건물의 문제가 아닙니다)도 아니고, 시대에 발맞추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예수께 충실함이며, 그것이 성경에 충실함입니다! 현대화가 아니라 여성 문제에서의 종교개혁입니다. 여성 문제라는 이 미심쩍은 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쓰자면 말입니다.

문제는 신학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주제는 그런 데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엇보다 주 안의 자매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각자의 관점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결혼과 가정에서 삶을 강하게 빚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쟁만이, 이의 제기만이, 예언자적인 말만이 이 주제를 새롭게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대화와 건설적인 토론 없이는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14.6 갈라설 이유?

이 문제에서 감정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하게 되며, 그것은 흔히 갈라섬, 분열, 분립으로 끝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는

일이, 다른 이들에게는 그런 경계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긴장을 견디는 것은 한동안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양쪽 모두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담고 있어서, 결국에는 함께 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각 교회의 관습을 견딜 수 있다면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것을 참으십니다. 나쁜 것을 좋다고 하시지는 않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긴장 속에서, 각자 책임질 수 있는 만큼 서로 양보하는 중간 길을 합의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주제에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갈라섬은 대개 나뉩니다. 그러나 타협도 그럴 수 있습니다.

14.7 여자들이 일어나야 한다

삶에는 자기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 대신 그것을 해 줄 수 없습니다. 여자들은 일어나 자기 길을 깨닫고, 잘못 이해된 복종에서 걸어 나와야 합니다. 주류 교단들에는 깨어나서, 성별 문제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운동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저는 호세아 8:7을 들어 말합니다. **바람을 심는 자는 광풍을 거두리라.**

Nice girls don't change the world - 참된 말입니다(착한 소녀들은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이 주제는 너무나 굳어져 건드릴 수 없는 진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맞서 일어서려면 확성기가 필요할 만도 합니다. 구원과 관련 있다고 여겨지는 다른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지 않습니까?

다른 선택은 모든 것이 그대로 남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큰 날에 그분의 영광과 밝음과 진리 앞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두 성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자기들의 깨달음으로, 여자들은 이른바 성경적이라는 이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큰 기회는 영원히 놓쳐 버리고 사라질 것입니다.

남자도 여자도 지금 비겁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 나서는 데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교회사에서 거듭 많은 용감한 그리스도인 여성과 남성이 일어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기독교의 모든 운동과 흐름은 - 우리는 그 가운데 어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 용감하고 기도하는 여자와 남자들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14.8 장차와 지금

영원 속에서는 이 주제가 우리를 더 이상 따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도, 비난이나 혐의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그 진술을 두고 다툼 신약도 없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저 형제와 자매처럼 될 것이며, 위계와 일방적인 복종은 지나간 일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타락한 세상과 어지럽혀진 창조 질서에서 나온 과거가 될 것입니다. 아예 성별이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갈 3:28). 바울은 그렇게까지 철저하게 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를 본받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이미 이 새 창조의 자유와 능력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높임을 받으신 메시아 안에서 이 새 창조가 되었습니다!

15 참고 문헌

Anstey, Stanley Bruce, 2020, Die Rolle der Schwestern in der Gemeinde, www.soundwords.de

Andreas J. Köstenberger,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Ascertaining Women's God-Ordained Roles: An Interpretation of 1 Timothy 2:15

Bauer, Wörterbuch zum Neuen Testament

Baum, Armin, Die Bibel und ihre schwierigen Stellen

Beale, Gregory K., 2011, Der Tempel aller Zeiten, Die Wohnung Gottes und der Auftrag der Gemeinde, Oerlinghausen

Bielefeld, Frauke, 2007, Die Sache mit der Rippe, Die himmlische Idee von den Geschlechtern, Asslar

Bird, Michael F., Bourgeois Babes, Bossy Wives, and Bobby Haircuts: A Case for Gender Equality in Ministry (Fresh Perspectives on Women in Ministry) 2012, Grand Rapids, Mi

Carolyn Osiek; Margaret Y. MacDonald; Janet H. Tulloch. A Woman's Place: House Churches in Earliest Christianity

Clouse, Bonnidell a. Robert, 1989, Women in Ministry, Downers Grove

Cunningham, Loren; Hamilton, Joel David, 2014, Warum nicht! Frauen in christlich-kirchlichen Führungspositionen, Altensteig

Dale, Felicity, 2014, The Black Swan Effect, A response to gender hierarchy in the church

Dangendorf, Daniel, 2010, Junia, die erste Apostelin? Eine exegetische Studie, MBS Texte

Bode van het heil in Christus 140 (1997) Frage & Antwort: "Was dürfen Frauen?"

- Gooding, David, Symbole und Zeichen von Autorität und Herrlichkeit
- Hardmeier, Roland, 2013, Himmelstöchter! Warum die Stärke der Frau in der Bibel gebraucht wird. Und warum das biblisch ist. Basel
- Hempelmann, Heinzpeter, 1997, Gottes Ordnungen zum Leben, Lahr
- Hohage, Jäger, Pletsch, Ziegeler, 2010, Frau sein, Mann sein in der Gemeinde, Dillenburg
- Junker, Reinhard, Genesis 1 und 2: Zwei sich ergänzende Schilderungen vom Anfang, Wort und Wissen Diskussionsbeitrag 1/91
- Hausoul, Raymond, Mannen en Vrouwen in Gods schepping
- Keener, Craig S., Was Paul For or Against Women in Ministry?
- Kiermeier, Gerhild, 1993, Den Frauen aber sage ich, Marburg
- Kubisch, Ron, Gottebenbildlichkeit und Sünde
- Kuen, Alfred, 1998, Die Frau in der Gemeinde, Wuppertal
- Lapide, Pinchas, 2004, Ist die Bibel richtig übersetzt? Gütersloh
- Lapide, Pinchas, 1995, War Eva an allem schuld?
- Liebi, Roger, Genesis 2: Die Schöpfung des Menschen
- Linder, Irmgard, 1995, Ich will aber, dass ihr wisst, Dillenburg
- Logos Bibel Programm (Logos 성경 프로그램)
- Nunn, Philip, 2018, Sollten Schwestern schweigen, Hünfeld
- Ortberg, John, 2006, Die Frau schweige, Holzgerlingen
- Peppiatt, Lucy, 2020, Rediscovering Scripture's Vision for Women: Fresh Perspectives on Disputed Texts, IVP Academic, Downers Grove, Illinois
- Peppiatt, Lucy, 2015, Women and Worship at Corinth: Paul's Rhetorical Arguments in 1 Corinthians, Eugene, Oregon
- Peters, Benedikt, Das Weissagen der Frau

Pierce & Groothuis, 2005, Discovering Biblical Equality, IVP Academic, Downers Grove, Illinois

Piper, John and Wayne Grudem, 1991, Recovering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Crossway Books, Wheaton, Illinois; 독일어판: Zweimalig einmalig – eine biblische Studie, 2008, Friedberg

Ruthven, Jon Ph.D., Women and Ministry: Does Scripture Contradict Itself?

Schirmacher, Thomas, 2002년판, Paulus im Kampf gegen den Schleier, Eine alternative Auslegung von 1. Korinther 11,2-16, Nürnberg

Schmalenbach, H., 2007, Frausein zur Ehre Gottes: ... im Kontext verschiedener Kulturen

Schmidt, Veronika, 2019, Endlich gleich, Holzgerlingen

Smith, Kern, 2000, OHNE UNTERSCHIED, Frauen und Männer im Dienst für Gott, Brunnen Verlag, Gießen

Stadelmann, Helge, Die Frau als Pastorin – Ja oder Nein?, 그리고 Die Frauenordination – Ein Testfall für Bibeltreue?

Steinmeister, Andreas, 2013, Wann immer ihr zusammenkommt, Daniel, Lychen

Steinmeister, Andreas, 1991, UNBEQUEM, Gottes Plan für Mann und Frau, CSV Hückeswagen

Spencer, Aída Besançon, 1985, Beyond the Curse: Women Called to Ministry,

Späth, Thomas / Beate Wagner, (편), 2006, Frauenwelten in der Antike, Geschlechterordnung und weibliche Lebenspraxis, Stuttgart

Strauch, Alexander, 2001, Die Revolution der Geschlechter, Bielefeld

Trenkel, Michael, 2017, Dürfen Frauen in der Gemeinde lehren? Kurzauslegung zu 1Tim 2,11-15

Ulm, Christoph, Die Rolle von Mann und Frau

Walton, J. H., 2001, Genesis, The NIV Application Commentary, Zondervan, Grand Rapids, MI

- Weber, Karl-Heinz, 2007, Mann und Frau nach Gottes Plan, Neustadt
- Welt und Umwelt der Bibel, 4/2025, Wer waren die ersten Christinnen
- White, Joel R., Ehefrauen in den paulinischen Gemeinden
- Wilson, Bunny, 1992, Ich? Mich unterordnen?, Bielefeld
- Wunderli, Armin, 2020, “ihm gegenüber”: Geschlechter-Gleichberechtigung in der Kirche und was die Bibel dazu (nicht) sagt KSH.Digital
- Zens, Jon, 2010, What’s with Paul and Women? Unlocking the cultural background to 1 Timothy 2, Lincoln, Nebraska

16 저자의 책들

Und die Toten leben doch (그래도 죽은 자들은 살아 있다), 1992

Seitenwechsel, Von Adam zu Christus (편을 바꾸다 – 아담에서 그리스도로), 2011

Entrückung, Himmel, Ewigkeit, Ein neuer Blick auf alte Themen (휴거, 하늘, 영원 – 오래된 주제를 새롭게 보기), 2015

Gottes Lamm, Golgota und die Ewigkeit (하나님의 어린양 – 골고다와 영원), 2015

Fantastische Himmelwelt, Lehre und Leben der Himmelwelt im Epheserbrief (환상적인 하늘 세계 – 에베소서에서 나타난 하늘 세계의 가르침과 삶), 2016

Gott spricht, Eine erklärende Übertragung der allgemeinen Briefe und der Offenbarung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 공동 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풀어 읽긴 번역), 2017

Epheser,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2018

Gods good Gospel, Gottes gutes Evangelium (하나님의 좋은 복음), 2019

Markus,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마가복음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2019

Galater,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2020

Die Briefe des Johannes, nacherzählt, erklärt für heute (요한 서신 – 다시 이야기하고, 풀어 설명하고, 오늘을 위하여), 2020

Frauen, vergebt uns! Kurzversion (여성들이여,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약판), 2022

Ein König voller Pracht – Die gute Botschaft von Jesus, dem Messias (영광이 가득한 왕 – 메시아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 2022

17 추천 도서



서점에서 또는 발행인 크리스티안 베제(Christian Beese)에게서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독일어판): christian@rvbeese.de

캐서린 C. 부시넬(Katharine C. Bushnell, 1855-1946)은 용기 있고 재능 있는 하나님의 종이였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는 구절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의사, 선교사, 십자가의 사신, 개혁가, 저술가이자 연설가였으며, 일곱 언어를 구사하고 고대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뛰어난 독창적인 학자였습니다. 부시넬은 더 중요하다고 여긴 일을 하기 위해 의학을 떠났습니다. 곧 19세기 여성 운동의 기독교 여성 금주 연합(Women’s Christian Temperance Union, WCTU)

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맡아,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 조건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여자들의 성경적 위치는 부시넬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녀는 오역이 여자들의 사회적, 영적 예속에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896년 그녀는 WCTU를 떠나, 남은 생애를 글을 쓰고 여자들의 완전한 평등이라는 하나님의 처음부터 변함없는 뜻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일에 바쳤습니다.

캐서린 부시넬의 God's Word to Women은 여자들에 관한 모든 성경 구절을 꼼꼼히 살핀 획기적인 연구입니다. 제시 펜루이스(Jessie Penn-Lewis)는 이 자료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경을 열어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이 책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이 되고 성령이 그들 마음에 두신 일을 할 자유를 준 책입니다.

중국에서 의료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 부시넬은 중국어 성경이 여성의 섬김에 대한 문화적 편견을 강화하도록 잘못 번역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남성의 편견이 영어 번역에도 영향을 주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공부를 더 깊이 했습니다. 나중에 WCTU를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는 동안, 그녀는 기차와 배와 숙소에서 보내는 시간을 이용해 성경 번역들을 원어의 문구와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경험과 연구를 통해 캐서린 부시넬이 God's Word to Women을 쓰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1908년 통신 강좌로 시작된 이 책은 처음에 부시넬이 자비로 출판했습니다. 초기의 긍정적인 반응에도 불구하고 책은 곧 다시 사라졌고, 부시넬은 자기 삶이 별 영향을 남기지 못했다고 믿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잘 아셨습니다! 이 책은 다시 발견되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알아보는 이들에 의해 계속 출판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책은 마침내 성경적 남녀 평등을 위해 맨 앞에서 일하는 이들을 위한 기초 문헌으로 마땅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나마리아 슈말렌바흐(HANNA-MARIA SCHMALENBACH)

Frausein zur Ehre Gottes

In jeder Kultur anders? (문화마다 다른가?)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남자됨과 여자됨을 정의하고 두 성의 관계를 모든 문화에서 시대를 초월하여 규정하는 창조 질서도 함께 주셨을까요? 사람의 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화적 영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의 구원을 통해 두 성의 관계에서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과 비슷한 질문들을 두고 오늘날까지 씨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여자의 위치와 활동 범위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자됨 – 그것은 많은 여자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할까요? 문화마다 다른 것을 뜻할까요?

한나마리아 슈말렌바흐는 구원 역사의 맥락에서, 그리고 당시 문화들을 배경으로 성경의 여성상을 그려 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대의 여러 문화 속에서 여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꾸려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놀라운 깨달음과 길잡이가 나옵니다.

“... 우리 교회들에 길잡이가 될 수도 있지만,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하이케 호인(Heike Heun), Idea Spezial 7/2021 Buchjournal에서

“교회 안 여성의 역할에 관해 단연 최고의 책 ...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논의, 논리적인 구성, 문화에 대한 고려, 실천과의 연결이 이 책의 강점 가운데 몇 가지이다. 교회 안에서 내 역할에 관해서는 이 책을 통해 처음으로 정말 평안을 얻었다.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주제에 대한 귀하고 설득력 있는 기여로서, 우리 교회의 남자와 여자가 꼭 읽어야 할 책이다!”

마리아네 뮐러(Marianne Müller), 자신의 블로그 strickleserl에서

“지금까지 알게 된 ‘여성 문제’에 관한 연구 가운데 단연 가장 좋고 가장 설득력 있는 연구!”

한 여성 독자의 서평

“... ‘여성 문제’에 관한 가장 지혜로운 책 가운데 하나로, 여자로서 우리의 역할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도울 수 있다.”

모니카 쿠슈미르츠(Monika Kuszmierz), 잡지 Joyce에서

“교회 안 여성의 섬김에 관한 어떤 연구도 의학적, 상호 문화적, 역사적, 성경적 관점의 통찰을 슈말렌바흐 박사의 연구만큼 잘 아우르지 못한다. 이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성의 섬김에 대한 자기 입장을 새롭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 서술을 지나쳐서는 안 된다.”

헬무트 에겔크라우트 박사(Dr. Helmuth Egelkraut, 1938–2018)

Neufeld Verlag (독일어판)

Sauerbruchstraße 16

27478 Cuxhaven

전화: 04723 5057260

메일: info@neufeld-verlag.de

새로운 본문으로 된 80쪽 분량의 이 책 요약판은 저자에게서 3.80유로에 구할 수 있으며 (www.hans-joerg-ronsdorf.de), Amazon에서 Kindle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독일어판).



Die Gleichstellung von Mann und Frau(남자와 여자의 평등)는 신학자이자 언어학자인 필립 B. 페인(Philip B. Payne)의 짧지만 철저한 연구입니다. 그는 관련된 모든 성경 본문을 통해 남자와 여자가 결혼과 교회와 사회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56쪽, 2023년 7월, 서점에서 또는 (독일어) 번역자에게서 구할 수 있습니다: hj-ronsdorf@t-online.de, Amazon에서 Kindle 전자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독일어판).

